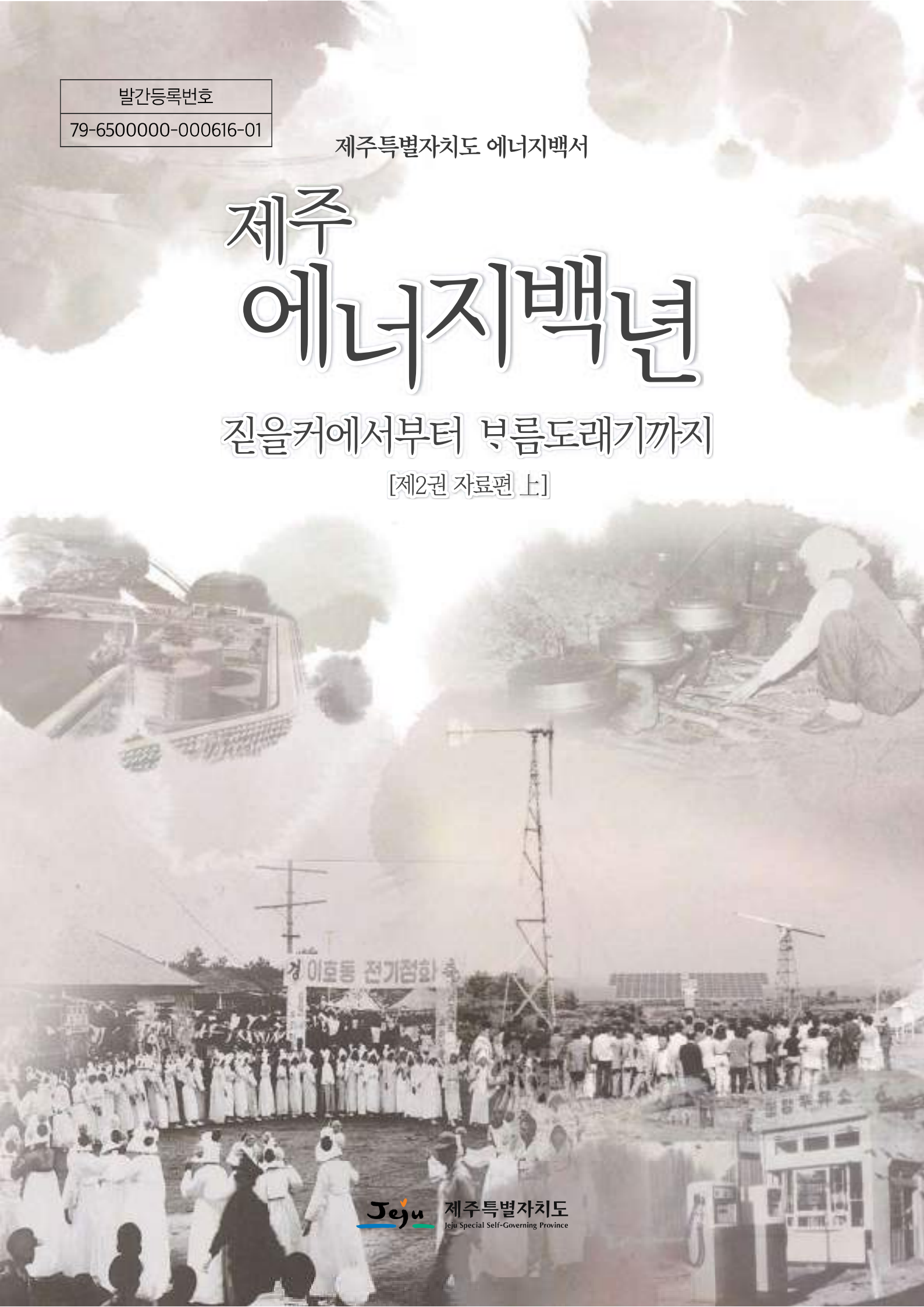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79-6500000-000616-01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백서

제주 에너지백년

짚을커에서부터 부름도래기까지

[제2권 자료편 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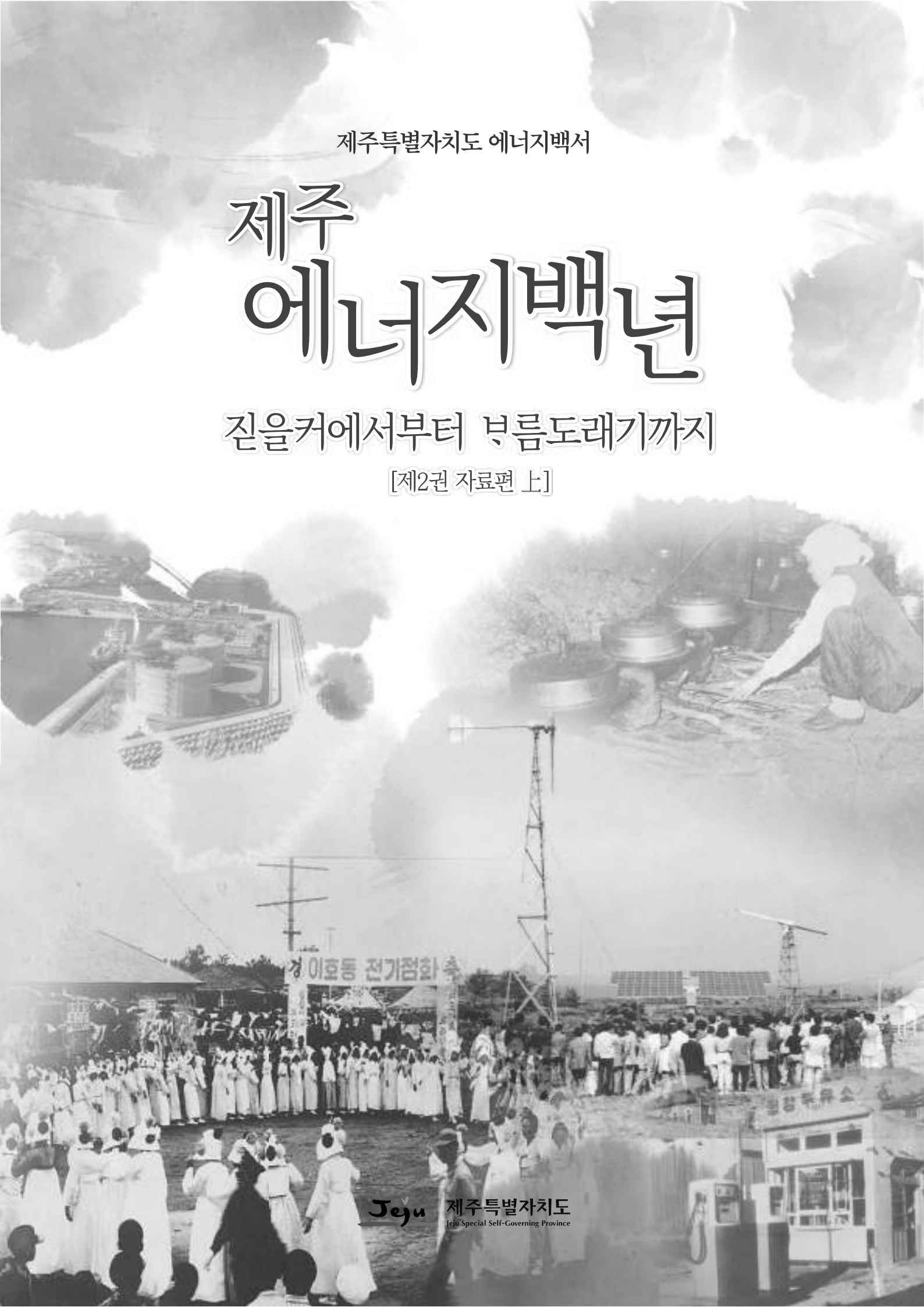
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백서

제주 에너지백년

짇을커에서부터 ᄇᆞ름도래기까지

[제2권 자료편 上]



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자료편 일러두기

o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백서 '자료편(이하 자료편)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에너지공사에 대행사업으로 의뢰한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백서 제작사업'의 별책부록이다.

o 본'자료편'의 발간을 위해 제주에너지공사는 2019년 8월부터 12월까지 연구보조원 1인을 채용하여, 제주대학교중앙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사료관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도내· 외 헌책방을 방문하여 에너지 및 제주 관련 자료들을 구입하였다.

o 그간 수집한 내용들이 방대하여 본 '자료편'에는 일제 강점기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약 100년간의 제주지역 언론기사 중 에너지 관련 보도를 종합하였다.

o 신문 보도 기사의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신문을 일일이 살펴보면서 에너지 관련 기사 및 광고 등을 찾아야 했지만, 시간과 인력의 한계로 인해 2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1997년 제주도가 제주도제 실시 50주년을 기념하여 발간한『제주실록: 1945-1996』은 제주도의 주요한 사건들을 관련 문헌 및 언론보도 등에서 발췌하여 일지별로 정리한 책이다. 부록으로 '색인편'도 함께 발간되었는데, 여기에서 에너지 관련 주제어(풍력, 태양광, 에너지, 석탄, 석유, 가스 등)를 찾아 해당 내용이 실린 원 출처를 확인한 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향토자료실에 비치된 신문기사 모음에서 관련 기사에 대한 사진을 찍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신문 기사의 내용을 타이핑하면서, 원문 기사의 사진도 함께 싣도록 하였다.

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향토자료실에는 1960년대 이후의 신문들만 비치되어 있어 그 이전의 관련 자료들은 제주학연구센터, 제주4· 3연구소에서 발간한 자료의 도움을 받았다.

2016년부터 제주학연구센터는『일제하 신문 제주기사 자료집』를 발간해오고 있으며, 이중 동아일보, 조선일보 , 조선중앙일보, 중외일보, 부산일보, 매일신문의 자료를 확인하고 에너지 관련 기사를 뽑아내어 본 '자료편'에 게재하였다.

1991년 제주4· 3연구소는 1947년 1월~1948년 4월 발간된 '제주신보'를 발굴하여 영인본으로 발간하였는데, 이 중에서 에너지 관련 기사를 확인하고 본 자료편에 게재하였다.

한편 2004년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사는『제주도 전력사』를 발간하였는데, 이 책 부록에는 1947년 1월 4일부터 1948년 2월 22일, 1953년 1월 23일부터 1970년 12월 24일까지의 기사를 발췌하여 실었다. 당시 대표집필자이면서, 이번 에너지백서에도 집필위원으로 참여한 고경수 님으로부터 9권으로 편철한 913쪽에 달하는 당시 신문기사 스크랩 자료를 전달받아, 원문을 스캔한 후 해당 기사의 하단에 배치하였다.

o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백서는 우리 도에서 처음으로 제작되는 에너지백서라는 의미가 있으므로, 그간 제주도 에너지 개발과 사용의 역사에 초점을 두었으며,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본 백서의 자료편에는 지난 100년간의 관련 언론 기사들을 원문 사진과 함께 읽기 편하도록 현재의 표현으로 고쳐서 게재하였다.

o 본 자료편에 실린 기사들은 총 976건이며, 내용별로 분류해보면 전력 632건, 석유 134건, 석탄 121건, 가스 30건, 주정공장 25건, 에너지절약 24건, 기타 10건 등으로, 2004년 발간한 「제주도 전력사」의 부록에 실린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하였기에 대다수가 전력에 대한 내용이다.
전력에 대한 기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발전소/전원개발 163건, 농어촌전화사업 151건, 송배전 113건, 전기일반 105건, 한전 50건, 수력 23건, 풍력 19건, 태양광 14건, 도전 16건, 원자력 5건이다(중복 27건 포함).

o 지난 20세기 제주도 전반기는 일제강점기 였으며, 후반기는 경제개발의 시대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에너지 관련 기사들을 그와 연관되어 전원개발과 농어촌 전화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되었으며, 1970년대 전 세계적 석유위기 속에서 대체에너지로 부상한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사도 찾아볼 수 있다. 아무쪼록 제주 에너지 역사에 관심있는 도민들과 연구자들에게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o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백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으로 제작되었다.

Contents 제2권 자료편 (상)

목 차

Ⅰ. 일제 강점기 신문기사(1916~1941)

동아일보 1

조선일보 13

조선중앙일보 18

중외일보 23

부산일보 29

매일신보 35

Ⅱ. 해방이후 신문기사(1947~1997)

제주신문 51

동아일보

제목	발행일	페이지
제주도에 무전국	1924. 4. 21.	1
풍광이 명미 남국의 정서, 조선의 제일도[전이회] 산업계//교육계//종교계//사회단체// 명승고적(제주일기자)	1926. 10. 27.	2
십년일람 현저히 발달된 찬연한 지방문화, 교육기관 경제단체 사회단체등 각군별의 상세조사내용 (십삼) 제주도, 교육기관 경제단체사회단체	1929. 1. 15.	5
수홍환침몰 : 제주도 부근서	1933. 6. 1.	9
석유를 만재한 발동선에 발화 배를 침몰시켜 간신히 진화손해는 만오천여원, 산지항에(제주)	1934. 2. 19.	10
목포근해 충돌사건 동화유무가 문제화, 양방의 주장이 너무 상치돼, 경성제주인회까지 궐기(인천)	1936. 4. 25.	11
제주도의 전력 남선합동진출	1938. 12. 15.	12

조선일보

제목	발행일	페이지
제주, 울릉 양도에 경비용 무전 설치	1934. 8. 29.	13
제주도 개발 전주곡 대수력발전소 계획	1937. 2. 15.	14
제주도 개발의 재검토론 대두	1937. 7. 11.	15
제주도 무수주정 전력은 남전공급	1938. 12. 10.	17

Contents 제2권 자료편 (상)

조선중앙일보

제목	발행일	페이지
기선에 적재한 석유 천통이 폭발, 제주 산지항에 화광이 충천, 손해가 2만여원	1934. 2. 7.	18
다대포 근해에서 화물선과 기선충돌,선원 1명 소사, 제주환은 소침,가해선은 부산으로 도주	1934. 4. 17.	19
과실이냐 고의냐, 칠복환 격침 이면에 중대 의운이 잠재, 등화로 위험신호도 했다고, 경찰취조로 문제화	1936. 4. 25.	20
제주도 시가지는 반이상이나 침수, 각지 교통도 두절	1936. 9. 1.	22

중외일보

제목	발행일	페이지
호황을 계속하는 조선내 전기회사, 주요회사는 1할 2분배	1928. 3. 17.	23
제주도 윤활철도계획과 공사비 융통문제	1928. 5. 16.	25
전기요금 개정과 전선적 요금 인하 현상 유지는 특수회사뿐	1928. 6. 17.	26
김춘재씨 특지	1929. 4. 29.	28

부산일보

제목	발행일	페이지
제주도의 수산업(6)	1916. 7. 29.	29
대흥전기 제주도와 안동에 발전	1925. 3. 19.	31
서귀포 수전 유망	1926. 7. 24.	32
제주도에서 위험한 자동차와 자전거	1928. 5. 13.	34

부산일보

제목	발행일	페이지
대규모의 제주주소회사	1928. 5. 19.	35
제주도 척식에 매진하는 순환궤도회사의 사명	1928. 12. 7.	36
제주의 큰 화재, 자동차 3대 전소	1928. 12. 23.	37
무수주정 생산 10월까지는 불가능	1938. 3. 12.	38
제주도에서 무수주정 제조 : 채산난으로 행하기 어렵다	1934. 2. 9.	39
감자를 원료로 하는 무수 알코올 : 전남 제주도에 제조공장 신설	1938. 10. 21.	40
제주도의 용수 전면적 조사	1938. 11. 13.	41
제주도의 고구마 훌륭한 풍작	1938. 11. 28.	42
제주도의 개발 본격적으로 궤도에 : 무수주정 공장도 곧 실현 제주항의 개수	1939. 4. 2.	43
내일부터 해상의 발이 뚝 끊기다 : 기름이 끊어진 목포-제주도 항로, 부산으로 날아든 비명 전보	1940. 2. 25.	44
휴우 하고 한숨을 쉬다, 목숨을 잇는 기름이 1백톤, 움직이기 시작한 목포-제주도 항로	1940. 2. 27.	46
제주도에 동척 경영 무수 주정 공장 : 1백여만원을 투입하여 공사 착수, 완성은 내년 여름 7월경	1940. 4. 15.	47
목포-제주 항로 중유배급이 차츰 일발로 복구	1940. 4. 18.	48
제주 주정공장의 기술원 양성 : 내지에서 강습	1940. 4. 23.	49
제주도의 고구마 풍작 예상	1941 5. 17.	50

Contents 제2권 자료편 (상)

매일신보

제목	발행일	페이지
로국기선장의 후의 제주도 앞바다에서 세 조선인을 구했다	1919. 12. 1.	51
제주전등발기총회, 갑자의숙개교기념	1925. 1. 22.	52
제주전기회사 창립총회 자본금 십만원	1925. 3. 22.	53
제주도는 일신면목 만사사업의 장족발전과 전전도사의 노력	1925. 12. 19.	54
제주시 불야성화 전등점화개시로	1926. 3. 3.	56
제주읍회 개최 전부원안 가결	1934. 4. 4.	57
제주도개발내용	1937. 2. 14.	58
제주도에 주정공장 신설키로 결정	1938. 1. 13.	61
거액의 국고보조 바더 제주항 대대적 수충 무수주정공장 설치를 앞두고 이년계획으로 착수	1938. 3. 12.	62
천지연폭포를 이용 목화 발전을 계획 제주 서귀포 발전 기대	1938. 8. 14.	63
제주도무수주정	1939. 6. 7.	65

제주신문

제목	발행일	페이지
갈망 튼 주간송전 근근 실현?	1947. 1. 4.	66
17일을 기하야 심야송전 실현	1947. 1. 16.	67
불야성 실현책	1947. 1. 18.	68
수력발전공사 근근 착수예정	1947. 1. 18.	69
요금 인상 안흔다	1947. 1. 18.	70
최대노력불석	1947. 1. 18.	71

제목	발행일	페이지
도전하면 송전거절	1947. 1. 22.	72
제2회 경제대책 협의회 부정식량 배급소에 철퇴 전기는 금후 야간만 송전키로	1947. 2. 20.	73
수력발전공사 불원 착수	1947. 3. 30.	74
전기문제 불원해결	1947. 6. 22.	75
남전발전기 고장, 금월내 송전 가망	1947. 7. 14.	76
시내송전 8월 중순 개시	1947. 7. 28.	77
전기문제 중심으로 28일 도 주최 좌담회	1947. 7. 28.	78
한림서도 배전	1947. 7. 28.	79
전기문제 해결은 도민의 협조에 전기문제 좌담회	1947. 7. 30.	80
대망의 원동기 8일 목포서 주정공사에 입하	1947. 10. 14.	81
석탄두절로 발전불능 약 2주일간 남전서 격일 송전	1947. 11. 6.	83
본도도 암흑세계 일보전 27일부터 또 격일송전	1947. 12. 24.	84
전기문제 해결, 24일경부터 매일	1948. 1. 22.	85
매월 송전에 애로상존 금월내는 기대난	1948. 2. 6.	86
전기문제 수 해결 내 27일부터 매야	1948. 2. 22.	87
도남전 거의가 지도층 10일간 적발 196건	1953. 1. 23.	88
발전기 아직도 촉진 중 최지사 지사회의 후 귀임 담	1953. 1. 28.	89
송전시간 단축, 시내 일반선	1953. 1. 28.	90
주공에 송전 감사장 9회 읍의 29일 폐막	1953. 1. 31.	91
이대로 가면 단전 도, 도전자에 거듭 경고	1953. 2. 20.	92
발전기 6, 7월경에 미 8군 당국 이미 운크라 측에 위양	1953. 3. 22.	93
발전기는 4대로 또 확인 길국장 귀임 담	1953. 4. 16.	94

Contents 제2권 자료편 (상)

제목	발행일	페이지
본도 전력개발에 신계획	1953. 6. 2.	95
발전기 도입촉진	1953. 7. 17.	97
전주 600본 배당	1953. 8. 9.	98
서귀포 발전소도 송전 개시	1953. 9. 22.	100
전등 켜진다 일반선 밤 11시까지	1953. 9. 22.	101
발전기 조기 도입은 난망	1953. 12. 6.	102
주정공장 어제부터 휴업 운영자금 고갈 때문	1953. 12. 12.	103
금야부터 특선송전	1953. 12. 27.	104
6마력의 풍차 도 산업과에서 시험	1953. 12. 30.	105
발전시설용 전주 배정	1954. 1. 6.	106
본도 발전공사 입찰 구랍, 뉴욕시서 공고	1954. 1. 6.	107
발전시설용 전주 입하	1954. 1. 10.	108
특전송전도 위기	1954. 1. 10.	109
5개월 만에 검은연기	1954. 4. 30.	110
일반선 송전복구 1일부터 격일 4시간	1954. 4. 30.	111
발전기 8대 8월말까지는 도입	1954. 6. 24.	112
27일부터 일반송전 중지	1954. 6. 27.	113
발전시설 10월 착공	1954. 8. 3.	114
불어나는 특선송전(남전 비명)	1954. 8. 10.	115
명야부터 특수선도 스톱 남전 연료유 품절로	1954. 10. 24.	116
특선 당분간 송전	1954. 10. 26.	117
절전조치에 협조를 요망	1954. 10. 29.	118

제목	발행일	페이지
발전시설 지연 시 아직 미국서 제작 중	1954. 11. 13.	119
전력개발사업 호전	1954. 12. 2.	120
금야부터 일반선 송전	1954. 12. 27.	121
독자의 소리 가로등 복구를 바람	1954. 12. 29.	122
하루 6시간 송전	1954. 12. 29.	123
월말내 복구 시내 부정 전등	1955. 1. 8.	124
전기요금 배 인상 30왓트에 155환	1955. 1. 8.	125
수첩여록 전기 다시 꺼질까 걱정 난관 봉착한 주공	1955. 1. 14.	126
68건을 적발 부정전력 사용자	1955. 2. 3.	127
석탄 떨어져 정전	1955. 2. 3.	128
신임 CAC사령관 초도순시	1955. 2. 3.	129
발전기 3월내 도입	1955. 2. 4.	130
맞뵈기 송전도 전요금	1955. 2. 26.	131
다시 켜질 일반 전등	1955. 3. 3.	132
5주만에 켜진 전등	1955. 3. 11.	133
일반선 또다시 정전	1955. 3. 13.	134
발전시설을 답사	1955. 3. 14.	135
일반선 또 정전	1955. 4. 23.	136
독자의 소리 남전에 일언	1955. 4. 24.	137
요금을 독촉하더니	1955. 4. 24.	138
전력 이제 수요량을 충족!	1955. 6. 7.	139
발전기 7일 넘도록 체선	1955. 6. 14.	140

Contents 제2권 자료편 (상)

제목	발행일	페이지
오늘 저녁부터 일반선 송전	1955. 6. 14.	142
3척 올린 발전기	1955. 6. 17.	143
발전기 올리기 성공	1955. 6. 21.	144
발전기 양륙 완료	1955. 6. 22.	145
본도 발전시설 연내에 완공 가망	1955. 6. 27.	146
서귀면분 발전기 부산착	1955. 6. 27.	147
발전기 두 대 입하(서귀분)	1955. 7. 24.	148
전기개발사업 비로소 실현단계	1955. 7. 25.	149
덜어진 정전 걱정	1955. 8. 9.	151
질질 끈 발전기 시설사업	1955. 9. 11.	152
힘부처하는 남전 발전기	1955. 9. 13.	154
발전기 새달 착공(자금해결)	1955. 9. 25.	155
격일 송전에 직면	1955. 10. 5.	156
난항의 융자문제 겨우 해결	1955. 10. 5.	157
또 천연. . . 발전기 기공	1955. 10. 5.	158
발전기 시설 현지로	1955. 11. 11.	159
멀지않은 발전기 시설 착공	1955. 11. 12.	160
발전기업자 도 일주 출발	1955. 11. 13.	161
20일경엔 입찰	1955. 11. 15.	162
극도로 악화한 시내 전기사정	1955. 11. 27.	163
발전기 이제야 이룰 6년내의 소망	1955. 11. 27.	164
전력비상대위 상시등 대상 4할 감축	1955. 11. 27.	166

제목	발행일	페이지
전력사용 합리화 운동	1955. 11. 29.	167
도내 10대 뉴스 회고	1955. 12. 31.	168
특선단전, 발전기 고장	1956. 2. 3.	169
내 월말내 모두 준공 발전기 공사 순조 진척	1956. 2. 10.	170
발전기 공사 태반 진척	1956. 3. 20.	171
배전공사도 착수 새달말엔 집집에 전등	1956. 3. 25.	172
전기쓸 집 조사	1956. 4. 5.	173
21일 서귀것 시운전	1956. 4. 18.	174
일반선 송전 넉달만에	1956. 4. 28.	175
주공 조업을 재개 우선 긴급시설을 복구	1956. 4. 28.	176
도 발전기용 유류를 신청	1956. 5. 23.	177
배전 설로도 순조	1956. 5. 23.	178
집집에 새 발전기 불	1956. 6. 15.	179
사라진 정전 걱정	1956. 6. 20.	180
한미고관 30여명 내도 예정	1956. 7. 7.	181
배전선로도 완공	1956. 7. 8.	183
발전기사업 준공에 제하여	1956. 7. 10.	184
전력신청량 격증	1956. 9. 1.	186
전등켜진 한림읍	1956. 9. 14.	187
안 켜지는 가로등	1956. 9. 22.	188
환해진 밤거리	1956. 9. 26.	189
송전시간 연장방침	1956. 10. 7.	190

Contents 제2권 자료편 (상)

제목	발행일	페이지
달게 안쓰이는 전기	1956. 12. 13.	191
경찰 도전을 취체	1956. 12. 14.	193
체납병은 전등요금에도	1957. 3. 21.	194
수돗물 또다시 중단	1957. 6. 27.	195
계약체결을 절충	1957. 6. 29.	197
식어버린 조명등	1957. 6. 30.	198
독자의 소리 남전의 양식을 바람, 당월 전기료 안낸다고 전선 절단	1957. 7. 4.	199
해결 본 양수전력	1957. 7. 26.	200
곧잘 정전사태(시내전기)	1957. 8. 22.	201
송전시간 단축(연료결핍)	1957. 11. 14.	202
해소된 송전시간 단축	1957. 11. 27.	203
이달분 배로 증배	1957. 12. 3.	204
금야부터 전선 단전	1957. 12. 19.	205
임시 유류를 구득	1957. 12. 21.	206
각종 유류 500드람 입하	1957. 12. 24.	207
발전용 유 또 부족	1958. 3. 15.	208
수력발전을 건의	1958. 4. 15.	209
전선 단절도 단행	1958. 5. 23.	210
점숙하는 수력발전 현안	1958. 5. 31.	211
종일 송전을 진정.	1958. 7. 1.	212
도전 등 40건 적발	1958. 12. 25.	213

제목	발행일	페이지
(광고) 급 고	1959. 1. 17.	214
독자의 소리 단전사태는 왠 일, 남전의 무성의에 항의함	1959. 1. 17.	215
어승생악 수력발전의 꿈 와해	1959. 2. 25.	217
말 많은 구역 단전	1959. 2. 26.	218
도전때문 100kw나 오바	1959. 8. 12.	220
새로운 전력대책 필요	1959. 12. 2.	221
일반선에 단전제	1959. 12. 19.	223
시설을(전기) 동력화	1960. 1. 7.	224
남전 내사 진행 중	1960. 1. 20.	225
양부창씨 재임 남전 영업소장에	1960. 2. 11.	226
불문에 부치기로	1960. 2. 17.	227
안덕에도 전등불	1960. 3. 24.	228
전기해결책 건의	1960. 3. 24.	229
도회 전력대책을 건의	1960. 3. 26.	230
격증하는 수요, 모자란 전력	1960. 5. 29.	231
남전, 창고 턴 진범 체포	1960. 5. 29.	232
시 수도 오늘 아침부터 급수	1960. 8. 24.	233
전도가 단전상태	1960. 8. 24.	234
한림 송전은 1주일 후에나	1960. 8. 24.	235
남전피해 350만	1960. 8. 25.	236
10일간 격일 송전	1960. 9. 6.	237
전기사정 대위기에	1960. 9. 15.	238

Contents 제2권 자료편 (상)

제목	발행일	페이지
전력안정의 모색	1960. 9. 16.	240
허탕친 55억 요망	1960. 9. 28.	243
장총리 내도 촉구	1960. 11. 28.	244
송전 대폭 제한	1960. 12. 8.	245
송전제한 완화될 듯	1960. 12. 9.	246
급수시간 축소 격일 한시간씩	1960. 12. 11.	247
송전제한 약간 완화	1960. 12. 11.	248
전기사정 불일 호전	1961. 1. 8.	249
전기사정 내일부터 정상화	1961. 1. 13.	250
제한송전 대폭 완화	1961. 1. 15.	251
전력 근본대책 추진	1961. 3. 18.	252
1200kw 발전기 도입 추진	1961. 3. 21.	253
기자석	1961. 3. 21.	254
새 발전기 배당 난망	1961. 3. 31.	255
현재 발전기를 수리	1961. 4. 2.	256
발전기 보수는 가능	1961. 4. 5.	257
초속 18미 전도 휩쓰는 폭풍	1961. 4. 5.	258
사흘에 221건 적발	1961. 4. 16.	259
줄여진 정전시간	1961. 5. 14.	260
22일부터 도전 일제단속	1961. 5. 23.	261
전기회사 숙직실도 털어	1961. 9. 21.	262
절전, 저축을 숙의	1961. 11. 22.	263

제목	발행일	페이지
절간 16년만에 찾은 연고 주공	1961. 12. 21.	264
자력 개발 톱 뉴스	1961. 12. 22.	265
무전등 지대(7개 읍면)를 일소	1962. 1. 16.	267
아주 좋아진 전력사정	1962. 1. 17.	269
형광등으로 대체	1962. 1. 17.	270
발전기 4월에 도착	1962. 1. 19.	271
가로등 다 고친다	1962. 1. 24.	272
제주의 자원(전원개발)	1962. 3. 26.	273
부산배에서 체포	1962. 5. 14.	275
하수인 양을 검거	1962. 5. 16.	276
자가 발전기 이제 착공	1962. 7. 21.	277
상예에 수력전등	1962. 7. 23.	278
실현보게 될 디젤발전시설	1962. 8. 24.	279
지사와 협의된 듯 전원개발 투자계획 제일은 유상무 이도	1962. 11. 11.	280
부족전력 2500kw.	1963. 1. 17.	281
제징수금을 면제	1963. 3. 14.	282
기간산업 동력화의 새 계기	1963. 3. 30.	283
기자석	1963. 3. 30.	284
사람 잡을 번한 누전전주	1963. 4. 18.	285
밤 12시까지 송전	1963. 4. 24.	287
한전 본사서 현지답사	1963. 5. 3.	288
발전기 수리 순조	1963. 5. 24.	289

Contents 제2권 자료편 (상)

제목	발행일	페이지
변두리에도 전등	1963. 5. 25.	290
발전기 보수 끝나	1963. 6. 1.	291
김녕에 발전시설	1963. 6. 14.	292
한전발전소 오늘 준공식	1963. 6. 29.	293
호전될 도내 전기사정	1963. 6. 30.	294
변두리에 전력수급계획	1963. 7. 18.	295
모두 상시선으로 대체	1963. 7. 24.	297
터지고 만 연탄 난리	1963. 7. 28.	298
(기자석) 한전, 함구회견을 시사	1963. 7. 30.	300
배전선 일제 장체	1963. 8. 6.	301
일시정전 6~7일간	1963. 8. 6.	302
전류관리에 이상	1963. 8. 6.	303
한전 반 부담으로 500등 가설	1963. 9. 5.	305
외곽 무등가호 일소	1963. 11. 14.	306
신문사에 온 편지 무등가에 전기를. . . 약속 안 지키는 한전당국	1963. 12. 24.	307
전원개발 1차로 400kw	1964. 2. 9.	309
전력난 심각	1964. 2. 17.	310
가난한 포구에 휘황한 불 금능에 까스발전시설	1964. 3. 4.	311
기자석	1964. 3. 12.	313
비행장 일대에 곧 전기가설	1964. 3. 12.	314
전기가설비로 25만원 쾌척	1964. 4. 9.	315
전력 모자라 아우성	1964. 5. 17.	316

제목	발행일	페이지
캄캄한 변두리 택지	1964. 6. 20.	317
전기요금 받아 꿀꺽	1964. 6. 25.	318
교포들 애향열에 힘입어 도순에 전기 가설	1964. 7. 15.	319
올림픽 첫날에 정전조치	1964. 10. 13.	320
물부족은 발전에도 암영	1965. 2. 27.	321
전력손실 8만kw(월간)	1965. 3. 13.	322
전기, 수도 시설 우선	1965. 3. 17.	323
1천3백10kw 전원개발 5월 착공	1965. 3. 24.	324
개발에도 밑받침	1965. 3. 24.	325
전원 일원화 주춤	1965. 3. 31	326
닷그네에 전기불	1965. 5. 11.	327
격일 송전도 어려워	1965. 5. 16.	328
협재, 하효리 선정	1965. 5. 18.	329
차라리 자가발전	1965. 5. 25.	330
하청업자를 등쳐	1965. 6. 6.	331
번져가는 계약피해	1965. 6. 9.	332
서귀포 이틀 격일 송전	1965. 6. 26.	333
전원 일원화 계속 타도서 남게 될 발전기로	1965. 6. 26.	334
허공에 뜬 전도 전화	1965. 6. 26.	335
전원확장 계속 낙관	1965. 7. 3.	337
수요 전원 계속 확보 한전서 본도 전화 열의	1965. 7. 24.	338
8월부터 전면송전복귀	1965. 7. 30.	339

Contents 제2권 자료편 (상)

제목	발행일	페이지
30일 소매 물가 시세	1965. 7. 30.	340
김녕전화 공사중지	1965. 8. 5.	341
한전 일원화 폐기	1965. 8. 10.	343
밝아질 모슬포 항구	1965. 8. 16.	344
발전소 부지 또 난항	1965. 8. 27.	345
껑충오른 공사비	1965. 9. 2.	346
전원확장 10월 착공	1965. 9. 10.	347
원탄값 비싼게 암	1965. 9. 22.	348
올해 안 1000호에 전화	1965. 9. 23.	349
명년 8월이면 전기사정 완화	1965. 11. 6.	350
전기요금 25% 인상	1965. 11. 6.	351
발전기 2대 입하	1965. 11. 17.	353
늘어만 나는 도전	1965. 12. 3.	354
관광 서귀 전원사정 또 악화	1965. 12. 9.	355
전원개발 새 고비	1965. 12. 14.	356
전등. . . 깜빡깜빡	1965. 12. 22.	357
서귀 송전 3부제	1965. 12. 30.	358
오늘의 초점 적자속의 전원개발	1966. 1. 4.	359
고촉전구로 골치	1966. 1. 19.	361
신춘의 일선 한전영업소 발전과장 고중익씨	1966. 1. 21.	362
전원개발 주춤	1966. 2. 14.	364
공익과 사유의 대결	1966. 2. 17.	365

제목	발행일	페이지
낡은 발전기 웬말	1966. 2. 17.	367
한전부지 난항 거듭	1966. 2. 21.	368
올해 탄 걱정없다 정지사 수급전망 언급	1966. 2. 22.	369
제탄업자들 시외로 마구 팔아	1966. 2. 22.	370
토지수용 불가피	1966. 3. 11.	371
남문통 일대 송전사정 나빠	1966. 3. 22.	372
6월 안에 완공 예정	1966. 3. 30.	373
쓰러진 전선지주 지붕에 방치돼	1966. 4. 6.	374
성산 전화사업 7월 착공	1966. 4. 9.	375
한전부담 5백98만원 확정	1966. 4. 13.	376
전등 가설해 달라	1966. 4. 14.	377
5월부터 전력난 풀린다	1966. 4. 28.	378
농어촌전화 6개 대상지 선정	1966. 5. 7.	379
사계리에 전기시설	1966. 5. 12.	381
5백20KW 발전기 가동 시작	1966. 5. 18.	382
시내 제탄공장 폐문 원탄 고갈로 며칠 계속	1966. 5. 23.	383
시 연탄난 더 계속	1966. 5. 25.	384
원탄 4백톤 입하	1966. 6. 2.	385
탄난 풀리기 시작 3일 원탄 5백톤 들어와	1966. 6. 4.	386
연탄값 또 올라 공장도 12원씩 제멋대로	1966. 6. 7.	387
협재리에 전등불 켜	1966. 6. 7.	388
깜박이는 전등불	1966. 6. 29.	389

Contents 제2권 자료편 (상)

제목	발행일	페이지
20일 현재 저탄량 2천톤	1966. 7. 21.	390
석공직영저탄장 8월 1일부터 업무 시작	1966. 7. 21.	391
전등켜질 하례리	1966. 7. 26.	392
삼양~도두도 전화	1966. 8. 3.	393
고압전주 21본 도괴	1966. 8. 31.	394
원탄입하 연협서 4백30톤	1966. 9. 3.	395
쌀 연탄 기근 추궁 국회 대정부 질문 시작	1966. 9. 13.	396
농촌전화 7개 부락 추가	1966. 9. 17.	398
광역배전의 발돋움	1966. 9. 21.	399
석탄자원 30년 안에 바닥	1966. 9. 21.	400
아마인 수입제한 시내 연탄가 인하 조정돼야	1966. 9. 21.	401
국내서 제일 밝은 지역 이뤄	1966. 9. 22.	402
시 전화사업 주춤	1966. 10. 1.	403
전등켜진 하효	1966. 10. 15.	404
2차 5개년 계획 투자	1966. 10. 22.	405
하효 전화 점화식	1966. 10. 25.	406
캄캄한 도서관	1966. 10. 27.	407
정전으로 한때 소동	1966. 11. 8.	408
지방연탄가결정	1966. 11. 8.	409
위미 교포 일화 1천만원 모금	1966. 11. 9.	410
오조리 제외 재 착공	1966. 11. 18.	411
제주-성산, 제주-한림 잇는 화력발전소 건설	1966. 12. 2.	412

제목	발행일	페이지
약올리는 정전	1966. 12. 12.	413
석유1되에 40원	1967. 1. 7.	414
연탄기근 심각 서귀포 수요의 절반도 못 찍어내	1967. 1. 10.	415
석유 없어 불 끄는 집 늘어	1967. 1. 13.	416
사장. . . 서귀 상수도	1967. 1. 25.	417
점차 수은등 대체	1967. 2. 1.	418
교포 도움으로 활발 전화사업 위미 등 곧 완공	1967. 2. 6.	419
깜박이는 가로등 변두리 등엔 꺼진 채 장기 방치	1967. 2. 13.	420
전력은 남아도는데 송전선은 나빠	1967. 2. 14.	421
석탄 입하	1967. 2. 18.	422
위험! 낡은 배전선	1967. 2. 23.	423
지난 1월 2백여호에 첫 점등 온 마을이 감격 전화된 상, 하예리	1967. 2. 23.	425
탄수급에 차질 가져올 듯	1967. 2. 24.	427
저탄량 8백톤 뿐	1967. 2. 28.	428
바닥난 원탄 겨우 이틀분밖에 없어	1967. 3. 2.	429
전기공작물검사	1967. 3. 18.	430
전주 이설 안해 포장도 중단	1967. 3. 18.	431
저전압지대 일소	1967. 3. 23.	432
갑자기 고압 흘러	1967. 3. 28.	433
종합가공공장 전기공사에 말썽	1967. 3. 28.	434
(기자석) 한전 피해보상에 양론	1967. 3. 29.	435
보상대책 강구 않고 눈치만 살펴	1967. 3. 29.	436

Contents 제2권 자료편 (상)

제목	발행일	페이지
올해로서 7천여호에 점등	1967. 4. 6.	437
깜박깜박 6개월	1967. 4. 10.	438
잇따른 전선 도난	1967. 4. 10.	439
전화 사업에 차질	1967. 4. 10.	440
어승생 물 먼저 산간에 급수	1967. 5. 30.	441
이유없이 서류접수 기피	1967. 5. 31.	442
무면허가 전기 시설공사	1967. 6. 15.	443
교포들이 일화 80만원 상효 전화비용 보내와	1967. 6. 16.	444
단전 단수	1967. 6. 17.	445
예산 타령 속에 깜깜한 가로등	1967. 7. 1.	446
조천리 전화사업에도 1백만원 쾌척	1967. 7. 10.	447
1만kw 발전시설 한림설치 어려울 듯	1967. 7. 20.	448
명년엔 21개 부락	1967. 8. 2.	449
유류도 인상 휘발유5% 경유7%	1967. 8. 2.	450
본도 전화율 겨우 17% 전국평균보다 훨씬 낮아	1967. 8. 3.	451
하원리도 점등	1967. 8. 3.	452
전기료 12% 인상	1967. 8. 9.	453
(기자석) 한림 화전 실망	1967. 8. 28.	454
2백호에 전등 빤짝	1967. 9. 2.	455
화순도 전화	1967. 9. 2.	456
교포 도움. . . 위미도 전화	1967. 9. 4.	457
또 단전소동	1967. 10. 12.	459

제목	발행일	페이지
1천8백만원 재일 김녕 친목회원들이 보내	1967. 11. 15.	460
절전운동 등도 벌이기로	1967. 11. 17.	461
(기자석) 절전 운동 아닌 절전 소동	1967. 11. 22.	462
내 고향에 전깃불	1967. 12. 1.	463
강정리에 전깃불	1967. 12. 28.	464
시로의 발돋움 서귀포	1968. 1. 1.	465
교포 단성. . . 점화 동명, 명월에 전기	1968. 1. 18.	466
전화사업에 백만원 이호 출신 교포 1차로	1968. 1. 18.	467
나빠진 연탄 탄질	1968. 1. 19.	468
애월 등 9개 부락 북군 68년 전화사업	1968. 1. 24.	470
있으나마나 가로등	1968. 1. 25.	471
채용시험에 금품	1968. 1. 25.	473
신촌에도 전깃불	1968. 2. 16.	474
칠흑의 10분간	1968. 2. 23.	475
뺀치 강권 신고를	1968. 3. 8.	476
전화 22. 3%	1968. 3. 8.	477
깜박깜박 형광등	1968. 3. 22.	478
전기공사 계속	1968. 3. 25.	480
한전수금원 구속	1968. 3. 25.	481
고장잦은 발전기	1968. 4. 3.	482
자재도입 늦어 공사부진	1968. 4. 19.	483
내일부터 주간 단전	1968. 4. 25.	484

Contents 제2권 자료편 (상)

제목	발행일	페이지
단전 첫날 하마터면	1968. 4. 27.	486
한전화력발전사무소 발족	1968. 5. 3.	488
재일교포가 보내온 적립금 찾고 잠적	1968. 5. 6.	489
향리에 쏟는 단성	1968. 5. 7.	490
전기공사에 부정	1968. 5. 8.	492
회수리 전기 점화	1968. 5. 20.	493
조천에도 전기불	1968. 5. 21.	494
전기자금에 10만원 잠수들 미역딴 돈 모아	1968. 6. 10.	495
연탄값 또 인상 석공원탄 25% 오름에 따라	1968. 6. 11.	496
인구 4천만 GNP 5조5천억 수출목표 30억불 발전 천600만KW	1968. 6. 18.	497
마을전기가설비 혼자서 부담	1968. 6. 24.	499
전력 구걸하던 여아 퇴원	1968. 6. 24.	500
7월말 경 착공	1968. 7. 11.	501
도내 전력수요 급증	1968. 7. 11.	502
1억6천만원 공사 날림	1968. 7. 30.	504
정액등 종량화	1968. 7. 30.	505
발전소 부지 정리 강행	1968. 8. 19.	506
귀덕에도 곧 전기	1968. 10. 3.	507
공장도 18원 도당국 19공탄값 내정	1968. 10. 19.	508
연탄가 인상요인 제거하라	1968. 10. 22.	509
제탄공장 올스톱(날짜오류)	1968. 10. 22.	511
제탄공장정상화 오늘부터 가정도 19원 받아들여	1968. 10. 25.	512

제목	발행일	페이지
깜박깜박 전기	1968. 10. 29.	513
서귀포에 새 발전기 김상공장관에게 지시	1968. 11. 1.	514
연탄품질 조사	1968. 11. 1.	515
(기자석) 깜박 전기에도 고자세	1968. 11. 11.	516
대책없는 월동전력	1968. 11. 11.	517
(기자석) 교환양 임기응변이 볼만	1968. 11. 14.	518
68, 69년도 농어촌 전화사업 새달 초부터 착공.	1968. 11. 14.	519
또 단전소동	1968. 11. 14.	520
용흥 전화 착수	1968. 11. 14.	522
비 때문 정전 소동	1968. 12. 9.	523
대평리에 전기	1968. 12. 10.	524
다리와 학교 전기 밝혀	1968. 12. 11.	525
전화자금 1백만원	1968. 12. 17.	526
발전기 분해점검	1969. 1. 10.	527
내연력 발전기 증설	1969. 1. 13.	528
연기 멎은 주공 연돌(날짜오류)	1969. 1. 15.	529
총 투자규모 39억원	1969. 1. 15.	531
1만KW의 꿈 빨리 실현 전화사업 등 자신만만	1969. 1. 27.	532
휘발유 품귀 그 문제점	1969. 2. 1.	534
(기자석) 휘발유 품귀는 업자 책임	1969. 2. 6.	537
1백84만원 희사	1969. 2. 6.	538
연탄 개당 25원	1969. 2. 6.	539

Contents 제2권 자료편 (상)

제목	발행일	페이지
휘발유 1천드럼 입하	1969. 2. 6.	540
휘발유파동 삼화측 잘못	1969. 2. 6.	541
14일 점화식 삼양 등 전화 끝나	1969. 2. 7.	542
전기 가설비로 140만원	1969. 2. 19.	543
한전 부정 문제화	1969. 3. 13.	544
올해 전화사업도 소걸음	1969. 4. 1.	545
전화비로 백만원	1969. 4. 3.	546
낡은 전주 단전사태	1969. 4. 15.	547
남군 일대 15시간 정전	1969. 4. 15.	548
무료입장 거부하자 단전	1969. 4. 15.	549
악화된 전기사정	1969. 4. 15.	550
돌풍 오늘 새벽 순간최대 풍속	1969. 4. 21.	551
연이은 단전 소동(p546와 중복됨)	1969. 4. 22.	553
새달부터 전력사정 안정화	1969. 4. 25.	554
서귀포 등 일부 제한 송전	1969. 5. 2.	555
정전, 단수	1969. 5. 2.	556
발전용 경유 유용	1969. 5. 21.	557
(사설) 농어촌전화사업	1969. 7. 1.	558
농어촌 전화 좌절 위기	1969. 7. 1.	560
전화 공사 타도 업자와 계약	1969. 7. 3.	561
한림에 변전소 설치 9월 안 전력난 해소	1969. 7. 4.	562
화순 등도 전화	1969. 7. 30.	563

제목	발행일	페이지
공공요금 또 인상 전기 체신 담배값 등	1969. 8. 2.	564
(사설) 발전소와 인근주민	1969. 8. 14.	565
전화비 1백50만원 교포들이 귀덕리에 희사	1969. 8. 14.	567
전화 사업 등은 늑장	1969. 9. 10.	568
전화비 1백15만원 수산 출신 교포가 보내와	1969. 9. 17.	569
전화사업 내년 완공	1969. 9. 19.	570
중문리 점등	1969. 9. 26.	571
전화사업에 이용 교통부 VOR 전주 사용 허가	1969. 10. 4.	572
전기불 깜박깜박	1969. 10. 8.	573
탄값 안 올려	1969. 10. 15.	574
풍족해질 동력자원	1969. 10. 16.	575
소걸음 전화사업	1969. 10. 20.	576

Contents 제3권 자료편(하)

제목	발행일	페이지
성산포에 3백KW 발전기 이설 마쳐 월말께 가동	1969. 10. 25.	577
(광고) 프로판가스 염가판매	1969. 11. 5.	578
산업폐수, 발전에도 지장	1969. 11. 5.	579
교포 단성으로 전화 색달리 어제 기공식도 성대	1969. 11. 13.	580
금성 등도 착공 농어촌전화사업	1969. 11. 13.	581
전화위해 56만원	1969. 11. 14.	582
연탄전용지구 확대 조천 등 포함 도 원탄증배 요구.	1969. 11. 22.	583
원탄 수송 촉구	1969. 11. 22.	584
성산 전진기지 동력, 한전 전력으로 대체	1969. 12. 20.	585
제주도 70년대의 전망	1970. 1. 1.	586
제주화력 5천KW 발전기 가동 전력사정 활짝	1970. 1. 1.	587
한전소장 경질 후임엔 홍우표씨	1970. 1. 5.	589
전력개발에 열과 성 다할 터	1970. 1. 10.	590
창천리도 점화	1970. 1. 12.	591
한림 연탄기근	1970. 1. 12.	592
한전제주영업소 부소장 겸 화력발전소장 고중익씨 양질전기 공급에 최선	1970. 1. 12.	593
한전청사 이전	1970. 1. 21.	595
귀덕리도 점등	1970. 2. 10.	596
연탄값 기습인상	1970. 2. 19.	597
깜박이 전등	1970. 2. 20.	598
한전 자금에 차질	1970. 2. 20.	599

제목	발행일	페이지
어두운 밤거리 시내 고장 가로등 많아	1970. 2. 25.	600
규격줄여 제탄	1970. 3. 3.	601
애월에도 점등	1970. 3. 3.	602
수산리도 점등	1970. 3. 6.	603
내 고장 10년 애월면	1970. 3. 7.	604
비수요기에 저탄	1970. 3. 16.	605
유류값 평균 13% 인상	1970. 3. 17.	606
20일 준공식 만킬로 발전기	1970. 3. 19.	607
박대통령 내도	1970. 3. 20.	608
(기자석)	1970. 3. 21.	609
(사설) 지역개발과 자조정신.	1970. 3. 21.	610
본도전력개발에 일대전기 1만킬로 화력발전소 준공.	1970. 3. 21.	612
저전압지대 일소	1970. 3. 21.	613
제주도 전력개발	1970. 3. 21.	614
(사설) 전력공급과 관리에 혁신 있기를	1970. 3. 23.	618
교포의 단성 화순 출신 강씨 가로등 기증	1970. 3. 23.	620
전화사업에 차질	1970. 3. 25.	621
내 고장 10년 조천면	1970. 3. 28.	622
전기공사 등 보완	1970. 3. 28.	623
수요증가 추세따라 발전기 증설	1970. 4. 2.	624
지점승격식	1970. 4. 2.	626
3일 저녁 정전 2시간 30분	1970. 4. 4.	627

제목	발행일	페이지
6일엔 신흥	1970. 4. 8.	628
가로등 시설비	1970. 4. 8.	629
곽금지구도 전화	1970. 4. 8.	630
조명시설 없어 위험	1970. 4. 8.	631
귀덕리도 점등	1970. 4. 14.	632
전화 위해 1백20만원 세화 출신 교포들이 희사	1970. 4. 14.	633
향리 전화 위해 8백만원 김녕 출신 교포들이 보내	1970. 4. 21.	634
대림에도 점등	1970. 4. 22.	635
전화자금 위해 미역 공동 채취	1970. 4. 28.	636
내 고장 10년 제주시	1970. 6. 6.	637
동부는 풍년기근	1970. 6. 13.	638
(사설) 도내 동부지역의 전력문제는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	1970. 6. 15.	639
이호동도 전화	1970. 6. 22.	641
기본외 사채 강매	1970. 6. 26.	642
냉각수 없다고 예고없이 단전	1970. 6. 26.	643
공사비 지불에 늑장	1970. 6. 27.	644
전기공사에 늑장	1970. 7. 1.	645
월령 등 전화사업 이달부터 8개 지구	1970. 7. 15.	646
향리 전화기금 9백만원 부담	1970. 7. 15.	647
숨은 주춧돌 한전 발전소 보일러실	1970. 7. 18.	648
재일교포 등 도움으로 함덕에도 점화	1970. 8. 1.	650
전기 때문 늦는 일 없도록	1970. 8. 3.	651

제목	발행일	페이지
전원개발 재조정	1970. 8. 3.	652
제주시 저전압지대 이달 안 일소	1970. 8. 3.	653
메탄가스 사용성공	1970. 8. 6.	654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확인	1970. 8. 8.	655
향리 전화사업비로 성금 2백25만원 재일 고내 출신들이 보내와	1970. 8. 13.	657
교포 도움으로 연동에도 점화	1970. 8. 21.	658
제주시 가정배달 21원 탄파동, 보름만에 매듭	1970. 10. 5.	659
올해 전화사업 시작부터 차질	1970. 10. 9.	661
휘발유 등에 나쁜 기름 섞어	1970. 10. 16.	662
제일연탄 등 6개 회사 합쳐 대단위공장 발족	1970. 10. 19.	663
재심청구	1970. 10. 29.	664
애월 등은 연료난	1970. 10. 30.	665
보람없는 승압공사	1970. 11. 10.	666
연탄공장 통합 주춤	1970. 11. 17.	667
월령도 전화	1970. 11. 19.	669
프로판가스 폭발 12개 점포 불태워	1970. 11. 19.	670
가정도 25원 서귀포도 연탄값 들먹	1970. 11. 25.	672
목욕값 다시 들먹 연료의 유류대체 따라	1970. 11. 25.	673
우선 7개 업체로 통합	1970. 11. 25.	674
종합개발10개년계획 성안 투자규모 총 9백억선	1970. 11. 26.	676
여전한 깜박 전기	1970. 11. 28.	678
생필품 껑충	1970. 11. 30.	679

제목	발행일	페이지
연말 앞둬 물가 들먹	1970. 12. 1.	680
연료대체 않으면 허가 등 억제	1970. 12. 3.	681
융자내시된 7지구	1970. 12. 5.	682
새로운 저전압 형성	1970. 12. 9.	683
주공서 저탄장반환요구 원탄수급에 치질우려	1970. 12. 9.	684
어선출어에 지장 급유소 기름 바닥나	1970. 12. 14.	686
원탄 도전역에 공급	1970. 12. 14.	687
급증한 전력수요	1970. 12. 22.	688
동부지구에 송전선	1970. 12. 24.	689
하도에도 전기	1971. 2. 1.	690
회천동은 자력으로 전화	1971. 2. 11.	691
성산내 두 마을도 전화	1971. 2. 12.	692
향리 전화기금 50만원을 희사	1971. 2. 22.	693
계속되는 교포단성 향리전화 등에 거액 쾌척	1971. 3. 11.	694
점등. . . 통수. . . 결연	1971. 3. 18.	695
저탄장 부지 마련	1971. 3. 31.	697
오라동도 전화 13일 하오 점화식	1971. 4. 14.	698
오라동에 백만원 66호가 점등	1971. 4. 20.	699
봉성리도 점화	1971. 4. 24.	701
아라동 등도 전화	1971. 4. 24.	702
연탄열량충분 공연 감정결과	1971. 7. 13.	703
김평진씨 등 3명에 감사장	1971. 7. 14.	704

제목	발행일	페이지
제동걸린 전원보강	1971. 7. 31.	705
탄파동 우려	1971. 8. 12.	707
개당 1원씩 올려 연탄값 새로 협정때까지	1971. 8. 21.	708
전화비 10만원	1971. 8. 21.	709
잇딴 정전 동부지역 2시간동안 다섯번이나	1971. 9. 7.	710
향리 전화사업비 2백만원	1971. 9. 7.	711
연탄 성수기 대책 서둘러	1971. 9. 9.	712
향리전화에 힘써 하천 출신 교포 고씨 표창	1971. 9. 9.	713
전기 켜게 된 봉개	1971. 11. 26.	714
난산리에 전깃불	1972. 1. 7.	715
월동 탄파동 우려	1972. 2. 2.	716
전화비로 1백 50만원	1972. 4. 12.	717
비축탄은 석공서 맡기로 출장소 폐쇄 따른 대안	1972. 4. 19.	718
대흘리 전화비 두 교포가 내놔 1백60만원	1972. 5. 17.	719
올해 9개 부락 전화 상공부에 설계승인 요청	1972. 5. 18.	720
전화기금 백만원 교포 안씨 선흘리에 희사	1972. 5. 18.	722
관포 등 점화식	1972. 5. 20.	723
전화기금으로 8백만원	1972. 7. 12.	724
동귀리에 전기	1972. 9. 29.	725
전화기금 1백만원 교포 현씨 신흥리에	1972. 10. 28.	726
연내 새마을에 전기	1972. 11. 3.	727
연탄가스 조심토록	1972. 11. 3.	728

제목	발행일	페이지
주회선 마을 완전 전화	1972. 11. 3.	729
조수리 전화비 2백만원	1972. 11. 4.	730
해저보고가 눈앞에	1972. 11. 4.	732
신도도 전화 9일 점화식 성황	1972. 12. 11.	733
전화비로 백만원 조수 출신 김씨가 내놔	1973. 1. 19.	734
선흘리에 4백만원 교포 안씨 전화사업비 등으로	1973. 1. 30.	735
10년만에 점등	1973. 3. 31.	736
전화비 3백만원 재일친목회서 미수동에	1973. 4. 12.	737
전화비 10만원	1973. 4. 12.	738
향리 전화기금으로 5백만원	1973. 4. 30.	739
전화비 1백만원 하가 출신 교포들 향리에	1973. 8. 7.	740
전화비 15만원	1973. 8. 7.	741
행원서 점화식	1973. 9. 10.	742
전화비 252만원 무릉 출신 교포 9명이	1973. 9. 17.	743
석유류비축수수료 도민 부담안케	1973. 10. 2.	744
납읍 전기 점화식	1973. 10. 26.	746
구엄 등 세마을 전기점화식	1973. 10. 29.	747
버스 운행 대폭 제한 택시 화물차도 제한	1973. 11. 21.	748
석유 정제품 수입 추진	1973. 11. 21.	749
석유사정 풀릴 듯	1973. 11. 21.	750
에너지소비절약추진위 구성	1973. 11. 21.	751
일요일엔 주유소 휴업	1973. 11. 21.	752

제목	발행일	페이지
접객업소 영업시간도 단축	1973. 11. 21.	753
사실상 인상된 탄가	1973. 11. 23.	754
산업용 우선 배당	1973. 11. 23.	755
유류파동 절정에	1973. 11. 23.	756
경유 등 천6백드럼 배정	1973. 11. 26.	758
12부락에 전깃불	1973. 11. 29.	760
연료채취 호조	1973. 11. 29.	761
덜어질 연탄 걱정 오늘부터 하루 4백톤 내쳐	1973. 12. 1.	762
다같이 지켜야 할 에너지 절약	1973. 12. 1.	763
비싼 경유 사용	1973. 12. 12.	766
연탄난 심각	1973. 12. 12.	767
유류 천3백드럼 늘어	1973. 12. 12.	768
평균 42% 올려 어업용 기름값	1973. 12. 12.	769
46원인데도 품귀 추자도 연탄난 극심	1973. 12. 17.	770
4천 드럼 특배 건의	1973. 12. 17.	771
파동폭 축소에 최선	1973. 12. 17.	772
미서 원유 위탁정제 요청	1973. 12. 18.	774
48개소에 경고처분	1973. 12. 18.	776
발전용 바닥나 유류난의 추자	1973. 12. 18.	777
방앗간 거의 문 닫아	1973. 12. 18.	778
선일흥업 등에 제한송전	1973. 12. 18.	779
원유가 또 올릴 듯	1973. 12. 18.	780

Contents 제3권 자료편(하)

제목	발행일	페이지
시내 가로등 대폭 소등	1973. 12. 18.	781
전화비 428만원	1973. 12. 27.	782
경유 오늘부터 자유판매	1974. 1. 26.	783
중공원유 수입 일서 계약 체결	1974. 2. 2.	784
영업시간 위배한 14개 업소에 경고	1974. 2. 2.	785
원탄난 풀려 1일 6백여톤 입하	1974. 2. 2.	786
향리 전화비로 2백만원 쾌척 교포 문씨 영평교에 TV	1974. 5. 1.	787
새달부터 22공탄만 생산	1974. 5. 7.	788
새마을 성금 2천5백만원 전기 등 가설해달라	1974. 5. 13.	789
고향에 전기불 끌어 교포들 2백만원 들여	1974. 8. 2.	790
이중고, 전기 수도물 끊겨	1974. 8. 12.	791
전기 커진 비양도	1974. 8. 12.	793
81년까지 6만6천KW 발전	1974. 9. 11.	794
저전압가옥 천여동 이월	1974. 9. 11.	796
벌써 깜박등	1974. 9. 12.	797
소길리 등 전화	1974. 9. 12.	798
우도에 발전기 10년간 무상 대여	1974. 9. 12.	799
협동의 보람으로 광령리에도 점화	1974. 10. 24.	800
농어촌전화사업비 2천만원 추배	1974. 11. 13.	801
20개 마을 전화	1975. 2. 3.	802
77년부터 9백50만톤 석공 석탄증산계획 마련	1975. 2. 10.	804
30호 단위로 전화가능 풍차 발전 풍속 4, 5M면 출력	1975. 2. 10.	805

제목	발행일	페이지
제주도 풍력발전 연구하라	1975. 2. 18.	806
(사설) 풍력발전과 개발	1975. 2. 19.	807
석탄 전도적으로 공급 시도	1975. 2. 19.	809
탄공급에 큰 문제	1975. 2. 19.	810
석공대행점 존속될 전망	1975. 2. 24.	811
첫 풍력발전기 제동목장서 가동 시작	1975. 2. 28.	812
86년까지 20개소 설치 풍차발전 우선 새해엔 6개소	1975. 5. 1.	813
연탄 40원도 받아	1975. 5. 19.	814
보상이 골칫거리 조천 등의 2백V 대체	1975. 5. 29.	815
단일로 통합 신청	1975. 7. 12.	816
문제점많은 단일통합	1975. 7. 12.	817
에너지절약	1975. 11. 10.	818
한집한등끄기 실천하면 두 내연발전기 안 돌려도 돼	1975. 11. 10.	819
석유광업권 국가서 집행	1976. 1. 17.	820
제주도 포함 석유광업권 출원 쇄도	1976. 1. 17.	821
7광구 유징 밝은 전망	1976. 1. 19.	822
월동탄 1만5천톤 감축	1976. 1. 19.	824
하도리해안에 석유닮은 물질	1976. 1. 19.	826
석유개발특별법도 제정	1976. 1. 20.	828
석유발견에 어깨도 으쓱 희망에 부푼 재일동포들	1976. 1. 20.	830
설한풍 어두운 밤 정전도 거듭	1976. 1. 23.	831
원탄 제대로 못 사는 공장	1976. 1. 23.	832

제목	발행일	페이지
수송끊겨 중유 품귀	1976. 1. 23.	833
화순에 대형 발전소 건설	1976. 1. 23.	834
본도 전화율 93%로	1976. 1. 24.	836
연탄공장 폐문 위기	1976. 3. 8.	837
(해설) 제틴공장 현위치 허가 안팎 대단위화 때까지 미뤄진 셈 빈대업자는 법 발동코 정비	1976. 3. 19.	838
기존제탄공장 잠정적 허가	1976. 3. 19.	840
하귀리에 번전소	1976. 3. 31.	842
모슬포에 유류탱크 수협서 자금 지원 통보	1976. 4. 13.	843
하도해안 인화성물질 최종 구명	1976. 4. 13.	844
석탄가 16% 인상	1976. 5. 7.	845
풍력발전 성공적	1976. 5. 7.	847
연탄값 오늘부터 인상 시행	1976. 5. 22.	848
동명발전소 착공	1976. 6. 15.	850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	1976. 6. 17.	851
기존 8개 사업체 하나로	1976. 6. 17.	852
가정용 전기 200V 승압 89년 전도 마칠 계획	1976. 9. 27.	853
수요량 3배 생산 능력	1976. 12. 2.	855
역효 빚은 탄공장대단위화	1976. 12. 8.	856
제탄 달리는 건 아니 직매소 증설 등 손 쓰겠다	1976. 12. 8.	857
표선 김녕 2백20V 송전 시작 도내서 처음 승압	1976. 12. 18.	858
원유가 인상키로	1977. 4. 5.	860

제목	발행일	페이지
가파 마라도 발전시설 준공 오늘 현지서 준공식	1977. 4. 19.	861
4%선 인상	1977. 5. 19.	862
금악 풍차발전시설 철거	1977. 5. 19.	863
본도 농촌지역 가전제품 높은 보유율	1977. 5. 31.	864
방임된 탄질 극도로 저하	1977. 6. 28.	865
국내유가인상 않기로	1977. 7. 5.	866
전도송배전선로 루프화 단행	1977. 7. 5.	868
전력비상 제한송전 위기	1977. 7. 21.	870
80년대 수요 충족 회순 2만KW 화력발전소 착공	1977. 8. 18.	872
수요기별로 조정	1977. 8. 20.	873
전력수요 많이 내려	1977. 8. 20.	875
석유값 인상 검토 정부 종래의 불허방침 바꿔	1977. 9. 3.	876
가로등 격등제 폐지키로	1977. 9. 6.	877
연탄 풍년 기근	1977. 12. 16.	878
65원선 될 듯	1977. 12. 19.	879
연탄공백 이틀째	1977. 12. 19.	880
한전소식 휴전 안내	1978. 3. 27.	881
전화 전기 선로 모두 지하에 매설	1978. 3. 27.	882
가정연료 대증이 바뀌고 있다	1978. 10. 30.	883
깜깜한 가로등	1979. 1. 24.	884
유가 재인상 검토	1979. 4. 18.	886
지역별 연탄값 고시	1979. 4. 18.	887

제목	발행일	페이지
철씬 좋아질 전기사정	1979. 6. 20.	888
버스, 화물차 13%가 매연차	1979. 7. 27.	889
엄동설한에 기름품귀	1980. 1. 22.	890
석탄 41. 92% 연탄 35. 29% 탄값 전면 인상 단행	1980. 5. 3.	891
올 하반기 석유파동 확실	1980. 5. 3.	893
남제주화력 완공 발전용량 2만kw	1980. 5. 3.	894
최대노력불석 주정공장 책임자 강재양씨 담	1980. 7. 4.	896
제2회 경제대책 협의회	1980. 9. 1.	898
화재발생 위험 있는 집안 전기 배선 불량 많아	1980. 9. 1.	899
연탄수급에 차질 예상	1980. 9. 2.	900
북제주 화력발전소 곧 착공	1980. 9. 2.	901
장기석유전략 실패	1980. 9. 17.	902
드리마일 사고 후 핵 노이로제 저항받은 원자력발전	1980. 9. 17.	904
7소구 유징 내월 판명	1980. 9. 18.	907
기준유가 배럴당 30불로 인하	1980. 9. 18.	909
전세계 매장량 2백50년분 다시 각광받는 석탄산업	1980. 9. 18.	911
월동기 연료 충분	1980. 9. 19.	913
산유량 10% 감축	1980. 9. 22.	914
석유 수급 비상대책 마련	1980. 9. 25.	915
원유 수송로 보호책 강구	1980. 9. 25.	916
이란 이라크 원유수출 중단	1980. 9. 25.	917
하루 58만 배럴 정유 세계 최대	1980. 9. 25.	918

제목	발행일	페이지
다가오는 석유 먹구름	1980. 9. 25.	919
정전 50%가 염해때문	1980. 9. 26.	921
현물 시장원유가 폭등	1980. 9. 27.	922
화염 속 유전공방	1980. 9. 27.	923
원유도입선 다변화	1980. 10. 1.	925
OPEC 감유계획 철회	1980. 10. 4.	926
30~60년 안에 부존석유 고갈	1981. 1. 6.	928
해수서 에너지를 캔다	1981. 1. 12.	931
유가조정 안해 월동기간 중 인상 요인 불구	1981. 1. 14.	933
유가 배럴당 2불씩 인상	1981. 1. 15.	934
석유류 수입규정 완화	1981. 1. 16.	935
국제 에너지 환경 낙관 못해 인접국 원유 도입 적극 추진	1981. 1. 16.	936
실온 1도 내릴 때 10% 경비 절감 겨울철 에너지절약 비결	1981. 1. 16.	940
석유난로 과열 술집내부 태워	1981. 1. 16.	942
좌초 유조선서 바다로 기름 유출	1981. 1. 16.	943
부정 연탄 거래 강력 단속	1981. 1. 19.	944
원유가 4불 인상	1981. 2. 10.	945
전력소비 증가율 둔화	1981. 2. 16.	946
연탄수급 차질 우려	1981. 2. 16.	947
949제주, 조천, 한경, 안덕, 남원 단협에 유류판매취급소 설치	1981. 2. 16.	948
비바람에 약한 전기 수용가 짜증 불러	1981. 2. 18.	949
전기안전시설 허술	1981. 2. 19.	951

제목	발행일	페이지
연료유 늘고 휘발유 격감	1981. 3. 2.	952
고압선에 피복	1981. 3. 3.	953
송전방식을 개선 한전 지점 송전선을 접지방법으로	1981. 3. 6.	954
4월 초 5소구 탐사	1981. 3. 9.	956
대한석유가 인하	1981. 3. 9.	957
이라크산 원유 수출 레바논 재개 합의	1981. 3. 9.	958
식물 섬유질에서 알콜생산 미래의 에너지원으로 활용 기대	1981. 3. 13.	959
유류공동 구매반조직 농협 리단위로 공급만전 위해	1981. 3. 13.	961
전력소비량 줄어	1981. 3. 13.	962
석유수급 시장 자율기능에	1981. 3. 17.	963
새 자동차연료 『카뷔롤』	1981. 3. 18.	965
페만 4국 긴급 석유상 회의	1981. 3. 18.	967
LPG택시 제주에도 1백43대 배정	1981. 3. 19.	969
(사진) 에너지절약장치	1981. 3. 31.	970
미래를 개척하는 마술의 광선 레이저광 우리나라서도 본격 연구	1981. 3. 31.	971
연료절약형 엔진 보조장치 개발	1981. 3. 31.	973
연탄이 바닥났다	1981. 4. 2.	974
고압가스 안전점검	1981. 4. 4.	976
연탄 품귀 풀려	1981. 4. 6.	977
제주에 풍차발전소	1981. 4. 15.	978
석유제품값 곧 인상	1981. 4. 20.	979
유류, 전기, 연탄값 인상	1981. 4. 20.	980

제목	발행일	페이지
고열량 무공해 대체연료 LNG.	1981. 7. 1.	982
연탄 판매업 신고제로 전환	1981. 7. 3.	985
제대 원자력 이용연구소 기공	1981. 7. 4.	986
전력 사용량 급증	1981. 7. 6	987
2백20V 승압 희망자 부쩍	1981. 7. 6.	988
유가 단계적 자율화	1981. 7. 20.	989
석유류 소비 증가세 둔화	1981. 7. 23.	991
에너지절약 기술지도 실시	1981. 8. 31.	992
임산연료채취 10월부터	1981. 8. 31.	993
전기 사고 위험 커	1981. 8. 31.	994
해수에 약한 화력발전소 남제주화력 태풍으로 기능마비	1981. 9. 3.	995
OPEC 12월 각료회의서 유가단일화 가능성	1981. 9. 7.	996
전력사용량 늘어	1981. 9. 9.	997
수해지역 전력요금 납기 연장	1981. 9. 12.	998
어떻게 되고 있나 다시 찾아본 취재현장 위험한 고압선	1981. 9. 12.	999
정유사 올해도 결손	1981. 9. 19.	1001
대유전의 가능성 있다	1981. 9. 28.	1002
고압가스 안전점검	1981. 10. 2.	1005
연탄품질 검사	1981. 10. 5.	1006
풍력발전사업 한독 합동 추진	1981. 10. 6.	1007
원탄도 열량검사	1981. 10. 9.	1008
저질 연탄 어째서 나오나	1981. 10. 10.	1009

Contents 제3권 자료편(하)

제목	발행일	페이지
연탄 품질이 나빠졌다.	1981. 10. 13.	1011
가격위반 연탄 직매점에 첫 영업정지 조치	1982. 1. 12.	1012
유가 배럴당 50~70센트 인하	1982. 1. 13.	1013
연탄 품질 개선토록	1982. 1. 13.	1014
LNG(천연가스) 점차 확대 공급키로	1982. 2. 5.	1015
연탄값 7월부터 인상	1982. 5. 19.	1016
제주 바람에 풍차가 돈다 도내 3개 마을서 풍력발전 시험가동	1982. 5. 19.	1017
비수기에 연탄 가수요 현상	1982. 5. 22.	1018
소형원자로로 지역난방 가능	1982. 5. 25.	1020
가스주입에 불편 LPG택시 충전소 한곳밖에 없어	1982. 5. 26.	1022
종달-우도 해저송전케이블 가설	1983. 1. 15.	1023
무인등대에 태양전지 설치	1983. 4. 12.	1025
영업정지 5일씩 남군 공정거래 어긴 석유판매소	1983. 4. 30.	1026
북제주화력발전소 신제주변전소간 송전선로 24Km 신설	1984. 6. 7.	1027
태양열 에너지 자원 풍부하다	1984. 6. 13.	1028
공공건물 신축 때 태양열 시설 권장	1984. 6. 18.	1030
원유 비축물량 늘리도록	1984. 6. 23.	1031
(기자석) 제주가 태양 풍력발전의 교육과 연구의 요람	1984. 6. 23.	1032
햇빛과 바람으로 전깃불	1984. 6. 23.	1033
영 에너지절약은 '제5의 연료'	1984. 8. 10.	1035
제주도 서남쪽서 5광구 석유탐사 25일~10월까지	1984. 8. 14.	1037
에너지절약 기법 개발 확대 보급	1985. 2. 7.	1038

제목	발행일	페이지
연탄가스 중독사고 부쩍 늘어	1985. 2. 7.	1039
연탄사기 힘들다 제탄량 줄여 품귀현상 심해	1985. 2. 28.	1041
전주 자취 감추기 시작 전선 지중화 따라 철거해	1985. 3. 19.	1042
불티나게 팔리는 디젤승용차	1985. 3. 29.	1043
움직이는 불씨 연료용 가스 프로판 부탄 주종 세심한 주의 필요	1985. 3. 29.	1044
전기 누전 따른 화재 잦아	1985. 4. 16.	1046
지역별 연탄값 조정	1985. 4. 16.	1047
계속되는 한증막 더위 속 순간 최대 전력 5만8천KW	1985. 8. 8.	1048
농사용 전력 수요 늘어	1985. 8. 13.	1049
연탄 개당 5원 올라	1985. 9. 5.	1050
연탄 수요 부쩍 늘어 현재 석탄 1개월분 비축	1986. 1. 7.	1051
시판 석유난로 안전도 낮다	1986. 1. 23.	1052
연탄품질 검사 월 3차례 실시	1986. 1. 23.	1054
자취방서 고교생 연탄가스 중독사	1986. 3. 6.	1055
풍력발전사업 흐지부지	1986. 3. 21.	1056
19공탄값 인상	1986. 5. 20.	1058
석유가격 폭등 4월 이후 최고	1986. 8. 5.	1059
석유감산원칙 합의	1986. 8. 5.	1060
관정시설 전기설비 부실	1986. 8. 8.	1062
건물난방에 태양열 이용을	1986. 9. 30.	1063
농사용 전력수요 크게 늘어도 한전 인력부족 제때 시설못해	1986. 10. 27.	1065
연탄구입량 제한	1986. 10. 28.	1066

제목	발행일	페이지
태양열주택 제구실 다 못해	1986. 12. 22.	1067
전주이설공사 중 감전 1명 사망 1명 중상	1987. 8. 22.	1069
추자도 자가발전소 준공	1987. 12. 9.	1070
풍력발전 2001년까지 실용화 추진	1989. 8. 7.	1072
예비가스통 구입종용 말썽	1989. 10. 12.	1073
경유사용 버스, 화물차량 도심 매연 공해 주범	1989. 10. 16.	1074
도내 연료저장시설 부족	1989. 10. 27.	1076
한전 냉각수 피해보상 줄다리기 팽팽 타협점 잃고 표류 장기화	1989. 12. 4.	1077
유조선 좌초 벙커C유 쏟아내.	1990. 12. 7.	1079
겨울철 유류공급 '비상'	1990. 12. 10.	1080
뒤늦게 전기혜택	1990. 12. 10.	1082
제주 청정에너지 지역으로 석탄사용 억제 태양광 등 개발	1991. 1. 30.	1083
(사설) 청정에너지 지역 지정	1991. 1. 31.	1085
가파도 마라도 11억원 투입 개발	1991. 2. 12.	1087
연탄값 5월중 10%인상	1991. 3. 9.	1088
제주도 전역 청정에너지 지역화 방침 전력 해저케이블로 공급	1991. 3. 13.	1089
제주일원 청정에너지 지역으로	1991. 3. 23.	1091
전기료 인상계획 백지화	1991. 3. 28.	1093
전기누전 화재 급증	1991. 3. 29.	1094
가정용 LP가스 값 5월부터 5. 5% 인상	1991. 4. 4.	1095
풍력발전기 "무용지물"	1991. 4. 16.	1096
한소우호협력조약 합의 천연가스 등 3개 분야 빠른 시일 내 공동개발	1991. 4. 21.	1097

제목	발행일	페이지
전기요금 인상 유보	1991. 4. 26.	1098
지장 전주 이설 서로 떠밀기	1991. 4. 27.	1099
도로에 방치한 전신주	1991. 4. 30.	1101
태양광발전소 12일께 착공	1991. 8. 10.	1102
추자도 가스공급 원활책 강구.	1991. 12. 6.	1104
마라도 태양광 발전 가동	1991. 12. 6.	1105
겨울철 기상악화 심각한 연료파동 우려	1991. 12. 17.	1106
주유소 설치 반대	1991. 12. 17.	1110
석유판매업 허가 관련 효돈농협-시 줄다리기	1991. 12. 21.	1111
전기요금 6%인상	1991. 12. 28.	1112
휘발유값 자유화 소비자만 우롱	1991. 12. 28.	1113
도서지역 연료운송비 대폭 지원	1992. 3. 22.	1114
에너지소비 절약 등 7월 도정시책 마련	1992. 7. 2.	1116
올 여름 전력수급 불안	1992. 7. 2.	1117
야쿠트가스전에 조사단 파견	1992. 7. 4.	1118
파랑도에 등부표 재설치	1992. 7. 5.	1119
화재원인 전기, 담뱃불 순	1992. 7. 10.	1120
공급위주 에너지정책 수요관리위주로 전환	1992. 7. 14.	1121
물, 전력공급 비상	1992. 7. 24.	1122
조천, 한림 등지서 정전사고	1992. 9. 1.	1124
온두라스선적 유조선 우도 앞바다 좌초	1992. 12. 29.	1125
전신주 변압기 폭발 대피소동	1992. 12. 29.	1126

제목	발행일	페이지
비양도 등표 설치 계획 확정	1993. 4. 28.	1127
LPG정수허가제 완화, 폐지 검토를	1994. 2. 1.	1129
LPG용기 고유번호 부여	1994. 2. 9.	1130
부실공사가 화재 불렀다 한전 승압공사 문제 없나	1994. 4. 28.	1131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강화	1994. 12. 10.	1133
(도민의 소리)송배선전선로 건설에 양보하는 아량 있었으면	1994. 12. 21.	1134
(사진) 신재생에너지 시범단지 준공	1995. 4. 14.	1135
(인터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장 손영목씨	1995. 4. 14.	1136
한전제주지사 경영개선 노력 도민의 이해와 협조 있었으면	1995. 4. 19.	1137
전력수급 안정 대책 마련	1995. 4. 19.	1139
프레온가스 수거실적 불량	1995. 4. 20.	1140
제주항 화력발전소, 저유소 이전사업 추진될 듯	1996. 1. 29.	1141
비양도 전력공급난 완전해소	1996. 3. 5.	1142
에너지이용 합리화 사업자금 지원	1996. 3. 6.	1143
해빙기 가스사고 빈발	1996. 3. 6.	1144
제주항내 한전발전소 부지매입비 확보 시급	1996. 3. 9.	1146
전력설비에 제주채색	1996. 4. 4.	1147
기름실은 화물선 좌초	1996. 5. 22.	1148
청정에너지 실용화 시동	1996. 6. 21.	1149
유리온실 수경재배 태양열 시스템 도입	1997. 4. 4.	1151
중앙로터리~한진주유소 1. 3㎞구간 배전선로 지중화 추진	1997. 4. 8.	1152

Contents 제1권 정책·역사편

제 1 편 제주 에너지 변천사

서장 에너지로 보는 제주의 옛 모습 11

제1장 화석연료 이전 제주도 에너지 생활사 47
- 제1절 땔감의 생활사
- 제2절 나무 심는 모임 이야기(조천읍 선흘리 식송계)

제2장 제주도내 화석연료의 도입과 전개 63
- 제1절 석유
- 제2절 석탄
- 제3절 가스

제3장 제주도 전력개발사 85
- 제1절 제주지역 전력사업의 태동
- 제2절 해방 전후의 전력사업
- 제3절 전력사업의 개발성장기
- 제4절 전력사업의 안정발전기
- 제5절 신재생에너지개발
- 제6절 전력사업 구조개편 및 미래대응

[특별인터뷰] "국내 최초 상업용 풍력발전 추진 이야기 - 신구범 前 제주도지사 인터뷰" 101

제4장 제주도 에너지 행정조직 변천사 109
- 제1절 에너지 행정조직의 변천
- 제2절 행정시 에너지 행정조직
- 제3절 제주에너지공사

제5장 [특별기고] 에너지 개념과 신재생에너지 도민수용성 고찰 131
- 제1절 에너지의 개념
- 제2절 신·재생에너지의 개념
- 제3절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제주도민의 수용성

제2편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정책

제1장 제주도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 149
- 제1절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 변천사
- 제2절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정책 총괄
- 제3절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세부실행계획

제2장 에너지이용합리화 정책 177
- 제1절 계획과 시행결과
- 제2절 산업 부문

제 3장 에너지교육과 사회운동 197
- 제1절 제주지역 에너지기후 교육 현황과 과제
- 제2절 제주도의 에너지시민운동

제3편 국내외 에너지·기후변화 동향

제1장 에너지 223
- 제1절 국내·외 에너지환경 동향
- 제2절 우리나라 에너지 계획

제2장 기후변화 257
- 제1절 국내 동향
- 제2절 국제 동향

부록

부록 1. 에너지 통계 및 현황자료 287

부록 2. 에너지 관련 도 조례 및 고시, 각종 규정 311

부록 3. 에너지 관련 도내 기관 및 단체 403

동아일보
면수: 1 단수: 7
1924. 4. 21.

濟洲島에 無電局

제주도(濟洲島)에 무전국(無電局)

조선유일(朝鮮惟一)의 용산무선전신(龍山無線電信)은 기계(機械)가 구식(舊式)인데다 전력(電力)도 겨우 이십오(二十五)키로왓트에 불과(不過)함으로 통신능력(通信能力)도 기범위(基範圍)가 극(極)히 협소(狹小)하야 백해리 내지 오십해리 이상(百海里 乃至 五十海里 以上)의 원격지점(遠隔地點)에는 태(殆)히 소용(所用)되지 못하며 기계(機械)가 구식(舊式)임으로 실용화(實用化)함에도 심(甚)히 유감(遺憾) 되는 점(點)이 만은바 기보(旣報)와 가티 목포제주도간(木浦濟州島間)의 해저선(海底線)은 선령(線齡)이 심(甚)히 오래서 항상 고장(恒常故障)이 속출(續出)하는 결과(結果) 체신국(遞信局)에서는 이미 해저선 대신(海底線 代身)으로 무전(無電)을 사용(使用)함이 경비(經費)로 보아도 심(甚) 유리(有利)하다 하야 제주도(濟州島)에 유력(有力)한 무선국(無線局)을 건설(建設)하고 공비(工費) 약오만원여(約五萬圓餘)를 제출(提出)하야 근(近) 공사(工事)에 착수(着手)코자 계획(計劃)을 세운바 이것이 아조 실현(實現)되면 동도방면(同島方面)의 종래(從來)와 가튼 통신상(通信上)의 불안(不安)은 전연일소(全然一掃)될지며 또 신설기계(新設機械)는 통신능력(通信能力)이 범위(範圍)가 면히 확대(擴大)됨으로 삼원백해리 이내(三圓百海里 以內)의 각지 무선국(各地 無線局)과도 통신교환(通信交換)이 된다 종(終)하야 종래(從來) 금택(金澤) 각도등(各島等)의 중계비(中繼費)를 요(要)하던 불편(不便)도 제거(除去)되야 일본(日本)과의 통신(通信)은 자유(自由)로 직통(直通)되는 편의(便宜)를 득(得)할지며 우(又) 근해항로(近海航路)뿐 아니라 상해(上海) 청도항로(靑島航路)의 선박상호간(船舶相互間)은 충분(充分)히 통신발수(通信發受)가 되리라더라

豫備交涉
再開提議
京城帝大議案
濟洲島에無電局
佛飛機來滯
五月十五六日頃
實現南銀合同

△해당 기사 사진

동아일보
면수: 4 단수: 2
1926. 10. 27.

風光이 明媚 南國의 情緖, 朝鮮의 第一島 [全2回] 産業界//教育界//宗教界//社會團體// 名勝古蹟(濟州 一記者)

순회탐방 풍광(風光)이 명미(明媚) 남국(南國)의 정서일(情緖1): 조선(朝鮮)의 제일도(第一島) 제주 일기자(濟州 一記者)

제주도(濟州島)는 반도(半島)의 극남단(極南端)에 재(在)한 조선(朝鮮)의 최대도서(最大島嶼)로서 기후(氣候)가 온화(溫和)하야 남국(南國)의 정서(情緖)가 흐르고 풍광(風光)이 명미(明媚)하야 남해중(南海中)의 낙원(樂園)이라 할만하다 중앙(中央)에 좌립(挫立)한 한라산(漢拏山)은 고(高)가 육천칠백여척(六千七百餘尺)에 달(達)하야 조선(朝鮮)의 제이대산(第二大山)이오 참으로 제주(濟州)의 일대위관(一大偉觀)이다 제주도(濟州島)의 연혁(沿革)을 간단(簡單)히 말하면 고석(古昔)에 고부량 삼신인(高夫梁 三神人)이 지중(地中)에서 용출(涌出)하야 개척(開拓)하고 국호(國號)를 탐라(耽羅)라 하야 의연(依然)한 독립국(獨立國)이엿스나 신라시대(新羅時代)에 고하 고청(高夏高淸)이 신라(新羅)에 조공(朝貢)함을 따라 성주왕자(星主王子)의 작(爵)을 수(授)한바 되엿스며 고려 충렬왕시(高麗 忠烈王時)에 와서 탐라(耽羅)를 개(改)하야 제주(濟州)라 칭(稱)하고 목사판관(牧使判官)을 치(置)하야 통치(統治)하여 오던바 이조태종십년(李朝太宗十年)에 본도(本島)를 삼분(三分)하야 제주대정정의(濟州大靜旌義)의 삼군(三郡)을 합동(合同)하야 제주도(濟州島)라 칭(稱)하고 도사(島司)로서 행정(行政)의 임(任)에 당(當)케 하엿다 삭망(朔茫)한 태평양(太平洋中)의 도서(島嶼)라 자고(自古)로 절도(絶島)의 감(感)이 불무(不無)하엿스나 간금(干今)에는 목포부산대판 방면(木浦釜山大阪方面)과의 기선출입(汽船出入)이 연락불절(連絡不絶)하며 육상(陸上)에는 자동차편(自働車便)이 유(有)하야 교통(交通)이 자못 편(便)케 되엿슬뿐 아니라 전신 전화 전등 등 물질문명(電信電話電燈等物質文明)이 이기(利器)도 근년(近年)에 설비(設備)되엿다 전도(全島)의 면적(面積)은 백이십일만리(百二十一萬里)인데 동서(東西)가 이백리(二百里) 남북(南北)이 백리(百里)이며 인구(人口)는 작년 십이월말 현재(十二月末 現在) 이십여만명(二十餘萬名)이니 모내군(某內群)은 여좌(如左)하다

一, 호수(戶數) 사만이천일백구십팔호(四二,一九八戶)
一, 인구(人口) 이십만오천사백칠십팔인(二0五,四七八人)
조선인(朝鮮人) 이십만사천삼백십오인(二0四,三一五人)
일본인(日本人) 천백오인(一,一0五人)
외국인(外國人) 오십구인(五九人)

산업계(産業界)
◇ 농업(農業)
본도(本島)는 토지(土地)가 척박(瘠薄)하고 수전(水田)이 태무(殆無)한데 대지주(大地主)가 무(無)하고 거개 자작농(擧皆 自作農)임으로 빈부(貧富)의 차(差)가 현격(懸隔)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생

동아일보
면수: 4 단수: 2
1926. 10. 27.

활태도(生活態度)가 균일(均一)하며 소작쟁의(小作爭議)는 볼 수도 업다 경지면적(耕地面積)은 전(田)십만사천삼십일정보(一0四,0三一町步) 답(沓) 팔백수십오정보(八九五町步)인데 매석당 이정이반보(每石當 二町二反步)나 되며 작년 수확고(昨年 收穫高)는 대맥(大麥) 삼십만석(三十萬石) 속(粟) 삼십만석(三十萬石) 수륙도(水陸稻) 삼만석(三萬石) 대소두등 잡곡(大小豆等 雜穀) 삼만여석(三萬餘石) 감저(甘藷) 일천여만관(一千餘萬貫)에 달(達)함으로 소농민(小農民)도 그리 곤난(困難)치 아니한 생계(生計)를 도모(圖謀)할 수 잇다

◇ 상업(商業)

본도(本島)는 교통불편(交通不便)의 관계상(關係上) 자연 상업(自然商業)도 미비부진(微微不振)하더니 근래(近來) 해륙교통기관(海陸交通機關)이 완비(完備)와 대판직항로(大阪直航路)가 개통(開通)된 이래(以來) 제주성내(濟州城內)를 중심(中心)으로 각지(各地)에 상업(商業)이 점차 은성(漸次 殷盛)하야 활기(活氣)를 정(呈)하고 남선(南鮮)의 유수(有數)한 상업지대(商業地帶)로 굴지(屈指)케 되엿다 이출품(利出品)은 수산물(水産物)을 위주(爲主)로 면화(棉花) 관물(冠物) 추용(椎茸) 우피(牛皮) 양말 등(洋襪等)인 바 연액(年額) 백만원내외(百萬圓內外)에 달(達)하며 이입품(移入品)은 백미(白米) 맥분(麥粉) 면사포(綿紗布) 인촌(燐寸) 석유 기타잡화 등(石油 其他雜貨等)인 바 연액(年額)이 역백만원(亦百萬圓)에 달(達)한다고 한다

◇ 공업(工業)

공업(工業)은 아직 유치(幼稚)하야 목하 자급자족(目下 自給自足)의 역(域)을 탈(脫)치 못하엿스나 농한기(農閑期)를 이용(利用)하야 가정공업(家庭工業)으로 소규모(小規模)의 주조(鑄造) 조선즐관물(朝鮮櫛冠物) 모자(毛子) 양태(涼太) 암건(岩巾) 탕건(宕巾) 망건(網巾)등(等)을 제조(製造)하며 근래 관힐(瓘詰) 패구(貝釦) 양말(洋襪) 주류(酒類) 조면 등(繰綿等)의 공장(工場)도 설치(設置)되여 그 산액(産額)도 불소(不少)하야 본도 공업계(本島 工業界)의 신기원(新紀元)을 작(作)하엿다

◇ 수산업(水産業)

사위(四圍)가 망망(茫茫)한 대해(大海)임으로 무진장(無盡藏)의 해산물(海産物)이 잇는 보고(寶庫)이다 해안선(海岸線)에 연(沿)하야 거주(居住)하는 자(者)는 거개 어업(擧皆 漁業)에 종사(從事)함으로 그 산액(産額)이 불소(不少)하며 본도 명물(本島 名物)인 해상여왕해녀(海上女王海女)는 비등수산계(比等 水産界)에 막대(莫大)한 공로(功勞)가 유(有)한 자(者)이다 이외(外)에 왕시 유명(往時有名)하엿던 목축 등(牧畜等)은 근간 다소쇠퇴(近間 多少衰退)한 경향(傾向)이 유(有)하며 면작 임업 등(棉作 林業等)이 년년발전(年年發展)함으로 제주산업계(濟州産業界)의 전도(前途)는 실(實)로 유망(有望)하다

◇ 교육계(敎育界)

본도(本島)는 대륙(大陸)과 원격(遠隔)하야 문물(文物)을 옴길 기회(機會)가 적엇스나 유교(儒敎)의 왕성(旺盛)과 지사(志士)의 본도(本島)로 교육(敎育)이 광포(廣布)되엿는 바 타지방(他地方)에 비(比)하면 독서문필(讀書文筆)이 보급(普及)되엿다고 할 수 잇다 근자 기미운동 이후(近者 己未運動以後) 경향(京鄕)을 물론(勿論)하고 교육열(敎育熱)이 치성(熾盛)하엿슬 때부터 촌촌각리(村村各里)에 개량서당(改良西堂)을 설치(設置)아니한 곳이 무(無)하엿다 그러나 현하 중학기관(現下 中學機關)으로 완전(完全)한 것이 일개(一個)도 무(無)히야 일반도민(一般島民)의 한탄불기(恨歎不已)

동아일보
면수: 4 단수: 2
1926. 10. 27.

하는 바이나 교육보급상황(敎育普及狀況)은 타지방(他地方)에 후(後)하엿다 아니할만큼 발달(發達)되야 타지방 유학생(他地方 留學生)이 수백명(數百名)에 달(達)한다 이제 수자(數字)로 교육기관(敎育機關)과 생도수(生徒數)를 열기(列記)하면 여좌(如左)하다 학교수(學校數) 생도수(生徒數) 공립학교(公立學校) 일(一) 백삼십육인(一三六人) 공립보고(公立普校) 십일(十一) 삼천사백팔십오(三,四八五) 사립보고(私立普校) 사(四) 오백팔십일(五八一) 개량서당(改良書堂) 삼십칠(三十七) 이천일백육십삼(二,一六三) 사진설명(寫眞說明) 제주도성내전경(濟州城內全景)

△해당 기사 사진 (자료없음)

동아일보
면수: 5 단수: 1
1929. 1. 15.

十年一覽 顯著히 發達된 燦然한 地方文化, 敎育機關 經濟團體 社會團體 等 各郡別의 詳細調査內容(十三) 濟州島, 敎育機關 經濟團體社會團體

교육기관(敎育機關)

▲ 서중공보교 설립 대정십삼년칠월(西中公普校 設立 大正十三年七月) 설립시 생도 16(設立時 生徒 一六) 현재생도 139(現在生徒 一三九) 교원 4(敎員 四) 교장 귀삼랑(校長 鬼三郎) ▲ 조천공보교 설립 대정십이년사월(新右公普校 設立 大正十二年四月) 설립시 생도 223(設立時 生徒 二二三) 현재생도 481(現在生徒 四八一) 교원 8(敎員 八) 교장 소성수일(校長 小城守一) ▲ 신우공보교 설립 대정십삼년칠월(西中公普校 設立 大正十三年七月) 설립시 생도 15(設立時 生徒一五) 현재생도 35(現在生徒 三五) 교원 4(敎員 四) 교장 반총효차랑(校長 飯塚孝次郎) ▲ 좌면공보교 설립 대정구년일월(左面公普校 設立 大正九年一月) 설립시 생도 75(設立時 生徒 七五) 현재생도 195(現在生徒 一九五) 교원 4(敎員 四) 교장 향말웅(校長 鄕末雄) ▲서귀공보교 설립 소화이십삼년삼월(西歸公普校 設立 昭和二三年三月) 설립시 생도 197(設立時 生徒 一九七) 현재생도 184(現在生徒 一八四) 교원 4(敎員 四) 교장 향말웅(校長 鄕末雄) ▲ 성산공보교 설립 대정십이년오월(城山公普校 設立 大正二年五月) 설립시 생도 5(設立時 生徒 五) 현재생도 233(現在生徒 二三三) 교원 3(敎員 三) ▲ 구우공보교 설립 대정십이년오월(舊右公普校 設立 大正十二年五月) 설립시 생도 75(設立時 生徒 七五) 현재생도 327(現在生徒 三二七) 교원 5(敎員 五) 교장 평천중길(校長 平天中吉) ▲ 공립농업교 설립 대정구년십일월일일(公立農業校 設立 大正九年十一月一日) 설립시 생도 1(設立時 生徒 一) 현재생도 135(現在生徒 一三五) 교원 6(敎員 六) 교장 삼기승장(校長 衫崎勝藏) ▲ 신우사립일신교 설립 대정십일년육월(新右私立日新校 設立 大正十一年六月) 설립시 생도 167(設立時 生徒 一六七) 현재생도 197(現在生徒 一九七) 교원 3(敎員 三) ▲ 사립중앙보교 설립 대정십오년구월(私立中央普校 設立 大正十五年九月) 설립시 생도 117(設立時 生徒 一一七) 현재생도 161(現在生徒 一六一) 교원 4(敎員四) 교장 강세독(校長 姜世篤) ▲ 화북초교 설립 대정십오년칠월(公立農業校 設立 大正十五年七月) 설립자 고영근 강공칠(設立者 高瀛根康共七) 설립시 생도 189(設立時 生徒 一八九) 현재생도 175(現在生徒 一七五) 교원 4(敎員 四) ▲ 사립하도보교 설립 대정구년삼월십오일(私立下道普校 設立 大正九年三月十五日) 설립시 생도 5(設立時 生徒 五) 현재생도 21(現在生徒 二一) 교원 5(敎員 五) 교장 강공칠(校長 康共七) ▲ 삼양리기성의숙 설립 대정구년구월(三陽里期成義塾 設立 大正九年九月) 설립시 생도 1(設立時 生徒 一)현재생도 8(現在生徒 八) 교원 4(敎員 四) 숙장 장배원(塾長 張培遠) ▲ 제주중앙유치원 설립 대정십삼년구월(濟州中央幼稚園 設立 大正十三年九月) 설립자 김정복(設立者 金正福) 설립시 생도 5(設立時生徒 五) 현재생도 4(現在生徒 四) 교원 1(敎員 一) 원장 이기풍(園長 李基豊) ▲ 제주도두학숙 설립 대정십년십일월십일일(濟州道頭學塾 設立 大正十年十一月十一日) 설립자 도두청년회(設立者 道頭靑年會) 설립시 생도 14(設立時 生徒 一四) 현재생도 8(現在生徒八) 교원 3(敎員 三) 숙장 고승호(塾長 高承昊) ▲ 오도학숙설립 소화이년사월일일(五道學塾 設立 昭和二年四月一日) 설립자 김병화(設立者 金炳和) 설립시 생도 7(設立時 生徒 七) 현재생도 85(現在生徒 八五) 교원 2(敎員 二) 숙장 김병화(塾長 金炳和)

동아일보
면수: 5 단수: 1
1929. 1. 15.

▲ 도두소녀야학소 설립 소화삼년십월십오일(道頭少女 設立 昭和三年十月十五日) 설립자 도두부인회(設立者 道頭婦人會) 설립시 생도 5(設立時 生徒 五) 현재생도 6(現在生徒 六) 교원 3(敎員 三) ▲ 화북여자학술강습소 설립 소화삼년십일월십오일(禾北女子學術講習所設立 昭和三年十一月十五日) 설립시 생도 팔(設立時 生徒 八) 현재생도 8(現在生徒 八) 교원 2(敎員 二) ▲ 제주여자학술강습소 설립 대정십사년사월일일(濟州女子學術講習所 設立 大正十四年四月一日) 설립시 생도 5(設立時 生徒 五) 현재생도 1(現在生徒 一) 교원 2(敎員二) 소장 고마리아(所長 高瑪利亞) ▲ 대정부녀야학부 설립 소화삼년 십월십오일(大靜婦女夜學部 設立 昭和三年十月十五日) 설립자 마장무시(設立者 馬塲茂市) 설립시 생도 45(設立時 生徒 四五) 현재생도 82(現在生徒 八二) 강사 5(講師 五) 소장 마장무시(所長 馬塲茂市) ▲ 외도리희문의숙 설립 대정십이년사월일일(外都里 熙文義塾 設立 大正十二年四月一日) 설립시 생도 6(設立時 生徒 六) 현재생도 3(現在生徒 三) 교원 2(敎員 二) 숙장 김충희(塾長 金忠熙) ▲ 협재야학소 설립 소화삼년십월이십일(挾才夜學所 設立 昭和三年十月二十日) 설립시 생도 5(設立時 生徒 五) 현재생도 9(現在生徒 九) 교원 3(敎員 三) ▲ 금릉리보흥례숙 설립 대정십사년사월일일(濟州女子學術講習所 設立 大正十四年四月一日) 설립시 생도 9(設立時 生徒 九) 현재생도 62(現在生徒 六二) 교원 2(敎員 二) ▲ 고산리보창숙 설립 대정십년사월(高山里普昌塾 設立 大正十年四月) 설립시 생도 4(設立時 生徒 四) 현재생도 5(現在生徒 五) 교원 3(敎員 三) 숙장 고창원(塾長 高昌遠) ▲ 중앙협진청년회야학부 설립 대정십오년십일월일일(中央協進靑年會夜學部設立大正十五年十一月一日) 설립자 홍순익(設立者 洪淳益) 설립시 생도 2(設立時 生徒 二)현재생도 8(現在生徒 八) 교원 4(敎員 四) 부장 좌두형(部長 左斗衡) ▲ 무릉리이문의숙 설립 대정십일년사월(武陵里以文義塾 設立 大正十一年四月) 설립자 김석주(設立者 金錫株) 설립시 생도 4(設立時 生徒 四) 현재생도 6(現在生徒 六) 교원 3(敎員 三) 숙장 김석주(塾長 金錫株) ▲ 모슬포광선의숙 설립 대정구년사월(慕瑟浦光鮮義塾設立 大正十五年四月) 설립자 최정숙(設立者 崔正淑) 설립시 생도 6(設立時 生徒 六) 현재생도 36(現在生徒 三六) 교원 2(敎員 二) 숙장 원객혁(塾長 元客赫) ▲ 모슬포신광야학소 설립 대정십일년구월이십일(慕瑟浦信光夜學所 設立 大正十一年九月二十日) 설립자 박애란(設立者 朴愛蘭) 설립시 생도 4(設立時 生徒 四) 현재생도 36(現在生徒 三六) 교원 4(敎員 四) 소장 원용혁(所長 元容赫) ▲ 수산리 지인학숙 설립 대정십오년사월일일(水山里智仁學塾設立大正十五年四月一日) 설립자 강승보(設立者 康承保) 설립시 생도 2(設立時 生徒 二) 현재생도 6(現在生徒 六) 교원 2(敎員 二) 숙장 오찬호(塾長 吳燦鎬) 경제단체(經濟團體) ▲ 제주상선주식회사(濟州商船株式會社) 설립 대정십일년팔월일일(設立 大正十一年八月一日) 창립시 자금 십오만원(創立時資金 十五萬圓) 창립시 주주 275(創立時 株主 二七五) 현재자금 십오만원(現在資金 十五萬圓) 사장 김근시(社長 金根著) ▲ 제주전기회사(濟州電氣會社) 설립 대정십사년삼월십팔일(設立 大正十四年三月十八日) 창립시 자금 십만원(創立時 資金 十萬圓) 창립시 주주 42(創立時 株主 四二) 현재자금 십만원(現在資金 十萬圓) 사장 소창무지조(社長小倉武之助) ▲ 제주순환궤도주식회사(濟州循環軌道株式會社) 설립소화삼년십월(設立 昭和三年十月) 창립시 자금 칠십만원(創立時 資金七十萬圓) 창립시 주주 7(創立時 株主 七) 사장 산본정민(社長 山本政敏) ▲ 구좌소비조합(舊左所費組合) 설립 소화삼년육월십일(設立昭和三年六月十日) 창립시 자금 일백원(創立時 資金 一百圓) 창립시 조합원 1(創立時 組合員 一) 현재자금 사백원(現在資金 四百圓) 조합장 김창오(組合長 金昌五) ▲ 제

동아일보
면수: 5 단수: 1
1929. 1. 15.

주도해녀어업조합(濟州海女漁業組合) 설립 대정구년사월십육일(設立 大正九年四月十六日) 창립시 조합원 491(創立時 組合員 四九一) 조합장 영목병작(組合長 鈴木兵作) ▲ 제주통련주식회사(濟州通蓮株式會社) 설립 대정십사년십일월일일(設立 大正十四年十一月一日) 창립시 자금 육천원(創立時 資金 六千圓) 창립시 주주 15(創立時 株主 一五) 사장 최윤순(社長 崔允淳) 사회단체(社會團體) ▲ 제주청년동맹(濟州靑年同盟) 설립 대정십사년구월이십삼일(設立 大正十四年九月二十三日) 창립시 회원 9(創立時 會員 九) 현재 회원15(現在會員 一五) 위원장 윤성종(委員長 尹性鍾) ▲ 청년동맹성내지부(靑年同盟城內支部) 설립 소화삼년 팔월이십일일(設立 昭和三年八月二十一日) 창립시 회원 1(創立時 會員 一) 현재회원 2(現在會員 二) 위원대표 고명우(委員代表 高明佑) ▲ 청년동맹화북지부(靑年同盟禾北支部) 설립 소화삼년십월일일(設立 昭和三年十月一日) 창립시 회원 1(創立時 會員 一) 현재회원 1(現在會員 一) 위원장 이무형(委員長 李武珩) ▲ 제주청년동맹신촌지부(濟州靑年同盟新村支部) 설립 소화삼년팔월이십일(設立 昭和三年八月二十日) 창립시 회원 7(創立時 會員 七) 현재회원 1(現在會員 一) 위원대표 유형백(委員代表 兪瀅栢) ▲ 제주청년동맹조천지부(濟州靑年同盟朝天支部) 설립 소화삼년팔월이십일(設立 昭和三年八月二十日) 창립시 회원 54(創立時 會員 五四) 현재회원 9(現在會員 九) 대표 김순탁(代表 金淳鐸) 청년동맹모슬포지부(靑年同盟慕瑟浦支部) 설립 소화삼년팔월이십일(設立 昭和三年八月二十日) 창립시 회원 6(創立時 會員 六) 현재회원 6(現在會員 六) 대표 오대진(代表 吳大進) ▲ 청년동맹함덕지부(靑年同盟咸德支部) 설립 소화삼년팔월이십일(設立 昭和三年八月二十日) 창립시 회원 1(創立時 會員 一) 현재회원 1(現在會員 一) 대표 고종건(代表 高宗虔) ▲ 청년동맹가파지부(靑年同盟加派支部) 창립시 회원 5(創立時 會員 五) 현재회원 7(現在會員 七) 대표 김옥천(代表 金玉千) ▲ 여자청년회(女子靑年會) 설립 대정십사년십이월이십육일(設立 大正 十四年十二月二十六日) 창립시 회원 5(創立時會員 五) 현재회원 8(現在會員 八) 대표 고수선(代表 高守善) ▲ 제주부인회(濟州婦人會) 설립 대정십년십일월이십팔일(設立 大正 十年十一月二十八日) 창립시 회원 8(創立時 會員 八) 현재회원 6(現在會員 六) 회장 고마리아(會長 高嗎利亞) ▲ 모슬포부인회(慕瑟浦婦人會) 설립 소화이년구월십일일(設立 昭和二年九月十一日) 창립시 회원 4(創立時 會員 四) 현재회원 5(現在會員 五) 회장 김응숙(會長 金應淑) ▲ 조천여자청년회(朝天女子靑年會) 설립 대정십오년오월십일일(設立 大正十五年五月十一日) 창립시 회원 3(創立時 會員 三) 현재회원 5(現在會員 五) 대표 김시순(代表 金時順) ▲ 중문리청년회(中文里靑年會) 설립 대정십사년십월십오일(設立 大正 十四年十月十五日) 창립시 회원 5(創立時 會員 五) 현재 회원 6(現在會員 六)회장 강창언(會長 姜昶彦) ▲ 귀일청년회(貴一靑年會) 설립 대정십삼년이월십일(設立 大正十三年二月十日) 창립시 회원 15(創立時會員 一五) 현재회원 151(現在會員 一五一) 회장 고용기(會長 高瑢基) ▲ 하도청년회(下道靑年會) 설립 대정십년십월이십구일(設立 大正 十年十二月二十九日) 창립시 회원 5(創立時 會員 五) 현재회원 16(現在會員 一六) 대표 오문규(代表 吳文奎) ▲ 오도흥애회(吾道興會愛) 설립 대정십사년구월일일(設立 大正十四年九月一日) 창립시 회원 5(創立時 會員 五) 현재 회원 7(現在會員 七) 위원장 양의경(委員長 梁義慶) ▲ 도두청년회(道頭會靑年) 설립 대정십년이월십오일(設立 大正十年二月十五日) 창립시 회원 3(創立時 會員 三) 현재회원 6(現在會員 六) 회장 김호준(會長 金鎬晙) ▲ 감산청년회(柑山靑年會) 설립 대정십사년십월십오일(設立 大正十四年十月十五日) 창립시 회원 28(創立時 會員 二八) 현재회원 25(現在

동아일보
면수: 5 단수: 1
1929. 1. 15.

會員 二五) 회장 강구환(會長 姜龜桓) ▲ 중앙협진청년회(中央協進靑年會) 설립 대정십오년십월십일일(設立 大正十五年十月十一日) 창립시 회원 72(創立時 會員 七二) 현재회원 72(現在會員 七二) 회장 좌달삼(會長 左達三) ▲ 영재청년회(瀛才靑年會) 설립 소화이년십이월(設立 昭和二年十二月) 창립시 회원 7(創立時 會員 七) 현재 회원 8(現在會員 八) 회장 장두호(會長 張斗瑚) ▲ 외도을성청년(外都乙成靑年會) 설립 대정십사년이월십오일(設立 大正十四年二月十五日) 창립시 회원 9(創立時 會員 九) 현재회원 9(現在會員 九) 회장 김충희(會長 金忠熙) ▲ 고산청년회(高山靑年會) 설립 대정 십오년십일월십오일(設立 大正 十五年十一月十五日) 창립시 회원 3(創立時 會員 三) 현재회원 58(現在會員 五八) 회장 고정준(會長高精俊) ▲ 애월청년회(涯月靑年會) 설립 대정십일년팔월십오일(設立 大正十一年八月十五日) 창립시 회원 3(創立時 會員 三) 현재 회원 5(現在會員 五) 회장 이관석(會長 李琯石)

△해당 기사 사진

동아일보
면수: 2 단수: 11
1933. 6. 1.

水鴻丸 沈沒 : 濟州島 부근서

수홍환침몰(水鴻丸沈沒)
삼십(三十)일 오후 오(五)시경 전남 제주도(濟州島) 부근에서 조선우선회사 소유 하물선 수홍환(水鴻丸) 팔십일(八十一)돈짜리가 침몰되엇다 침몰된 중요 천인은 알 수 없으나 목포에서 제주로 가다가 석탄창고에서 발화되엇는데 승조원에게 아모러한 이상없이 구조되엇다 한다

水鴻丸沈沒

△해당 기사 사진

동아일보
면수: 2 단수: 10
1934. 2. 19.

石油를 滿載한 發動船에 發火 배를 침몰시켜 간신히 진화 損害는 萬五千餘圓, 山池港에(濟州)

석유(石油)를 만재(滿載)한 발동선(發動船)에 발화(發火) 배를 침몰시켜 간신히 진화 손해(損害)는 만오천여원(萬五千餘圓) 【제주】 이(二)일 오전 열한시쯤 산지항(山池港)에서 석유 휘발유 소주 등의 인화물(引火物)을 적재한 발동기선이 발화하엿는데 선원은 전부 상륙하엿엇으므로 다행이 인명에는 하등상해가 없엇고 선체 하칙부에 구멍을 뚫어 간신이 선체를 침몰시키엇으나 불타는 석유통이 바닷물 우에 뜬 채로 바람에 밀리어 동쪽방파제(東防波堤)로부터 서쪽 매립지(埋立地)인가 부근에까지 흘러 가서 일시 위험한 상태에 이르럿으며 손해액은 약 일(一)만오(五)천여원이라 한다

石油를滿載한
發動船에發火
배를 침몰시켜 간신히 진화
損害는萬五千餘圓

△해당 기사 사진

동아일보
면수: 2 단수: 8
1936. 4. 25.

木浦近海 衝突事件 燈火有無가 問題化, 양방의 주장이 너무 상치돼, 京城濟州人會까지 蹶起(仁川)

목포근해(木滿近海) 충돌사건(衝突事件) 등화유무(燈火有無)가 문제화(問題化)
양방의 주장이 너무 상치돼 경성 제주인회(京城濟州人會)까지 궐기(獄起)

【인천】 누보=목포근해 소안도(木浦近海 所安島) 근방 해상에서 목선과 기선이 충돌하야 무참히 구(九)명이 수중 고혼이 된 사건에 대하야는 작석 상보한바와 같거니와 깨여진 칠복환(七福丸)은 등은 물론 달엇을뿐 아니라 그래도 막 달려들며 못본체 함으로 배안에 잇든 장적을 화로에다 처넛코 석유를 친 후 화주를 이르키 엿으나 그여코 받어 십오(十五)명 승조원중 육(六)명만은 배쪼각에 매여달린 것을 구조를 하고 구(九)명은 참사를 시키엿는데 이러케 드러받고도 못본체 약십(十)리 나갓다가 다른 배가 "사치라이트"를 비치고 경적을 울리고 하니까 겨우 도라와 드러받은지 일(一)시간이나 된 후 구조하야서는 객실에도 안뉘고 석탄광에다 뉘여 인도적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봉성환(鳳成丸)은 이목선이 등이 없어 드려받엇다고 주장하야 아연이 등화유무 문제는 해사 재판에까지 등장될 모양으로 그 주장의 차이가 너무 현격한 만치 의아하지 안흘 수 없다는데 범선은 무리하게 승객을 만히 태운 관계도 잇어 그와 같이 다수의 히생자를 내인 모양이라 한다 그리고 경성에 잇는 제주인회에서까지 궐기하야 어디까지 싸호리라 한다.

木浦近海 衝突事件
燈火有無가 問題化
양방의 주장이 너무상치돼
京城濟州人會까지 蹶起

△해당 기사 사진

동아일보
면수: 4 단수: 6
1938. 12. 15.

濟州島의 電力 南鮮合同進出

제주도(濟州島)의 전력(電力) 남선합동진출(南鮮合同進出)
제주도(濟州島)의 경제개발(經濟開發)은 현안(懸案)의 무수주정(無水酒精)에 대(對)하야 동척(東拓)의 진출결정(進出決定)으로 드디어 구체화(具體化)의 서(緖)에 취(就)하엿는데 전력(電力)에 관(關)하여는 남선합동전기(南鮮合同電氣)가 진출(進出)하기로 대체결정(大體決定)되엇다. 제주도(濟州島)의 전력수요(電力需要)는 요(要)컨대 전도(全島)에 잇어서의 기업사업(起業事業)의 규모(規模)에 의(依)하야 결정(決定)할 터인바 남전(南電)은 동사(同社)가 가진바 유휴화력발전(遊休火力發展) 설비(設備)를 동도(同島)에 이송(移送)하야 활용(活用)할 계획(計劃)으로 유휴설비활용(遊休設備活用)의 일석이조안(一石二鳥案)이다. 직접남전(直接南電)의 진출(進出)이 될지 동척(東拓)과 자본합작(資本合作)이 될지는 미정(未定)이나 남전(南電)의 설비이송(設備移送)은 결정(決定)되고 잇다.

濟州島의電力
南鮮合同進出

△해당 기사 사진

조선일보
면수: 석간
1934. 8. 29.

제주, 울릉 양도에 경비용 무전 설치

제주(濟州), 울릉(鬱陵) 양도(兩島)에
경비용 무전 설치(警備用 無線設置)
근해(近海)를 싸는 무형(無形)의 지주망(蜘蛛網)!
명년(明年)에 시설(施設)키로 결정(決定)

경무국에서는 경비전화를 확장 증설하는 동시에 중요한 섬으로서 통신련락이 불편한 곳에 무선전신을 설치하려고 계획중이든바 우선 명년도에는 울릉도(鬱陵島)와 제주도(濟州島)에 경비용 단파장(短波長) 무선전신긔를 설비하게 되엿다 한다 일즉 일본 내지에서 산형현 주전시(山形縣 酒田市)와 일본해의 고도인 비도(飛島)와 사이에 단파장 무선전신의 시험을 한 결과 매우 조흔 성적을 어든 일이 잇슴으로 명년에는 전긔와 가치 제주도와 울릉도의 두 곳에 한 대에 삼천원 내지 오천원 가량 하는 무선 전신긔 두 대를 장치하고 경비용으로 사용하게 예산을 편성하엿다는데 전긔 두 곳은 단순히 경찰용으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선 연안의 가장 중요한 섬이니만치 군사상으로 보드라도 주목할 만한 통신시설이라 하겟다

濟州、鬱陵兩島에
警備用無電設置
近海를 싸는 無形의 蜘蛛網!
明年에 施設키로 決定

◁해당 기사 사진

조선일보
면수: 석간 2, 3
1937. 2. 15.

제주도 개발 전주곡 大수력발전소 계획

제주도 개발 전주곡(濟州島 開發 前奏曲)
대수력발전소 계획(大水力發電所 計畫)
한라산 벽계폭포(漢拏山 碧溪瀑布)를 이용(利用)해서
조사대 십오일 귀광(調査隊 十五日 歸光)

【광주(光州)】 천연의 자원이 풍부한 제주도(濟州島)를 지금까지 하등의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잇섯든 바 밋 도간부들이 제주도 개발할 것을 적극 주창하게 되야 총독부 관계국장 등이 동도 개발에 협력 찬동하게 되야 각과의 기술자를 제주도에 파송하고 잇다 함은 기보하엿거니와 총독부 교본(橋本) 수리과장 림정과 대장(大場)기사 등 십여명의 기술자는 실지 조사를 마치고 십오일에 착광하야 도청 회의실에서 회합을 할 터이라는데 동도 개발 제일착으로 한라산(漢拏山) 중복에 잇는 벽계폭포(碧溪瀑布)를 리용하야 대수력 전기발전소를 기도하고 잇다는데 그 발전소가 실현되면 제주도 전도를 무난이 공급한다 그 조사대는 예정보다 늦게 십사일로부터 약 일주일간 동도에서 조사를 마치고 광주에 도라와 도회의실에서 제주도 개발협의회를 개최할 터이라 한다

濟州島開發前奏曲
大水力發電所計畫
漢拏山碧溪瀑布 를 利用해서
調査隊十五日歸光
公會堂期成後
圖書館도附設

△해당 기사 사진

조선일보
면수: 석간 2, 8
1937. 7. 11.

제주도 개발의 재검토론 대두

제주도 개발(濟州島 開發)의 재검토론 대두(再檢討論 擡頭)
전문적부분(專門的部分) 실험 후(實驗 後)가 아니면
전면적개발(全面的開發)은 의문(疑問)

과반(過般) 제주도(濟州島)의 전면적(全面的)개발(開發)에 대(對)하야 총독부(總督府)의 방침(方針)이 결정(決定)발표(發表)되엇는 바 이에 대(對)하야 최근(最近) 식자간(識者間)에는 점차(漸次) 그 재검토(再檢討)의 필요론(必要論)이 대두(擡頭)되고 잇다 즉(卽) 이유(理由)로 하는 바는 제주도(濟州島)는 전면적(全面積) 십팔만구천칠백십정보(十八萬九千七百十町步)인데 그중(中) 해발(海拔) 일천척 이하(一千尺 以下)의 것은 십삼만구천구백오십정보(十三萬九五十千九百町步)이고 이천척 내지(二千尺 乃至) 일천척(一千尺)의 것이 삼만일천일백정보(三萬一千一百町步)이며 그 이상(以上)이 것이 일만오천오백오십정보(一萬五千五百五十町步)이다 이 일천척(一千尺) 이하(以下)의 것이라 하야도 그 전부(全部)가 경지(耕地)로 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업고 그 중(中) 약 사할(約 四割)의 오만육천정보(五萬六千町步)를 경지(耕地) 가능면적(可能面積)으로 볼 수 잇는데 제주도(濟州島)의 인구(人口) 악 이십만인(約二十萬人)에 전조선 일인당 평균 경작지(全朝鮮 一人當 耕作地), 이삼정보(二三町步)로 잡고 그 기간지(旣墾地)를 이어서 공제(控除)하면 금후(今後) 개발(開發)할 면적(面積)은 불과(不過) 일만이천정보 내외(一萬二千町步 內外)에 불과(不過)하다 그런데 여기에다 제주도(濟州島)에 다대(多大)한 기대(期待)를 갓고 잇는 천연료수(天燃料無水)『알콜』의 원료(原料)인 감저(甘藷)를 재배(栽培)한다고 하면 전남 평균 단당 이백육십관(全南 平均 段當 二百六十貫)의 수량(收量)이 잇다고 보고 삼천백이십만관(三千百二十萬貫)의 수확(收穫)을 어들 수 잇서 이를 관당 십전(貫當 十錢)으로 환산(換算)하면 삼백만원 내외(三百萬圓 內外)의 소득(所得)이 잇슬 것인데 이에 거대(巨大)한 비용(費用)을 드려 육칠만인(六七萬人)의 노력(努力)을 동원(動員)할 가치(價値)가 과연(果然)잇슬가 또는『알콜』원료(原料)로 사용(使用)하는 감저(甘藷)의 단가(單價)는 약 사전(約 四錢)이라야 채산(採算)이 맛는데 이러한 형편(形便)에 잇서 감저재배(甘藷栽培)를 장려(奬勵)하고 무수(無水)『알콜』제조(製造)를 촉성(促成)하려면 이에 거대(巨大)한 보조(補助)가 필요(必要)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제주도(濟州島)는 암석(岩石)이 시대(時代)가 연고(年苦)하야 활화산(活火山)이 잇든 지가 사백년(四百年)을 경(經)하얏슴에 불과(不過)하야 식물(植物)생육(生育)에 적당(適當)한 토양층(土壤層)의 발달(發達)이 부족(不足)하고 또 석괴(石塊)가 만허 경작(耕作)에 적당(適當)한 토지(土地)가 근소(僅少)하야 이를 개발(開發)한다 하야도 그 이용가치(利用價値)에 크게 기대(期待)를 갓기 어렵다 그리고 공업적 방면(工業的 方面)을 관찰(觀察)하면 제일(第一)에 용수(用水)가 문제(問題)인데 제주도(濟州島)는 음료수(飮料水)에도 곤난(困難)을 밧고 잇는 형편(形便)으로 화구호(火口湖)의 유수(溜水)를 이용(利用)하는 수 박게 업는바 저 유명(有名)한 백록담(白鹿潭)을 드러 몰지라도 집수면적(集水面積) 증발량(蒸發量) 강우량(降벌量)을 모다 고려(考慮)에 너어 계산(計算)하야 연 오만톤(年 五萬噸)의 용수(用水)를 어들 수 잇슴에 불과(不過)하다 이러한 것이 몃개가 잇다 하

조선일보
면수: 석간 2, 8
1937. 7. 11.

야도 음료수(飮料水)에 불과(不過)하고 공업용수(工業用水)를 엇기는 지난(至難)한 터이다 또 동력(動力)에 잇서서도 백록담수 낙차(白鹿潭 水 落差)를 육천척(六千尺)으로 치고 그 가능(可能) 발전(發展)을 보면 팔(八)키로 왓트에 불과(不過)하야 이러한 것이 서넛이 잇다고 잡드라도 그 발전력(發展力)은 이삼십(二三十)키로왓트의 빈약태(貧弱肽)이다 그리고 연료석탄(燃料石炭)으로 말할지라도 구주탄(九州炭)을 사용(使用)할 수 박게 업슬 터인데 그 선운비(船運費)를 고려(考慮)치 안흘수 업슬 것이다 대체(大體) 이러한 관계(關係)로 개발 가능면적(開發 可能 面積)이 상당(相當)하고 기후(氣候)가 호적(好適)하다 할지라도 개별적(個別的) 전문적(專門的)부문(部門)에 잇서 실험(實驗)을 하야 보아 과연(果然) 유망(有望)하다면 모르되 전면적(全面的)으로 개발(開發)한다는데 잇서서는 재검토(再檢討)할 필요(必要)가 잇지 안흔가 하는 것이라 한다

濟州島開發의
再檢討論擡頭
全面的開發을 疑問
爲替平衡資金
輸入許可
朝鮮內入組
生產配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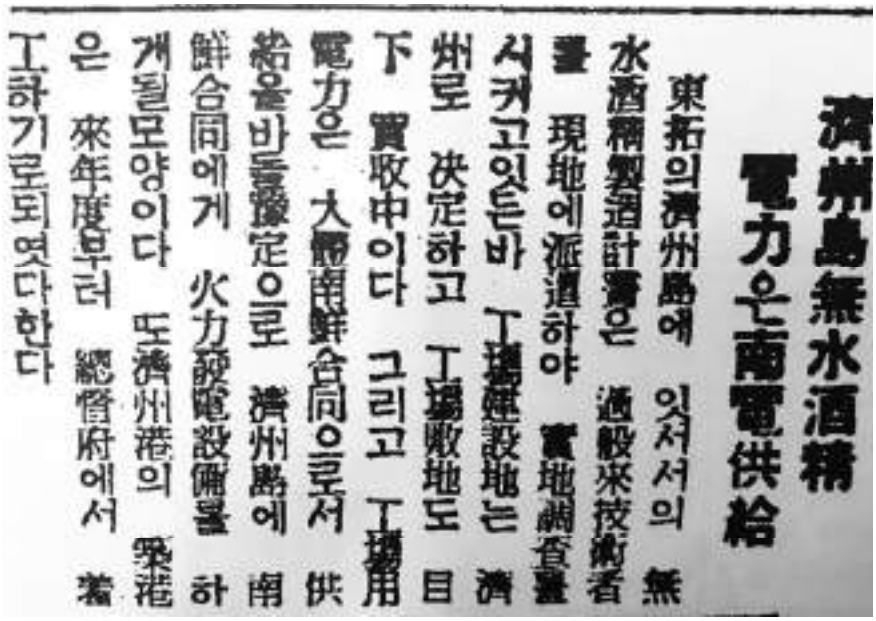
△해당 기사 사진

조선일보
면수: 석간 2, 7
1938. 12. 10.

제주도 무수주정 전력은 남전공급

제주도 무수주정(濟州島 無水酒精)
전력(電力)은 남전공급(南電供給)

동척(東拓)의 제주도(濟州島)에 잇서서의 무수주정제조계획(無水酒精製造計畫)은 과반래기술자(過般來技術者)를 현지(現地)에 파견(派遣) 하야 실지조사(實地調査)를 시키고 잇든바 공장건설지(工場建設地)는 제주(濟州)로 결정(決定)하고 공장부지(工場敷地)는 제주(濟州)로 결정(決定)하고 공장부지(工場敷地)도 목하(目下) 매수중(買收中)이다 그리고 공장용전력(工場用電力)은 대체남선합동(大體南鮮合同)으로서 공급(供給)을 바들 예정(豫定)으로 제주도(濟州島)에 남선합동(南鮮合同)에게 화력발전설비(火力發電設備)를 하게 될 모양이다 또 제주항(濟州港)의 축항(築港)은 내년도(來年度)부터 총독부(總督府)에서 착공(着工)하기로 되엿다 한다


濟州島無水酒精
電力은南電供給
東拓의濟州島에 잇서서의 無
水酒精製造計畫은 過般來技術者
를 現地에派遣하야 實地調査를
시키고잇든바 工場建設地는 濟
州로 決定하고 工場敷地도 目
下 買收中이다 그리고 工場用
電力은 大體南鮮合同으로서 供
給을바들豫定으로 濟州島에 南
鮮合同에게 火力發電設備를 하
게될모양이다 또濟州港의 築港
은 來年度부터 總督府에서 着
工하기로되엿다한다

△해당 기사 사진

조선중앙일보
면수: 5 단수: 1
1934. 2. 7.

기선에 적재한 석유 천통이 폭발,제주 산지항에 화광이 충천, 손해가 2만여원

기선(汽船)에 적재(積載)한 석유 천통(石油千桶)이 폭발(爆發)
[제주산지항(濟州山地港)에 화광(火光)이 충천(衝天)]
손해(損害)가 2만여원(二萬餘圓)

【제주(濟州)】 지난 2(二)월 2(二)일 오전 11(十一)시 제주산지항(濟州山地港)에 긔항중인 제주(濟州)목포(木浦)간 통항하는 화물선 ○동긔 ○○환(○○丸)(○○)에 불이 나서 마침 적재중인 석유 천여통이 폭발되여 산지항(山地港) 일(一)대는 화광이 충천하야 멀리 인가에까지 위협을 끼칠번한 사실이 잇섯다 경관의 출동으로 진화에 진척본다 하야 약 세시간 가량이나 연소되다가 진화되엿는데 화재는 긔계실에서부터 발화되여스며 그 화인은 담배불로 인한 실화인 것 갓다고한다 배에는 석유가 천여통 소주 이(二)백여통 쌀이 백여섬 등으로 손해액이 약 이(二)만여원이며 금번 화재로 인하야 파산선고 당할만치 만히 손해를 본 상인도 잇서서 가삼을 두다리여 물고 헤메이는 양은 참아 눈으로 볼 수 업슬만치 처참한 광경을 일우엇고 그중에도 선원들은 다행이 무사 구명되엿다한다

汽船에積載한
石油千桶이爆發
【濟州山地港에火光이衝天】
損害가二萬餘圓

△해당 기사 사진

조선중앙일보
면수: 5 단수: 3
1934. 4. 17.

다대포 근해에서 화물선과 기선충돌,선원 1명 소사, 제주환은 소침,가해선은 부산으로 도주

다대포 근해(多大浦近海)에서 화물선(貨物船)과 기선충돌(汽船衝突)
선원 1명 소사(船員一名燒死), 제주환(濟州丸)은 소침(燒沈)
가해선(加害船)은 부산(釜山)으로 도주(逃走)

【부산(釜山)】 지난 14(十四)일 오전일곱시경 부산수상서관내(釜山水上署管內)안 다대포(多大浦) 근해에서 긔선(汽船)의 대충돌사건이 생겻는데 자세한 내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14(十四)일 새벽에 일본수산회사(日本水産會社)의 소유인「제주환(濟州丸)」이 전남여수(全南麗水)를 향하야 전긔 다대포 부근을 통과할지음에 때마침 부산을 향하야 드러오는 ○○○○우군선생환(○○○○○○○生丸) 소림환(小林丸)의 소유인 화물선(貨物船) 제삼(三)「미쓰자」환(丸)과「정」(丁)짜형으로 대충돌을 이르키자 전긔 제주환(濟州丸) 긔관부가 파괴되는 동시에 기름(油) 30(三十)여통에 불이 부터서 맹열이 타게되여서 선원병 송모(船員兵宋模)(25)는 무참히도 타서 죽엇스며 그뿐 아니라 전긔 제주환은 전부 소실되엿다 가해선마저도「하쓰지」환(丸)은 그만 부산으로 도주하엿는데 이 급보를 접한 부산수상서에서는 즉시 전긔 가해선을 참시하야 관계자를 구인하고 목하 엄중 취조중이라고 한다

多大浦近海에서
貨物船과汽船衝突
船員一名燒死、濟州丸은燒沈
加害船은釜山으로逃走

△해당 기사 사진

조선중앙일보
면수: 2 단수: 5
1936. 4. 25.

과실이냐 고의냐, 칠복환(七福丸) 격침 이면에 중대 의운(疑雲)이 잠재, 등화로 위험신호도 했다고, 경찰취조로 문제화

과실(過失)이냐? 고의(故意)냐?
칠복환(七福丸) 격침(擊沈) 이면(裡面)에 중대의운(重大疑雲)이 잠재(潛在)
등화(燈火)로 위험신호(危險信號)도 했다고 경찰취조(警察取調)로 문제화(問題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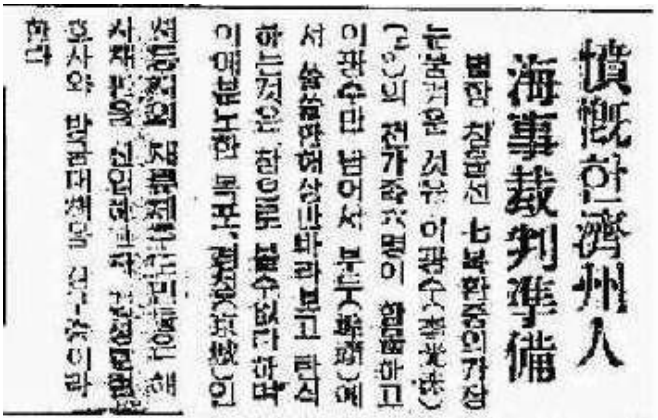
【인천(仁川)】 목포(木浦)근해 소완도(所完島)부근에서 발생된 제주도 애월면 하귀리(濟州島涯月面下貴里) 문창형(文昌衡)의 소유 범선 칠복환(七福丸)과 일선해운(日鮮海運)소속 기선 봉성환(鳳成丸)(2670(二六七〇)돈)의 암야(暗夜)충돌로 남녀 9명의 익사(溺死)를 내인 참화사건은 작보하였거니와 충돌당시 칠복환에서는 위험을 피하기 위하야「장작」에다 석유를 쳐서 불을 질러가며 필사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달려드는 기선의 속력(速力)에 어찌할 수 없이 침몰당한 형적이 경찰의 봉성환 선장(船長)과 선원 취조에○아 농후하여지는 모양인데 사실 유등선(有燈船)을 침몰시키었다면 이 문제는 장차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리라 한다

분명(分明)한 유등선(有燈船)을 무등선(無燈船)이라 타전(打電)

【인천(仁川)】 별항보도의 칠복환 침몰사건은 그 귀결이 어찌됐는지 천하의 시청을 끌고있는데 충돌 이래의 경과를 물으면 봉성환이 칠복환을 침몰시키고도 그대로 질주할지음에 때마침 지나가던 기선이 참상을 발견하고 탐조등(探照燈)으로 마치 적함(敵艦)을 탐사하듯이 비집자 전기 봉성환은 다시 머리를 돌려서 구조에 착수하여 침몰 이후 약 1시간을 경과한 관계로 많은 사자를 내었다하며 더욱 분노할 것은 구조된 선원을 객실(客室)에도 수용치 아니하고 가장 불결한 기관실(機關室)에 넣어서 비인간취급을 한 것이라 하며 취조에 많아 중대한 책임문제화될 것은 봉성환에서 무전(無電)으로 무등선(無燈船)과 충돌되었으니 구호하라고 인천서로 발신한 것이 사실을 번복하야 책임회피를 피한 것이 아닌가 함이라 한다. 분개(憤慨)한 제주인(濟州人) 해사재판(海事裁判) 준비(準備) 별항 침몰선 칠복환중의 가장 눈물겨운 것은 이광수(李光洙)(20)의 전 가족 6명이 함몰하고 이광수만 남어서 부두(埠頭)에서 쓸쓸한 해상만 바라보고 탄식하는것은 참으로 볼 수 없다 하며 이에 분노한 목포경성(京城) 인천 등지의 재류제주도민들은 해사재판을 선입하고자 경성 ○변호사와 방금 대책을 강구중이라 한다

조선중앙일보
면수: 2 단수: 5
1936. 4. 25.

七福丸擊沈裡面에
重大疑雲이潛在
燈火로危險信號도했다고
警察取調로問題化
過失이냐故意냐
分明한有燈船을
無燈船이라打電



憤慨한濟州人
海事裁判準備

△해당 기사 사진

조선중앙일보
면수: 7 단수: 21
1936. 9. 1.

제주도 시가지는 반 이상이나 침수, 각지 교통도 두절

제주도(濟州島) 시가지(市街地)는 반 이상(半以上)이나 침수(浸水)
각지 교통(各地交通)도 두절(杜絶)

【제주도(濟州島)】 지난 26일부터 대폭풍우가 제주도 연안(濟州島沿岸) 일대를 습내하여 풍속(風朗)35메들의 폭풍과 맹렬한 비가 연 2일간 계속하기 때문에 농작물(農作物)은 전멸상태이라고 하며 냇물이 범람하여 대홍수를 이루어 교통이 두절되고 제주읍내(濟州邑內) 일대는 반 이상이 침수하고 파괴된 가옥이 말소하여 상점가는 간판과 지붕이 비바람에 파손되어 피해가 막대한 그외 다른 부락은 교통이 두절되기 때문에 상세한 정보가 없어 피해의 정도를 알 수가 없고 풍랑은 28일 야밤에 일층더 맹렬히 분다고 경고하기 때문에 전기회사(電氣會社)에서는 초저녁부터 정전(停電)하야 시가지는 암흑세계가 되고 일반인들은 불안과 공포에 전율하고 있으며 소관 제주경찰서(濟州警察署)에서는 서원과 소방수를 총동원시켜 경계와 보호의 일에 임하고 있다

濟州島市街地는
半以上이나浸水
各地交通도杜絶

△해당 기사 사진

중외일보
면수: 1 단수: 8
1928. 3. 17.

호황을 계속하는 조선내 전기회사, 주요회사는 1할 2분배

호황(好況)을 계속(繼續)하는
조선내(朝鮮內) 전기회사(電氣會社)
주요회사(主要會社)는 1할(一割) 2분배(二分配)

일반재계(一般財界)의 불황(不況)으로 사업계(事業界)는 혹(或)은 ○○○은 억지로 ○○을 하고 잇는 현상(現狀)임에 반(反)하야 ○○○○만은 불연(不然)하야 조선내 주요회사는 ○○ 1할 내지 1할 2분의 ○○을 ○○하고 ○○의 ○○○을 할 수 있는 상태인 바 조선내(朝鮮內)에 본점(本店)을 유(有)한 ○○회사(會社)의 ○가 현재(現在) 약 60(約六十)에 달(達)하며 기중(其中)에 ○○○○○○○가 ○○하고 또 ○○가 ○○의 ○○에 면치못하야 ○○○○○ 인 것은 남원(南原), 공주(公州), 제주(濟州)의 각 ○○회사(會社)이오 기(其)○ 이삼(二三)의 소(小)○○의 ○○ 외 ○○○○이 사분(四分)○○을 하는 외는 대체(大體) 칠팔분(七八分) 내지(乃至) 1할2분(一割二分)의 배당(配當)을 ○○하고 잇다 ○○회사(會社)로서 ○○○○을 누계(累計)는 ○○회사(會社)에 기(旣)하야 ○○의 ○○○○을 보면 ○좌(左)하더라

회사명(會社名) ○○○
경성전기(京城電氣) 1할2분(一割二分)
조선전기(朝鮮電氣) 1할2분(一割二分)
○○○ ○○○○○ 1할2분(一割二分)
○○ ○○○○○ 1할(一割)
부산와사전기(釜山瓦師電氣) 1할2분(一割二分)
진남포전기(鎭南浦電氣) 1할2분(一割二分)
신의주전기(新義州電氣) 1할2분(一割二分)
목포전기(木浦電氣) 1할2분(一割二分)
원산전기(元山電氣) 1할2분(一割二分)
금강산전기(金剛山電氣) 1할2분(一割二分)
대전전기(大田電氣) 1할(一割)

중외일보
면수: 1 단수: 8
1928. 3. 17.

好況을繼續하는
朝鮮內電氣會社
主要會社는一割二分配

△해당 기사 사진

중외일보
면수: 4 단수: 4
1928. 5. 16.

제주도 윤환철도계획과 공사비 융통문제

제주도(濟州島) 윤환철도(輪環鐵道) 계획(計劃)과
◇···공사비(工事費) 융통문제(融通問題)

제주도(濟州島)의 윤환철도(輪環鐵道)는 목하(目下) 공사중(公事中)인 바 구역내(區域內) 일부분(一部分)은 근근개통(近近開通)될 듯하며 금후(今後)의 신규공사자금(新規工事資金)은 식은(殖銀)에서 융통(融通)한다는 풍설(風說)이 전(傳)히며 또 동지(同地)의 수력발전사업자금(水力發電事業資金) 기타(其他) 관힐공업소(罐詰工業所)의 사업자금(事業資金)도 식은(殖銀)에서 공급(供給)하기 위(爲)하야 동행지점(同行支店)을 확대(擴大)할 것 가튼바 금회(今回)의 동도(同島)시찰(視察)은 사업상(事業上) 실제시찰(實際視察)이라고 보이는데 유하(有賀) 두취(頭取)는「그런 일은 전연(全然)히 업스며 다만 동도(同島)시찰중(視察中) 여러 사업가(事業家)들에게서 후(後)의 편리(便利)를 원한다는 부탁(付託)을 바든데 불과(不過)한 것이오 또 식은(殖銀)으로서는 제주도(濟州島)의 천연자원(天然資源)의 개발(開發) 급(及) 이용(利用)에는 최선(最善)의 노력(努力)을 불석(不惜)할 것이며 지점(支店)확장(擴張)에 대해서는 고구중(考究中)이라」하고 어찌보면 수긍(首肯)하는 듯 어찌보면 부인(否認)하는 듯한 어조(語調)는 식은(殖銀)이 타은행(他銀行)보다 제주도(濟州島)를 노리고 잇다는 풍설(風說)이 전연(全然) 사실(事實)이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다더라

濟州島—
輪環鐵道計劃과
◇—工事費融通問題

△해당 기사 사진

중외일보
면수: 4 단수: 5
1928. 6. 17.

전기요금 개정과 전선적(全鮮的) 요금 인하, 현상 유지는 특수회사뿐

전기요금개정(電氣料金改正)과 전선적(全鮮的) 요금인하(料金引下)
현상유지(現狀維持)는 특수회사(特殊會社)뿐

금년중(今年中) 요금(料金) ○○○의 ○○회사는 전선(全鮮) 64사(六十四社) 중(中) 26사(二十六社)에 달(達)하야 ○○○○이 ○○○에서는 요금(料金)인가(認可)의 ○○○○의 심의(審議) 내지(乃至) 사정(査定)에 경쟁하는 모양인데 ○○ 요금(料金)의 개정(改定)을 허가(許可)한 것은 9사(九社)이며 차중(此中)에서 요금(料金)의 인하(引下)를 ○한 것은 ○○○○오사(五社)는 승낙(承諾)이 아직 ○○하야 ○○의 부진(不振)으로 현상유지(現狀維持)인데 ○○○○○○○에 의하야 신규요금(新規料金)의 대비(大比)는 여좌(如左)하더라

회사명(會社名)	신요금(新料金)	구요금(舊料金)	인하액(引下額)
공주전기(公州電氣)	1.05	1.10	0.05
○○○전기(電氣)	75	75	
○○전기(電氣)	1.10	1.10	
성남전기(城南電氣)	1.10	1.10	
제주전기(濟州電氣)	1.10	1.10	
진주전기(晉州電氣)	1.05	1.10	0.05
경주전기(慶州電氣)	1.15	1.15	
남조선전기(南朝鮮電氣)			
군산(群山)	0.91	1.1○	0.1○
전주(全州)	0.90	1.00	0.10
○○(○○)	0.90	1.00	0.10
○○(○○)	0.95	1.15	0.20
정읍(井邑)	1.05	1.15	0.10

중외일보
면수: 4 단수: 5
1928. 6.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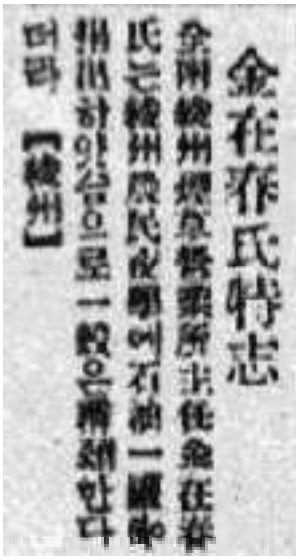
電氣料金改正과
全鮮的料金引下
現狀維持는特殊會社만

△해당 기사 사진

중외일보
면수: 3 단수: 4
1929. 4. 29.

김재춘씨 특지

김재춘(金在春)씨(氏) 특지(特志)
전남제주도(全南濟州島)○○○○ 주임(主任) 김재춘(金在春)씨(氏)는 제주농민(濟州農民)○○에 석유 1톤(石油一噸)을 제출(提出)하얏슴으로 일반(一般)은 칭송(稱頌)한다더라【제주】


金在春氏特志

◁해당 기사 사진

부산일보
면수: 2 단수: 4
1916. 7. 29.

제주도의 수산업(6)

제주도의 수산업(6)

조선수산조합장 대원장태랑(大原庄太郎) 씨 말씀

▲ 어획물 운반 상황
다음에 주요 어획물 운반 상황에 대해 한마디 한다.
▲ 생선 본도에서 밖으로 이출하는 생선 중 그 주된 것은 도미이고 운반은 내지인은 석유발동기선을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보통 매매라고 칭하는 크기 5, 60석적의 일본형 범선을 사용하고 있는데 조선인은 대부분 조선우선회사 정기 기선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석유 발동기선을 사용하는 것은 시모노세키시(下關市) 야마가미(山神) 조 및 하야시카네(林兼) 조 두 조이며 지금부터 3년 전 별도항 및 도두리에 근거지를 두고 내지인의 통어선 및 토착의 조선인 어선에 대해서 가불을 위해 어획물 수집에 힘썼다. 또 애월리에도 어선 집중을 계산하여 어획물 수집 운반을 편리하게 근거지에는 빙장고를 설치해 며칠 동안 저장에 차질 없이 하고 시모노세키로 수송하지만 이들 운반선의 항해 기간은 도미 어기 매년 12월 초순부터 이듬해 3월 하순까지 약 4개월간이었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생선 가격은 현저히 하락하고 또 그 판매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
보통 매선이라 일컬어지는 일본형 범선은 주로 겨울철의 도미를 목적으로 해서 빙장하여 이것을 목포, 군산, 인천 등 조선 내에 수송하는데 최근 석유발동기 부착 운반선이 민활하고 자금이 풍부한 경영자에게 압도되어 점차 쇠락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선편을 이용하는 것은 주로 토착 조선인이지만 내지인과 마찬가지로 어업자에게 전대금을 위해 어획물 수집에 매달렸고 이들은 주로 목포로 이출되었고 또 부산으로 이출되었다.
▲ 염어 수송은 아직 성황하지 않아 내지인 근거지에서 자신의 어획물 또는 타인의 어획물을 인수하여 이를 염장해 자기 모선(일본형 범선)으로 수송하는 것 외 다른 조선인들이 염장 어류를 수집 저장해 기선편으로 조선 내로 수송하지만 매우 적어 부진했다.
▲ 젓갈의 수송은 주로 조선인의 경영과 관련 있고 조제 항아리 안에 저장해 조선형 어선 또는 내지형 소범선에 실어 전남 지방으로 수송 판매하였다.
▲ 말린 상어 지느러미는 내지인의 근거지에서 제조하여 자기의 모선(일본형 범선)으로 부산 그 밖에 수송하였다.
▲ 수산양식과 현황
본도의 수산 양식업은 지세 상 이를 시행할 여지가 부족해서 현재도 현저한 것이 있다는 것을 듣지 못하고 그냥 본도 동단 성산포 부근에서 만입지를 이용하여 만구에 큰 제방을 쌓아 제일의 양어지를 형성하고 제방의 일부에 수갑을 만들어 썰물 때 숭어와 뱀장어의 치어를 수갑부로부터 연못 안에 유치하고 연못 안에 천연 미끼로 성장시킨 후 이를 포획하는 설비를 이루고 있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

부산일보
면수: 2 단수: 4
1916. 7. 29.

▲ 장래 개발책 여하

이상에서 서술한 바와 같은 상황으로 본도의 수산업이나 장래에 크게 개발 발전의 여지가 많고 장래를 관찰하면 이 사업의 발전책에 대해서는 관청 측 및 당업자 측에서도 근본적인 시설 및 조성적 시설에 관해 여러 안건이라 할지라도 결국 다음 사항은 가장 필요로 하고 또 가장 급선무이어야 할 것이다.

첫재, 연해 중요 장소에 어선 집합지를 설정하고 가성 어획물의 집산을 하여 일정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

둘째, 어선 집합지에는 일정한 판매 기관이나 공동 판매 방법을 마련할 것

셋째, 내지인 어류 운반업과 교섭하여 생선의 수송을 상당히 장기간 지속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

넷째, 염장어의 제조를 지도 장려하여 상당히 장기의 저장을 위한 방법을 마련할 것

본도의 전 연안선은 부속도서를 합쳐 그 연장 백수십리에 걸쳐 수족의 서식이 풍부하고 많게 하는 반면 당국에서 충분히 이를 지도 장려함과 동시에 당업자에게도 한층 분려 노력을 다하게 하여 지금의 어획고의 두 배 내지 세 배 증가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믿는다. 다만 본도는 육지 연안과 심지어 서로 동떨어져 그 교통이 불편으로 인해 어획물 처리 판매와 운반 방법 등에 대해 상당한 설비를 갖춰할 필요가 있다. 지금 갑자기 급격한 진보 발전을 이루며 바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도청 및 도청 당국에서는 매우 열성을 가지고 사업의 진흥책에 대해 가장 힘을 쏟고 있으므로 반드시 가까운 장래에 그 성적이 현저할 것을 확신하고 의심하지 않는 바이다(완)

※ 大原庄太郎: 오하라 쇼타로

濟州島の水産業

△해당 기사 사진

부산일보
면수: 3 단수: 3
1925. 3. 19.

대흥전기 제주도와 안동에 발전

대흥전기 제주도와 안동에 발전

(대구) 대흥전기주식회사에서는 일찍이 경남 제주도민의 열렬한 희망으로 이 섬에 점등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최근 모든 공사 끝내 본사에서 오구라(小倉) 사장이 동섬으로 출장 가서 17일 거행한 축하회에 임했다. 이어 경북 안동의 요청에 따라 점등 조사에는 지난번 중역회에서 기술원을 파견하게 되었고 동시에 이 기회를 이용해 본사의 간부도 안동 시찰을 실시 예정으로 이 지역을 향해 통지 방조장을 발행했다.

大興電氣
濟州島と
安東へ發展

△해당 기사 사진

부산일보
면수: 1 단수: 1
1926. 7. 24.

서귀포 수전[水電] 유망

서귀포 수전[水電] 유망

고구라 다케노스케(小倉武之助) 착목 조사 중 (제주 특신) 제주 서귀포의 천지폭포를 이용한 수력전기 계획은 자주 들었지만 자금이나 수요 관계 등으로 유망시 됨에도 불구하고 착수할 자가 없었던 때 고구라(小倉) 씨가 만주전기 사장이 되어 당지와 왕복하던 중 천지폭포 이용 유망에 착목해 곧 고구라 씨의 손으로 조선수력전기의 모리타(森田) 기사를 이곳에 파견해 조사한 후 유망하다고 결정하는 대로 그 부분에서 출원에 이른다고 했다. 이보다 앞서 고구라 씨는 본도 토목과장에게 전기사업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이곳 주민에게 반대 의견이 있으면 재미가 없으므로 그 조사를 해 달라고 글을 보냈기 때문에 토목 과장은 서귀포의 서향무십(西鄕武十) 씨 앞으로 지역민의 의견을 구해 서귀포에서는 유지 회합 결과 별다른 의견도 없이 이 취지 토목 과장에게 통지된 모양이다. 제주십승경의 우수한 천지연의 명폭포가 이때문에 풍치를 해친다는 점에서 전도민의 반대를 초래하게 될까 이 점이 매우 우려되고 있는 듯하다. 또한 고구라 씨의 사업 계획은 고구라 씨 외 두 명의 출자에서 자본 총액 19만원 목적은 주로 어선용의 제빙으로 여력은 이곳의 전등에 공급하는 데 있다. 천지폭포를 이용하고 수력 전기를 일으키는 능력은 도청 조사에 따르면 유효 낙차 71척 수량 매초 35입방척 최대 와트 120기 와트 최대 전압 3천 3백 볼트이라고

부산일보
면수: 1 단수: 1
1926. 7. 24.

西歸浦水電有望

小倉武之助當目調査中

（濟州特信）濟州西歸浦の天地瀧より當地と往復する內天地瀧の利用を利用する水力電氣の計畫はしばし〳〵耳にせられつゝあつたが資金の手より朝鮮水力電氣の梶田技師をやら調査の上有望と決定されつゝも着手する者が無かつた

て電氣事業を經營するに付同地住民に反對意見でもあつては面白くないからと其邊の調査をして貰ひたいと懇を寄せたので土木課長は濟州の西歸浦十氏連に損益民の意見を求めたので西歸浦では有志會合を打合せの結果別段の意見も無く此の旨土木課長に通知された樣であるが濟州十勝地の北たる天地瀧の名瀑布が之がため風致を害すると云ふ點から全島民の反對を招きはしまいかと此の點が非常に憂慮せられて居る樣である尙小倉氏の事業計畫は小倉氏外二名の出資にて資本總額十九萬圓目的は主として酒精用の製氷や精力は同地の電燈に供給する由である天地瀧を利用して水力電氣を起す能力は島廳の調査に依れば有効落差七十一尺水量毎秒三十五立方尺最大リヤト百二十五リヤト最大電力三千三百

△해당 기사 사진

부산일보
면수: 6 단수: 1
1928. 5. 13.

제주도에서 위험한 자동차와 자전거

제주도에서 위험한 자동차와 자전거

제주도의 좁은 길과 돌멩이 투성이의 가로를 자동차가 용감하게 질주하게 된 지 삼 년이 경과했다. 당시부터 보면 길도 확대된 노면도 끊임없이 수리를 한 결과, 삼 년 전 제주도 길의 모습은 전혀 볼 수 없었다. 자동차 수도 늘어나고 자전거도 역시 증가 추세에 있다. 따라서 차 사고도 점차 많아지고 사람의 죽음을 초래하는 실례도 체험할 수 있었다. 왕래는 어쨌든 시내의 발전과 함께 자동차, 자전거의 응용이 날마다 성행해서 가로를 왕래할 때마다 적지 않은 주의가 필요하고, 아울러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는 그 왕래에 매우 불안을 느끼고 있다. 시내의 발전에 따라 차의 교통이 격화되는 것은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그러나 이에 따라 운전수와 그 사용자는 상당한 교통 도덕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것이 단속 관헌의 주도면밀한 주의와 왕래자의 교통훈련 등이 쌓여 이 삼자가 합일함으로써 대도시의 교통이 정리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교통은 어떠한가.

濟州島で危險な
自動車と自轉車

市内の發展

交通道德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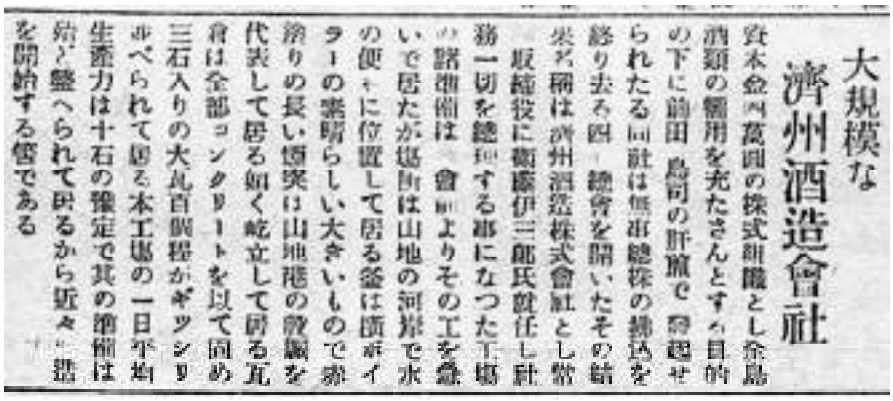
△해당 기사 사진

부산일보
면수: 11 단수: 6
1928. 5. 19.

대규모의 제주주조회사

대규모의 제주주조회사

자본금 4만원의 주식 조직으로 전도 주류의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목적 하에 마에다(前田) 도사의 주선으로 발기한 이 회사는 무사히 총 주식의 불입을 마치고 지난 4일 총회를 열었다. 그 결과 명칭은 제주주조주식회사로 하고 상무 이사에 위등이삼랑(衛藤伊三郎) 씨가 취임하고 사무 일체를 총리하게 됐다. 공장의 모든 준비는 회칙에서 그 공사를 서두르고 있다. 장소는 산지 강기슭으로 물이 편리하게 위치하고 있다. 가마는 가로보일러의 빼어난 크기의 것으로 빨강색 긴 굴뚝은 산지항의 번화함을 대표하듯이 우뚝 서있다. 기와 창고는 전부 콘크리트로 튼튼히 해서 3석이 들어가는 큰 기와 100개 정도가 빈틈없이 꽉 차게 늘어놓아 있다. 본 공장의 하루 평균 생산력은 10석 예정으로 그 준비는 거의 갖추고 있어서 곧 주조를 시작할 것이다.



大規模な
濟州酒造會社

△해당 기사 사진

부산일보
면수: 2 단수: 1
1928. 12. 7.

제주도 척식에 매진하는 순환궤도회사의 사명

제주도 척식에 매진하는 순환궤도회사의 사명
전 연장 120리는 소화 5년 준공
제주도 순환궤도회사 중역 산본정민(山本政敏) 씨 담화

당 회사의 제주도 순환궤도도 지난번 기공식을 올리고 현재 제주성내에서 쌍방으로 궤도 부설 중이다. 전 연장 120리 공정을 끝내는 것은 소화 5년 예정이다. 궤도는 도로 사용 허가를 받고 그 위에 건설하므로 비교적 저렴하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전 연장에 7십만원을 요하는 예산이다. 본 궤도는 내가 대만에서 경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동시에 오늘날 대만 산업개발의 선구로서 각지에 이르는 곳에서 이용되고 있는 간편한 수압식 궤도이기 때문에 제주도 지금의 문화와 경제 상태에 있어서는 지극히 적절한 것이라고 믿는다. 여하튼 제주도의 해안선에는 좋은 항만이 없는 데다가 해상풍도는 격렬하고 전도 해안을 일주하려면 기선으로 이틀을 요하는 상태이며, 더욱 교통 불편이 심하고, 물자 이출입에 여객 왕래에 섬의 개발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본 궤도는 비교적 항만의 소질을 가진 제주와 성산포에 물자 및 교통 여객을 집중시키고, 해륙 연락을 통해 섬의 인문 및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므로 자연히 도내 척식에 필요한 부속기관을 창설해야 한다. 특히 풍부한 수산물 처리상 제빙을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현재 서귀포 천지연 폭포의 수력을 이용해서 전기제빙회사를 출원 중이다. 더욱이 한림에도 전기회사를 출원 중 이다. 이렇게 도내 산업개발을 촉진하고 인문을 계발하는 것이 본사의 사명이기 때문에, 점차 자회사를 만들고 증자해서 제주도 해륙의 척식에 대해서 널리 내외 자본가 산업가의 내도를 환영하고 회사 역시 크게 용감히 나갈 방침이므로 20만 도민은 물론 관계 깊은 부산, 목포, 군산 등의 민관 각위의 심심한 후원을 바라는 바이다(사진은 공사 중의 궤도).
※ 山本政敏: 야마모토 마사토시

濟州島拓殖に邁進する
循環軌道會社の使命

△해당 기사 사진

부산일보
면수: 11 단수: 1
1928. 12. 23.

제주의 큰 화재, 자동차 3대 전소; 공적을 쌓은 농교생[農校生]

제주의 큰 화재, 자동차 3대 전소
공적을 쌓은 농교생[農校生]

(제주) 지난 14일 밤 9시 통운회사 차고에서 갑자기 불이 일어나 자동차 3대 및 사무용 서류 일체 꺼낼 시간도 없이 40평 남짓의 큰 건물은 순식간에 전소되었고, 이웃집 5채가 전소되고, 반소 1채를 내고 10시 반 진화됐다. 원인은 운전자가 캔에 든 가솔린을 가지고 유리 램프에 주유했기 때문에 캔 안의 가솔린에 불이 붙어 크게 일어났다고 한다. 또한 실화 가옥의 풍하에는 한두 채 거리에 당일 매입한 가솔린통 40상자를 넣은 창고와 우에노(上野) 경부의 관사가 있어 이에 연소하지 않도록 경찰대 및 소방조가 필사적으로 노력한 보람 있어서 마침 그때의 열풍에 불구하고 잘 막을 수 있었다. 참고로 화재 때는 언제라도 물에 곤란을 겪는 것이 제주의 화재이다. 화재 때마다 농학교 학생들이 급수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화재 때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번 화재에도 특히 그런 상태가 심해 당일도 이치노미야(一宮) 교사가 지휘했고 역시 급수에 조력했다. 교사 학생 함께 해서 두 시간에 걸친 급수의 대역을 훌륭하게 한 것은 시민 격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우에노(上野) 경부, 소방조 에나츠(江夏) 조장은 농학교 직원 및 학생에게 정중한 사의를 표명했다.

濟州の大火
自動車三臺丸焼け
お手柄を現した農校生

△해당 기사 사진

부산일보
면수: 8 단수: 3
1938. 3. 12.

무수주정[無水酒精] 생산 10월까지는 불가능

무수주정[無水酒精] 생산
10월까지는 불가능

제주도의 무수주정 공장에 관해 소주 연맹에서는 아직 조사를 종료하지 않고 아마 이 연맹의 공장 설치는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인다. 본부 측이 다른 희망자에 의촉하더라도 10월까지는 도저히 생산은 불가능한 것은 분명하고 또 동척의 신의주 공장의 쇼라법에 의한 제조도 기술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이것도 10월까지 맞추지 못하고, 그래서 예정대로 무수주정의 혼용은 불가능한 것이 확실하니 본부로서는 석탄 액화 사업의 촉진에 노력해 이것을 보충할 모양이다. 그러나 무수주정 제조는 꼭 실현할 필요가 있고 원료 고구마의 증산은 계획대로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수확기까지 공장의 조업이 시작되지 않는다면 말린 고구마로서 전매국에서 팔았다. 한편 13년도 중에 고구마를 원료로 하는 민간 무수주정 공장이 실현될 경우는 전매국에서 그 공장을 신설, 어느 정도의 채산은 도외시해도 연료국책의 확립에 매진할 것이라는 의견이 유력화하고 있다.

無水酒精生産
十月迄は不能

△해당 기사 사진

부산일보
면수: 1 단수: 3
1938. 3. 31.

제주도에서의 무수주정[無水酒精] 제조; 채산난으로 행하기 어렵다

제주도에서의 무수주정[無水酒精] 제조
채산난으로 행하기 어렵다

【경성전화】 총독부가 제주도에서 고구마를 원료로 하는 무수 주정 제조 계획에 대해서는 소주 연맹과의 절충 결과, 연맹 측의 채산난을 이유로 뒤로 물러나게 되어 정체하고 또한 동척에 대해서 다음 계획을 교섭했는데, 동척도 이것을 거절하기에 이르러 지금 고민하고 있다. 최근 내지 모 주정제조업자를 상대로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다음 모업체도 이를 맡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결국 이것이 기업화의 난점이라고 해석하는 바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조선에서 사업이 다난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 내지의 무수 주정 제조 계획에 의하면 알코올 성분 54% 수준을 석(石) 53원으로 사들이기로 되어 있다. 조선에서 본부 원안에 의하면 99% 수준을 45원으로 사들이기로 되어 있으며, 조선의 고구마가 전분 함유 19 내지 20%로 내지에 비해 45% 적다는 것은 채산점에 큰 차질을 빚었다.
하나, 2만석의 주정을 만들려면 약 2천 정보의 고구마(반당 3백관으로)를 재배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주정회사가 직영함으로써 생산비를 저하시킬 필요가 있다.
하나, 흉작의 경우 원료 수당에 아무런 대책이 없다.
하나, 주정 순도 낮은 공업용 주정과 합쳐 제조하고 채산을 전반적으로 평균 호전시킬 필요가 있다.

濟州島に於ける
無水酒精製造
採算難て行き惱む

△해당 기사 사진

부산일보
면수: 1 단수: 5
1938. 10. 21.

감자를 원료로 하는 무수[無水]알코올; 전남 제주도에 제조공장 신설

감자를 원료로 하는 무수[無水] 알코올
전남 제주도에 제조공장 신설
가마다(鎌田), 다카하시(高橋) 두 기사 현지 조사

【경성전화】 제주도에서 고구마를 원료로 하는 무수 알코올 제조 계획은 동척에서 이것을 인수하기로 결정해 동척에서는 착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전 대장성 기사의 가마다, 다카하시 두 사람을 촉탁에 임명하고 전문적으로 맡기게 되었다. 이들은 19일 입성 금명간에 제주도에 와서 현지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두 사람의 조사에 따라 공장 건설의 구체안을 결정할 것이지만 두 사람은 회사건립 때는 동 회사의 간부가 되는 것으로 내정되어 있다.

甘藷を原料とする
無水アルコール
全南濟州島に製造工場新設
高橋 鎌田 兩技師現地調査

【京城電話】濟州島における甘藷を原料とする無水アルコール製造計畫は東拓においてこれを引受けることに決定し東拓ではこれが着手準備を行ひつゝあるが今回元大藏省技師の鎌田、高橋兩氏を囑託に任命して專門的にこれに當らせることになり兩氏は十九日入城一週日中に濟州島に赴き現地調査を行ふ筈である而してこの兩氏の調査に基き工場設置の具體案を決定する筈であるが兩氏は會計檢査の際は同社の檢閱になることに內定してゐる

△해당 기사 사진

부산일보
면수: 5 단수: 2
1938. 11. 13.

제주도의 용수[湧水] 전면적 조사
무수[無水] 주정 공장 건설로

제주도의 용수[湧水]
전면적 조사
무수[無水]주정 공장 건설로

총독부 중앙시험소에서는 제주도의 동척 무수주정 공장 건설 계획과 관련해 이 용수로써 이 섬에서 용수 개소, 용수량 산지천에서 물의 유량, 부락민의 음료수, 선박 용수, 기타의 영향에 대해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어 전면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濟州島の湧水
全面的調査
無水酒精工場建設で

◁해당 기사 사진

부산일보
면수: 3 단수: 1
1938. 11. 28.

제주도의 고구마 훌륭한 풍작

제주도의 고구마
훌륭한 풍작
더욱이 대증산에 나서다
면적 1만 정보로 확장

【광주】전남 제주도에서 고구마는 근래에 없는 대풍작을 보고 생산액은 사실 2천6백만 관을 돌파했다. 이 수요는 알코올 회사 및 전분 공장 등 한없이 생산자도 기뻐하고 있다. 도 당국에서는 더욱이 대증산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번 부터 오자키(尾崎) 농무 과장은 고구마의 본고장인 규슈 각지를 시찰하고 제주도에서의 현재 경작 면적 7천3백여 정보를 1만 정보로 확장하게 되었다. 또 도내 각 지방의 재배 면적도 대대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도 독려에박차를 가하고 있다.

濟州島の甘藷
素晴しい豊作
更に大增産に乘出す
面積一萬町步に擴張

△해당 기사 사진

부산일보
면수: 5 단수: 1
1939. 4. 2.

제주도의 개발 본격적으로 궤도에; 무수주정 공장도 곧 실현 제주항의 개수

개발 보고
제주도 개발 본격적인 궤도에
무수주정 공장 곧 실현
제주항의 개수 착수

【광주】 전남 제주도의 개발은 드디어 14년도부터 우선 제주항의 개축 공사에 착수했다. 이것의 공사비 55만원을 투자하고 츠지(辻) 기사를 공사주임으로 4월 1일부터 착수, 더욱이 동 항내 매립비 38만원, 합계 93만원으로 대개축이 이뤄지게 된다. 이 주된 공사는 동 항구 서방파제의 연장 및 동방파제 안쪽을 매립과 함께 부두 건설 등으로 대마력을 걸어 14년도 중에 완성할 것으로 마침내 준공 시작으로 제주도의 관문은 훌륭한 것으로 상당한 큰 배가 측면으로 도착하게 된다. 또한 문제의 무수 알코올 공장도 여러 준비 중이며 15년도에는 드디어 착수됐다.

拓く寶庫
濟州島の開發
本格的軌道へ
無水酒精工場も近く實現
濟州港の改修着手

◁해당 기사 사진

부산일보
면수: 2 단수: 6
1940. 2. 25.

내일부터 해상의 발이 뚝 끊기다; 기름이 끊어진 목포-제주도 항로,부산으로 날아든 비명 전보

내일부터 해상의 발이 뚝 끊기다
기름이 끊어진 목포-제주도 항로
부산으로 날아든 비명 전보

배급 중유의 단절에 의해서 이미 보고한 대로 조선기선의 목포 제주도 간 정기선은 결국 24일부터 정식으로 결항이 결정됐다. 결항예보 한번 전해지자 발이 묶여 생활필수품의 이입, 우편통신의 두절 등은 도민이 참을 수 없다고 도민 전부가 관계관청 조기 등에 타전하여 선처방을 의뢰했다. 조기 입전의 전문은 아무런 예고 없이 제주항로의 결항은 도민의 참기 어려운 바 지급 처방 수배를 원하는 도사 본도 목포 간 항로는 기름이 없어서 결항 이유로 매우 유감스럽게도 즉시 취항 수배를 소망한다. 수배 기다리는 도민 읍장위에 대해 조기로서는 제주도의 재유 50통으로 22일 하루만 결항을 연장해 다른 방법으로 배유조합과 다시 협상을 벌여 충분히 준비를 한다. 중유 선박의 부산 입항 지연과 예정의 내지로부터 150킬로톤의 입하도 아직 늦어져 있는 등으로 현물 입수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목포선 결항은 곤란한 것으로 추측, 여러 가지 급유책을 강구하고 있는데도 각지 연료유 부족하여 우리도 어려움에 처해 있다. 현지 운반선 탱크선 겨우 입항시켜 지급 취항할 수 있도록 분주하오니 양해 바란다 라고 답신했고 결항의 양해를 구하고 있지만 목포 군산 등의 용수 단절은 동시에 두 항에 배의 운항을 정지시킬 수밖에 없는 부득한 상태에 이르고 게다가 부산 탱크선의 중유도 침전 기타 ○○에 대한 절차 등으로 2, 3일 후가 아니면 반출 곤란하여 내지에서 즉시 이입한다고 해도 제주도에 대한 배급은 3일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사이 도민에 대한 영향은 매우 크다고 여겨져 우려되고 있다.

부산일보
면수: 2 단수: 6
1940. 2. 25.

바ツタリと
けふから
海上の足止め
油が切れた木浦濟州島航路
釜山へ飛ぶ悲鳴電報

△해당 기사 사진

부산일보
면수: 2 단수: 4
1940. 2. 27.

휴우 하고 한숨을 쉬다, 목숨을 잇는 기름이 1백 톤, 움직이기 시작한 목포-제주도 항로

휴우 하고 한숨을 쉬다
목숨을 잇는 기름이 1백 톤
움직이기 시작한 목포-제주도 항로

조선기선의 목포, 제주도 간 항로 결항은 제주도민 전체의 일상생활에도 파급되어 영향을 미치는 바가 커서 선박 사용 중유를 배급하는 방법을 도사로부터 각 방면에 진정했다. 전남 도청 ○에서 당장 수중의 중유 2백80통을 보내고, 기타 적은 양을 모두 합쳐 4백통이 융통돼서 불과 하루 결항으로 저지하고 27일까지 운항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직 위험한 시기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조기본사에서는 남선 중유에 대해 라이사 수입의 중유를 시급히 배급방식을 진정하고 겨우 26일 야항 편으로 약 백톤의 융통을 받아 군산으로 수송하기로 결정했으므로 28일 아침 또는 낮까지는 목포에 도착 예정으로 해상의 폭풍우가 없으면 28일 이후의 운항은 우선 괜찮을 것이다. 또한 조기로서는 원활한 배급이 있기까지는 제주도 간 도중의 중소 모든 섬 기항은 전부 정지할 방침이다.

ほつと一ト息
命つなぎの油が百噸
動き出した木浦濟州島航路

△해당 기사 사진

부산일보
면수: 3 단수: 1
1940. 4. 15.

제주도에 동척 경영의 무수[無水] 주정[酒精] 공장; 1백여만원을 투입하여 공사 착수, 완성은 내년 여름 7월경

제주도에 동척 경영의 무수[無水] 주정[酒精] 공장
1백여만원을 투입하여 공사 착수
완성은 내년 여름 7월경

【광주】 제주도에서 동척 경영의 무수주정 공장은 드디어 제주읍내 건입리에 설치하게 되었다. 이 공사 입찰 결과 동경 다케다(竹田) 조의 손에 의해서 1백7만2천원에 낙찰 결정됐다. 다케다 조에서는 지금 책임자, 목수 등 수십 명이 같이 임시 사무소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이미 목재 6백톤, 시멘트 등은 대량으로 도착했고 계속 재료는 입하하고 있다. 이것의 건축은 7천평에 공사비 1백7만원으로 당당한 대공장이 건설된다. 이 전공장 완성은 내년 7월경 예정이다.

濟州島に
東拓經營の
無水酒精工場
百餘萬圓投じて工事着手
完成は明夏七月頃

△해당 기사 사진

부산일보
면수: 5 단수: 1
1940. 4. 18.

목포-제주 항로 중유배급이 차츰 일발[日發]로 복구

목포-제주 항로
중유 배급이 차츰 일발[日發]로 복구
가격 인상 예상 재고품 내놓기가 싫은가
업자들 진정 협의

【목포】 조선기선의 목포, 제주 항로에 취항 정기선은 중유 배급난에 놓여 13, 15일 양일 결국 결항하기에 이르렀다. 16일부터 중유 배급 전망으로 복구해서 일발로 조기 목포지점에서도 하아 하고 한숨을 내쉬고 있다. 과연 목포에 중유가 없는 것인가. 모 유력자가 조사한 바에 대해 측문하면 2백톤 재고하고 있는데 내지의 가격 인상으로 조선 내에도 당연히 따라서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재고품 내놓기를 싫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하고 있다. 한편, 부내(府內)의 정기선, 화물선, 제공장, 어선 각 업자들은 본부 연료과의 성십(星十)기사에게 중유 배급의 진정을 달래기 위해 협의 중이다.

木浦-濟州航路
重油配給され
漸く日發に復舊
値上げ豫想在庫品出渋りか
業者ら陳情協議

△해당 기사 사진

부산일보
면수: 5 단수: 3
1940. 4. 23.

제주 주정[酒精]공장의 기술원 양성; 내지에서 강습

제주 주정[酒精]공장의 기술원 양성
내지에서 강습

【목포】 동척에서는 내년 봄부터 사업을 시작한다. 제주주정공장에 채용할 기술원이 필요하므로 농학교 출신의 내지인 4명, 조선인 3명 모두 7명이 치바(千葉)의 전매국 주정 공장에 4월 1일 들어가 반년 동안 강습을 받은 후, 반년은 각 공장에서 실시 체험을 행하게 된다.

濟州酒精工場
の技術員養成
内地で講習
【木浦】

△해당 기사 사진

부산일보
면수: 5 단수: 6
1941. 5. 17.

제주도의 고구마 풍작 예상

제주도의 고구마
풍작 예상
생산 목표 3천 2백만 관

【광주】 전남도에서는 시국 하 식량 확보와 무수주정 원료로서 고구마 증산에 힘쓰고 있다. 특히 제주도에서 고구마의 생산에 주력하여 지난해에는 6천4백 정보의 작부 반별을 올해는 일약 7천6백 정보로 대확장을 하고 생산 목표 2천2백만 관을 목표로 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는 매우 날씨가 좋아 발아 상태도 매우 양호하다. 이 상태라면 예상 이상의 풍작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고구마는 총생산의 대부분이 무수주정 원료가 되고 9백만 관 정도가 절간으로서 내지 방면으로 이출하는 외에 녹말가루 원료용이 약 1백50만 관, 종자용으로도 2백만 관이 넘고 그 잔여가 식량이 되고 있다.

濟州島の甘藷
豊作の豫想
生産目標三千二百萬貫

△해당 기사 사진

매일신보
면수: 3 단수 : 3
1919. 12. 1.

로국기선장(露國汽船長)의 후의(厚意) 제주도 앞바다에서 세 조선인을 구했다

로국기선장(露國汽船長)의 후의(厚意)
제주도 압바다에셔 셰됴션인을 구했다

로국 의용함대 긔선『아스도라스톰』호 이쳔륙백구십이돈은 대련에셔 셕탄 이쳔돈을 가득이 실고 해삼위로 향ᄒᆞ고 항행즁 십일월 이십오일 오후 두시쯤되야 졔쥬도 압바다에셔 엇던자 셰명이 떠나려 오ᄂᆞᆫ 것을 발견ᄒᆞ고 직시 구됴ᄒᆞ야 이십칠일 오전 열시에 문ᄉᆞ니 륙련도 검역소에 들너셔 그 ᄉᆞ연을 문ᄉᆞ 항무부에 통지ᄒᆞ엿슴으로 수상상경찰석 죵강부장(鐘江副長)은 그배에 츌쟝ᄒᆞ야 그 죠난자를 밧어서 그날 밤 관부련락석으로 보내엿ᄂᆞᆫ디 이 조난쟈난 전라남도 제쥬도 의면(정의면) 주산동(수산동)(全南 濟州島 義面(旌義面) 주산동(珠山洞)(水山同) 오창희(吳昌熙)』(五四) 한창수『韓昌秀』(四二) 고창원『高昌元』(六二)의 셰사람인디 이십 삼일 오후두시쯤 되야 떼목을 타고 그석음 압바다 반마이르 되ᄂᆞᆫ 곳 에셔 생션을 잡던즁 불행히 갑작이 폭풍이 일어 나셔 슌식간에 떼목은 뎐복되며 물에 빠져 표류ᄒᆞᄂᆞᆫ 것을 구됴한터인디『아스도라스톰』호의 함장『스지린』씨ᄂᆞᆫ 너무 동졍을 ᄒᆞ야 션원 일동에게 의연금을 것우어 일본돈으로 이십팔원과 아리사돈으로 백오십륙불을 은혜스러히 쥬어 문ᄌᆞ수상경찰셔에 그 수속을 ᄒᆞ고보내엿다더라

露國汽船長의
厚意
제주도압바다에서
이조난자난
△해당 기사 사진

매일신보
면수: 3 단수: 7
1925. 1. 22.

제주전등발기총회(濟州電燈發起總會),

제주전등발기총회(濟州電燈發起總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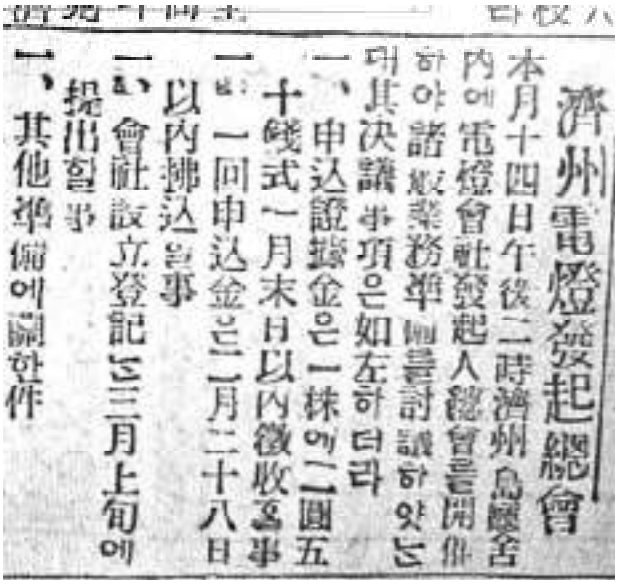
본월 십사일(本月 十四日) 오후 이시(午後 二時) 제주도청사내(濟州島廳舍內)에 전등회사(電燈會社) 발기인총회(發起人總會)를 개최(開催)하야 제반사무(諸般事務)준비(準備)를 토의(討議)하얏는대 기결의 사항(基決議事項)은 여좌(如左)하더라

-, 신입증거금(申込證據金)은 일주(一株)에 이원오십전식(二圓五十錢式) 일월말일이내(一月末日以內) 징수(徵收)할 사(事)

-, 일회(一回)신입금(申込金)은 이월이십팔일이내(二月二十八日以內) 불입(拂込)할 사(事)

-, 회사설립등기(會社設立)는 삼월 상순(三月 上旬)에 제출(提出)할사(事)

-, 기타(其他)준비(準備)에 관(關)한 건(件)


濟州電燈發起總會
本月十四日午後二時濟州島廳舍內에電燈會社發起人總會를開催하야諸般事務準備를討議하얏는대其決議事項은如左하더라
一、申込證據金은一株에二圓五十錢式一月末日以內徵收할事
一、一回申込金은二月二十八日以內拂込할事
一、會社設立登記는三月上旬에提出할事
一、其他準備에關한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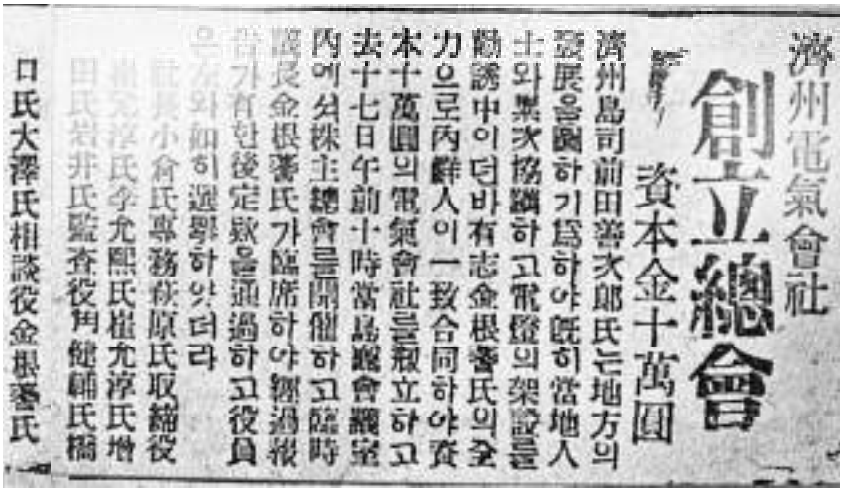
△해당 기사 사진

매일신보
면수: 3 단수: 2
1925. 3. 22.

제주전기회사(濟州電氣會社) 창립총회(創立總會) 자본금(資本金) 십만원

제주전기회사(濟州電氣會社)
창립총회(創立總會)
자본금(資本金) 십만원(十萬圓)

제주도사(濟州島司) 전전차랑씨(前田次郎氏)는 지방(地方)의 발전(發展)을 도(圖)하기 위(爲)하야 기(旣)히 당지인사(當地人士)와 누차협의(累次協議)하고 전등(電燈)의 가설(架設)을 권유중(勸誘中)이던 바 유지(有志) 김근시씨(金根著氏)의 전력(全力)으로 내선인(內鮮人)이 일치합동(一致合同)하야 자본(資本) 십만원(十萬圓)의 전기회사(電氣會社)를 창립(刱立)하고 거십칠일(去十七日) 오전 십시(午前 十時) 당도청회의실내(當島廳會議室內)에셔 주주총회(株主總會)를 개최(開催)하고 임시의장(臨時議長)김근시씨(金根著氏)가 임석(臨席)하야 경과보고(經過報告)가 유(有)한 후(後) 정관(定款)을 통과(通過)하고 역원(役員)은 좌(左)와 여(如)히 선거(選擧)하얏더라 사장(社長) 소창씨(小倉氏) 전무(專務) 추원씨(萩原氏) 취체역(取締役) 최원순씨(崔元淳氏) 이윤희씨(李允熙氏) 최윤순씨(崔允淳氏) 증전씨(增田氏) 암정씨(岩井氏) 감사역(監査役) 각건보씨(角健輔氏) 교구씨(橋口氏) 대택씨(大澤氏) 상담역(相談役) 김근시씨(金根著氏)


濟州電氣會社
創立總會
資本金十萬圓
濟州島司前田次郎氏는地方의
發展을圖하기爲하야旣히當地人
士와累次協議하고電燈의架設을
勸誘中이던바有志金根著氏의全
力으로內鮮人이一致合同하야資
本十萬圓의電氣會社를設立하고
去十七日午前十時當島廳會議室
內에서株主總會를開催하고臨時
議長金根著氏가臨席하야經過報
告가有한後定款을通過하고役員
은左와如히選擧하얏더라
社長小倉氏專務萩原氏取締役
崔元淳氏李允熙氏崔允淳氏增
田氏岩井氏監査役角健輔氏橋
口氏大澤氏相談役金根著氏

△해당 기사 사진

매일신보
면수: 3 단수: 8
1925. 12. 19.

제주도(濟州島)는 일신면목(一新面目) 만사사업(萬般事業)의 장족발전(長足發展)과 전전도사(前田島司)의 노력(努力)

제주도(濟州島)는
일신면목(一新面目)
만사사업(萬般事業)의 장족발전(長足發展)과
전전도사(前田島司)의 노력(努力)

본도(本島)는 남해(南海)의 단(端)에 처(處)하야 면적(面積)이 일백이십방리(一百二十方里)오 인구(人口)가 이십만이상(二十萬以上)이 거주(居住)하는 일대번리(一大藩籬)로 지방발전(地方發展)이 자연지연(自然遲延) 됨은 일반인사(一般人士)의 유감(遺憾)이던 바 신(申)히 전전도사(前田島司)의 부임(赴任)이래(以來)로 제일착(第一着)으로 통신(通信)을 편의(便宜)케 하기 위(爲)하야 종래(從來)고장(故障)이 다대(多大)한 해저전신(海底電信)을 폐지(廢止)하고 완전(完全)한 무선전신(無線電信)을 특설(特設)하며 제이착(第二着)으로 교통(交通)의 편의(便宜)를 도(圖)하기 위(爲)하야 일주(一週)의 신도로(新道路)를 확장(擴張)하야 동서부(東西部)에 자동차(自働車)를 운용(運用)케 하고 제삼착(第三着)으로 시민(市民)의 업무상(業務上)편의(便宜)를 위(爲)하야 시내전화(市內電話)를 가설(架設)케 하고 제사착(第四着)으로 일반관민(一般官民)이 열망(熱望)하던 전등(電燈)의 기관(機關)을 창설(創設)하야 목하(目下)착착(着着)진행(進行)되야 지(遲)하야도 래일월중(來一月中)에는 준공(竣工)되야 암흑(暗黑)의 세계(世界)를 돌파(突破)하야 불야(不野)의 광명(光明)한 천지(天地)가 출현(出現)될 것이오 제오착(第五着)으로 당도수부(當島首府)인 산지포(山池浦)에 항만(港灣)이 무(無)함으로 선박(船舶)이 산지포(山池浦)에 도착(到着)할지라도 풍파(風波)가 이러나면 서(西)으로 비양도(飛揚島) 동(東)으로 성산포(城山浦)를 약미실(若迷失)하는 시(時)는 하는 수 업시 동(東)으로 거문도(巨文島) 서(西)으로 소안도(所安島)밧게는 피난(避難)할 곳이 업셔 주민(住民)들은 항상(恒常) 유감(遺憾)으로 사(思)하던 바 씨(氏)의 대(大)タ적(的)활동(活動)으로 인(因)하야 경상남도(慶尙南道)당국급본부(當局及本府)의 양해(諒解)를 득(得)하야 위선(爲先) 서귀포(西歸浦)에 축항공사(築港工事)를 개시중(開始中)이요 차(且)내년도(來年度)에 단호(斷乎)히 산지항공사(山池港工事)가 출현 (出現)될 것이오 따라서 시가정리(市街整理)와 수도설비(水道設備)를 계속(繼續)진행중(進行中)이며 기타(其他)실업발전등(實業發展等)의 연구(硏究)에 불태(不怠)함으로 송성(頌聲)이 재로(載路)하다더라

매일신보
면수: 3 단수: 8
1925. 12. 19.

濟州島는
一新面目
萬般事業의長足發展과
前田島司의努力
本島는南海의端에處하야面積이
一百二十方里오人口가二十萬以
上이居住하는
一大藩籬로地方發展이
自然遲延됨은一般人士의遺憾이
라하야前田島司의赴任以來로
第一着으로交通便宜케하기爲
하야從來故障이多大한海底電線
을改正하고完全한無線電信을特
設하며第二着으로交通의便宜를
圖하기爲하야一層의新道路를擴
張하야東西部에自動車를運用케
하고第三着으로市民의事務上便
宜를爲하야市內電話를架設케하
고第四着으로一般官民이熱望하
던電燈의施設을創設하야目下着
着進行되야邇하야도來一月中에
는竣工되야暗黑의世界를突破하
야不夜의光明한天地가出現될것
이오第五着으로當島首府인山池
浦에港灣의築堤로船舶이山池
浦에到着케하라도風波가이러나
면西으로飛揚島東으로城山浦를
若遂失하는時는하는수업시東으
로亘文島西으로所安島멋게는避
難할곳이업서住民들은恒常遺憾
으로思하던바氏의大々的活動으
로因하야慶尙南道當局及本府의
諒解를得하야爲先
西歸浦에築港工事를開始
中이요且來年度에斷乎히山池港
工事가出現될것이오따라서市街
整理와水道設備를繼續進行中이
며其他實業發展等의硏究에不遑
함으로頗히經綸하다더라

△해당 기사 사진

매일신보
면수: 3 단수: 7
1926. 3. 3.

제주시(濟州市) 불야성화(不夜城化) 전등점화개시(電燈點火開始)로

제주시(濟州市)
불야성화(不夜城化)
전등점화개시(電燈點火開始)로

종래(從來) 제주(濟州)에 유지(有志)일동(一同)의 발기(發起)로 조직(組織)한 전기회사(電氣會社)는 제반설비(諸般設備)가 완료(完了)되야 본부(本府) 중용기사(中用技師)의 검사(檢査)를 수(受)하고 거월이십칠일(去月二十七日)부터 점등(點燈)을 동시(同始)하얏는대 돌연(突然)히 전시가(全市街)는 불야(不野)의 성(城)을 성(成)하야 도회지(都會地)의 색채(色彩)를 대(帶)케 되야 일반(一般) 민중(民衆)은 활기(活氣)를 첨(添)하얏더라(濟州)

濟州市
不夜城化
電燈點火開始로
從來濟州에有志一同의發起로組
織한電氣會社는諸般設備가完了
되야本府中川技師의檢査를受하
고去月二十七日부터點燈을同始
하얏는대突然히全市街는不夜의
城을成하야都會地의色彩를帶케
되야一般民衆은活氣를添하얏더
라(濟州)

△해당 기사 사진

매일신보
면수: 4 단수: 3
1934. 4. 4.

제주읍회 개최(濟州邑會 開催)
전부원안 가결(全部原案 可決)

제주읍회 개최(濟州邑會 開催)
전부원안 가결(全部原案 可決)

【濟州】제주읍(濟州邑)에서 본월(本月) 이십육일(二十六日) 오전(午前) 십시(十時)부터 당읍사무소(當邑事務所)에서 읍회의원회(邑會議員會)를 개최(開催)하야 읍장(邑長) 최계순씨(崔季淳氏)의 식사(式辭)가 유(有)한 후(後) 소화 구년도(昭和 九年渡) 예산(豫算)에 취(就)하야 의원측(議員側)에서 동이십팔일(同二十八日)까지 긍(亘)하야 신중(愼重)심의(審議)한 결과(結果) 전부(全部)원안(原案)대로 통과(通過)되고 취중특별제의사항(就中特別提議事項)은 다음과 갓다

-, 읍사무소(邑事務所)는 위신상(威信上) 개건(改建)치 아니하면 불가(不可)함으로 본년중(本年中) 만원(萬圓)의 기부금(寄附金)으로써 개건(改建)할 사(事)
-, 호세등급(戶稅等級)은 신중(愼重)히 조사(調査)할 필요(必要)가 유(有)함으로 인(因)하야 임시사정회(臨時査定會)를 개최(開催) 하야 공평(公平)히 사정(査定)할 사(事)
-, 임야도로(林野道路)는 교통우(交通又)는 각소관람객(各所觀覽客)의 편의(便宜)를 위(爲)하야 소화 팔년중(昭和 八年中) 수리(修理)하던 잔부(殘部)는 본년하기내(本年夏期內)에 관음사(觀音寺)까지 개통(開通)할 사(事)
-, 당지(當地)전등료(電燈料)는 타지방(他地方)에 비(比)하면 초고(稍高)한 영향(靈響)이 유(有)함으로 당회사(當會社)와 교섭(交涉)하야 감하(減下)케 할 사(事)

濟州邑會開催
全部原案可決
【濟州】濟州邑에서本月二十六日午前十時부터當邑事務所에서邑會議員會를開催하야邑長崔季淳氏의式辭가有한後昭和九年度豫算에就하야議員側에서同二十八日까지亘하야愼重審議한結果全部原案대로通過되고就中特別

△해당 기사 사진

제주도개발내용(濟州道開發內容)

제주도개발내용(濟州道開發內容)
농산급축산업(農産及畜産業)은 십개년(十個年)
수산업(水産業)은 십오개년계획(十五個年計劃)
수력전기사업(水力電氣事業)도 기획(企劃)

반도(半島)의 보고(寶庫)로서 각방면(各方面)으로 주목(注目)되는 제주도개발(濟州島開發)에 관(關)하야는 축산방면(畜産方面)에 관(關)하야 작동(昨冬)남총독(南總督)은 사계(斯界)의 권위(權威)『칼·레-만』씨(氏)를 초빙(招聘)하야 상세(詳細)히 조사(調査)식히어 기의견(基意見)을 ○하야 금춘벽두(今春劈頭)의 오대정책(五大政策)의 일부문(一部門)으로 남총독(南總督)이 지시(指示)한 사항중(事項中)에 차제주도개발(此濟州島開發)이 포함(包含)되야 차방침(此方針)에 의(依)하야 이래(邇來)전남도(全南道)에서는 구체안(九體案)의 작성(作成)에 노력(勞力)하고 잇섯는데 본부농림(本府農林), 내무관계(內務關係)와 각방면(各方面)의 권위(權威)를 모아 실지조사(實地調査)를 하야 십이년도(十二年度)부터 산업급농업(産業及農業)은 십개년(十個年), 수산업(水産業)은 십오개년계획(十五個年計劃)을 수립(樹立)하야 동력(動力)은 용수(湧水)를 이용(利用)하야 수력전기(水力電氣)를 일으키어 여수(餘水)를 농목장개발(農牧場開發)에 이용(利用)하는 외(外)에 동도개발(同島開發)에 근본문제(根本問題)되여 잇든 음료수저수지습과지(飮料水貯水池濕過地) 제방등(堤防等) 이십오개소(二十五個所)를 신설(新設)하고 목장용수(牧場用水)는 이백오십개소(二百五十開所)에배수지(配水池)를 설치(設置)하게 되엿다 그런데 각계획(各計劃)은 좌(左)와 여(如)하다
◇ 산업(産業)
일(一), 면양(緬羊)=농가(農家)의 부업(副業)으로서 일호(一戶)에 삼두(三頭)평균(平均)이만두(二萬頭) 사업가(事業家)에 의한 목장경제(牧場經濟)에 삼만두(三萬頭)의 증식(增殖)을 도(圖)한다
이(二), 우(牛)=현재(現在)의 이만구천여두(二萬九千餘頭)를 사만사 천두(四萬四千頭)에 증식(增殖)하야 제유공장(製乳工場)을 설치(設置)하야 공업화(工業化)를 도모(圖謀)한다
삼(三), 돈(豚)=일호(一戶)에 오두(五頭)평균(平均)으로 하야 육만육천두(六萬六千頭)로 증식(增殖)
◇ 전작(畑作)
일(一), 감저(甘藷)=현재(現在) 삼천구백칠십칠정보(三千九百七十七町步) 일천백일만관(一千百一萬貫)인 것을 경지(耕地) 이만정보(二萬町步) 생산고(生産高) 육천만관(六千萬貫)으로 증산(增産)할 방침(方針)으로 다수경작회(多收競作會)와 여(如)한 것으로 장려(奬勵)하는 동시(同時)에 각농가(各農家)에 감저절간지(甘藷切干機)일대(一臺)를 설치(設置)식힌다
이(二), 삐-루맥(麥)=현재(現在) 백이십정보(百二十町步) 이천사백석(二千四百石)을 경지(耕地) 일천정보(一千町步) 수확(收穫) 이만석(二萬石)으로 하기 위(爲)하야 지도포(指導圃)를 설(設)하고 지도개량(指導改良)에 자(資)한다
삼(三), 박하(薄荷)=현재(現在) 경지(耕地) 백정보(百町步) 취사유(取卸油) 오천근(五千斤)인 것을

매일신보
면수: 5 단수: 4
1937. 2. 14.

경지(耕地) 일천정보(一千町步) 취사유(取卸油) 칠만석(七萬石)으로 증산(增産)케 한다
사(四), 구린피-스=현재(現在) 백정보(百町步) 생산고(生産高) 일만오천관(一萬五千貫) 관힐(罐詰) 일만오천상(一萬五千箱)인 것을 오백정보생산고(五百町步生産高) 칠십오만관 관힐(七十五萬貫罐詰) 칠만오천상(七萬五千箱)으로 증산(增産)
오(五), 제충국(除蟲菊)=경지(耕地) 일천팔백정보(一千八百町步) 간화수확(干花收穫)이만팔백삼십관(二萬八百三十貫)인 것을 경지(耕地) 사천정보(四千町步) 간화수확(干花收穫) 오십만관(五十萬貫)에 증식(增殖)하기 위(爲)하여 우량종자(優良種子)알선지도원(斡旋指導員)의 증가(增加)를 도(圖)한다
◇ 수산(水産)
『텐구사』=현재(現在)의 이십오배(二十五培) 『와가메』는 칠배(七倍)에 증산(增産)하며 기타(其他) 수산(水産)은 자연증식(自然增殖)을 하게 한다

매일신보
면수: 5 단수: 4
1937. 2. 14.

濟州島開發內容

畜産業은十個年

水産業은十五個年計劃

水力電氣事業도企劃

◇産業

◇畑作

◇水産

△해당 기사 사진

매일신보
면수: 5 단수: 10
1938. 1. 13.

제주도(濟州島)에 주정공장(酒精工場) 신설(新設)키로 결정(決定)

제주도(濟州島)에
주정공장(酒精工場)
신설(新設)키로 결정(決定)

총독부식산국(總督府殖産局)에서는 십일(十日) 상공장려관(商工奬勵館)에서 액체연위원회분과회(液體燃委員會分科會)를 개최(開催)하고 금추(今秋)십월(十月)부터 실시(實施)되는 무수주정(無水酒精)의『까소린』혼용(混用)에 비(備)하야 주정(酒精)의 증산장려(增産奬勵)에 대(對)하야 협의(協議)한 결과(結果) 감저(甘藷)를 원료(原料)로 하는 무수주정(無水酒精) 이만석(二萬石)의 생산능력(生産能力)을 유(有)하는 공장(工場)을 조선기계소주연맹공동출자하(朝鮮機械燒酒聯盟共同出資下)에 제주도(濟州島)에 신설(新設)하기로 결정(決定)하야 공장신설(工場新設)세목(細目)에 대(對)하야는 근(近)々소위원회(小委員會)를 열고 중앙시험소(中央試驗所)에서 조사(調査)할 예정(豫定)이다 그리고 기계연맹(機械聯盟)에서는 이십일경(二十日傾) 타합회(打合會)를 열고 우인수(右引受)를 결정(決定)할 예정(豫定)이다

濟州島에
酒精工場
新設키로決定
總督府殖産局에서는十日商工奬勵
館에서 液體燃 委員會分科會를
開催하고今秋十月부터實施되는無
水酒精의『까소린』混用에備하야
酒精의增産奬勵에對하야協議한結
果甘藷를原料로하는無水酒精二萬
石의生産能力을有하는工場을朝鮮
機械燒酎聯盟共同出資下에濟州島
에新設하기로決定하야 工場新設
細目에對하야는 近々小委員會를
열고 中央試驗所에서調査할豫定
이다그리고 機械聯盟에서는二十
日頃打合會를열고 右引受를決定
對豫定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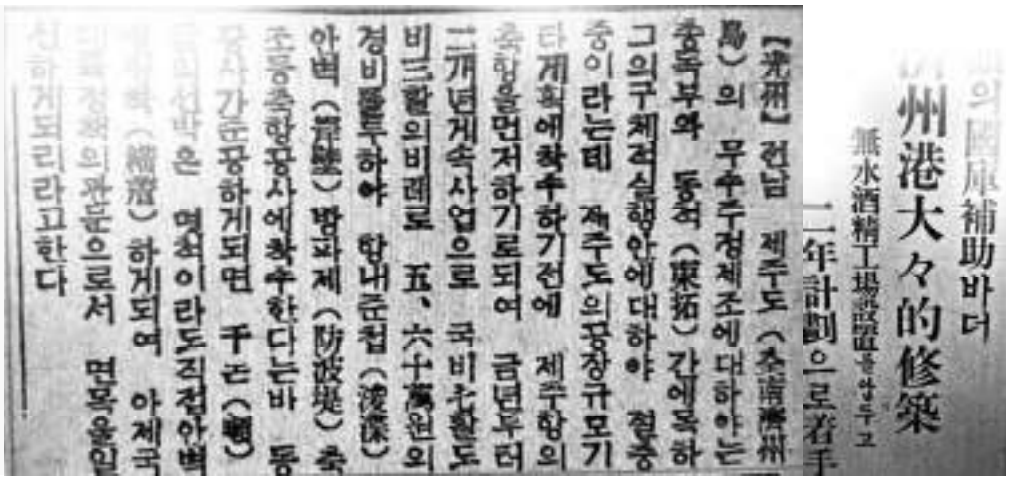
△해당 기사 사진

매일신보
면수: 8 단수: 4
1938. 8. 12.

거액(巨額)의 국고보조(國庫補助)바더 제주항 대대적 수축(濟州港 大大的 修築) 무수주정공장 설치(無水酒精工場 設置)를 압두고 이년계획(二年計劃)으로 착수(着手)

거액(巨額)의 국고보조(國庫補助)바더
제주항 대대적 수축(濟州港 大大的 修築)
무수주정공장 설치(無水酒精工場 設置)를 압두고
이년계획(二年計劃)으로 착수(着手)

【濟州】 전남 제주도(全南 濟州島)의 무수주정제조에 대하야는 총독부와 동척(東拓)간에 목하 그의 구체적 실행안에 대하야 절충중이라는데 제주도의 공장규모기타 계획에 착수하기 전에 제주항의 축항을 먼저 하기로 되여 금년부터 이(二)개년 게속사업으로 국비 칠(七)할 도비 삼(三)할의 비례로 오,육십만(五 ,六十萬)원의 경비를 투하야 항내 준설(浚渫) 안벽(岸壁) 방파제(防波堤) 축조 등 축항공사에 착수한다는바 동공사가 준공하게 되면 천(千)톤(噸)급의 선박은 몃척이라도 직접 안벽에 횡착(橫着)하게 되어 아제국대륙정책의 관문으로서 면목을 일신하게 되리라고 한다


州港大々的修築
無水酒精工場設置
二年計劃으로着手
【濟州】 전남 제주도(全南濟州島)의 무수주정제조에 대하야는 총독부와 동척(東拓)간에 목하 그의구체적실행안에대하야 절충중이라는데 제주도의공장규모기타 계획에착수하기전에 제주항의 축항을먼저하기로되여 금년부터 二개년게속사업으로 국비七할도비三할의비례로 五、六十萬원의 경비를투하야 항내준설(浚渫) 안벽(岸壁) 방파제(防波堤) 축조등축항공사에착수한다는바 동공사가준공하게되면 千톤(噸)급의선박은 몃척이라도직접안벽에 횡착(橫着)하게되여 아제국대륙정책의관문으로서 면목을일신하게되리라고한다

△해당 기사 사진

매일신보
면수: 7 단수: 1
1938. 8. 14.

천지연폭포(天池淵瀑布)를 이용(利用) 목하발전(目下發電)을 계획(計劃)

천지연폭포(天池淵瀑布)를 이용(利用)
목하 발전(目下 發電)을 계획(計劃)
제주 서귀포 발전 기대(濟州 西歸浦 發展 企待)

【濟州】서귀포(西歸浦)에 전등이 업슴을 일(一)반은 이를 유감으로 역여 수삼(三)년 전부터 그 가설을 계획하여왓는데 일반 유지는 이 숙망을 실현코저 최근 전등가설긔성회(電燈架設期成會)를 조직하고 천지연폭포(天池淵瀑布)를 리용하야 발전하고서 전등을 켜게하는 동시에 제빙(製氷)까지 하려고 긔술자에게 그 설게를 의뢰하엿는데 이 의뢰를 밧고 현지를 검분하기 위하야 지난 삼(三)일 래서(來西)한 소창공업학교교유(小倉工業學校敎諭) 가아영웅(可兒英雄) 대야충사(大野忠士)외 삼(三)씨는 검분후 유지들과 회합하야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하엿는데 동씨들은 일(一)반을 격려하는 동시에 다음과 가튼 감상담을 말하엿다
서귀포는 발전(發電)에 관하야는 극히 천혜(天惠)를 입고 잇다 첫재수량(水量)이 만코 사시를 통하야 큰차가 업슴으로 겨울에 가장 감수된다 할지라도 팔십오(八十五)마력은 충분하게슨즉 이만 하면 이십(二十)돈의 제빙(製氷)을 하고 서귀포 전체에 전등을 켜더라도 전력(電力)은 오히려 남을것이며 둘재 지금 폭포수는 내지와 갓치 전지(田地)에 리용되고 잇지 안은즉 반전소가 되더라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길 념녀가 업슬뿐 아니라 도로혀 여수(餘水)를 전지에 리용할수 잇는 말하자면 페물 리용이 될것이며 셋재로는 인수(引水)의 편리가 만코 발전소와 전긔가 공급되는 구역의 거리가 극히 각가움으로 경비가 대단히 적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긔에 발전을 두면 천지연이란 명승(名勝)이 업서 질것갓치 일(一)반은 생각하는 모양이나 이는 전혀 틀닌 생각이다 발전소가 되더라도 폭포가 전연 업서지는 것이 아니고 약간 감수(減水)될 따름이며 또 발전소가 됨으로써 관람객이 더욱 만해지는 것은 내지에서도 얼마던지 볼수잇는 례이다 운々그리고 설게가 완성되는 즉시 출원(出願)하리라 한다

매일신보
면수: 7 단수: 1
1938. 8. 14.

天池淵瀑布를利用

目下發電을計劃

濟州西歸浦發展期待

△해당 기사 사진

매일신보
면수: 10 단수: 7
1939. 6. 7.

제주도무수주정(濟州島無水酒精) 공장부지(工場整地)에 착수(着手)

제주도무수주정(濟州島無水酒精)
공장부지(工場整地)에 착수(着手)

동척(東拓)의 제주도(濟州島)의 무수주정사업(無水酒精事業)은 목하(目下) 총독부(總督府)에서 축항공사(築港工事)를 급(急)히 하는 일방(一方) 전남도당국(全南道堂局)에서 공장부지(工場敷地)의 부지공사(敷地工事)를 급(急)히 하고 잇는데 지균공사(地均工事)의 완성(完成)을 대(待)하야 공장건설(工場建設)에 착수(着手)할 예정(豫定)으로 준공(竣工)까지에는 이개월간(二個月間)을 요망(要望)할 모양이다

濟州島無水酒精
工場整地에着手
東拓의濟州島의無水酒精事業은目
下總督府에서 築港工事을急히하
는一方 全南道當局에서 工場敷
地의整地工事를 急히하고잇는데
地均工事의完成을待하야 工場建
手할豫定으로 竣工까지에
年間을 要望할모양이다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47. 1. 4.

渴望(갈망)튼 晝間送電(주간송전) 近近(근근) 實現(실현)?

貿易港(산지항) 指定(지정)도 可能性(가능성) 있다

去般(거반: 지난번)에 本道(본도)의 산업개발 계획 대한 諸般事務(제반사무)를 타합코저 上京(상경)한 道商工課長(도 상공과장) 李仁九氏(이인구씨)는 歸道(귀도)하야 그 收穫(수확)한 바를 다음과 가티 말하엿다.

제가 上京(상경)한 것은 공업발전에 절대 필요한 晝電問題(주전문제), 무역 촉진을 圖謀(도모)하야 산지항을 무역항으로 지정될 문제, 상업 진흥을 위한 상공회의소 설치문제 등에 있었는데 중앙청과 격의없는 打合(타합)을 한 결과 本道(본도)의 특수사정을 잘 諒解(양해)해 주어 적극 원조하겟다고 하며 晝電問題(주전문제)에 있어서는 資材難(자재난)에 봉착하고 있는 朝鮮(조선)의 현상에 어려운 事(사: 일)라 볼 수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것을 밋고 있고 또 무역항 지정 문제는 시기상조하다고 하나 이거 亦(역)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本道(본도)의 상공회의소는 根跡(근적)없는 狀態(상태)인데 도민은 방관하지 말고 본도 상업진흥을 위하야 도민 스스로의 민의에서 우러난 同會議所(동회의소)를 早急(조급)히 조직해 주시기 仰望(앙망)하는 바이며 아울러 晝電(주전), 무역항 문제에 있어도 도민의 절대한 협력과 원조없이는 가망성이 미약하다 함을 이에 알려두는 바입니다.

渴望은 晝間送電 近々實現?
貿易港(山地港)指定도 可能性 있다
李商工課長歸任談
賭博怨恨殺人
正初에 流血慘劇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47. 1. 16.

17日(일)을 期(기)하야 深夜送電實現(심야송전 실현)

本紙(본지)에 旣報(기보: 이미 알린 보고)한 바 있는 本道(본도) 晝電問題(주전문제)는 其後(기후: 그 뒤) 당국에 있어서 極盡(극진)한 노력이 결실을 보아 來(내: 오는) 17日(일)부터 그 실현을 보게 되었다 한다. 그런데 이에 따라서 동력사용을 희망하는 자는 道商工課(도 상공과)에 신청함을 要(요)한다고 한다.

十七日을期하야
晝夜送電實現
本紙에旣報한바있는 本道晝
電問題는 其後當局에있어서
極盡한努力이結實을보아 來
十七日부터그實現을보게되었
다한다 그러나 이에따라서
動力使用을希望하는者는 道
商工課에 申請함을要한다고
한다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47. 1. 18.

不夜城(불야성) 實現策(실현책)!

當局(당국)은 維持(유지)에 가일층 盡力(진력)코,
邑民(읍민)은 節電(절전)으로 應(응)하라!

四方邑民(사방읍민)이 오랫동안 渴望(갈망)튼 주야송전이 드듸어 그 실현을 보게 되어 이제 우리는 전기의 惠澤(혜택)에 새삼스러운 감사를 늣기게 한다. 回顧(회고)하면 一昔(일석) 찬연한 光芒(광망)이 邑內(읍내)거리를 둘러싸든 그 불야성은 日帝(일제)의 침략전쟁이 가져온 物資欠亡(물자흠망)으로 因(인)하야 일시에 암흑의 거리로 狗變(구변)하야 이로써 읍민은 일제생활에 막심한 지장을 밧고 참으로 우리야말로 알고 모르는 동안에 때 안인 이십세기의 낙오자가 되여 있었든 것이다. 허나 꿈이 아닌 현실은 오날을 기하야 우리의 周圍(주위)에 현대문명의 모체요 우리 일상생활의 버신 전기가 日夜(일야)를 불문하고 또다시 켜지게 된 것에 對(대)해서 우리는 고맙고 반가움을 禁(금)할 수가 없다. 허나 그 전에 物資欠亡(물자흠망)이란 엄연한 현실을 돌봄으로써 불야성의 영구적인 유지의 근거가 奈邊(나변)에 있는가를 自覺(자각) 않으면 안될 것이다. 날뛰지 말자 그전에 전기의 낭비가 末久(말구)에 또다시 암흑의 세계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아러야 할 것이다.

濟州新報 【土曜日】 西紀 1947年 1月 18日

不夜城實現策!

當局은維持에加 層盡力코

邑民은節電으로應하라!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47. 1. 18.

水力發電工事(수력발전공사) 近近(근근) 着手豫定(착수예정)! 朴知事談(박지사 담)

본도의 전기사업은 도정의 중요과제의 하나로써 그 充實(충실)을 期(기)코자 銳意(예의) 노력 중이든 바 今般(금반) 南電(남전) 新韓公社(신한공사) 石油配給組合(석유배합조합)의 절대적인 협력하에 爲先(위선) 제주읍내의 주야송전을 실시케 되였음은 同慶(동경)하야 마지 않은 바이다. 전기사업이 지방개발과 문화향상에 미치는 바 그 원동력이 됨은 贊言(찬언)을 요치 않음에 일찌기 도에서는 御乘生(어승생) 폭포 利用(이용)에 依(의)한 水力電(수력전)의 원대한 계획이 있어서 중앙청의 諒解(양해)를 어더 不遠(불원) 中央(중앙)으로부터 기술자의 來道(내도)를 보게 될 것인데 今般(금반)의 실현은 잠정적 조치로써 본도의 급진적 문화향상과 공장유치를 실현함에 그 意圖(의도)가 있었고 이로써 도민의 기분을 명랑케 하여 자주독립 戰取(전취)와 산업개발에 邁進(매진)하라는 데 그 중대 意義(의의)가 있다.

그리고 공업용 전력은 당분간 일부만 송전하여 工場設置(공장설치) 狀態(상태)에 隨伴(수반)하야 漸次(점차) 擴大(확대)할 계획이고 일반수용가는 現下(현하) 陸地部(육지부)의 전력부족으로 인한 困難(곤란)과 발전상 필수물자인 중유 석탄의 緊要性(긴요성)을 재인식하야 소비절약에 일층 주의하고 본 계획으로 하여금 유종의 미를 擧揚(거양)토록 하여 주기 바라마지 않는다.

水力發電工事
近々着手豫定!
朴知事談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47. 1. 18.

料金(요금) 引上(인상) 안흔다 梁富昌氏(양부창씨) 談(담)

제주읍의 전기문제는 해방후 燃料及(연료급)○○問題(문제), 會社收支關係(회사수지관계), 其他(기타) 事情(사정)으로 인하야 충분히 못한 전력과 供給時間(공급시간) 制限(제한)을 하게 되여 需用家(수용가) 諸位(제위)에 多大(다대)한 支障(지장)있음은 사실이었고 당사자로써 대단히 죄송하오며 사과하는 바이다.

그간 南電(남전)으로써는 타개책을 강구코 각 방면에 교섭 중이든 바 今般(금반) 도지사 同商工課長外(동 상공과장 외) 諸位(제위)의 적극적인 물자 원조와 알선으로 제주 주정공장의 특별한 諒解(양해)를 구하야 同工場(동 공장) 發電期間中(발전기간 중)에는 읍내에 일부 송전하게 됨으로써 1월 17일을 기하야 此(차)를 兼用(겸용)코 各位(각위)의 기대인 24시간 송전을 시행케 됨은 당사자로써 대단히 欣喜(흔희)하는 바이며 장차 지속될 것을 各位(각위)의 협력하에 기대하고 다음의 諸点(제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1. 전력 절약 卽(즉) 계약위반사용(도전)은 절대중지하시고 就寢時(취침시)와 불필요한 時(시)는 반다시 소등할 것, 不然(불연)이면 전구 短命(단명) 區域的(구역적) 전기고장과 아울러 연료초과 등 개인적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있습니다.

2. 주간송전은 당분간 電賞線路(전상선로)를 이용하야 중요시설에 송전하겟사오니 各位(각위)는 洞里隣家(동리인가)에 권고하야 소등하실 것

3. 今般(금반) 시행하는 終夜(종야) 송전에 대하야 電賞料(전상료) 인상은 아니합니다.

料金引上안흔다
梁富昌氏談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47. 1. 18.

最大(최대) 努力(노력) 不惜(불석)
酒精工場(주정공장) 責任者(책임자) 康才良氏(강재양씨) 談(담)

今般(금반)의 24시간 시내송전에 관하야 新韓公社(신한공사)는 자가용 발전시에 한하야 시간당 100㎾ 이내 전력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卽(즉) 動力(동력)을 사용하는 晝間(주간)과 南電(남전)만으로는 過負荷(과부하)되는 초저녁 때에 송전케 되였습니다. 당사 소유의 발전기는 300綏 綏(수) : 킬로미터천, 300㎾를 300綏(수)왓트로 표기
(수)왓트이며 工場平均(공장 평균) 所有電力(소유전력)은 200綏(수)왓트이온데 시내에 100綏(수)왓트를 송전케 되면 항상 발전기의 전능력을 발휘하야야 되기 때문에 공장운전에 ○○한 불편이 있으나마 소공업을 ○○○導(도)하고 아울러 ○○○○大衆(대중)의 福利(복리)를 爲(위)하여야 하겠음니다. 原料買收(원료매수)가 ○○지연되는 때문에 현재 사용 중인 원료 3年前(년전) 産(산)이 10여萬貫(만관)이 있을 뿐이고 석탄 입하 역시 동계의 일기 불순으로 인하여 여의롭지 못하나 최대 노력을 앗기지 않케습니다. 昨夜(작야)는 시험을 겸하야 ○○에서 송전하얏는데 가정에서 필요치 않을 때 즉 취침시에도 소등치 않은 경향이 키로왓트계에서 추측할 수 있음은 대단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最大努力不惜
酒精工場責任者康才良氏談
料金引上하흔다
梁昌昌氏談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47. 1. 22.

盜電(도전)하면 送電拒絕(송전거절)
南電(남전) 出張所長(출장소장) 談(담)

渴望(갈망)튼 주야송전이 실현을 보고 旬日(순일)을 거치지 못한 이제 읍민은 到處(도처)에 전력에 대한 자각을 露出(노출)하야 당국으로 하여금 장래를 우려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는데 이에 鑑(감)하야 남전 제주도출장소장 梁富昌氏(양부창씨)는 읍민에 거듭 다음과 같은 경고를 發(발)하고 있다.

現情勢下(현 정세 하)에 있어서는 電球(전구)의 入荷(입하)가 매우 難關視(난관시)됨으로 읍민 諸位(제위)는 千先(간선) 전구 수명유지에 深甚(심심)의 ○○를 유지하기 바란다. 그리고 전력 절약 즉 계약위반 사용(도전)은 절대중지하야 앞으로의 전력 유지에 可一層(가일층) 협력하길 바라는 동시에 萬一(만일)에 악질도전자를 발각한 때는 同家(동가)에 대하야 영구히 송전을 거절할 것을 玆(자)에 경고하야 둔다.

盜電하면送電拒絕
南電出張所長談
渴望
旬日
到處
露出
當局으로
出張所長 梁富昌氏는 邑民에
現情勢下에있어서는
電球의入荷가
邑民諸位
千先電球
命維持에
即契約違反使用 (盜電) 은絕
對中止하야 앞으로의 電力維
持에 萬一에 惡質盜電者를發
覺한때는 同家에 對하야 永
久히送電을 拒絕할 것을 玆에
警告하야 둔다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47. 2. 22.

제2회 경제대책 협의회

부정식량 배급소에 철퇴
전기는 금후 야간만 송전키로

지난 5일에 조직체를 가진 경제대책협의회는 제2회 협의회를 20일 오후 2시부터 도청 지사실에서 개최하여 우선 모리배 숙청에 관하여 토의가 있은 다음 일본으로부터 드러오는 밀수품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에 의하여 세관에서 몰수한 후에 상공과를 통하야 일반에게 배급할 것이나 그 외 사회단체 혹은 개인이 모리행위가 적발되는 시는 취체당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요즈음 항간에는 가정부인이 모리를 자행함으로써 가정은 파괴상태로 들어가는 경향이 不(불)한 故(고)로 부인은 속히 가정으로 도라가야 할 것이며 특히 산지항을 중심으로 반입되는 우육 저육을 금후는 절대 반출치 못하도록 경찰당국이 취체를 강화 식힐 것이며 각 취체당국에서도 이에 호응하야 종전보다 일층 취체를 강화할 것이다. 연하야 방금 식량배급소에서 부정배급을 하는 자가 있는 故(고)로 道(도)에서는 사찰대를 조직하야 식량배급소 및 기타 배급소를 사찰코 부정식량 배급소는 철퇴할 것이며 綬○(수○)을 변경하야 두승 배급케 할 것이다. 그리고 방금 인상하고 있는 이발요금의 부당성을 지적함과 동시에 이발료 일람표를 掛壁(괘벽)하도록 관계당국에서는 지시할 것이며 요정출입엄금에 관공리 직원은 물론 일반에서도 엄금하야야 한다.

다음 전기문제에 있어서 방금 夜(야)송전을 실시중에 있으나 晝電(주전)은 물적생산에 불필요하고 소비적 송전에 기인될 뿐 아니라 전기물자로 인하야 당분간 주간송전은 정지하고 야간만 계속할 것이나 전기회사에서는 미국서 수입할 중유를 사용하는 고로 일반은 취침시에 반다시 소등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불원간 중앙에서 전기기술자가 내도하여 서귀포 폭포수와 어리목 폭포수를 조사하여 수력발전 시설 등을 추진케 된 문제 등으로 장시간의 협의에서 다대한 성과를 거두어 오후 4시에 폐회하였다.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47. 3. 30.

水力發電工事(수력발전공사) 不遠(불원) 착수

기술자의 수원지 등 조사를 맛치고
目下(목하) 道(도)당국서 착착 준비 중

본지에 旣報(기보)한 바 있는 수력발전공사 문제는 도민의 절대한 기대와 주시 아래 본월 초순경 第(제) 1步(보)로써 중앙청 전기과와 南電(남전)에서 각각 기술자의 내도를 보앗스며 각지의 수원지 등을 실시 조사한 바 있었는데 다년간의 현안이 되어 불원간에 해결을 보게 될 것이며 동 공사의 실현 여부는 본도의 개발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이 밋칠 것으로 도 당국으로서도 期於(기어) 실현코저 제반 물자 등 구입에 극진 노력 중이라는 바 이에 대한 도민의 기대는 사뭇 큰 바 있다.

水力發電工事不遠着手
目下道當局서 着々準備中
技術者等調査의 水源地 맛치고
吳英氏被檢
首都廳長指令으로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47. 6. 22.

전기문제 불원해결 敵産(적산)운영도 합리화
이 상공과장 귀임 담

各道(각도) 상공국장회의에 참석코 去(거) 20일 귀임한 상공과장 李仁九(이인구) 씨는 전기문제와 敵産工場(적산공장) 운영문제에 대하여 중앙청과 절충한 바 있었는데 전기문제에 있어서는 목포 남전에서 사용튼 1,400瓩(천) 瓩: 킬로그람천, 킬로와트천, 1,400㎾를 1,400瓩로표기의 원동기를 가져오게 되었음으로 이문제는 불원 해결될 것이라고 대략 如左(여좌)히 말하였다. 목포 남전에서 사용하든 화력 원동기를 가져오기로 되었는데 이를 주정공사에 설치할 예정이다. 시운전까지에는 약 3개월을 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 원동기 시설만 완성되면 전기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수지관계가 어떻게 될런지가 우려된다. 적산공장 운영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하여 차후는 각 도상공국장이 그 책임에 당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공장 등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야 적산 공장 운영기관으로써 생산위원회를 조직하여 생산을 적극 추진하게 될 것이다.

電氣問題不遠解決
敵産運營도合理化
李商工課長歸任談

一般商品에正札制實施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47. 7. 14.

남전발전기 고장, 금월내 송전 가망

지난 10일밤 11시 지나서 돌연 정전이 되어 ○반래 남전발전기의 원동기 샤후트 고장이 발생한 후 20분간의 전등○는 ○지 제주도의 재○ 예상하게 되어 석유등, 蠟燭(납촉)이 일시에 폭등하는 등 불 없는 암흑세계의 불편도 일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이어니와 마침 주정공사 발전기조차 분해 수리 중이어서 부득이 20일간은 발전중지하게 되었는데 방금 주정공사에서는 부속품 기계 등을 중앙으로 구득코자 직원이 출장 중이라 하며 늦어도 금월 내에는 송전될 것이라 하는데 한편 도 당국에서도 1夕(석)에 불을 일흔 읍내 전등 설치된 1,438호에 대하여 응급조치로 13經(경)의 등유를 배당코 1호당 8대씩 배급하게 되리라 하는데 읍 식량소에서 배급표를 발행하고 각반을 통하여 배부되어 13일부터 석유소매점에서 頒賣(반매)할 것이라 하며 각 관공서 숙직용도 배급되리라 한다.

南電發電機故障
今月內送電可望
國際學術會議支會設置
中等教育協會成金
百五十萬圓突破
金融監理長歸任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47. 7. 28.

시내송전 8월 중순 개시

去(거) 11일 남전발전기가 돌연 고장이 되어 암흑세계로 돌변한 채 10여일이 경과되고 이에 ○○이 항간에는 가지가지 流蜚(유비)가 떠돌아 일반으로 하여금 더욱 불안과 초조감을 늦기게 하고 있는데 그후 당국자와 남전 등에서는 불면 불휴의 노력 경주하여 동 발전기의 수리와 대치공사를 병행하여 진척 중인데 부속품 등이 알선 임무를 띄고 중앙청에 출장 중이든 도 상공과장 이인구 씨가 去(거) 24일 귀임함에 따라 대개의 예상이 가능케 되었다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47. 7. 28.

전기문제 중심으로 28일 도 주최 좌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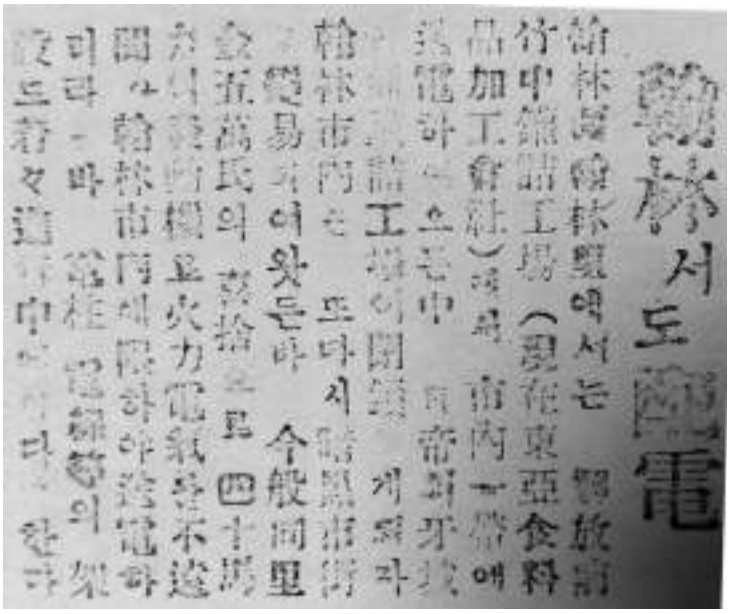
1,400키로 증기 따-빙을 본도에 이설케 되었다 함은 기보한 바 있거니와 금번 도에서는 左記(좌기) 따빙의 移据及(이거급) 운영의 원활을 기코져 28일 도청 도지사실에서 이에 대한 좌담회를 개최하리라 한다.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47. 7. 28.

한림서도 배전

한림면 한림리에서는 해방전 竹中經請(죽중경청)공장(현재 동아식료품 가공회사)에서 시내 일대에 송전하여 오던 중 日帝(일제)의 牙城(아성)인 동 經請(경청)공장이 폐쇄하게 되자 한림시내는 또다시 암흑시가로 변이되어 왔던 바 금반 동리 金五萬(김오만) 씨의 희사로 40마력의 원동기로 화력전기를 불원간 한림시내에 한하야 송전하리라는 바 전주 전선 등의 가설도 착착 진행 중이라고 한다.


한림서도 배전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47. 7. 30.

전기문제 해결은 도민의 협조에
전기문제 좌담회

본도의 발전상 절대적인 요소가 되고 도민의 큰 관심의 的中(적중)되어 있는 발전문제를 급속해결하려 目下(목하) 도 당국에서는 예의 노력 중에 있다함은 旣報(기보)한바 잇거니와 이에 대하여 去(거) 28일 도 당국 주최로 농림국장실에 각 관공서책임자 주정공사책임자 등이 參集(참집), 좌담회를 개최한 바 있었는데 이 상공과장으로부터 본도 전기에 대한 구체안의 설명이 있었고 이어 그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은 다음 폐회하였다.

電氣問題解決은
道民의協調에
電氣問題
座談會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47. 10.14.

대망의 원동기 8일 목포서 酒精公社(주정공사)에 입하

전기문제의 완전해결과 1억 4천만圓(원)의 운영
자금조달에 싸우는 주정공사 도민의 협력 요망
酒精公社(주정공사) 顧問官(고문관) 아氏(씨) 談(담)

지난 10월 7일 남전발전기 고장 이래 전력문제의 완전해결을 위해 남전 도 당국 주정공사의 협력으로 목포 남전의 1,400㎾의 전력을 供繪(공회)할수 있는 원동기를 이설 설치키로 되었다 함은 旣報(기보)한 바 같거니와 금월 8일 하오 5시 동 원동기가 주정공사 소속선 淸州丸(청주환)으로 목포에서부터 입항하였는데 이로써 전력문제가 해결의 본궤도에 올랐는데 동 기계는 주정공사에 양수되어 동 공장 내에 장치될 것이라 하는 바 10일 往訪(왕방)한 기자에게 동 공장 고문관「아이버스비식」씨는 전력해결과 동 공장운영에 관해 대개 如左(여좌)히 말하였다.

「대망의 원동기가 8일 도착하였다. 이것은 출력 1,750마력으로 1,400㎾의 전력을 낼 수 있는 것이고 본 공장에 現有(현유)한 것의 4·5배나 되는 것이다. 현재 본 공장이 시내에 공급하고 있는 전력은 80㎾인데 이것이 설치 완성되면 500㎾의 전력공급이 가능하다. 이것으로 발전하게만 되면 燈賞(등상)용으로 뿐만 아니라 동력용으로도 전력을 쓸 수 있게 되며 전력 걱정은 일소되는 것인만치 본 공장으로써도 전력을 다하여 조속한 발전개시를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위선 동 발전기실을 건축키 위하여 목하 재목 새멘트 등 구입에 분망 중이고 10일 후에는 공사에 착수하게 될 것이다. 본 공장이 가진 이 사업은 주정 생산분만 아니라 전력 문제를 우리 손으로 완전히 해결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자각하고 있다. 지금 본 공장이 그 운영자금 1억 4천만圓(원)을 중앙청에 대부얻기 위하여 싸우고 있다. 現下(현하) 지방 사정과 국내 사정에 비추어 이 대부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나는 도민 여러분에게 이 공장 살리기 위해서 남조선의 약품 제조와 병원용으로서 불가결한 알코홀을 여러분의 힘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관점에의 원료를 공급함으로 이 대부금 달성에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 그것은 곧 원료는 충분히 공급되니까 그 구입을 위해 1억 4천만圓(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까닭이다. 남조선에는 본 공장 외에 알코올 공장이 7개소 있으나 그 7개 공장의 총생산량에 본 공장의 생산량이 필적하는 만치 본 공장의 사활은 곧 남조선의 주정자급에 미치는 것임으로 이 공장을 가진 여러분은 또한 원료공급으로써 본 공장을 살리고 건국에 큰 도움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제주신문
1947. 10. 14.

待望의 原動機 八日本濟에 着荷
電氣問題의 完全解決과 一億四千萬圓의 基金
資金調達에 싸우는 酒造公社濟民의 協力要望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47. 11. 6.

석탄두절로 발전불능 약 2주일간 남전서 격일 송전

1,400㎾의 원동기가 주정공사에 입하되었다 함은 기보한 바 있거니와 당 공장에서 목하시설 작업○○ 주정공사의 발전으로 시내 송전해 왔으나 금반 석탄 입하가 순조롭지 못해 드디어 5일부터 발전불능 상태에 들어갔는데 동 공장에서는 고문관 아이비스식 씨가 삼척에 급행하여 석탄 구입에 주력하고 있어 적어도 2주일 내에는 발전개시 되리라 한다. 일방 남전에서는 그간 동사 소유인 660마력 원동기로 시내 송전을 계속하리라 하는데 이 원동기는 日軍(일군) 소유이었던 것을 모슬포에서 접수한 것으로 출력은 80㎾에 불과하여 시내 수요인 170kw 송전은 도저 부족하므로 1路線(노선) 2路線(노선)에 나누어 4일부터 1일 교대식으로 발전키로 되었다 한다.

石炭社絕로 發電不能
約二週日間 電灯 隔日送電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47. 12. 24.

본도도 암흑세계 일보전, 27일부터 또 격일송전

전기송전이 또 끊어진다. 학수고대하는 삼척의 석탄은 전국적인 석탄결핍이 탓인지 반입이 여의롭지 못하고 주정공사에 남은 석탄은 26일까지 송전하던 동 공장의 원동기는 정지하게 되었다 하며 남전의 중유에 의한 발전은 근근 80㎾ 출력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시내 수요의 160㎾의 반량에 불과한 것인데 시내 배전호수 1,500호 3,400등을 켜기에는 변압기가 견디지 않기 때문에 궁여의 일책으로 또다시 격일 송전으로 암흑세계나 면하고 연명할 수밖에 없는 쓸쓸한 세말과 정초를 맞아야만 하게 되었다.

本道도暗黑世界一步前
27日부터또隔日送電
移住民二百名來道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48. 1. 22.

電氣(전기)문제 해결, 24일경부터 매일

오랫동안 읍민이 염원하여 마지않든 매일 송전은 드디어 오는 24~5일경에 실시를 보게 되리라 한다. 도 상공과장 이인구 씨 말을 들어보면 삼척으로 석탄이 입하된 이래 하루바삐 매일 송전을 실현코저 예의 노력하였으나 주정공사 조업 개시가 지연된 관계로 지금에 이른 것인데 금반 주정원료 약 50만관 확보가 거의 확정적으로 예정됨으로써 내 24~5일경 조업개시와 동시에 실시하게 될 것이라는 바, 去般(거반) 입하된 1,750톤의 석탄은 약 3개월간 발전하면 소비되리라 하는데 그에 앞서 來月(내월) 15일경 또 삼척으로 석탄이 입하된다고 한다.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48. 2. 6.

매야 送電(송전)에 애로상존 금월내는 기대난?

하루 저녁씩 애꾸눈이 되는 전등은 아직도 매일 송전하게 되지 않어 앞으로 적어도 금월말까지는 계속될 것이라 한다. 그 까닭은 주정공사 공장의 발전기가 움직이기 시작해야할 것인데 동 공장에서는 발전키 위해서는 切干(절간) 甘藷(감저)가 들어와 조업이 시작되어야 「보이라」를 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 하는데 그것조차 먼저 남전과의 거래 70여만圓(원)이 어떤 형식으로 든지 청산되지 않는 한 조업을 시작하게 되더라도 송전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남전은 남전대로 그러지 않아도 다달이 적자밖에 안 나는 주머니로 기계고장만 해도 손실인데 70여만圓(원)을 내고 그 위에 전기값을 앞으로도 물게 되는 것이 하도 딱한 일이라서 양자간의 교섭이 여의치 않는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해 방금 군정청 상무부와 남전본사에서 절충이 있는 중이라고 한다. 5만 읍민 주민은 애꾸눈인데 그 교섭의 장래를 양눈이 되길 원하며 고대하고 있다.

今月內는期待難?

酒精工場運營에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48. 2. 22.

전기문제 遂(수)해결 來(내) 27일부터 每夜(매야)

하루저녁씩 애꾸눈이 되는 전등은 5만 읍민이 일상생활에 막심한 불편을 주어왔으며 또한 말성이 되어 오던 바인데 도 상공과의 발표에 의하면 드디어 그 해결을 보게 되어 늦어도 이달 27일부터는 每夜(매야) 송전이 보게 되었다고 한다.

電氣問題遂解決
來27日부터每夜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3. 1. 23.

盜濫電(도남전) 거의가 지도층, 10일간 적발 196건

본도의 전기사정은 발전기 도입이 지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주정회사와 남전의 발전량만으로는 전반적으로 전력공급이 부족되고 있으며 거기에 원료인 석탄조차 부족하여 앞으로 계속송전이 우려되고 있다. 當地(당지) 남전영업소에서는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시내 전역에 걸쳐 전기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21일 현재까지 盜電(도전) 및 濫電(남전) 등의 위반건수가 196건에 달하고 있으며 조사건수 1,080건에 대하여 20%의 위반율이라고 한다. 남전 측에 의하면 매월 평균 수용가의 수전량이 55,000㎾나 되며 사용자의 위반으로 매월 손실되는 전력량이 20,000㎾ 내지 22,000㎾나 되어 총 수전량의 35% 내지 45%가 손실을 보고 있어 금액으로는 1,600만환 내외를 매월 손실 보고 있다고 한다. 이번 적발된 위반자들에는 사회적으로 지도층에 있는 자가 많다는데 핍박된 전력사정을 인식하고 적극협력 있기를 요망하고 있다.

盜濫電거의 가지導層
十日間摘發一九六件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3. 1. 28.

발전기 아직도 촉진 중, 최(崔)지사 지사회의 후 歸任(귀임) 談(담)

지사회의에서 귀임한 최지사는 26일 往訪(왕방)한 기자에게 今般(금반) 회의는 각 부 장관 및 각 도지사가 一堂(일당)에 모여 중식을 같이하며 지방실정을 각각 보고청취 지시하는 전례없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고 전제하고 회의 내용 중 본도에 관한 발전기 도입, 상수도 시설, 행정기관의 통합 일원화 등 문제에 관하여 요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발전기도입= 대통령 각하께서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시게 된 것은 前般(전반) 출장시의 진언에 연유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癌(암)이 되고 있었던 시설비 문제는 전적으로 엉크라 ○○○서는 본도 발전기 설치를 위하여 상공 재무 양 장관에게 특별 지시를 내리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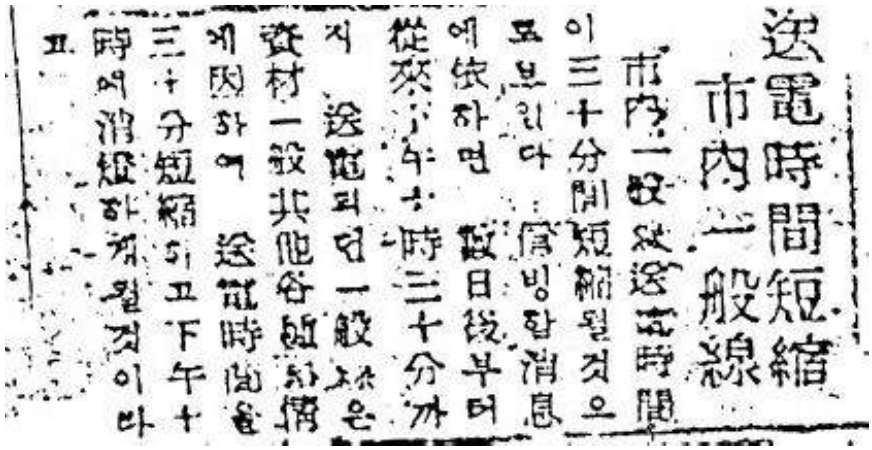
「發電機」하루도 促進中
行政機關一元化를 建議
CAC도 新設에 積極 支援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3. 1. 28.

송전시간 단축, 시내 일반선

시내 일반선 송전 시간이 30분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신빙할 소식통에 의하면 수일 후부터 종래 하오 10시 30분까지 송전되던 일반선은 자재, 일반, 기타 각종 사정에 因(인)하여 송전시간을 30분 단축하고 하오 10시에 소등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送電時間短縮
市內一般線
市內一般送電時間
이三十分間短縮될것으
로보인다 信빙할消息
에依하면 翌日後부터
從來午十時三十分까
지 送電되던一般선은
資材一般其他各般事情
에因하여 送電時間을
三十分短縮하고下午十
時에消燈하게될것이라
고.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3. 1. 31.

酒工(주공)에 送電(송전) 감사장, 9회 邑議(읍의) 29일 폐막

"긴급 식량대책의 건" 7개 항목 전부를 가결 통과시킨 邑議(읍의) 제3차 회의에 이어 제4차 본회의는 지난 29일 상오 10시 김의장 사회로 개의, 本會議(본회의)에 상정되고 있는 제주읍 보건진료소 삼양 분소 설치의 건(文日鳳(문일봉)의원 발의)과 외도천의 洗越(세월) 재해복구공사의 건(高明植(고명식)의원 발의)을 각각 내무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고 제주읍 공설시장 사용료 인하 진정의 건(시장각 업자 298인의 연명)은 부결…(이하생략)

10시 30분까지 단축되고 있는 송전시간의 연장을 관계기관에 요청하는 건의를 보냄과 동시에 전기사정에 곤란받고 있는 시민에 많은 애로를 극복하면서 송전하여 주고 있는 주정공업회사에 감사장을 보내기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하오 3시 30분 제9회 邑議(읍의)를 폐막하였다. 이날도 전일에 이어 역시 중식시간을 없애고 읍의원들은 진지한 태도로 회의에 임하였다.

酒工에 送電感謝狀

市場料引下陳情은否決

法務部檢察課長一行來濟

旅客船臨時檢査

不合格이면禁航

事故連發에交通部措置

九回邑議

29日閉幕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3. 2. 20.

이대로 가면 단전
道(도), 盜電者(도전자)에 거듭 경고

시내 전기수요량이 공급량을 오바하여 不日內(불일내)에 단전될 우려있음에 鑑(감)하여 14일 도 당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고를 발표하였다.

도전 및 특수선 무단가설 등으로 남전의 전기공급량의 40(현재까지 180㎾ 공급 중 72㎾) 이상의 소모량을 내고 있는 반면 전원 측인 주정공장에서는 일반전력의 소모가 심하여 자기 공장운영에도 지장이 막심하여 부득이 단전할 것을 통고하여 왔음으로 지난번 軍警官社(군경관사) 合同 取締班(합동 취체반)을 조직하고 取締(취체)한 바 적발된 건수가 특수선만 하여도 130여건에 달하였으며 전력은 이로 말미암아 약 40㎾가 절약되어 다소 원만히 되었다고는 하겠으나 아직도 30㎾를 더 절약하지 않으면 不日(불일)간에 단전될 우려가 有(유)하오니 일반가정에서도 절전을 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하고는 13W 전구를 사용할 것이며 (최고 30W 이상 사용 불가) 앞으로 매월 부정기적으로 軍警官社(군경관사) 합동취체를 계속할 것인바 금반에 한하여는 관용하되 다음부터는 위반자에 대하여 추징금을 징수함과 동시에 의법처단할 방침이니 수용가는 주의하여 주기 바란다.

이대로가면斷電
道、盜電者에거듭警告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3. 3. 22.

「발전기」 6, 7월경에? 미 8군당국, 이미 엉크라 측에 위양

원조발전기는 오는 6월 내지 7월경 본도에 도입될 것이라고 21일 조 산업과장은 기자에게 말하였다. 발전기 시설소요자금액도 중앙에서는 내정되었다는 바 동 발전기는 제주도에 보낼 작정으로 미 8군 당국으로부터 엉크라 측에 넘어왔다고 한다.

「發電機」六、七月頃에?

美八軍當局、이미 "엉크라" 側에 委讓

全道警察局

對抗柔道試合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3. 4. 16.

발전기는 4대로 또 확인, 길(吉) 국장 귀임 談(담)

중앙출장 중이던 길 총무국장은 작 15일 항공기편으로 귀임하였다. 이날 길 국장은 출장시 절충하던 본도 당면 제반문제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는 바 본도의 타도 예속설은 전연 무근지설이었다고 말한 다음 제주읍의 시 승격과 增郡(증군) 문제는 병합 추진시켜도 무방할 것이라는 소견을 피력하였다. 기자와의 문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입 발전기 문제= 발전기 시설공사 請負(청부) 문제가 한미간에 합의를 보지 못하여 절충 중이다. 상공부에서는 남전에 엉크라에서는 美人(미인)회사에 請負(청부)시키려 하나 곧 해결될 것이다. 종전에는 발전기가 2대만인 줄 알았는데 계획으로 보아 4대라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현재 6월 말까지 사용할 발전기 및 부속품 일체 도입경비로 49만불이 할당되었으며 기타시설 자재 구입비로 53,500,435환, 공사비로 36,736,300환을 상공부에서 계상하였으나 한미 간에는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內分委서 不遠來道
發電機는 四台로 또 確認
市昇格
長談
局長任
吉歸
海兵隊네 軍맛이
警備出動서 記念行事
自首者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3. 6. 2.

본도 전력개발에 신계획

수요지대별로 시설
1,200kw로 수요량을 剪定(전정), 현안의 4대는 삼척 轉設(전설)

事變(사변) 후 경인지구의 수개공장과 대구지구의 육군 제1훈련소 등 거대한 제시설이 본도에 이설된 이래 추진되어오는 본도 전력개발 문제는 얼마 전 중앙에서 개최된 53년도 엉크라 계획에 의한 제주도 전력개발회의(상공부와 엉크라 연석)에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가하여져 새로운 계획이 수립되었다 한다.

중앙회의(旣報(기보))에 참석자 귀임한 李(이)산업국장은 1일 기자의 질문에 대하여 旣爲(기위) 추진되어오던 750㎾ 발전기 4대는 삼척에 轉設(전설)될 것이며 본도 긴급전력수요량인 1,200㎾ (제1차 계획)의 발전시설재를 새로 도입하되 발전기는 도내에서도 공장 등 동력 수요처가 밀집한 제주읍, 한림, 모슬포, 서귀포 4개 지구에 수요량대로의 발전기를 도입하여 지구별로 발전소를 신설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이 국장은 부언하기를 前記(전기) 계획은 상공부와 엉크라 간에 일치된 최종적인 합의점인데 아직 협정이 체결된 것은 아니라고 말하였다.

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도내 전력 수요량은 추진하던 3,000㎾(750㎾ 발전기 4대) 확보가 1,200㎾로 감량될 셈인데 前記(전기) 상공부와 엉크라 연석회의 내용에 관하여 중앙소식통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엉크라 측은 보관 중인 750㎾ 발전기 4대의 제주도 가설을 반대하여 본도 전력수요량을 900㎾로 剪定(전정)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발전기 공급을 주장하여 상공부 측이 제시한 제주도 긴급전력수요량 1,240㎾(제 1차)를 否認(부인)하여 쌍방이 의견합의를 보지 못하더니 결국 旣爲(기위) 50만불로 계상된 본도 발전시설비 중에서 20만불은 육지부 전력개발에 전용하고 남은 30만불은 현 수요량인 1,200여㎾의 발전시설을 도입하되 前記(전기)한 바와 같이 발전기는 도내 4개소의 각 관할구역 수요량대로 용량기를 도입하게 되었고 곧 자금협정을 체결할 것에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고 한다.

△ 李(이)산업국장 談(담): 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상공부에서는 한국 전반적 부흥면으로 봐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미안스러움을 표명하였다. 1,200㎾면 긴급 수요량에는 충당되며 東廻線(동회선)이 금차 계획에서 빠져 2차로 돌려진 것만이 유감이다.

제주신문
1953. 7. 17.

需要地帶別로 施設

…千二百KW로 需要量을 判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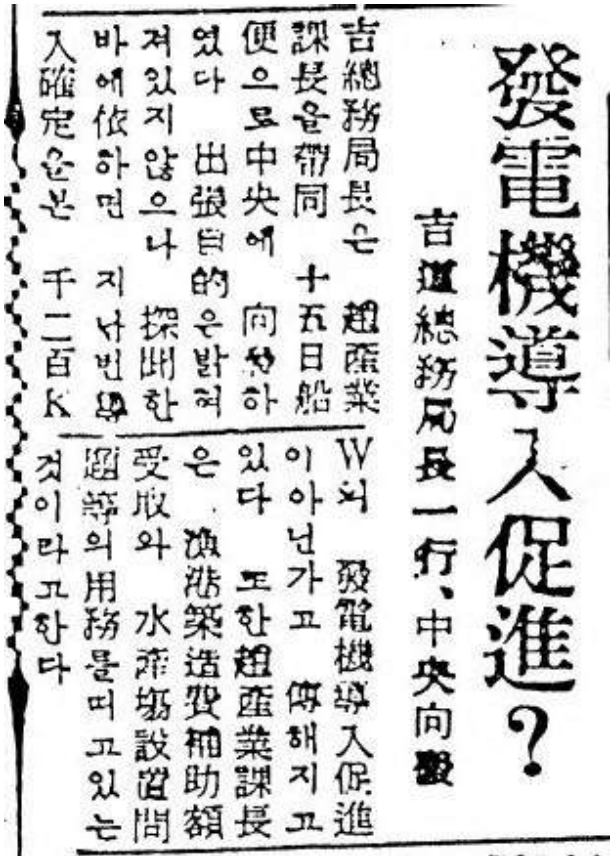
懸案의 四台는 三陟轉設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3. 7. 17.

발전기 도입촉진? 길(吉) 도총무국장 일행, 중앙 향발

길 총무국장은 趙(조) 산업과장을 대동 15일 선편으로 중앙에 향발하였다. 출장목적은 밝혀져 있지 않으나 탐문한 바에 의하면 지난번 도입확정을 본 1,200㎾의 발전기 도입촉진이 아닌가고 전해지고 있다. 또한 조 산업과장은 어항축조비 보조액 수취와 수산장 설치문제 등의 용무를 띠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發電機導入促進?

吉道總務局長一行、中央向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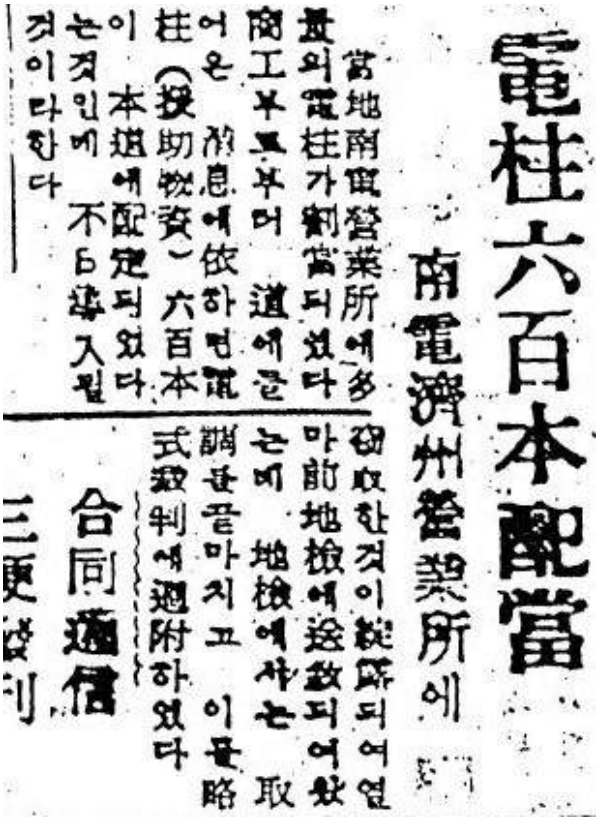
吉總務局長은 趙産業課長을帶同 十五日船便으로中央에 向發하였다 出張目的은밝혀져있지않으나 探聞한바에依하면 지난번導入確定分 千二百K W의 發電機導入促進이아닌가고 傳해지고있다 또한趙産業課長은 漁港築造費補助額受取와 水産場設置問題等의用務를띠고있는것이라고한다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3. 8. 9.

전주 600본 배당, 남전 제주영업소에

當地(당지) 남전영업소에 다량의 전주가 할당되었다. 상공부로부터 도에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전주(원조물자) 600본이 본도에 배정되었다는 것인데 不日(불일) 도입될 것이라 한다.



電柱六百本配當

南電濟州營業所에

當地南電營業所에多量의電柱가割當되었다 商工부로부터 道에는 消息에依하면電柱(援助物資) 六百本이 本道에配定되었다는것인데 不日導入될 것이라한다

御取한것이設路되여있마前地檢에送致되여있는데 地檢에서는 取調를마치고 이를略式裁判에廻附하였다

合同通信

三更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3. 8. 9.

需要地帶別로 施設

…千二百KW로 需要量을 算定…

懸案의 四台는 三陟轉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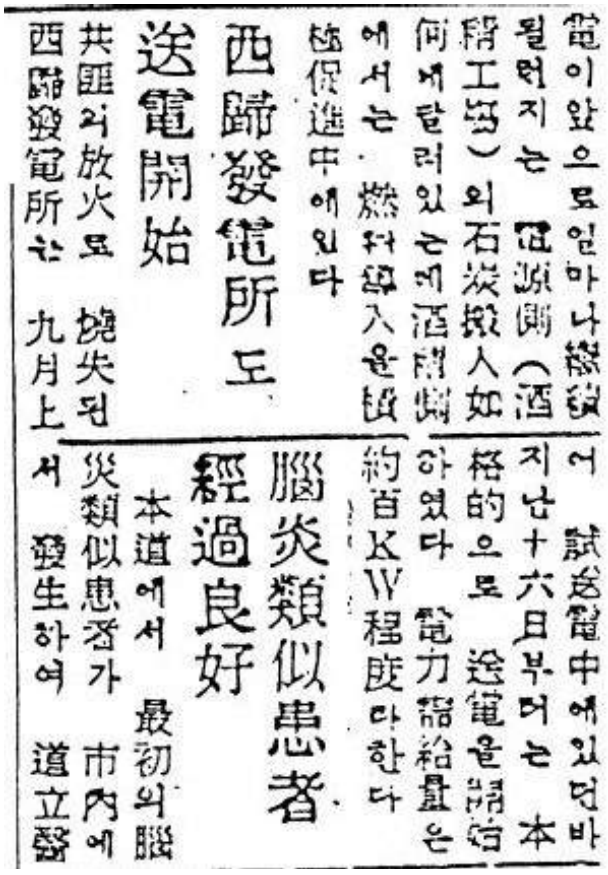
보리 收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3. 9. 22.

서귀포 발전소도 송전개시

共匪(공비)의 방화로 소실된 서귀발전소는 9월 상순경에 시설이 복구되어 試(시) 송전 중에 있던 바 지난 16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송전을 개시하였다. 전력수급량은 약 100㎾ 정도라 한다.



西歸發電所도
送電開始
共匪의放火로 燒失된
西歸發電所는 九月上
旬復進中에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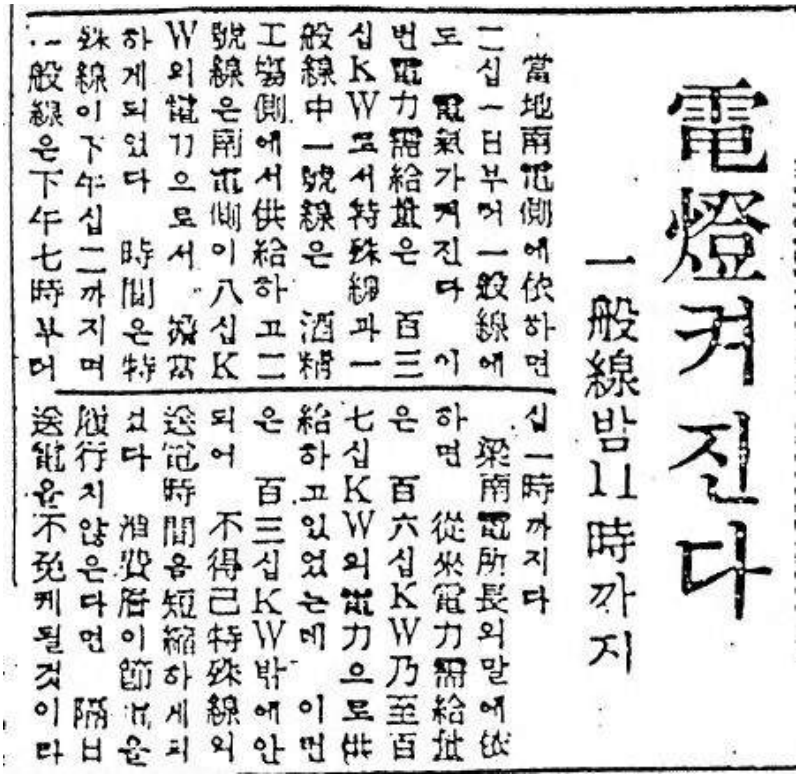
腦炎類似患者
經過良好
本道에서 最初의腦
炎類似患者가 市內에
서 發生하여 道立醫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3. 9. 22.

전등 켜진다, 일반선 밤 11시까지

當地(당지) 남전측에 의하면 21일부터 일반선에도 전기가 켜진다. 이번 전력수급량은 130kW로서 특수선과 일반선 중 1호선은 주정공장 측에서 공급하고 2호선은 남전 측이 80kW의 전력으로서 담당하게 되었다. 시간은 특수선이 하오 12시까지며 일반선은 하오 7시부터 11시까지다. 양(梁) 남전소장의 말에 의하면 종래 전력수급량은 160kW 내지 170kW의 전력으로 공급하고 있었는데 이번은 130kW밖에 안 되어 부득이 특수선의 송전시간을 단축하게 되었다. 소비층이 절전을 이행치 않는다면 격일 송전을 不免(불면)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번 송전이 앞으로 얼마나 계속될런지는 전원 측(주정공장)의 석탄 반입 여하에 달려있는데 주정 측에서는 연료도입을 적극 촉진 중에 있다.



電燈켜진다

一般線밤11時까지

當地南電側에依하면 二十一日부터一般線에도 電氣가켜진다 이번電力需給量은 百三十KW로서特殊線과一般線中一號線은 酒精工場側에서供給하고二號線은南電側이八十KW의電力으로서 特殊線이下午十二까지며 一般線은下午七時부터 二十一時까지다

梁南電所長의말에依하면 從來電力需給量은 百六十KW乃至百七十KW의電力으로供給하고있었는데 이번은 百三十KW밖에안되어 不得已特殊線의 送電時間을短縮하게되었다 時間은特殊線이下午十二까지며 一般線은下午七時부터 翌日早朝까지다 但發電所의節電을 實行치않는다면 隔日送電을不免케될것이라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3. 12. 6.

발전기 조기도입은 난망, 조(趙) 산업과장 귀임 談(담)

지난 16, 17, 18 3일간 중앙에서 개최된 전국 수산과장 수산단체 회의 및 각 도 상공과장회의에 참석자 5일 濟釜(제부) 간 정기선(평택호)편으로 귀임한 조 산업과장은 前記(전기) 兩(양)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협의되었다고 말하였다.

▽ 발전기도입문제= 지난번 상공부에서 엉크라 본부에 문의한 바 발전기는 아직 발주하지 않았다고 함으로 조속한 도입은 어렵게 보인다.

果報
發電機早速導入은難望
漁港補助四百三十二萬圓令達
課長趙産業課長歸任談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3. 12. 12.

주정공장 어제부터 휴업 운영자금 고갈 때문?

주정공장 휴업설은 오래전부터 항간에 떠돌고 있던 바 드디어 어제 11일 정오를 기하여 동 공장은 휴업에 들어갔다. 주공에 의하면 자가소비용으로 발전하고 있던 300㎾의 발전기가 11일 상오 8시 반 발전을 중지하므로써 공장내 모든 기계는 조업이 중지되었고 200여명의 종업원은 동일 정오를 기하여 휴업 귀가케 되었다. 휴업원인은 석탄 품절이며 석탄이 반입되는 대로 조업을 개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탐문한 바에 의하면 휴업은 운영자금 고갈에 기인하는 것으로 자금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 조업개시는 불가능할 것이라 한다. 한편, 자금문제로 9월 하순 상경한 동 회사 이종렬(李鍾烈) 사장은 이제까지 귀사치 않고 있다.

△해당 기사 사진 없음

제주신문
1953. 12. 27.

금야부터 특선송전

多事(다사)한 연말에 단전되어 시민들 답답증을 억제치 못하고 있는 때 남전에 의하면 昨(작) 26일부터 시운전하는 바 오늘 27일밤부터는 특선만은 종전 시간대로 송전한다고 한다.

한편 일반선은 주공에서 조업이 개시되기 전에는 송전가망이 없다고 하는 바 주정회사의 말에 의하면 조업개시 시기는 막연하다고 한다.

今夜부터 特線送電

道頭轢死事件 犯人送檢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3. 12. 30.

6마력의 풍차, 도 산업과에서 시험

바람을 이용하여 원동기를 움직일 수 있는 풍차가 며칠 전 본도에 들어왔다. 경남도 마산에 있는 南昌工業(남창공업) 연구소 玄昌俊(현창준) 씨는 높이 25尺(척)으로 된 6마력의 풍차를 제작, 지난 26일 도 산업과에 풍차 사용알선을 의뢰하여 왔다. 도 산업과에서는 동 풍차를 시내 동아산업사에 무상으로 설치하여 시험결과에 의하여 알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한다. 동 풍차의 구조는 높이 25척으로 된 상부에다 6개의 "프로페라"를 달린 원형의 풍차를 장치하고 "스프링"으로 된 풍차 직선심봉의 후미에다 풍향을 조절하는 "舵(타)"가 있는데 그 직선중심에 "베아링" 및 치륜이 장치되어 풍속을 조절하면서 높이 25척의 동체 중심을 따라 하부까지 연결된 중심축이 자연 움직여진다. 이 중심축이 회전할 때마다 중심축과 연결되어 있는 동력기도 때를 같이하여 동력의 발동을 보게 된 것인데 1분간 500회를 회전한다. 풍차의 용도는 주로 철공장, 제재소, 정미소, 기타 동력이 필요한 공장과 발전소 등에 이용되는 것으로 마력이 높아질수록 동체의 높이도 증척되는 것인데 바람 많은 본도 기후에는 적응하여 평상시가 강풍이 불어도 하등 출력에 지장을 초래치 않으며 본도에서는 1개월치고 20일간 출력이 가능하다고 한다. 풍차는 이미 서양 선진국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인데 수년 전 본도에서도 오현중학교 자리에서 가락천 물 인수작업시 시험되었던 것이나 하등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在鄕軍人軍事訓練
家要請時再服務態勢

六馬力의 風車
驗試서課業産商道

旅客車運行時間을 調節
道當局、行政措置로 決定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4. 1. 6.

발전시설용 전주 배정

케이켁(KCAC) 당국에서 외자청사무소에 통보한 바에 의하면 엉크라 부흥계획(제 53-1)에 의한 본도 발전시설용 자재로서 428본의 전주가 본도에 배당되었는 바 현품은 거제도에서 미국 수송선에 의하여 금명간 반입될 것인바 동 전주는 남전에서 인수될 것이라 한다.

금반 배당된 전주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10m 구경 19cm)= 325본(161톤), 11m(구경 19cm)= 103본(60톤) 합 221톤

△해당 기사 사진 없음

제주신문
1954. 1. 6.

본도 발전공사 입찰
구랍, 뉴욕시서 공고

4일 상공부 전기관계 소식통이 말한 바에 의하면 지난 12월 7일 미국 뉴욕에서는 1953년도 엉크라 원조자금에 의하여 부흥건설될 한국 제주도 電力(전력)개발 工事(공사)의 입찰공고를 하였다고 한다. 제주도 전력개발 工事(공사)란 250kW 발전기 3대와 100kW 4대 및 50kW 1대 등을 설치 건설하는 것이다. (동양)

本道發電工事入札

舊臘、뉴-욕市서公告

東門橋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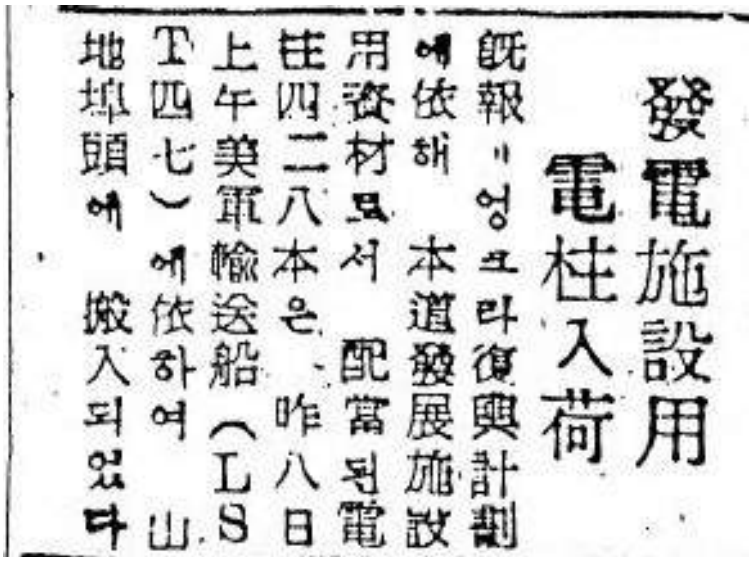
떠러저卽死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4. 1. 10.

발전시설용 전주 입하

엉크라 부흥계획에 의해 본도 발전시설용 자재로서 배당된 전주 428본은 지난 8일 상오 미군 수송선(LST47)에 의하여 산지부두에 반입되었다.



發電施設用
電柱入荷

既報 "엉크라復興計劃
에依해 本道發展施設
用資材로서 配當된電
柱四二八本은 昨八日
上午美軍輸送船(LS
T四七)에依하여 山
地埠頭에 搬入되었다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4. 1. 10.

특선송전도 위기
남전, 수요측 자숙 요망

전원 측 주정공장의 조업 중지로 일반선은 오랫동안 단전되고 있어 시민들은 조속한 송전을 갈망하고 있거니와 군, 관공서, 통신기관 등 중요부문에 한하여 송전하고 있는 특선도 요즈음 각 기관에서의 수요 증가와 무단 가설 도용자의 격증으로 수요량이 발전량을 초과하고 있어 특선송전도 단전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남전 측에서는 비명을 올리고 있다.

남전 측에서 말하는 바에 의하면 특선은 제주발전소의 전력에 의존되고 있는 바 高燭球(고촉구) 사용 또는 무단가설 도전자의 증가로 제주발전소의 최대발전량 70㎾보다 수요량이 초과함으로서 소정전압으로서 송전치 못할 형편이며 정상적인 발전을 지속할 수 없는 긴박한 실정에 놓여 있다. 따라서 不要所(불요소)의 등화, 高燭球(고촉구)(가정 30w, 사무소 60w 이상) 사용 등 전력남용을 일체 중지하고 도전 무단가설 등을 철폐하여 주도록 남전에서는 요망하고 있다. 만약 이에 협조해주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今後(금후) 의법 처단할 것이라고 또 한번 경고하고 있다.

特線送電도危機

南電、需要側自肅要望

40件 盜도 摘發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4. 4. 30.

5개월 만에 "검은연기"

오랫동안 휴업상태에 陷入(함입)해 있던 주공이 어제 지루한 휴업에 종지부를 직고 조업을 개시하였다. 주공회사에서는 일반에 알려져 있는 운영자금난과 석탄 결핍 등으로 인하여 구랍 중순 부득이 휴업상태에 陷入(함입)하였던 바 동사 重役陣(중역진)의 맹활약으로 자금이 확보됨에 따라 700톤 이상의 석탄이 도입되고 주정제조에 중요한 증류기도 설치 기력쇄신되어 昨(작) 29일 상오 8시를 기하여 4개월 20일 만에 조업을 개시하였다. 200여명의 동사 종업원들은 4개월여에 걸친 지루한 집안 簞居(단거) 생활에서 뛰쳐나와 높다란 굴뚝에서 뭉게뭉게 솟아오르는 연기를 바라보며 기운차게 발걸음을 옮겨 就業(취업)하였다.

五個月만에 "검은煙氣"
酒精工場、29日操業을再開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4. 4. 30.

일반선 송전복구, 1일부터 격일 4시간

1일 저녁부터 일반가정에 전기가 켜진다는 반가운 소식…

남전과 전원 측(酒工)에 의하면 주공발전 400㎾의 전력 중 동사 자가소비를 제외한 잔여 전력 130㎾를 일반선에 송전할 계획으로 전선로 보수에 착수하고 있는 바 明(명) 1일 저녁부터 송전될 터이다. 송전시간에 대해서는 방금 남전과 전원 측이 협의중에 있는데 대개 하오 6시 50분부터 11시까지 4시간 격일 송전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한편 일반선은 去年(거년) 12월 초 남전 측 발전기 고장으로 6일 간격 절름발이 송전되다가 주공휴업으로 말미암아 특선과 더불어 단전된 후 5개월 동안 일반민가에서는 전기불을 구경치 못하고 있으며 처음엔 밤이 오면 1時(시) 千秋(천추)처럼 전기를 갈망턴 시민들도 근간에 이르러서는 전기를 잊을 형편에 놓여 있다. 특선만은 남전발전기가 수리된 舊臘暮(구랍모) 이래 하오 6시부터 동 11시까지 6시간식 꺼지지 않고 송전되고 있다.

一般線送電復舊
一日置隔日四時間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4. 6. 24.

발전기 8대, 8월 말까지는 도입, 남전서 시설지를 물색

엉크라 부흥계획에 의하여 전주 전선 및 발전기 8대(총 발전량 1200㎾)가 얼마 전 본도에 배당되었거니와 남전 제주영업소에 의하면 엉크라 원조로서 기 입하된 전주 428본과 외선 300상자는 남전에서 보관 중이며 또한 엉크라에서 발주한 전기 발전기 8대는 현재 미국 샌프란시스코 유니온 디젤 회사에서 제작중인바 순조로이 진행되면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제작 완료 본도에 도입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앞서 남전에서는 전기개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입안 발전기 시설 후보 부지 등을 선정하고 있는 바 9월경에는 본도 주요 도시에 환한 전등이 켜지게 될 것이다. 한편, 발전기 시설에 대한 남전 계획에 의하면 △시내 250㎾ 발전기 3대 △한림 100㎾ 50㎾ 발전기 각각 1대, △모슬포 100㎾ 발전기 1대 △서귀포 100㎾ 발전기 2대가 각각 설치케 되었던 바 제주읍은 시내에 가까운 부락까지도 송전하게 되리라 한다.

南電서施設地를物色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4. 6. 27.

27일부터 일반송전 중지, 酒工(주공) 석탄 품절 때문

남전에 의하면 今(금) 27일 저녁부터 읍 시내 일반선 송전이 중지된다. 이는 電源(전원)(酒工(주공)) 측 석탄 품절 때문이며 특선만은 종전대로 송전케 된다. 한편 酒工(주공)에 의하면 석탄품절은 요즈음 일기불순으로 도입 중단된 탓이며 일기회복 즉시 반입이 개시될 터이다. 석탄 부족으로 말미암아 酒工(주공)도 금 27일 하오 3시를 기하여 부득이 조업을 중지케 되었다 한다.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4. 8. 3.

발전시설 10월 착공

제주, 한림, 모슬포, 서귀포 4개소, 공사 순조면 연내 송전

(旣報(기보)) 엉크라 원조에 의한 도내 4개소(제주, 한림, 모슬포, 서귀)의 발전시설공사가 오는 10월경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 발전기 도입 진척상황에 대하여 2일 도 당국자의 말에 의하면 발전기와 ○罐(관)내 구입품을 제외한 시설물자 전량이 도입되었으며 부지도 이미 결정되어 10월 초순경까지는 4개소의 시설공사가 착수될 것이라 한다. 공사가 순조로히 진척되면 연내로 송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바, 운영난에 빠진 酒工(주공)의 조업이 당분간 막연하여져 전기문제의 해결은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發電施設 十月着工
濟州 翰林 城山浦 西歸浦四個所
工事順調 년年內送電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4. 8. 10.

불어나는 특선송전 남전 비명

전기회사에서는 전력남용 억제에 대하여 협력을 요망하고 있다. 酒工(주공)전원이 스톱된 후 주요○문의 비상선에 극한하여 송전을 지속하고 있는데 각 기관에서의 부문 외에 수용증가와 아울러 도용자의 격증으로 발전량인 70㎾ 초과하고 있어 정상발전을 지속할 수 없는 실정이라 하고 다음 사항을 실천토록 바라고 있다.

△ 高燭球(고촉구)용 및 不要(불요)개소의 등화 등 일체 전력 남용 현상을 제거할 사
△ 군경관공서의 사무실 등에는 전구 30w 내지 60w를 사용할 사
△ 상시선(특선) 대상자라 할 지라도 전구 30w 이하로 사용할 사
△ 일반선 전등수용가로서 무단사용시는 인입선 일체를 철거함
△ 우 각항에 위반시는 擅用料(천용료) 징수하는 동시에 재료 일체 철거하겠음

불어나는特線盜電 …… 南電悲鳴 ……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4. 10. 24.

明夜(명야)부터 특수선도 스톱, 남전 연료유 품절로

특수선에 한하여 송전하고 있던 남전이 연료유의 품절로 25일 야간부터 스톱된다. 23일 梁(양) 영업소장에 의하면 道(도)의 배급유 외에 영업소 자체로서 지속책을 강구하여 봤으나 연료유를 확보치 못하여 부득이 정전케 된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발전상황에 있어서 80kW의 동 영업소 발전기를 전량 발전시켜 왔는데도 당국이 중앙지시요강에 의하여 특수선 대상을 감축시키지 안하는 한 노후한 발전기로서는 연료유가 확보되어 계속 송전하는데도 곤란 실정이라 한다. 상공부 요강에 의하여 60kW까지 대상을 감축시킬 수 있으며 부하량이 많은 이유로서 도전이 심한 사실을 지적하였다.

明夜부터 特殊線도 스톱
南電燃料油品切로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4. 10. 26.

특선 당분간 송전

연료유의 확보로 남전영업소의 송전이 당분간 지속될 터이다. 25일 남전영업소에 의하면 모기관에서 연료유가 확보되어 금명간부터 발전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특수송전은 24일 밤부터 스톱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하오 5시 반부터 10시 30분까지 단축할 것이다. 또한 영업소에서는 수용가의 철저한 절전을 거듭 바라고 있다.

特線當分間送電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4. 10. 29.

절전조치에 협조를 요망, 吉(길) 지사 특선 일부중단에 담화

27일 길 지사는 핍박한 전력사정으로 시내 특수선의 송전을 일부 중단하게 된 데 대하여 시민의 협조를 요망하는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주정공장이 장기 휴업에 따른 일반선의 정전으로 인하여 특수선의 남용이 날로 증가하여 감으로 배전회사로 하여금 적극 取締(취체)케 하였으니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하였고 현재 시내 유일한 발전기로서는 70㎾밖에 송전하지 못할 형편일 뿐 아니라 기계가 노후하여서 이대로 나가서는 계속 송전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것을 각 관공서 중요기관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발전회사의 계속 운전을 꾀하기 위하여 부득이 일부 특수선의 송전을 중단하게 되었으니 逼迫(핍박)한 전력사정을 현찰하여 본도 전기 행정에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4. 11. 13.

발전시설 지연 시, 아직 미국서 제작 중

연말 내에 착공될 것으로 기대되던 현안의 발전시설은 아직 발전기가 미국에서 제작 중에 있다는 것으로 미루어 앞으로 시일이 요할 것으로 보인다. 길(吉) 지사는 전기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上京(상경) 시 상공부와 CAC 본부에 절충하였다고, 상공부에 의하면 코스트가 안 맞을 남전회사의 소극적인 換貨(환화) 조치 등이 조속한 추진에 영향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발전시설에 필요한 부분품은 계속 입하 중에 있다.

發電施設遲延視

아즉美國서製作中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4. 12. 2.

전력개발사업 호전
도, 明春(명춘)까지 발전기 도입 확인

본도 전력개발 계획에 의한 8대의 발전기가 명년 3월까지 도입될 것으로 도 당국에서 확인하고 있다. 1일 길(吉) 지사는 이에 대한 담화를 통하여 2대의 본도 시설용 발전기가 미국에서 이미 제작되어 시운전이 끝났으며 나머지 6대가 명년 2월에 검사 완료되어 3월까지는 본도에 도입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작년 6월 국제연합 한국재건단 및 국제연합사령부와 남선전기주식회사 간에 본도 전력개발계획 실천에 관한 細目(세목)에서 합의된 이래 발전기가 明春(명춘) 내로 도입된다는 금반의 소식은 얼마 전의 본부회의에 참석하고 귀임한 당시 CAC 사령관 오버튼 중령으로부터 도에 보낸 공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도합 1,200㎾의 발전량을 가진 8대의 발전기는 제주, 한림, 모슬포, 서귀포의 4개소에 시설될 터인데 이에 앞서 본도에서는 관계기관에 의하여 전주, 배전반 등 전력개발에 따르는 대부분의 부속자재를 도입 완료하고 제반 수입태도를 갖추어 발전기의 조속한 도입만을 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電力開發事業好轉
道 明春까지 發電機導入確認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4. 12. 27.

금야부터 일반선 송전
주정공장, 6개월 만에 조업재개

지난 7월 이래 운영자금난, 주정판로난으로 근 반년동안 조업 중지되었던 제주주정회사는 그동안 운영자금, 연료, 생산원료 구입과 내부 수리 등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오늘(27일) 조업을 개시한다. 이로써 주정회사 연돌에서는 6개월 만에 검은 연기를 또다시 뿜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일반가정에까지도 금야부터 송전되리라는 바 어두운 시가지는 환히 밝어질 것으로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에게는 일대 환희를 주고 있다.

즉 제주주정회사에서는 조업 재개를 위하여 간부진을 중앙에 파견 융자절충과 기계기구의 보수 등 내부수리를 하는 한편 주정원료인 당밀 도입을 실시하고 연료용 석탄 3,000여톤을 마련 반입 촉진 중에 있었는데 26일 부산으로부터 리네이트호(해공소속 FS)에 의하여 유연탄 387톤이 입하됨으로서 조업개시를 보게 된 것이다. 주공당국자에 의하면 석탄은 기이 현품 확보된 유연탄 2,200톤이 부산으로부터 계속 입하될 터이며 무연탄 1,000톤도 不遠(불원) 반입될 터이라 한다.

今夜부터 一般線送電
酒精工場 六個月만에 操業再開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4. 12. 29.

독자의 소리, 가로등 복구를 바람

△ 시내의 가로등 시설복구에 대하여 관계 당국에 진언코저 합니다.

△ 시 승격이 기대되는 제주읍 시내의 밤거리는 너무 적적한 것 같습니다. 전시하 명랑한 시민의 거리를 이룩하는 뜻에서 일반송전이 개시된 이 기회에 가로등 시설의 복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로등의 복구는 비록 캄캄한 밤의 거리를 환하게 하는 것 외에도 暗夜(암야)를 노리는 범행을 예방하고 뒷골목을 헤매이는 불량한 연소층과 유한여성의 풍기시정에도 일조가 되지 않을가 봅니다. 이러한 뜻에서 관계 당국이 필요를 느끼신다면 하루바삐 요소에 복구시설을 했으면 합니다.

△ 가로등 복구에 있어서 우선 생각되는 것은 한정된 전력을 절약해야 할 이때에 시설비를 소모하여 가면서 무슨 이로운 점이 있겠느냐는 이론이 있을까 합니다.

그러나 전력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당국이 지시하고 있는 규정된 왓트 이상의 전등을 사용 말도록 하고 도전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삼도리 K 생)

讀者의소리
投書規定
三百字內外程度
住所姓名
明記
保에 보내어주
사기바랍니다
採上匿名은 隨
意
街路燈復舊을바람
▽…市內의街路燈施設復舊
에對하여 關係當局에進言코
저합니다
▽…市昇格이期待되는此際에
邑市內의밤거리는너무 寂寞
하기짝없습니다 夜陰下明朗
한市民의 거리를이룩하는뜻
에서 一般送電이開始된이機
會에街路燈施設의復舊가必要
하다고生覺됩니다 街路燈의
復舊는비록캄캄한밤의거리를
환하게하는것外에도 暗夜를
노리는犯行을豫防하고 뒤人
골목을헤매이는 不良한青少
年과有閑女性의風紀是正에도
一助가되지않을가봅니다 이
에對하여서 關係當局의 必要
를 느끼신다면 하루바삐 요
所에復舊施設을 하여주시기
先生覺되는것은 限定된電力
을節約해야할이때에 施設費
를消耗하여가면서 무슨利로
운點이있겠느냐는異論이있을
가합니다 그러나電力은家庭
이나職場에서當局이指示하고
있는規定된것外에도 以上의
電燈을使用함으로하여 密行
을 市民의 目에서 隱蔽할수있지
않을가봅니다 (三陽里K生)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4. 12. 29.

하루 6시간 송전

제주주정회사가 조업을 재개함으로서 재작 27일 밤부터 시내 일반가정에는 근 6개월 만에 전등이 켜졌거니와 28일 남전 제주출장소에 의하면 종래 하오 5시부터 동 10시 30분까지 송전하여 왔던 것을 30분 연장 특선과 일반선 공히 하오 5시부터 11시까지 하루 6시간식 시내 구역에 송전할 것이라 한다. 시내 전력 총수요량은 240kW인데 현재 공급 가능 전력은 주공의 130kW 남전회사가 70kW 합 200kW로서 40kW가 부족되고 있다.

남전제주출장소장 梁富昌(양부창) 씨는 前記(전기)와 같은 전력 실정을 지적, 전 시민이 고촉구 사용 금지와 필요시간 외의 소등, 그리고 도전금지 등 절전을 기함으로서 격일송전을 면하고 계속 송전하게 될 터이며 절전치 않으면 송전시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일반의 협조를 희망하였다.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5. 1. 8.

“월말내 복구” 시내 不灯(부정) 전등

남전에서는 이달 말까지 시내 全(전) 電路(전로)를 복구할 터이라고 언명하였다. 남전에 의하면 6개월간의 정전으로 인하여 소주와 전주의 부패 및 기타 고장 등으로 7일 현재 단전되고 있는 것은 15개소(100등)이다. 한편 남전에서는 휴스를 쇠줄로 이으는 등 위험한 짓을 일부 가정에서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 앞으로 여사한 일이 없도록 일반의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손부족으로 수시 고장수리에 응하지 못하고 있으나 차차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하였다.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5. 1. 8.

전기요금 배 인상 30왓트에 155환

7일 남전출장소에서는 전기요금을 배로 인상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동 요금인상은 1월 1일부터 시행케 되었는데 촉광별 요금은 다음과 같다 (괄호 내는 종전요금)

△ 30W= 155환(66환) △ 40W= 210환(84환) △ 60W= 300환(120환)
△ 100W = 480환(192환) △ 100W 초과= W당 10환(5환)

※ 종량 전등요금

△ 1등당 기본요금= 28환(12환) △ 1㎾당 전력량요금= 23환(10환)

※ 일반 동력요금

△ 1㎾당 기본요금= 100환(40환) △ 1㎾당 전력량요금= 10환(4환 40전)

※ 전열요금

△ 1㎾당 기본요금= 60환(25환) △ 1㎾당 전력량요금= 19환(8환)

電氣料金倍引上
30왓트에 百五十五圓
强調
究會開幕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5. 1. 14.

〈수첩여록〉 전기 다시 꺼질까 걱정 난관에 봉착한 「酒工(주공)」

「酒工(주공)」연기 꺼진 지 6개월 만에 다시 조업 개시되어 덕택으로 밝은 전등 아래 滋味(자미) 있는 연말 연초 보내었는데 이제 겨우 반삭에 다시 애로 생겼다 하니 一般民(일반민)으로선 一般線(일반선) 꺼질 것만 다시 걱정되오.

이번엔 세금 못 내어 차압 처분할 모양인데 그렇지 않아도 난관 많은 「酒工運營(주공운영)」- 기계에 봉인까지 부쳐노면 갈수록 금강산으로 제주읍 일반선은 영영 암흑세계 되고 마네, 주정공장 잘되고 못되는 그 자체 문제보다도 일반민은 일반선 꺼질 것만 거듭 걱정이요.

납세는 국민 3대 의무인지라 체납자는 비국민이라 해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酒工(주공)」에서 세금때어 먹는 것 아니고 6개월이나 고용임금도 지불 못했다니까 稅源(세원) 죽이면서까지 세금받는 것이 세무행정의 본질이 아닐진데 너 좋고 나 좋고 국가에도 도움될 길을 구해 봄이 어떻소.

餘錄手帖

電氣다시꺼질까걱정

…難關에逢着한「酒工」…

「酒工」은電氣꺼진지六個月만에다시操業開始하여밝은電燈아래滋味있는年末年初를보내였으나이제겨우半朔에다시一般線꺼질것만걱정되오

×

이번엔稅金못내어差押處分당할形勢인데그렇지않아도難關많은「酒工運營」-機械에封印까지부쳐노면갈수록金剛山은永久暗黑世界되고濟州邑一般線으로濟州酒精工場만은그自體問題보다도一般民은一般線꺼질것만거듭걱정이요

×

納稅는國民三大義務인지라滯納者는非國民이라해도할수없는것이지만「酒工」에세稅金내어먹는것아니고六個月이나雇傭賃金도支拂못했다니까稅源죽이면서까지稅金받는것이政務行政의本質이아닐진대너도좋고나좋고國家에도도움될길을求해봄이어떠오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5. 2. 3.

68건을 적발, 부정전력 사용자

△ 전력부정 사용에 경찰권을 발동

△ 경찰국 통신과에서는 1월 중 시내 전반에 걸쳐 부정전력 사용자를 단속 68건의 범칙자를 적발하였다. 건별내용을 보면 무단증설이 11건, 고촉사용 21건, 무단가설 36건인데 거의 의법조치 하였다.

△ 앞으로 더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인데 범칙자 중에는 유식층이 많다고.

石炭 떠러져 停電

어제밤부터 市內一般線

68件을 檢擧

不正電力使用者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5. 2. 3.

석탄 떨어져 정전, 어제밤부터 시내 일반선

2일 남전 영업소에서는 전원 측 석탄품절로 인하여 2일 밤부터 시내 일반선 송전이 중단된다고 발표하였다. 전원 측인 주공에 의하면 석탄은 20일 후에 입하될 것이다.

지난달 입하예정이던 것이 配船(배선)관계로 어긋났는데 방금 配船(배선)을 교섭 중에 있음으로 20일 후에는 입하 가능하다. 주공에서는 부산에 유연탄 1,000톤 삼척에 무연탄 750톤을 확보하고 있다. 한편 특선은 종전대로 송전된다.

石炭떠러져停電

어제밤부터市內一般線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5. 2. 3.

신임 CAC사령관 초도순시
吉(길) 지사, 전력시설에 배려요청

신임 CAC 본부사령관 월터 준장이 2일 본도를 초도순시하였다.

상오 10시 서비행장에 空路來道(공노내도)한 월터 준장은 當地(당지) CAC사령부를 시찰하고 오버튼 당지 사령관과 함께 11시 도청으로 吉(길) 지사를 방문하였다. 도청 정문 앞에서 吉(길) 지사와 各局(각국) 과장 및 전 직원의 出迎(출영)을 받은 월터 소장은 지사실에서 길지사와 약 20분간 懇談(간담)하였다. 동 席上(석상) 吉(길) 지사는 開發途上(개발도상)의 風致(풍치)의 섬 본도의 규모를 사진첩으로 소개하고 산업발전의 관건인 전력시설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요청하였다. 합석한 辛(신) 경찰국장은 자유의 몸이 된 出獄者(출옥자)와 같이 공비의 시달림을 안 받고 개방된 향토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치안상황을 소개하고 부흥사업추진에의 특별한 관심을 간청하였으며 金(김) 제주읍장은 화재 후의 시장재건 등 원조사업에 사의를 표하였다.

아름다운 본도에 관심을 표시한 월터 준장은 CAC원조사업이 지방○○격별○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그의 소감을 피력하면서 앞으로의 부흥사업은 지방에 일임하여 단독적으로 추진되기를 원하고 또한 그렇게 되기를 믿는다고 말하였다.

新任CAC司令官初度巡視
徵兵檢查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5. 2. 4.

발전기 3월내 도입? 엉크라 시설 앞서 검토

본도 전력개발계획에 의한 8대의 발전기가 3월까지 도입될 것으로 엉크라(UNKRA) 관계관에 의하여 관측되고 있다. 엉크라에서 2명의(Thormas·T·Salter씨와 John·F·Synder씨) 전기기사가 2일 내도하였는데 일행은 약 3주일간 본도에 체재하면서 기성설계안과 실시 시설에 대하여 대조 검토할 것이다. 2명의 기사 중 본도 담당관인 솔타 씨는 작년 5월 내도하여 전력개발사업의 착수에 앞서 본도를 실지 답사 후 서울에서 配線(배선) 등 설계하였고 미비물자를 발주한 바 있는데 동 씨는 발전기가 도입되면 재차 내도하여 약 5개월간 체재하면서 감독업무를 담당할 터이다. 일행에 의하면 발전기는 수송으로 인한 지연을 제외해서는 예정대로 도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하였다.

한편 吉(길) 지사는 舊臘(구랍) 초순 그의 담화를 통하여 8대의 발전기가 금년 3월까지 도입될 것이라고 말하고 2대가 미국에서 제작 완료되었고 6대가 2월 내로 제작검사 완료되어 3월까지 도입케 되었다는 것을 당시 중앙회의에서 귀임한 당시 CAC 사령관으로부터 접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發電機三月內導入?
엉크라 施設앞서 檢討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5. 2. 26.

맞뵈기 송전도 全料金(전 요금) 서귀포 區內(구내) 수용가 불만 가득

"하루밤 한 시간의 맞보기 송전"으로 전등료 전액을 받는다고 사용자들 간에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서귀포발전소 송전구역 내의 전등은 일몰부터 한 시간쯤 환이 키여졌다 점점 어두어지고 "반디불"만해진 전등이 나중 영영 꺼져버린다. 위와 같은 송전은 구랍 이래 줄곳 계속되어 왔는데 남전출장소에 의하면 渴水(갈수)로 인하여 수요량 180㎾에 겨우3, 4㎾밖에 출력을 내지 못하는 때문이라 한다. 梁(양) 남전출장소장은 전등료 금액을 징수하고 있음을 시인하였으나 이에 대한 감액조치는 고려한 바 없다고 말하였다. (서귀포 發(발))

「맞뵈기」送電도 全料金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5. 3. 3.

다시 켜질 일반 전등
주공, 8일 조업을 재개

(旣報(기보)) 3월 초순 예정이던 주정회사는 來(내) 8일부터 조업재개한다. 이는 운영자금 융자차 중앙에 출장 중이던 몇 간부가 어제(2일) 귀임함으로써 조업일자가 결정된 것이다. 이로써 동 회사는 5주일 만에 조업을 재개하는 셈이며 따라서 일반선 송전도 할 터이다. 한편 어제(2일) 귀임한 간부편에 운영자금도 일부 조달되었다고 하는 바 원료는 기확보된 切干(절간)과 糖蜜(당밀)을 쓸 터이라고 한다.

다시켜질一般電燈
酒工、八日操業을再開
射擊演習
禮拜堂登記事
件證據를調査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5. 3. 11.

5주만에 켜진 전등
주공, 8일 조업을 재개

(旣報(기보)) 주정회사의 조업은 예정보다 3일 늦게 어제 10일 상오 11시부터 재개되었다. 이로써 동 회사는 지난 2월 2일 조업 중단 이래 5주 만에 연기를 다시 뿜게 되었고, 겹치어 일반가정에도 전등이 켜지게 되는 것이다. 현재 동 社(사)에는 40일간 조업 가능한 연료가 확보되었고 앞으로 동 연료 반입만 순조로우면 조업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력공급에 앞서 전원 측인 동 社(사)에서는 긴박한 전력사정에 비추어 수요자의 절전을 요망하면서 「과거에는 시민의 전력 濫費(남비)로 시내 송전량 130㎾ 이상이 소요되어 조업전력 확보상 不少(불소)한 지장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전력의 부족으로 조업이 중단된 때도 있었다. 그러나 社(사)에서는 시민을 위하여 이 같은 역경을 극복해 가면서 송전을 계속해 왔던 것이다. 이 같은 전원 측의 고충을 12분 참작하셔서 금반 송전기간 중에는 산업전력 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기바란다.」고 말하고 있으며 前轍(전철)과 같으면 송전 중지도 불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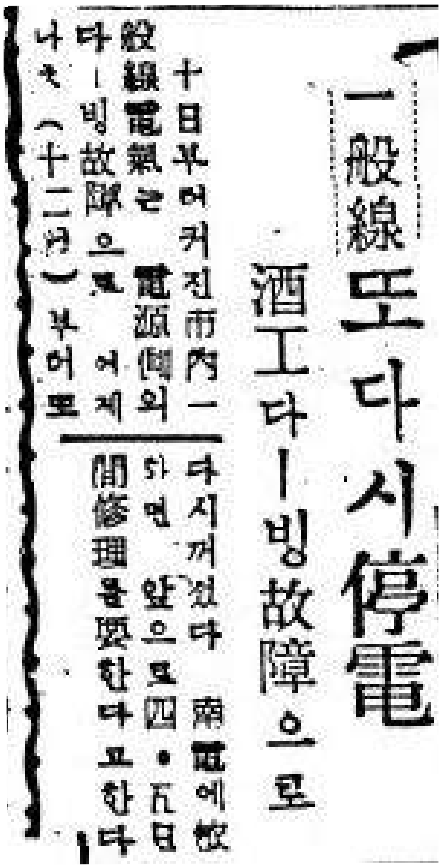
五週만에 켜진電灯
「酒工」어제操業을再開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5. 3. 13.

일반선 또다시 정전
酒工(주공), 다-빙 고장으로

10일부터 켜진 시내 일반선 전기는 전원 측의 타빙 고장으로 어제 낮(12일)부터 또다시 꺼졌다. 남전에 의하면 앞으로 4, 5일간 수리를 요한다고 한다.


一般線또다시停電
酒工다-빙故障으로
十日부터켜진市內一般線電氣는電源側의다-빙故障으로어제(十二日)부터또다시꺼졌다南電에依하면앞으로四·五日間修理를要한다고한다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5. 3. 14.

발전시설을 답사, 중앙청서 담당관 내도

지난 10일 본도의 발전시설 담당관인 중앙청 전기국 技佐(기좌) 李靑林(이청림) 씨가 내도하였다. 이 씨는 약 5일간 체류예정이며 서귀포발전소 복구공사 자재 도입상황 조사와 제주주정공업 주식회사 자가발전시설 사용승인 신청에 대한 공작물의 검사를 한다. 서귀포 수력발전소 복구공사 자재는 현재 3분의 1이 이미 입하되었으며 이달 말까지는 전량 입하되어 4월 중에 착공할 것이다. 그런데 서귀포 발전시설은 발전, 변전, 기타 일체 시설을 복구하리라 한다.

發電施設을 踏査

中央廳서 担當官來道

물귀해진

腐蝕된水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5. 4. 23.

일반선 또 정전

○월여간 송전되던 일반선 전등은 어제 21일 저녁부터 또 정전되었다. 이는 전원 측인 주정회사의 재고 석탄이 다 떨어져 조업이 중단된 때문이라고 하는바 현재 강원도 삼척에 가있는 4척의 운반선이 순조 입항만 하게 되면 5월 초에 다시 전등이 켜질 것이라고 한다. 주정회사 黃(황) 상무는 21일 가끔 석탄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힘을 다하여 配船(배선)조치를 하고 있으나 워낙 먼 바닷길이 되어서 석탄반입이 여의치 못하는 것이며 配船(배선)도 예산난으로 회사의 소형발동선을 이용 간신히 연료을 운반하여 오고 있다고 말하였다.

一般線…또…停電

吉知事歸任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5. 4. 24.

독자의 소리: 남전에 一言(일언)

△ 수개월간 읍내 전기사정이 핍박하여 희미한 등불만 지켜오다가 작금 휘황한 전등을 맞게 되니 주정공장과 남전 측에 一(일)시민으로 새삼스러운 사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 그런데 남전에서도 이미 知悉(지실)하고 있는 일이겠지만 요즈음 하루밤이면 2, 3회 가량 정전되는 일이 예사일 뿐더러 어떤 날 밤에는 영영 송전 아니되어 무슨 이유인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 아예 정전이려니 하면 단념하고 초나 燈(등)을 준비하여 두겠지만 심할 때에는 10분간에 10회 이상 전등이 明滅(명멸)하니 입장을 바꾸어 귀사가 수용가일 경우에도 메마른 人心社會(인심사회)에 태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물론 애로가 허다하겠지마는 선로가 발전시설 등에 불비한 점이 있으면 2, 3일간 단전하는 한이 있드래도 갖출 것은 모두 갖춘 후에 재송전하던가 어떠튼 귀사에서는 수용가에게 좀더 周密(주밀)한 봉사로 대하여 주기 바라며 고장이라는 연락이라도 받는 즉시에 와줄 것을 바랍니다. (일도리 K 생)

南電에 一言

投書規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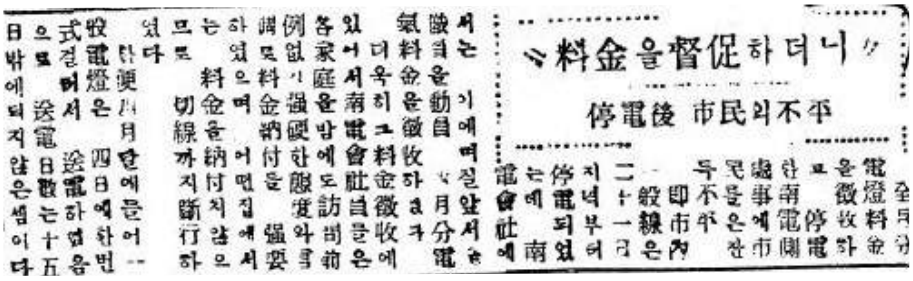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5. 4. 24.

“요금을 독촉하더니” 정전 후 시민의 불평

全月(전월)분 전등요금을 징수하고 정전한 남전 측 처사에 시민들은 잔뜩 불평.

즉 시내 일반선은 21일 저녁부터 정전되었는데 남전회사에서는 이에 며칠 앞서 전 직원들을 동원 全月(전월)분 전기요금을 징수하였다. 더욱이 그 요금징수에 있어서 남전회사원들은 각 가정을 밤에도 방문 전례없이 강경한 태도와 언조로 요금납부를 강요하였으며 어떤 집에서는 요금을 납부치 않으므로 절선까지 단행하였다. 한편 4월달 들어 일반 전등은 4일에 한번씩 걸러서 송전하였음으로 송전일수는 15일 밖에 되지 않은 셈이다.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5. 6. 7.

전력 이제 수요량을 충족!

「디젤발전기」 3대 입하
엉크라 기술관이 不遠(불원) 시공

디젤 발전기 3대와 부속품(76톤)이 昨(작) 6일 화물선 영창호에 의하여 산지항에 입하……
전력의 如意(여의)로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낭보를 던져주고 있다. 또한 이 발전기의 도입은 침체되고 있는 도내 여러 중소기업도 크게 자극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자청에 의하면 이번 들어온 3대의 발전기는 각각 16톤이며 한 시간에 250kW를 출력할 수 있는 고성능을 보유하고 있다. 수년來(내) 전 도민의 현안으로 도 당국과 기타 관계 당국에 의하여 적극 추진되어온 발전기 시설은 상기 발전기로 본격적인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한편 도입발전기를 보관할 남전에 의하면 발전기 시설공사는 不遠(불원) 엉크라 기술관이 내도 그들에 의하여 시공될 터이다. 본도 발전시설 계획으로 보아 750kW를 출력할 수 있는 상기 3대의 발전기는 제주읍에 설치될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현재 일반선을 포함한 시내의 정상적인 출력량은 2백 6~7십kW에 불과하다.

電力이제需要量을充足!
디젤發電機 三臺入荷
엉크라技術官이不遠施工
苦痛받는自由出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5. 6. 14.

발전기 7일 넘도록 체선, 기중기 없는 산지항의 서름

지난 6일 산지항에 도착(旣報)한 발전기 3대는 7일을 넘긴 昨(작) 13일 현재 양륙에 필요한 기계시설이 없는 까닭으로 체선되고 있는데 오늘 海陸(해륙)에 의하여 많은 시설과 인력을 동원 최종의 양륙작업이 시작될 터인 바 그의 성공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들어온 발전 시설재는 각 16톤 300kg의 발전기 3대, 각 2톤 내지 3톤의 부속품 상자 12개와 원형철판 3개 등 합 76톤인데 현재 산지항에는 1톤의 중량을 양륙할 수 있는 기중기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해륙운수사(외자청 대행)는 2股式(고식) 양하장치를 급속히 시설 11일 하오 우선 부속품 양하에 착수하였던 바 작업은 순조롭게 진전 12일 하오 7시까지 순 작업 12시간에 15개를 양륙하는 데 성공하였다. 13일 아침 해륙작업반은 동 2股式(고식) 양하방법으로 부속품 상자의 7~8배나 되는 발전기(높이 15尺(척), 폭 5尺(척), 길이 12尺(척))에 코걸어 와이아를 감아두었던 바 末口(말구) 직경 6寸(촌)이 되는 환기둥은 彎曲(만곡)하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선창에 고정된 듯 육중한 발전기가 약간 치어오르는 기색을 목격한 작업반원들은 이 방법에 의하여 양륙할 수 있음을 확신 이날 하오 末口(말구) 직경 1尺(척), 길이 30餘尺(여척)의 큰 기둥을 대체하는 2股式(고식) 양하장치 시설에 착수하였다. 소형 화물선 계류장에 정박한 영창호 옆에 세워진 기둥을 타고 살진 와이어(鐵網(철망))가 60여 미 상거한 등대 밑에 메어졌으며 또 한편 안벽에 이르른 와이어에는 노동자 25명이 땀 뺄「물레」가 장치되어있다. 今(금) 14일 아침 개시될 이 至難(지난)한 발전기 인양작업에는 高(고)사장 지휘 하에 해륙과 조선철공소의 기술자와 노동자 30명이 종사하고 있는 바 조수의 간만 등이 순조 계획대로 나아가면 2일간에 한 合式(합식) 6일간에 3대를 양륙할 수 있다고 한다.

영창호(123톤=국제해운소속) 선장은 동선이 수송한 17톤 중량은 발전기가 강원도 묵호에선 前記(전기)와 같은 방법으로 양륙된 일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번 작업에 대하여 낙관하고 있다. 동 3대의 발전기는 4일 정오 부산 제2부두에서 미군의 浮起重機(부기중기)에 의하여 積荷(적하) 출항한 후 200시간을 보낸 셈이다. 종래 산지항에서는 時機應變(시기응변) 幼稚(유치)한 하역방법에 의하여 왔던 것인데 이와 같이 중량이 많은 것에 봉착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반입되어 올릴 것이므로 충분한 양하시설이 긴요하다. 그런데 해륙은 10년 전에 기중기 시설의 기초로서 ○○실을 건축(현 해군 헌병대 埠頭(부두) 派遣隊舍(파견대사))하고 소요철제를 제조하였는데 시공은 못하였다 한다. FS의 기중기는 1톤 가량의 능력밖에 없다.

한편 12일 吉(길) 지사, 全(전) 도의장, CAC 사령관은 당시의 발전기 부속품 하역작업을 시찰하였다.

제주신문
1955. 6. 14.

發電機 七日間도록 滯船
起重機없는 山地港의 서름

밤거리 破廉恥漢
婦女弄絡하여 다발行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5. 6. 14.

오늘 저녁부터 일반선 송전

남전에 의하면 오늘 저녁(14일)부터 일반선 전등이 켜진다. 그동안 석탄이 떨어져 조업중단을 본 전원측인 주공이 이번 석탄이 입하되어 조업을 보게 된 것이다.

오늘저녁부터 一般線送電
南電에依하면 오늘 操業中斷을본 電源側
저녁(十四日)부터 一般線電燈이 켜진다 이번石炭이 入荷되어 操業을보게
그동안 石炭이떠러져 된것이다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5. 6. 14.

3尺(척) 올린 발전기, 침목 없어 양하 작업 중단

지난 6일 산지항에 입하된 디젤발전기는 13일 해륙의 2股式(고식) 양하작업에 의하여 적재선 영창호 선창으로부터 3尺(척)높이로 올라왔다. 양륙시설을 갖춘 해륙운수사는 13일 하오 상기 발전기 양하작업에 착수 불과 2시간 만에 상기 높이로 올리는 데 성공하여 양륙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으나 침목용 각목이 필요한데 시가 28만환 상당인 침목 확보가 어려워 하역업자와 함께 일반에게 초초한 마음을 주고 있다. 외자 하역 프로에 의한 상기 발전기 하역료는 2만여환인데 해륙 측은 양하시설을 갖추는 데만 17만환을 부담하고 있으며 침목용 角材(용재)마저 부담 양륙하려면 50만환에 달하는 큰 희생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편 항간에서도 이의 양륙 성공 여부에 "내기"를 하는 등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三尺올린發電機
枕木없어揚荷作業中斷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5. 6. 21.

발전기 올리기 성공, 이틀간에 두 대를 뭍에

침목이 마련되자 곧 본격적인 발전기 양륙작업에 착수한 해륙운수사는 19일, 20일 양일 간에 2대의 발전기를 안벽 위까지 올리는 데 성공하였다. 상기 양륙작업 결과로 미루어 남아있는 발전기 1대도 금 21일 하오 7시까지는 완전히 양륙될 것으로 기대된다. 16.3톤에 달하는 육중한 발전기를 올리는 첫날 하역현장인 동부두에는 기다리다 버친(지친) 수많은 시민이 모여들어 올라오는 발전기를 맞이하였으며 當地(당지) KCAC 사령관도 이들 군중 사이에 끼어 기우와 감탄에 뒤섞인 표정으로 자꾸만 고개를 갸웃거리다 헛나가는 "고보"를 잘 받치라고 주의 시키곤 하였다.

50여명의 양륙작업원과 영창호(발전기 적재선박)선원들은 각기 맡은 부서에서 "물레"를 돌리고 침목을 받치고… 이럴 때마다 육중한 발전기는 조금씩 조금씩 올려졌다.

정각 오전 6시부터 올리기 시작한 발전기는 하오 5시경에 이르러 선창으로부터 11척 높이인 갑판 위까지 쌓아올린 침목 위에 세로로 앉혀졌다. 방향을 바꾸면서 (가로로) 안벽으로 당기어진 발전기는 안벽에 세워진 2股(고) 지주를 가까스로 빠져나가 작업시작한 지 열 시간 만인 하오 7시경에는 안벽으로부터 10여미터 떨어진 육지에 옮겨졌다.

바다에 황혼이 깃들 무렵 머지않아 어둔 밤을 밝혀줄 발전기 둘레에 땀 흘린 작업원과 구경꾼들이 모여들어 이 거대한 물체를 위 아래로 뜯어보고 있었다. 17톤 단위의 하물은 이번 발전기가 처음인 바 해륙은 발전기 양륙에 성공하므로써 最重(최중) 양하기록을 세웠다.

發電機올리기成功
이틀間에두台를뭍에
獸肉商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5. 6. 22.

발전기 양륙 완료, 告祀(고사) 올린 어려운 작업

昨(작) 21일 마지막 발전기 1대를 양륙시키므로서 총 하역량 76톤에 달하는 해륙의 발전기 양하작업은 시작한 지 16일 만에 완료되었다.

지난 6일 디젤발전기 3대와 그 부속품 13상자가 산지항에 입하되자 해륙은 곧 2股式(고식) 양하장치를 설치코 이의 하역에 착수 純(순)작업 16시간 만에 각 16톤 300kg 발전기 3대, 2톤 내지 3톤의 부속품 12상자와 원형철판 3개를 양륙하였다. 침목을 마련치 못하여 4일 동안 작업을 중단하는 등 많은 애로가 있었으나 읍을 위시한 관계 당국의 협조로 순조로이 진행되었다. 한편 하역작업에 앞서 육중한 발전기 양육의 성공여부가 우려된 나머지 적재선박 영창호에서는 告祀(고사)를 올리는 등 정성을 다하였다.

發電機揚陸完了

告사올린어려운作業

昨二十一日마주막發電機一台를揚陸시키므로서 總荷役量七十六屯에達하는海陸의發電機揚荷作業은 始作한지十六日만에 完了되었다

지난六日더젤發電機三台와그附屬品十三箱子가山地港에入荷되자 海陸은곧二股式揚荷裝置를設置하여 荷役에着手 純作業十六時間만에各十六屯三百旺發電機三台乃至三屯의附屬品十三箱子의圓型鐵板三個를揚陸하였다 枕木을마련치못하여四日동안作業을中斷하는等많은臨路가있었으나 邑을爲始한關係當局의協助로順調로히 進行되었다 한편荷役作業에앞서 肉重한發電機揚陸의成功與否가憂慮되나머지 積載船舶英昌號에서는 告祀를올리는等誠을다하였다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5. 6. 27.

본도 발전시설 연내에 완공 가망

발전기 4대(서귀, 모슬포, 한림) 釜山着(부산착)
공사 맡은 엉크라 기술관 곧 내도

전 도민이 5개년(1950년 來(내))간에 걸쳐 한결같이 고대하고 추진하여온 발전기는 來(내) 12월까지 도내 4개소에 시설 완료될 것이다. 이는 전 중앙출장으로부터 귀임한 좌(左) 도상공수산과장에 의하여 알려졌는데 좌 과장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도입 계획인 발전기 8대(1,200kW 출력) 중 산지항에 입하한 디젤 발전기 3대(750kW) 외에 4대가 국내에 이미 입하되었으며 동 시설 공사차 엉크라 기술관이 본도에 향발하였다 한다.

이로써 연내에는 도내 4개소에 7대의 발전시설이 완료될 것으로 전력부족으로 여의로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도민에게 낭보를 던져주고 있으며 침체 상태에 놓여있는 도내 중소기업체도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엉크라 기술관과 함께 중앙에서는 발전기 시설작업용 추럭 2대를 본도에 배정하였는 바 不日內(불일내)에 수송되리라 하며 나머지 한 대의 발전기(50kW)만은 目下(목하) 제작 중이라 한다.

그런데 도 당국자에 의하면 발전기시설은 제주읍 3대(750kW = 대당 250kW), 한림면 2대(100kW 1대, 50kW 1대), 대정면 1대(100kW)인데 부지는 제주읍이 남전발전소, 한림면이 옹포리 582평, 서귀면이 서귀리 1,892평, 대정면이 모슬포 하모리 600평이다. 제작지연으로 인하여 미 도입된 발전기 1대는 한림면분이다.

發電機四台 釜山着
工事는 엉크라技術官 곧 來道
學生연내名超訴
北濟州 綜合体育
21個團參加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5. 6. 27.

서귀면분 발전기 부산착 左(좌) 과장 "4대 입하는 왠 말?"

지난 6월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발전기 4대 중 서귀분 2대만이 최근에야 부산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앙출장으로부터 귀임한 외자청 사무소 姜(강) 총무과장과 남전 梁(양) 소장은 서귀분 2대는 이달 초순 부산에 도입되었으나 모슬포와 한림분 1대는 아직 우리나라 어느 곳에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언명함으로써 지난달 발전기 4대가 도입되어 연말까지는 시설 완료될 터이라는 도 주무과장 左文圭(좌문규) 씨의 확언을 정면으로 부인하였다. 또한 이들은 발전기 시설 공사를 지도하기 위하여 엉크라 기술관이 이미 본도로 향발하였다는 것마저 부인하였는데 남전출장소는 상기 기술관인 본도 개발담당관 "쏠티" 씨는 공사비 조달관계로 아직 서울에 머물러 있으며 오는 8월경에야 내도하리라는 本社(본사) 연락을 받고 있다. 左(좌) 상공수산과장은 방금 서울 출장 중에 있다.

西歸面分 發電機釜山着
左課長 "四台入荷는 왜" 말?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5. 7. 24.

발전기 두 대 입하, (서귀분) 朝運(조운)지점이 양하 담당

서귀면분 발전기 원동기 2대가 21일 부산으로부터 신영호에 실리어 산지항에 들어왔다. 100㎾를 출력하는 이 원동기의 한대 중량은 6톤 반으로서 去般(거반) 양륙 시 난색을 보였던 제주읍의 것보다 10톤이 가벼운 셈이다. 양하시설이 전연 없는 산지항에서는 6톤을 올리는 데도 15톤을 올리는 것과 같은 시설과 노력을 요한다. 이번 하역은 조운(朝運)지점이 담당한다.

發電機三台入荷
朝運支店이揚荷担當
分
歸西
晨港臨海敎育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5. 7. 25.

전기개발사업 비로소 실현단계

연달아 들어오는 발전기, 邑分(읍분)은 부지 넉넉지 못해 난색

엉크라에 의한 본도 전기개발사업은 도입계획 발전기 8대(1,200㎾)중 5대(950㎾)가 입하되고 나머지도 不遠(불원) 들어올 것으로 봐 도당국자가 언명한 바 있는 것과 같이 연내 4개 읍면 중 두 군데는 시설이 완공될 것으로 관측된다. 해당 면에서는 흡족한 부지를 선정 확보하고 대기 중에 있다. 엊그제 들어온 서귀면분 원동기 2대(각 100㎾ 출력)는 24일 양하하고 있고 제주읍분의 3대 = 750㎾ = 물자는 발전기 원동기 외 부속품 등 긴요한 것 대부분이 입하, 변압기 전주 건물자재 등만 남았다. 또한 네 발전소에서 쓸 다섯 개(150 내지 100석 드리)의 油槽(유조)가 입하하였는 데 이들 물자는 부두 근방에 입고 또는 야적되고 있다.

그리고 엉크라 본도 담당기술관 쏠티 씨는 작년까지 수차 내도하여 현지를 답사하였으므로 공사계획이 細密(세밀)이 세워졌을 것이다. 남전본사가 當地(당지) 출장소에 연락한 것으로는 기술관 쏠티 씨는 방금 엉크라 공사자금을 수속 중인 바 늦어도 8월말까지는 입도할 것이라는 것이며 그들의 치밀한 기술과 성격으로 미루어 돌발적인 지장이 없으면 성탄절까지는 몇군데 발전소는 송전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을 것으로 믿어진다.

한편 이 전기개발원조사업의 蒙利面(몽리면)에서는 엉크라가 우리 정부에 일임하고 있는 부지선정에 대하여 한림면은 옹포리에 근 600평, 서귀면은 근 1,000평, 대정면은 하모리에 600평을 각각 확보하여 地方發(지방발) 熱意(열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제주읍은 현 남전 발전소 부지 300평 외에 선정된 것이 없어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전력으로 비기면 750㎾인 읍분 3대는 타 3개 면의 5대(450㎾)를 능가하므로 3,000평을 선정하는 熱(열)은 나타나야 할 터인데 최소한의 소요부지 1,000평도 확보 안 되고 있는 것이다.

1954년 상공부가 부지조사차 직원을 본도에 파견하였을 때 도에서는 남전 발전소 부지 300평 외에 前(전) 상호화물차부(동부두) 4700여평을 첫째 후보지로서 보고하였으나 당초 계획대로 잘 안되고 있다 한다. 읍분이 부지확보 난관은 이번 발전기가 유류를 연료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조선이 입항 급유할 수 있는 부두에 인접하여야 하는데 부두에는 적지가 없고 비용 염출 方途(방도)만 있으면 부두 동측 동산을 허물어 매립 후 그곳에 시설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개발로 직접적인 혜택을 입을 工業郞(공업랑), 간접적으론 商業者(상업자)가 성의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지선정은 극히 막연한 형편이다. 전력을 사용하는 시내 한 織造業者(직조업자)는 '현재 발동기를 사용하고 있는 시내 수백의 中小工業者(중소공업자)는 전력을 사용케 되면 동력값이 많이 살아남으로 전기개발사업에 絶大(절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협조의 의사도 있으나 우리들의 협의체인 상공회의소가 默默(묵묵)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움직임이 형성 안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렇게 무성의하고 유명무실한 단체라면 회비를 거출할 필요조차 없는 것으로 믿는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마산, 삼척은 본도와 같은 연차 계획사업이나 상공회의소를 주동으로 한 전기개발 추진위원회가

제주신문
1955. 7. 25.

적극적으로 활동하므로써 이미 시설 완료되어 전기가 켜지고 있다고 傳聞(전문)된다. 이 전기개발사업은 순 엉크라 원조로서 물자공사비 기술 등 일체를 지불하고 부지만은 정부에 일임하였다. 이에 따라 부지선정은 상공부로부터 도에 지시되고 있으므로 경비 그를 확보하던지 또는 상공업자 등의 단체로서 촉진기구를 만들어 조속히 추진치 않으면 읍분은 수년 내의 현안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하는 것이 관계당국자의 焦慮(초려)하는 바다.

△ 양 남전소장 담 : 부지선정을 도당국에 수차 구두 진정하였다.

현 남전부지 300평에 발전기 3대를 시설할 엔진 건물은 들어 앉을 수 있으므로 기름 탱크 그 둘밖에 필요한 부속건물부지 400~500평만 있으면 족할 것 같다.

電氣 發電 三 實現段階
邑分 態地 더 치 못 難色
水道 完工 들
빨래 목욕 걱정
消火栓 도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5. 8. 9.

덜어진 정전 걱정
「酒工(주공)」, 석탄을 계속 확보

「酒工(주공)」黃(황) 상무는 8일 석탄 1,200톤이 再昨(재작) 7일 입하되었으므로 당분간 시민의 전기 사정은 걱정 없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전원 측인 酒工(주공)은 엊그제까지 약 300톤의 석탄 재고량밖에 없었던 것인데 7일 묵호에서 태창산업사 소속 백영호에 의하여 上記(상기)량의 반입을 보게 된 것이다. 이번 반입된 석탄은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것이며 앞으로 계속 上記(상기) 백영호가 석탄반입을 담당 석탄 양하작업이 끝나는 즉시 묵호로 출항 1,200톤의 석탄을 또 실어올 것이라고 황 상무는 말하였다.

덜어진停電걱정
「酒工」石炭을繼續確保
「酒工」黃常務는八日 石炭千二百屯이再昨七日 入荷되었음으로 當分間 市民의電燈事情은 걱정없게되었다고 말하였다
電源側인酒工은 엇그제까지 約三百屯의 石炭在庫밖에없었던 것인데 七日 墨湖에 泰昌商業社所屬백영호에 依하여 上記量이번搬入된 石炭은한달동안 쓸수있는것이며 앞으로繼續 上記백영호가 石炭搬入을 担當 石炭揚荷作業이 끝나는即時 墨湖로出航 千二百屯의石炭을 또실어올것이라고 黃常務는 말하였다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5. 9. 11.

질질 끈 발전기 시설사업 엉크라 책임관 일행 어제 내도

(旣報(기보)) 전 도민이 5개년(1950年來(년래))이란 지루한 세월에 걸쳐 한결같이 고대하여온 엉크라 원조 발전기 7대는 지난 6월 도입 이래 근 3개월 동안 산지 동부두에서 하품하여 오던 차 昨今(작금)에야 비로서 10월 초순경에 착공될 것으로 확실시됨에 이르렀다. 이는 착공에 앞서 현지를 답사하기 위하여 10일 飛來(비래)한 UNKRA 건설과장 모어씨 일행에 의하여 알려졌는데 일행은 도착 즉시 吉(길)지사를 방문하고 제주시내 발전기 시설부지인 현 남전회사 자리와 부속건물부지인 서부두 그리고 동부두의 발전기 야적상황을 시찰하였다.

"새달 초순경에는 착공"
이 기약 어겨지면 여섯 돌 마자

일행은 엉크라 건설과장 무어씨 이하 전기기사 뉴-씨, 건축기사 엘킨씨, 공사계획관 솔디씨 그밖에 남전본사 간부 2명인데 이들은 발전기 시설지인 한림, 모슬포, 서귀포를 답사하고 12일 離道(이도) 예정이다. 이로서 본도의 발전기 시설은 드디어 실현단계로 임박하여지고 있는데 공사가 완료되면 시내 일반가정에 대한 전력분배는 물론 중소 상공기업체의 동력해결 등 산업개발에도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런데 당초 도입계획에 의한 발전기 8대(총 출력 1,200㎾) 중 이미 7대가 일부 부속물을 제외하고 산지항에 입하 동부두와 서부두 그밖에 창고에 야적 혹은 입고되어 있으며 공사용 추럭 2대도 도입되었다.

미입하 발전기 1대는 目下(목하) 미국에서 제작 중임으로 不遠(불원) 도입될 터이라 하며 발전기 시설은 제주시에 3대(총 750㎾ = 대당 250㎾), 한림면 2대(100㎾ 1대, 50㎾ 1대), 서귀면 2대(당 100㎾ 2대), 대정면 1대(100㎾)인데 제주시는 현 남전회사 자리에 3대가 모두 시설될 터이며 부속건물은 서부두에 200평이 마련되었다. 이 부지는 도 당국의 일부 부담으로 매수되었다. 한림면은 옹포리 582평, 대정면은 모슬포 하모리 600평, 서귀면은 서귀리 1,890평이다. 또한 10일 현지 답사차 내도한 엉크라 기술자들은 공사는 남전에 전적으로 이관되었다고 말하고 기술지도만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착공이 계획보다 늦어지는 이유는 공사자금이 산업은행을 거쳐 방출케 되어 있는데 중앙정부와 산은 그리고 엉크라 간의 완전한 합의를 얻지 못한 탓이나 9월 중에는 책정될 터이며 이번에 발전기 시설부지 답사와 아울러 발전기 부속품 도입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 파악하고 공사 진행에 지장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이라 한다.

그런데 발전기 7대가 산지항구에 도입될 때까지도 數多(수다)한 난관을 겪었으며 첫 번으로 입하(6월 6일)한 디젤발전기 3대는 양륙시설 不備(불비)로 10여일간이나 체선 하마터면 돌아갈 형편에까지 이르렀던 것인데 邑(읍)과 邑議(읍의)의 노력에 의하여 겨우 양륙할 수 있었다

제주신문
1955. 9. 11.

施機電發끈질질

"새달初旬頃에는着工"

이期約어겨지면여섯돔마지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5. 9. 13.

힘부처하는 남전 발전기, 도전 등 시정 않으면 격일 송전 경고

10일 梁(양) 남전소장은 요즈음 특수선과 일반선의 사용량이 출력량을 훨씬 초과하여 이대로는 발전기가 지탱 못할 형편이므로 절전이 이행되지 않으면 격일 또는 2일 隔送電(격송전)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였다. 출력량 80㎾인 남전발전기는 현재 100㎾, 주공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160㎾는 180㎾로 각각 膨脹(팽창) 합 50㎾가 초과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盜電(도전)과 고촉구 사용의 성행 때문에 빚어지고 있는 바 격일 송전 등을 면하려면 전기와 같은 위반자를 없애는 길밖에 없다.

全南社會事業
家四十名來道
힘부처하는
南電發電機
秋季車輛檢査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5. 9. 25.

발전기 새달 착공(자금해결), 吉(길) 지사 귀임 談(담)

엉크라 원조에 의한 본도 발전기 시설공사가 10월 중에 착공될 것으로 확실시 된다. 23일 중앙출장으로부터 귀임한 길 지사는 지난 16일 발전기 시설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공부, 재무부, 남전회사, 산업은행 등 관계관 회합이 있었으며 19일에는 엉크라 측과 합동회의를 열려 최종적인 해결을 보았으므로 늦어도 10월 중순까지에는 착공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또한 길 지사는 도민들의 숙원인 全南(전남) 於蘭鎭(어란진)간의 직통항로 개설, 甘藷(감저) [甘藷 ①고구마의 한자식 표기 ②감자의 원말, 제주도에서는 고구마를 감저로 통칭한다] 처리, 한라산 횡단도로 복구비에 대한 중앙 절충경위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하생략)

發電機새달着工 資金解決
道에甘藷價協定一任
吉知事歸任談
隨意販賣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5. 10. 5.

격일 송전에 직면
남전, "고촉전등 사용 말라"

4일 남전회사에 의하면 일반수용가들의 고촉전등 사용과 도전이 심함으로 인하여 전력 공급량이 오-바되어 시민들의 자진 전력소비를 절약하지 않은 한 격일송전을 不許(불허)할 危境(위경)에 직면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현재 시내 송전량은 주정회사에서 130㎾ 회사 자체의 출력으로써 70㎾ 도합 200㎾를 공급하고 있는 데 수요가의 盜電(도전)과 전력낭비로 인하여 50㎾가 초과되고 있는 형편으로 발전사업에 까지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남전에서는 오늘(5일)부터 10일간에 걸쳐 주야 계속조사를 실시, 配線(배선) 分岐(분기), 고촉사용자를 적발 송전중지 등 단호한 의법 조치를 취할 것인 바 전력사용에 시민들의 자진 협조가 요청된다고 한다.

隔日送電에直面
高燭電燈使用말라
올해부터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5. 10. 5.

난항의 융자문제 겨우 해결
발전기 새달 1일 기공식, 吉(길) 지사 귀임 談(담)

도민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엉크라 원조에 의한 본도 발전기 시설공사는 5,300만환의 시설비 융자가 확정되어 11월 1일 기공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한다.

이는 20일 중앙 출장으로부터 귀임한 길 지사에 의하여 확인되었는데 길 지사는 於間(어간) 발전기 시설공사 착공이 지연된 것은 9월 16일과 19일 兩日(양일)간에 걸쳐 상공부와 재무부, 남전, 산은, 엉크라 간에 합의를 본 시공비 융자액에 대하여 산은 측에서 이의를 가짐으로써 일시 난색을 보였는데 재합의를 보아 융자액은 前記(전기) 금액으로 결정되었다고 상공부장관의 언명이 있었으며 기공식에는 期於(기어)히 상공부장관과 전기국장이 참석토록 요청하고 왔다고 말하였다.

發電機새달一日起工式
難航의融資問題겨우解決
甘諸處理資金도有望
吉知事歸任談
自首期間設定
海軍海兵逃亡者
34個림이
綜合競
育
市制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5. 10. 15.

또 遷延(천연)… 발전기 기공
입찰은 현지설명 후 – 길 지사 擧式(거식)일자 違約(위약)에 談(담)

길지사는 엉크라 원조에 의한 본도 발전기 시설 기공(旣報)은 예정보다 지연될 터이라고 언명하였다. 5일 길지사는 동 발전시설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11월 1일 기공식을 거행한다는 것은 去般(거반) 중앙출장 시에 전기국장으로부터 확언을 얻은 것이라고 말하고 그 후 산업국장의 출장 귀임 복명에 의하면 남전 본사에서 동 계획에 의한 공사입찰을 공고하였으나 응찰자에 대한 현지설명 여부 문제로 기공은 예정보다 遷延(천연)되고 있다고 그 경위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當地(당지) 남전출장소에서는 이미 육군 1훈과 중기 운반차 貸車(대차) 교섭을 완료 한림, 서귀, 모슬포분 발전기 수송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하였다. 길지사는 지난 10월 20일 중앙출장 귀임 담에서 발전기 시설 기공식은 11월 1일 거행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5. 11. 11.

발전기 시설 현지로, 陸(육) 1訓(훈) "추래라"가 수송

산지항에 야적되어 있는 엉크라 원조 발전기는 육 1훈 측의 특별한 厚誼(후의)로 동소에 있는 추래라(중기운반차)로 각기 시설지구로 수송되고 있다. 10일 도 당국자에 의하면 한림면분 1대(100kW 출력)는 8일 이미 현장에 수송되었으며 9일 서귀포분(100kW 출력) 1대를 싣고 현지로 출발하였다. 모슬포 시설용 2대(100kW 출력)는 오늘(11일) 운반할 예정이다.

發電機施設現地로
陸一訓〃추래라〃가輸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5. 11. 12.

멀지 않은 발전기 시설 착공

어제 11개 업자 내도, 입찰 앞서 현장을 답사

(旣報(기보)) 난항을 거듭하던 엉크라 원조 발전기 시설공사가 不日(불일) 중 기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10일 남전본사 관계직원 수명이 11개 업자를 대동 공사현장을 설명하기 위하여 내도함으로써 확실시되었는데 남전본사 대표에 의하면 현장답사를 끝마치고 귀경하는 즉시 입찰에 附(부)할 것인바 낙찰하는 대로 공사에 착수할 터이다.

일행은 11일 도당국을 방문 현지답사에 앞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전 打合(타합)을 행하였는데 엉크라 기술관과 상공부 발전계장도 이날 항공편으로 飛來(비래)할 예정이었는데 하오 3시 현재 도착하지 않었다.

현장설명은 엉크라 기술자와 상공부관계관이 도착하는 즉시 행할 터이며 同(동)입찰을 위하여 내도한 전기업체명은 다음과 같다.

△ 안동 전기건설 주식회사 △ 호국 전기건설 주식회사 △ 중선 전기공업 주식회사
△ 대한전업사 △ 신흥상공사 △ 건설사 △ 삼환기업 주식회사 △ 중앙산업주식회사
△ 신건공영사 △ 부국건설사

어제 11個業者來道
入札앞서 現場을 踏査
멀지않은 發電機施設着工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5. 11. 13.

發電機業者(발전기업자) 도 一周(일주) 출발

旣報(기보) = 발전기 시설 현지 설명을 위하여 엉크라 기술관과 남전직원 그리고 11명의 업자들이 12일 한림으로 향발하였다. 이들은 한림, 모슬포, 서귀포 현장을 답사한 후 歸市(귀시) 제주시분 시설지를 보고 이도할 예정이다. 발전기 공사는 착공 후 3개월이면 준공될 터이라 하는데 기공은 현장설명 후 남전본사에서 직시 입찰에 附(부)할 터인바 낙찰되는 대로 착수할 것이다.

엉크라 기술관 2명은 11일 모슬포공항을 거쳐 下後(하후) 4시경 시내에 도착하였다.

發電機業者
道一周出發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5. 11. 15.

20일경엔 입찰 발전기업자들 離道(이도)

(旣報(기보)) 엉크라 원조 발전기 시설 입찰에 앞서 현지설명을 청취하기 위하여 10일 내도한 11개 업자는 12, 13일간에 걸쳐 한림, 모슬포, 서귀, 제주시 부지를 상세히 답사하고 13일 선편으로 남전직원과 함께 離道(이도)하였다.

일행에 의하면 입찰은 來(내) 20일경 실시될 터인 바 낙찰되는 直時(직시) 착공할 계획이다. 엉크라 美人(미인) 기술자 2명은 계속 본도에 체류 미진업무를 추진할 것이다.

20日頃엔入札
發電機業者들離道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5. 11. 27.

극도로 악화한 시내 전기사정, 특선도 스톱 위기에 직면, 도전 근절과 절전 勵行(여행)이 喫緊(끽긴)

남전은 25일 전력초과로 인하여 특수선 송전마저 정전케 될 궁지에 빠지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시내 전력사정은 전원 측인 주공의 조업 중지 악화 5개 里(리)에 걸친 일반선은 一切(일체) 정전되어 버렸고 남전의 65㎾ 발전기 하나로서 특수선에 한하여 겨우 송전하고 있을 따름이다. 남전의 출력량은 요즈음 와서 더욱 불어나 소요량에 대비 5㎾ 내지 10㎾가 초과되므로서 이 이상 송전을 계속할 수 없는 것이라 한다. 남전은 아래와 같은 공문을 시내 각 기관에 발송하고 절전을 요망하였다.

1. 현재 계약등수와 현 전력사용량을 반수로 제한하고 不急(불급)불필요한 전력을 극력 절약하실 것
2. 각 사무실 및 숙직실 숙소 등의 고촉 전구 전열기구는 절대 사용치 마실 것
3. 야간 전등시간(自(자) 17시 至(지) 23시)에는 동력사용을 금하여 주실 것
4. 무단특수전력(전력 전등) 사용을 철저히 단속하여 주실 것
5. 자가발전시설을 소유하시는 분은 필히 자가 발전력을 이용하시어 본 전력난 타개에 적극 협력하여 주실 것

特線도 스톱危機에 直面

盜電根絶과 節電勵行이 喫緊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5. 11. 27.

“발전기” 이제야 이룰 6年來(년래)의 소망 UNKRA 기술관 청부업자 입도 기공식은 생략 지방도 곧 착공

4284년(1951년) 이래 5개년간이란 장구한 시일에 걸쳐 추진하여온 UNKRA 원조에 의한 1,200㎾의 본도 발전시설 공사는 이제 請負(청부)업자인 중선전기공업 주식회사 측과 엉크라 기술과 남전본사의 공사지도 감독책임자들이 함께 도착함으로써 본격적인 공사로 옮겨지게 되었다.

일행은 8일 도 당국을 방문 착공에 앞서 제반사전 협의를 행하였는데 吉(길) 지사는 이날 기자에게 미소를 가득히 띤 얼굴로 年來(연래)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니 한없이 기쁘다고 무거운 짐을 부린 듯한 가벼운 목소리로 말하고 뜻과 같이 되지 않아 이제도록 끌어온 것을 미안히 여긴다고 所懷(소회)를 간단히 피력하였다.

본 발전기가 도입되고 착공단계에 이르기까지는 공사자금 책정 등 길지사를 비롯한 도 당국자와 그 밖에 각 기관에서 수십차에 걸친 중앙 절충과 노력을 기울여온 것이다.

2명의 기술자를 데리고 8일 濟木(제목)간 선편으로 내도한 청부업자 중선전기회사 사장 徐亨錫(서형석) 씨에 의하면 제주시 발전기 시설공사는 정지공사가 몇 일 후 끝나는 대로 기초공사에 착수할 것이며 한림, 모슬포는 今明(금명) 중으로 기초공사를 시작할 것이다. 기초공사는 세멘트로 발전기를 장치할 밑바닥을 만들 것이므로 이 밑바닥이 굳어질 때까지는 약 10일간을 소요한다. 또한 서 사장에 의하면 성대히 거행 예정이던 기공식은 상공부와 남전본사 간의 합의로 생략하게 되었다. 엉크라 기술관 솔티씨는 5일 飛來(비래)하였으며 ○○과 동 徐(서) 來道(내도)하였다.

그런데 발전기는 당초 도입계획에 의한 8대(1,200㎾ 출력) 중 7대(1,150㎾)가 도입되어 제주시에 3대(대당 250㎾), 한림에 100㎾ 1대, 모슬포에 100㎾ 2대, 서귀포에 100㎾ 1대를 먼저 설치하고 50㎾ 1대는 도입되는 대로 한림에 설치할 것이다.

한편 중선전기회사 서 사장 談(담)에 의하면 공사는 명년 3월 말이면 준공될 터이라 한다. 동공사가 완료되면 일반 가정에 대한 충족한 전력분배는 물론 中小(중소)상공기업체의 동력 해결 등 산업개발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이며 전력부족으로 인한 곤란은 완전 해소될 터이다.

제주신문
1955. 11. 27.

이제야 이룩한 숙원의 [illegible]

KRA 技術官 請負業者入道

起工式은 省略 地方도 着工

電機

發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5. 11. 27.

전력비상대위 상시등 대상 4할 감축

25일 하오 상공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력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상시전등 사용 대상자를 정비하기 위한 관계 당국자 간의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현행 상시 전등 대상자 약 2,000 중 4할을 삭감하여 1,200으로 축소시켰다 한다. 또한 회의에서는 야간학교 수업용, 병원의 진료 수술실용, 치과의 처리실, 기공실용 및 교과서 인쇄공장용 등의 전등에 대하여도 상시 확보토록 합의를 보았다 하는데 이날 결정된 상시 전등사용 대상자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입법부, 국회의원 사무총장
2. 행정부 대통령 부통령 각부 장차관 각 실장 사정위원장 사무국장 심계원장 및 차장 외자청장 해무청장 전매청장 외무부 정무국 정보과장 법무부 검찰국 정보과장, (이하 생략)
6. 기타 외국사신 사절단 동 공관 일간 신문 통신사 사장 및 편집국장 (서울25합동)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5. 11.29

전력사용 합리화 운동 경찰 남전 합동으로 추진

경찰은 남전과 합동하여 앞으로 명년 3월 말까지 전력확보와 사용합리화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전력사용 위반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電力使用合理化運動

警察南電合同으로推進

警察은南電과合同하여
앞으로明年三月末
까지電力確保와 使用

合理化運動을展開하는
한便 電力使用違反行
爲를徹底히取締한다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5. 12. 31.

도내 10대 뉴스 회고, 발전기 7대 착공

(前記(전기) 생략)

(5) 전도민이 한결같이 고대하여온 UNKRA 원조에 의한 1,200㎾의 본도 발전시설 공사는 6年來(연래)의 소망을 이루어 12월 초 중선전기공업주식회사(서울소재)의 청부로 드디어 착공을 보아 目下(목하) 기초공사가 상당한 과정에까지 진척되고 있는바 명년 3월경 준공 예정이다. 동 발전기 시설은 일반 도민의 전력수급은 물론 중소상공업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발전기는 당초 도입계획에 의한 8대 1,200㎾ 중 7대 1,150㎾가 도입되어 제주시에 3대(대당 150㎾), 한림면에 100㎾ 1대, 모슬포에 100㎾ 2대, 서귀포에 100㎾ 1대를 시설하고 있는데 미도입분 50㎾ 1대는 한림면에 시설할 것이다. 그런데 발전기가 현지에 도입될 때까지는 양하시설의 불비로 장기 체선하여 하마터면 되돌아 갈 뻔한 위기를 면하였으며 하륙 후에도 공사비 융자관계로 엉크라, 상공부, 남전간의 의견불일치로 인하여 많은 애로를 겪었는데 이의 조속한 시설을 위하여 도 당국은 중앙절충 등 갖은 노력을 다하였던 것이다.

공사는 상공부에서 경쟁입찰로 청부를 시켰는데 동 입찰에는 京鄕(경향) 각지의 대표적인 전기업자인 11개 회사가 응찰 1,399만환에 중선전기에 낙찰되었던 것이다.

공사는 발전기 시설과 발전실 부속건물을 콘셋트로 건립할 것이며 동 공사가 완료되면 계속 배전공사를 실시할 것이다.

發電機七台着工
一中의 苦鬪
校舍是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6. 2. 3.

특선단전, 발전기 고장

전력이 약한 특수선마저 2일 밤 남전발전기 고장으로 단전되어 시는 더욱 암흑세계를 면치 못하게 되었다. 남전출장소에 의하면 1일 초저녁 동 발전소에서는 원동기을 발동시키려던 찰나 "피스통"이 깨트려져서 송전은 3, 4일간 가망이 없다고 한다. 전력사정 악화로 시내 일반선이 단전된 지 이미 오래된 차 이번에 특수선마저 단전된 것이다.

特線斷電 發電機故障

電力이弱하持殊線마저 二日밤南電發電기 故障으로斷電되어市街는더욱暗黑世界를免치못하게되었다

南電出張所에依하면 一日초저녁 동發電所에서原動機를 發動시키려던 刹那 "피스톤"이깨트려져送電은 三·四日間可望이없다고 한다 電力事情惡化로 市內一般線이斷電된지 이미오래던次 이번에 特殊線마저斷電된것이다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6. 2. 10.

來(내) 月末內(월말내) 모두 준공, 발전기 공사 순조 진척

UNKRA 원조에 의한 1,200㎾의 본도 발전기 시설공사는 작년 12월 중순경 중선전기공업주식회사에 의하여 제주시, 한림, 모슬포, 서귀 4개 시설지에 각각 착공하였는데 9일 중선전기회사 사장 서형석 씨에 의하면 공사는 예정대로 순조로이 진척되고 있다 하며 그중 한림면 발전시설 공사는 앞으로 20일간이면 준공을 보게 되리라 한다. 그 외 3개소도 3월 말이면 완성을 볼 수 있다. 제1착으로 준공될 한림면 발전소 공사는 발전기 시설대가 축조되어 重機械(중기계)의 시설단계에 있는 바 건물의 조립과 배관공사를 끝내는 데 20일 가량을 요한다. 공사가 제일 뒤떨어지고 있는 제주시 발전소도 부지정리 작업이 끝나 기초굴채가 과반 이상 진행되고 있다. 서귀포는 來(내) 15일까지 모슬포는 기초공사가 완료되었음으로 1개월 후면 준공을 보게 된다. 그런데 발전기 출력은 제주시가 3대 = 750㎾, 서귀 1대 = 100㎾, 모슬포 2대 = 200㎾, 한림 2대 = 160㎾인데 한림면분 60㎾ 1대는 공사입찰이 끝난 후 도입됨으로써 금회공사에서는 제외되고 있어 제2차로 행하여질 터이라 한다.

來月末內모두竣工
發電機工事順調進捗
44萬本을
今年度造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6. 3. 20.

발전기 공사 태반 진척

10여일 후면 세군데 준공, 시는 침수 등 지장으로 새달 중순경

UNKRA 원조에 관한 1200㎾의 도내 발전기 건설공사는 착공한 지 3개월 만인 3월 19일 현재 전체공정의 50%가 진척되고 있으며 일기불순으로 예정보다 준공이 다소 遷延(천연)될 것으로 보이나 4월 중순경에는 완공을 보게 되리라 한다.

발전기 시설공사는 산업개발에 따르는 동력의 공급과 일반가정의 배전 등 혜택이 클 뿐만 아니라 도 발전에 기여한 절대한 요소가 됨으로서 도민의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19일 공사 책임자인 남전 본사 朴(박) 변전계장에 의하면 서귀포와 한림, 모슬포 3個地(개지) 공사는 발전기 시설과 동 건물조립이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전기조명, 배전반 시설, 일부 배관, 냉각수 장치가 남아있는 바 앞으로 10여일이면 완공을 보게 될 것이라 한다. 동 공사의 진척분량은 地方(지방) 工事(공사)의 80%에 해당한 것이다.

공사가 제일 뒤떨어지고 있는 제주시 발전시설은 750㎾(3대)로서 전체공사의 과반이상의 분량을 점하고 있는 것으로 공사 자체량이 많은 데 원인도 있으나, 공사 지면이 평지보다 얕은 탓으로 海水(해수)가 자주 침수하는 데 겹쳐 자연수가 터져 배수 등에 부심하였다 한다.

이로 인하여 공사추진에 많은 지장을 주어 기초공사인 시설대 축조에 상당한 시일을 소요하였다. 제1차 초보공사는 특수약품의 사용으로 시설대의 새멘 응고에 성공, 主機器(주기기) 저유조의 기초 시설공사를 행하고 있어 20일에 1대, 22, 23 양일간에 각각 1대씩 기초공사를 완료하게 되었는바 잔여 공사는 급진적으로 추진, 4월 중순까지는 준공을 보게 되리라 한다.

한편 전문한 바에 의하면 발전시설공사에 이어 착수하게 될 배전시설공사도 상공부에서 입찰이 끝나 청부업자가 지정되었다 한다.

發電機工事殆半進捗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6. 3. 25.

배전공사도 착수, 새달말엔 집집에 전등

서귀, 모슬포, 한림, 제주시 4개소에 시설 될 UNKRA 원조에 의한 1,200㎾의 발전기 시설공사는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거니와 병행하여 배전공사를 실시하게 됨으로서 늦어도 4월 말경에는 각 가정에 전기불을 보내게 되리라 한다.

상공부에서는 발전기 시설준공과 함께 송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지난 3월 11일 남전본사로 하여금 배전공사 입찰를 행한 것인데 안동전기주식회사(서울소재)에 낙찰되었다. 동 회사에서는 얼마 전 사장 金龍壽(김용수) 씨와 상무 취체역 鄭明錫(정명석) 씨가 기술자 15명을 인솔 도착, 한림을 제1착으로 공사에 착공하고 있다 한다. 배전공사는 전주, 전선, 家庭燈(가정등) 시설 등인바 발전기 시설준공과 때를 같이하여 완전히 불을 키도록 시공할 것이라 한다.

配電工事 도着手
새달末엔집집에電燈
試作條로
煙草耕作
看護將校學生募集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6. 4. 5.

전기 쓸 집 조사 배정계획 위해

시 당국은 관하 전반에 걸쳐 전력수요량 조사에 착수하였다. 이는 현재 촉진 중에 있는 엉크라 원조에 의한 발전소 시설에 따르는 배전 계획 수립을 위하여 조사하고 있는 것인데 동력 사용자는 물론 일반 가정에서도 소요 등수, 촉광수 등 수요량을 적어 각 洞(동)에 자진신고를 요망하고 있다.

電氣쓸집調査 配定計劃爲해

市當局은 管下全
般에걸쳐 電力需要量
調査에着手하였다 이
는 現在促進中에있는
엉크라援助에依한發電
所施設에따르는 配電
計劃樹立을爲하여調査
하고있는것인데 動力
使用者는勿論一般家庭
에서도所要灯數 燭光
數等需要量을적어 各
洞에自進申告를要望하
고있다

自身은年老한關係로
동職을 退任코저 하
였으나 中央의留任하
라는指示가있어留任앞
으로 信徒들과 더부
러信仰生活에餘命을바
칠覺悟임을披瀝하였다

三萬本을模範
林에植樹 市計劃

오늘(五日)植木日
을맞아 市當局은約
三萬本의苗木을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6. 4. 18.

21일 서귀것 시운전 발전기, 세 군데 완공

엉크라 원조로 기공한 도내 1,200㎾의 발전기 시설은 서귀, 한림, 모슬포 세 군데가 완공되었으며 제주시분도 기초공사를 끝내고 금명간 서부두에 있는 엔진을 발전소로 옮기게 될 것으로 공사감독 책임자는 5월 하순경 배전을 단행하게 될 터라고 말하고 있다.

시설을 완료한 서귀발전기는 오는 21일 제1차로 시운전을 행할 것이며 한림, 모슬포 계속 운전실험을 할 것이다. 발전기 시설과 용도로 시공 중인 배전공사도 예정대로 순조 진행되고 있다.

한편 남전회사 측에 의하면 일반수용가로부터 전등 신입을 받고 있는데 한림관내는 700여 등이 이미 신입하였다. 그런데 남전소장은 기타 지역의 사용자들에 의한 조속한 신청을 요망하고 전도적으로 1,100등은 전주로부터 가정까지 당기는 인입선 시설비를 회사 부담하에 ○○할 것이라 한다.

1,100호 선정은 기 신청분 한림 700호를 제외하고 신입순위를 결정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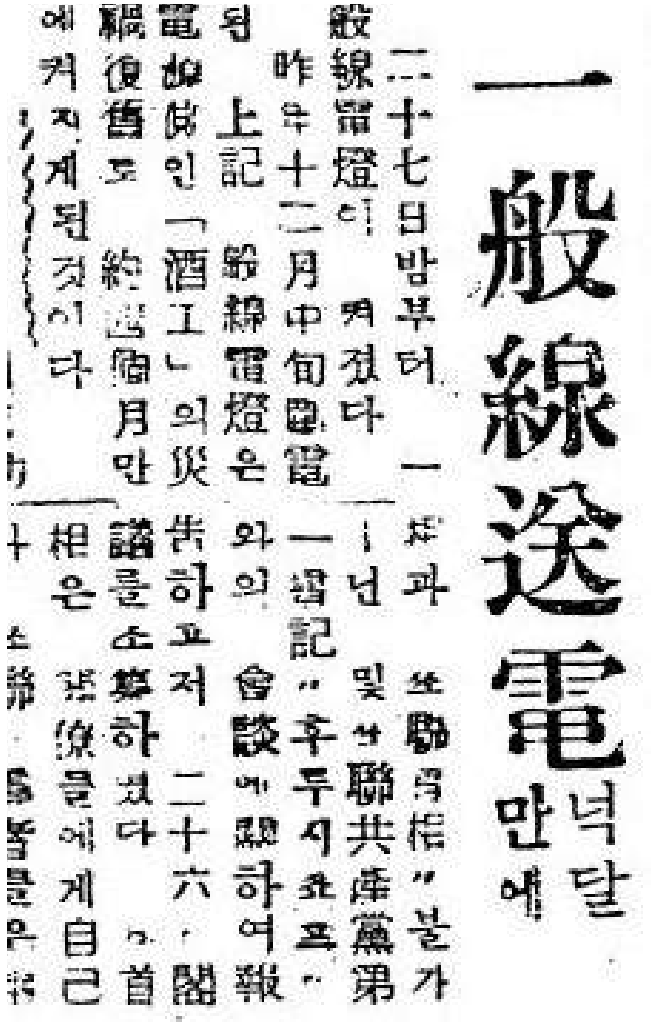
21日 西歸것 試運轉
發電機、세군데 完工
今年度에도 北校와一中
文敎部研究校로
겨우農民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6. 4. 28.

일반선 송전, 넉달 만에

27일 밤부터 일반선 전등이 켜졌다. 작년 12월 중순 단전된 상기 일반선 전등은 전원 측인 「酒工(주공)」의 災禍(재화) 복구로 약 4개월 만에 켜지게 된 것이다.



一般線送電 넉달만에

二十七日밤부터 一般線電燈이 켜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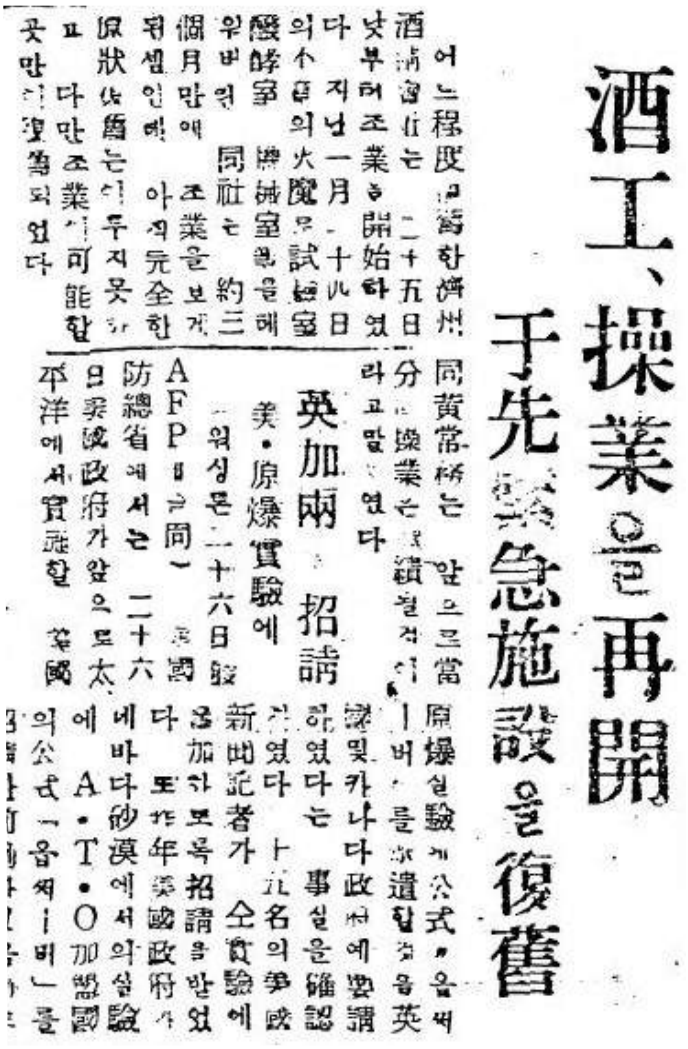
昨年十二月中旬에 電力線과 電燈線이 聯絡"불가"로 一般線送電이 中止되었다는 것은 旣記"후루시쵸프"氏 및 聯共使節團과의 會談에 關하여 報道한 바와 같거니와 二十六日 閣議에서 上記 兩線電燈은 電源인 「酒工」의 災禍復舊로 約四箇月만에 켜지게 되었다는 諸般事情을 考慮하여 一般線送電을 決定하였다. 首相은 其線送電에 關하여 自己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6. 4. 28.

酒工(주공), 조업을 재개, 우선 긴급시설을 복구

어느 정도 복구한 제주주정회사는 25일 낮부터 조업을 개시하였다. 지난 1월 14일 불의의 火魔(화마)로 시험실, 발효실, 기계실 등을 태워버린 同社(동사)는 약 3개월 만에 조업을 보게 된 셈인데 아직 완전한 원상복구는 이루지 못하고 다만 조업이 가능할 곳만 복구되었다. 동 황 상무는 앞으로 당분간 조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酒工、操業을 再開

于先 急施設을 復舊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6. 5. 23.

도, 발전기용 유류를 신청
한달분 370드람, 7대 운전에 每時(매시) 둘씩

도 당국은 도내 4개소에 시설 중에 있는 1,200kW의 발전기 운전용 유류 1개월분 370드람을 상공부에 배급 신청하였다. 동 발전기용 유류는 현재 남전에서 1개월간에 소모하고 있는 35드람에 비하여 10배 이상의 수량인데 이는 총 발전량 1,200kW의 반인 600kW의 수요를 예상한 것인 바 전기수용량이 증가됨에 따라 유류소모량도 다달부터는 늘어날 것이라 한다.

그런데 디젤 발전기의 1kW당 한 시간에 소모되는 유류는 0.3立(립) [立 : 리터(ℓ)]로서 1,200kW이면 시간마다 320立(립) 즉 2드람이라는 막대한 수량의 유류를 소요하는 것이다.

道、發電機用油類를申請
한달分三百70드람
七台運轉에每時둘씩
配電設路도順調
總工事새달內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6. 5. 23

配電(배전) 設路(설로)도 순조, 총 공사 새달내 완료(발전기)

엉크라 원조에 관한 도내 4개소의 발전기 시설에 따르는 배전공사는 한림, 모슬포, 서귀 3개소의 지방공사가 거의 완료되었으며 작금 제주시내 배전선로 공사를 실시 중에 있다.

공사현지 지도감독 책임자인 남전 본사직원에 의하면 21일 현재 배전공사는 전체공정의 50% 가량이 진척되고 있는데 변압기를 비롯한 전선 등 배선용 부속품의 일부 미도입으로 준공이 다소 지연될 우려가 있으나 6월 중순경까지에는 완공을 볼 수 있다. 발전기의 신설지인 한림은 배선로 공사가 완료되어 현재 가정등을 가설하는 도중에 있으며 그 밖에 제주시와 서귀, 모슬포는 기설 배전선이 있음으로 배전공사의 미진으로 인하여 송전이 지연될 염려는 없다.

그런데 배전의 공사 기초인 전주는 한림과 제주시를 중심으로 하여 한림에 180본, 서귀 60본, 모슬포 50본을 배정하였으며 제주시는 210본으로 고압선로의 전주를 모두 교체하고 있다. 제주시내의 전주 건립공사는 며칠 후 끝낼 터이라 하는데 동 공사에는 서울에서 파견된 15명의 기술자와 지방기술자 7명, 그밖에 조력 인부 10명이 매일 종사하고 있다. 한편 중선전기 주식회사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는 발전기 시설공사는 순조로이 진척되고 있는 바 예정대로 이달 말까지 준공을 볼 수 있다고 한다.

發電機 配電設路도順調 總工事새달內完了

七百萬貫을目標 北部山野草採取를督勵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6. 6. 15.

집집에 새 발전기 불, 그제 밤 시험 송전 순조

도내 4개소 제주, 한림, 모슬포, 서귀에 시설한 1,200㎾의 발전기 부하시험이 13일 제주시를 마지막으로 끝내었다. 부하는 유류를 사용 스위치를 넣고 발전기를 돌려 송전하는 것인데 제주시는 13일 하오 8시부터 12시까지 신설 발전기로 일반가정에 송전하였다. 이로써 배전선로를 제외한 발전기 공사는 성공리에 완전 끝을 맺게 된 것인 바 앞으로 상공부에서 준공검사를 행하는 즉시 일반송전을 할 것이라 한다.

집집에 새發電機불
그제밤試驗送電順調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6. 6. 20.

사라진 정전 걱정, 새 발전기로 송전 계속, 酒工(주공) "스톱"

남전은 18일 밤 9시 10분을 기하여 신설 발전기를 사용 일반송전을 개시하였다. 동 송전은 상공부 검사관이 來道(내도) 實地(실지) 검사를 끝마침으로서 행하여 지고 있다는데 지금까지 일반 가정에 전력을 공급하여온 酒工(주공)은 18일 정오를 마지막으로 조업중지와 함께 발전을 중단하였다.

남전 측에 의하면 제주시 발전기는 250kW 3대인데 그중 1대를 예비로 남기고 우선 2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며 앞으로는 계속하여 동 신설 유류 발전기를 사용하고 주공측에 전원을 의뢰하지 않을 터이라 한다.

그런데 당국자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신설 발전기는 준공식을 거행한 후 송전을 실시할 예정이였으나 여태까지 전력을 일반가정에 공급하여온 전원 측인 주정회사에서 18일부로 조업을 중지하게 되어 於間(어간) 정전하게 됨으로 동 공간을 메꾸기 위하여 상공부와 긴급 절충 발전기 검사관을 파견하여 주도록 요청 이번 검사를 보게 된 것이라 한다. 남전회사는 본래 80kW의 발전기 1대를 가져 그 대부분의 전원을 주공측에 의존하여 왔던 것이다.

사라진停電걱정
새發電機로送電繼續
酒工
虛實學園
道、近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6. 7. 7.

한미고관 30여명 내도 예정, 발전기 준공식 참석차

「서울분실」9일 한미 고관 일행 30여명이 본도를 방문할 예정이다. 그들은 이날 관덕정 앞 광장에서 거행될 발전기 시설 준공식에 참석하여 翌 10일까지 체류할 예정인데 명단은

※ 한국측 = 金(김)상공부장관, 金(김)부흥부장관, 葛(갈)공보실장, 金(김)국회상공분과위원장, 본도 3 민의원, 기타 寫眞班(사진반), 전기관계관

※ 미국측 = 콜터 엉크라단장, 우드 前(전)경제 조정관, 전기관계관 등이다.

한편 동 준공식 준비를 위하여 상공부에서 전 政課長(정과장), 남전본사 서무과장이 이미 내도 체류 중이며 상공부장관은 준공식 식순을 짜 미리 도에 보내여 왔다.

※ 준공식순

1. 개회「상오 11시 30분」
2. 주악
3. 국기에 대한 경례:「국기 UN기」
4. 애국가 봉창
5. 공사 경과 보고(남전전기주식회사 사장)
6. 告辭(고사)(콜터 團長(단장), 상공부장관)
7. 공사 공로자 표창(UNKRA 측 1명, 한국 측 1명)
8. 축사(도지사, 국회대표)
9. 기념 시송전(제주시발전소)
10. 만세삼창(남전사장)
11. 주악
12. 폐회

제주신문
1956. 7. 7.

韓美高官 三十余名來道豫定
發電機竣工式參席次
(「서울分室」 九일 一、開會「上午十一
韓미高官一行三十余名時三十分」 二、奏樂
本道를訪問할豫定이다 三、국旗에대한 敬禮
「국旗 UN旗」곡, 四、
愛국가合唱 五、工事
學校自体에서三萬八千
圓의支給받도록되었다
凸受給대象자 金希
卓 徐漢우 金우정
金文昌 金四洪 金斗
藤 洪英五 金用제
姜우卿 梁淳필 五명
名은 모두濟大在學生
이다 金額은一人당乙
給에二萬圓 丙級에一
萬三千圓이고 甲級은
名에 獎學金
傷痍學徒13
88年度
赤字總額
「서울六일發東洋」 道內傷痍學徒十三名에 對한 奬金特別會計歲出入 豫算을 一般會計歲出入豫算執行實績 末現在八八年度一般會 計歲出入豫算執行實績 을收入이 一千四百五 十五萬二千四百萬圓支
金이 지난二十日支給 令達되었다 前記十三
名은 모두濟大在學生
이다 金額은一人당乙
給에二萬圓 丙級에一
萬三千圓이고 甲級은
學校自体에서三萬八千
圓의支給받도록되었다
凸受給대象자 金希
卓 徐漢우 金우정
金文昌 金四洪 金斗
藤 洪英五 金用제
姜우卿 梁淳필 五명
名은 모두濟大在學生
이다 金額은一人당乙
給에二萬圓 丙級에一
萬三千圓이고 甲級은
學校自体에서三萬八千
圓의支給받도록되었다
凸受給대象자 金希
卓 徐漢우 金우정
金文昌 金四洪 金斗
藤 洪英五 金用제
姜우卿 梁淳필 五명
名은 모두濟大在學生
이다 金額은一人당乙
給에二萬圓 丙級에一
萬三千圓이고 甲級은
學校自体에서三萬八千
圓의支給받도록되었다
凸受給대象자 金希
卓 徐漢우 金우정
金文昌 金四洪 金斗
藤 洪英五 金用제
姜우卿 梁淳필 五명
名은 모두濟大在學生
이다 金額은一人당乙
給에二萬圓 丙級에一
萬三千圓이고 甲級은
學校自体에서三萬八千
圓의支給받도록되었다
凸受給대象자 金希
卓 徐漢우 金우정
金文昌 金四洪 金斗
藤 洪英五 金用제
姜우卿 梁淳필 五명
名은 모두濟大在學生
이다 金額은一人당乙
給에二萬圓 丙級에一
萬三千圓이고 甲級은
學校自体에서三萬八千
圓의支給받도록되었다
凸受給대象자 金希
卓 徐漢우 金우정
金文昌 金四洪 金斗
藤 洪英五 金用제
姜우卿 梁淳필 五명
名은 모두濟大在學生
이다 金額은一人당乙
給에二萬圓 丙級에一
萬三千圓이고 甲級은
學校自体에서三萬八千
圓의支給받도록되었다
凸受給대象자 金希
卓 徐漢우 金우정
金文昌 金四洪 金斗
藤 洪英五 金用제
姜우卿 梁淳필 五명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6. 7. 8.

배전선로도 완공

제주시, 서귀, 한림, 모슬포 4개소에 시설한 1천2백kW의 발전기공사에 따른 배선공사도 완료를 보았다.
배선공사는 안동전기주식회사(서울소재)가 請負(청부) 삼월 하순에 착공 3개월 만인 지난 5일 준공을 본 것이다.

配電線路도完工

濟州시 西귀 翰林 配線工事는 安東전기
慕瑟浦四個所에施設한 株式會社(서울所在)
一千二百KW의 發電가請負 三月下旬에
기工事에 따른配線工 着工 三個月만인지난
事도完了등보았다 同 五일 竣工을본것이다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6. 7. 10

발전기사업 준공에 際(제)하여

전 도민이 고대 중이던 본도 발전기 시설이 드디어 준공을 보게 되었다. 明滅無常(명멸무상)하던 전기사정도 이를 계기로 호전되어 우리의 일상생활이 명랑해질 것이고 공장의 동력기도 활발히 그 기능을 발휘하여 본도 산업부흥과 경제안정에 절대한 공헌이 있으리라 대단히 慶賀(경하)스러운 일이라 하겠으며 동시에 그간의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추진에 대하여 滿腔(만강)의 경의와 사의를 표하여 마지 않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기사업의 비약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 유의치 아니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니 즉 전기는 현 세대에 있어 마치 음료수와도 같이 우리 전국의 일상생활에 불가결한 것이고 또 전 국가산업의 동력 또는 원료로서 이용되어 사회적 공익성과 국가적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더욱이나 전기써비스 공급은 일반상품과 같이 저장으로서 그 수급을 조절할 수는 전연 없는 것이고 또 일반상품들은 그 공급이 중단될 수도 있는 것이나 전력공급은 일시라도 중단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기사업은 일개 영리회사나 독점기업가에 일임할 수 없는 중대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에 照鑑(조감)하여 필연적으로 전기사업에 대한 통제를 실시치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외국에서는 전기사업의 독점으로 인한 폐단으로부터 사회적 공익성과 국가 공공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각종 통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영국, 프랑스에서는 전기사업을 국유 국영화 또는 사회화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에서는 電業(전업)의 私有(사유)를 是認(시인)하되 공익사업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사업경영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는 공기업에 가까운 것이지만「귀속주 정부보유로서 그 경영은 상공부 전기국에서 전적으로 지배하는」형식적으로는 公私(공사) 혼합기업인 것으로 명확한 사업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어서 전기사업 경영면에 있어 모순성이 내포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경영형태를 명확히 함으로써 一層(일층)의 발전을 도모하여 명실공히 국민생활에 있어서의 음료수격 역할과 국가산업의 동맥으로서의 기능을 십분 발휘해 주기 바라는 바이다.

제주신문
1956. 7. 10.

發電機事業竣功에 際하여

全道民이 苦待中이던 本道發電施設이 드디어 竣功을 보게되었다 明滅無常하던 電氣事情도 이를契機로 好轉되어 우리의日常生活의 動力과 活潑히 그 機能을 發揮하여 本道産業經濟安定에 絶大한 貢獻이 있으리라 大端히 慶賀스러운 일이라 하겠으며 同時에 其간의 關係當局의 積極的인 推進에 대하여 滿腔의 敬意와 謝意를 表하여 마지 않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電氣事業의 飛躍的 發展을 圖謀하는 데 있어 留意치 안될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할수 없는 問題가 있으니 即 電氣는 現世代에 있어 마치 飲料水와 같이 우리 日常生活에 不可缺한 것이고 또 全國家産業의 動力 또는 原料로서 利用되어 社會的 公益性과 國家的 公共性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더욱이나 電氣쎈터 비스 供給은 一般商品과 같이 貯藏으로서 其需給을 調節할수는 全然 없는 것이고 또 一般商品은 其供給이 中斷됨을 因한 弊端으로부터 社會的 公益性과 國家公共性을 保護하기 爲하여 直接的인 各種統制를 實施하고 있는 것이다 例하면 英國 佛國에서는 電氣事業을 國家産業의 動脈으로서 一層의 發展을 圖謀하여 名實共히 國民生活에 있어서의 飲料水格의 役割과 國家産業의 動脈으로서의 機能을 十二分發揮해 주기 바라는 바이다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6. 9. 1.

전력신청량 激增(격증), 공장서만 슴 1,200㎾

시내 각급공장은 年內(연내)에 동력화될 것으로 산업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대되고 있다.

當地(당지) 남전회사에 의하면 8월말 현재 동력사용 신청량은 製材(제재), 精米(정미), 철공(鐵工), 織物(직물), 용접, 상수도, 주정공장 등에서 총 1,200㎾에 달하고 있다 하며 남전에서는 그 중 송전가능량에 대한 사용승인을 본점에 上申(상신)하고 있는 바 不日(불일) 승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다.

그런데 前記(전기) 동력사용은 UNKRA원조에 의한 1,200㎾의 도내발전시설이 완료됨으로서 실현단계에 이른 것이며 그중 상수도와 주정용은 이미 동력사용을 위한 전기가설이 끝났고 그 외 공장은 본점 승인이 있는 대로 가설공사를 실시할 것이라 한다.

한편 남전 측에 의하면 제주시를 제외한 한림, 모슬포, 서귀의 신설발전기는 아직 송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가정등 가설이 완료되지 않은 탓이라 하며 현재 수력발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서귀, 모슬포는 渴水期(갈수기)가 지난 후부터 신설 발전기를 움직일 것이라 한다.

그리고 한림, 모슬포, 서귀 3개 지방의 28일 현재 가정등 신설 상태는 다음과 같다.

△ 한림 = 800등

△ 모슬포 = 75등

△ 서귀 = 350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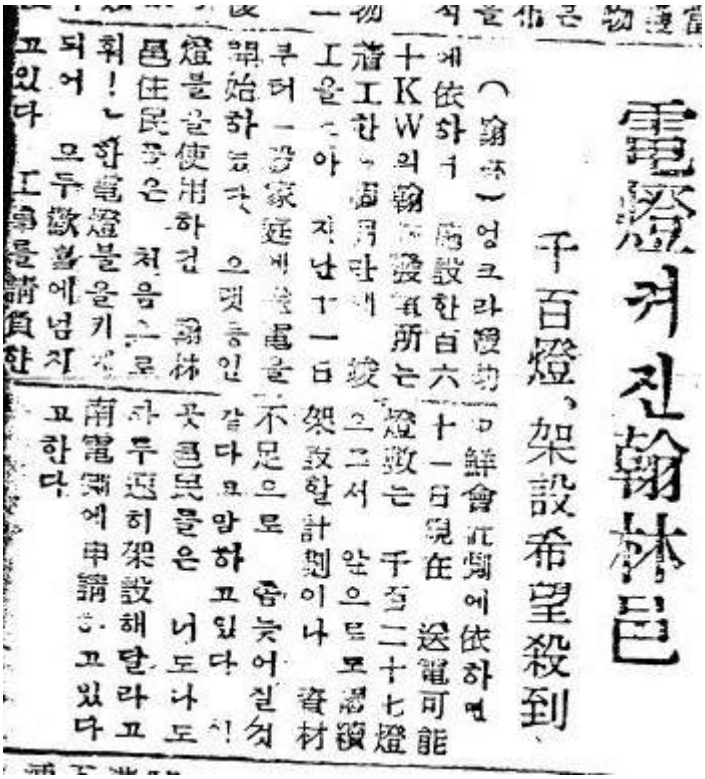
電力申請量激增
工場서만 合千二百K
粉乳配定事務
敎育區로 移管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6. 9. 14.

전등 켜진 한림읍

(한림) 엉크라 원조에 의하여 시설한 160㎾의 한림발전소는 착공한 9개월 만에 준공을 보아 지난 11일부터 일반 가정에 송전을 개시하였다. 오랫동안 등불을 사용하던 한림읍 주민들은 처음으로 훤한 전등불을 키게 되어 모두 歡喜(환희)에 넘치고 있다. 공사를 請負(청부)한 中鮮(중선)회사 측에 의하면 11일 현재 송전 가능 등수는 1,127등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가설할 계획이나 자재부족으로 좀 늦어질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이곳 읍민들은 너도나도 하루속히 가설해 달라고 남전 측에 신청하고 있다고 한다.


電燈켜진翰林邑
千百燈、架設希望殺到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6. 9.22

안 켜지는 가로등

8월말 시 당국에 의하여 가설된 시내 가로등은 2주여가 넘도록 켜지지 않고 있다. 남전당국은 21일 가로등이 켜지지 않은 이유는 시 당국에서 가로등 가설이 완료되었다는 연락이 없기 때문에 何等(하등) 이에 대하여 고려한 바 없다고 말하였다.

앞서 시 당국은 시내 60개소에 가로등 가설을 완료하였다고 말하였으며 다만 칠성로에 沿(연)한 10개소만은 칠성통 繁榮會(번영회)에서 좋은 자재를 이용 가설하겠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곳만은 이런 가설계획에서 제외하였다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이미 가설한 60개소의 가로등은 조만간에 남전 당국과 절충 곧 불이 켜지도록 하겠다고 부언한 바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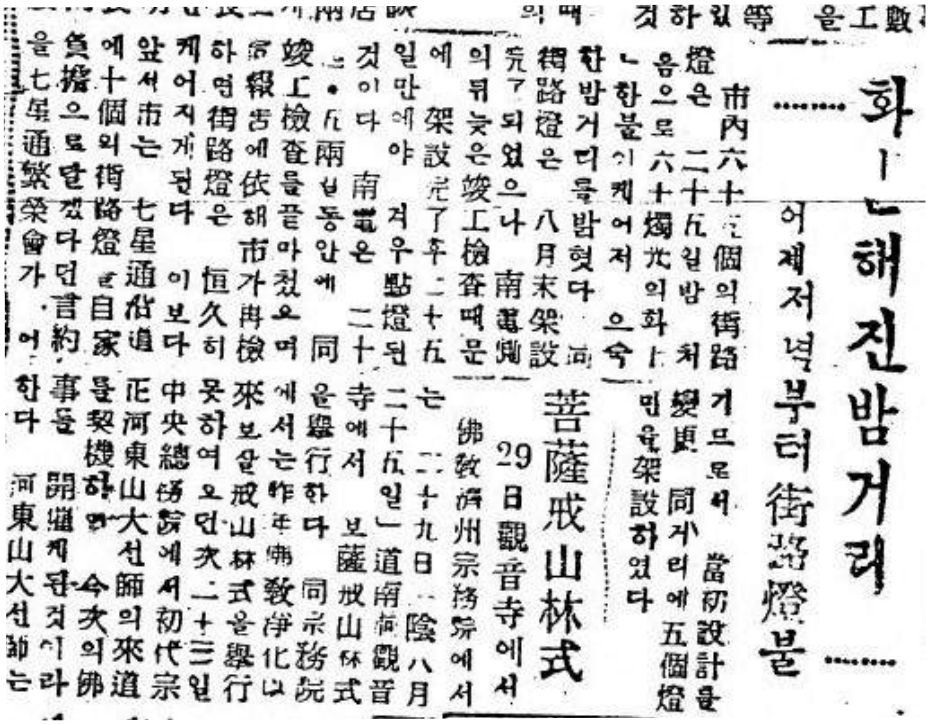
한편 항설에 의하면 가장 가로등 가설이 緊要(긴요)한 좁은 골목길이 많은 속칭 陳城洞(진성동) 부근과 동문통 살인사건이 발생한 속칭 우성목 등 으스룩한 골목길에 단 하나의 전구도 달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해당 기사 사진 없음

제주신문
1956. 9. 26.

환해진 밤거리, 어제 저녁부터 가로등불

시내 65개의 가로등은 25일 밤 처음으로 60燭光(촉광)의 환한 불이 켜어져 으숙한 밤거리를 밝혔다. 동 가로등은 8월 말 가설완료 되었으나 남전 측의 뒤늦은 준공검사 때문에 가설완료 후 25일 만에야 겨우 점등된 것이다. 남전은 24~25 兩日(양일) 동안에 동 준공검사를 끝마쳤으며 동 보고에 의해 시가 재검하면 가로등은 항구히 켜어지게 된다. 이보다 앞서 시는 칠성통 沿道(연도)에 10개의 가로등을 自家負擔(자가부담)으로 달겠다던 언약을 칠성통 번영회가 어기므로서 당초 설계를 변경 동 거리에 5개 등만을 가설하였다.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6. 10. 7.

송전시간 연장방침 (남전측) 시민의 불편 參酌(참작)

남전 梁富昌(양부창) 소장은 6일, 밤 11시까지 송전하던 일반선 전등은 일반의 불편을 덮어주기 위하여 앞으로 수십 분을 더 연장 송전할 방침을 구상하고 있다고 언명하였다. 종래보다 한 시간을 줄여 통행금지 시간인 밤 11시까지 송전하기 때문에 불편이 많다는 작금의 항설을 인용하면서 위와 같이 말하였다. 梁(양) 소장은 또한 상부 당국으로부터 송전제한 시간을 4시간으로 제한하라는 통첩이 와 있으나 當地(당지) 남전으로서는 본도의 특수사정을 고려하여 5시간「하오 6시~하오 11시」송전을 단행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일반수요량이 적은 위 ○ 수지균형이 맞지 않는 동력사용 그리고 낮 송전까지 하게 됨으로서 사실상 남전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歎息(탄식)한 梁(양) 소장은 아무래도 전등 사용료 인상만이 일반선 송전시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였다. 남전은 각 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10월 1일부터 특수선을 부활하여 약 50kW의 철야송전을 하고 있다.

종래는 일반선이나 특수선을 막론하고 밤 1시까지 송전하여 왔다. 그러나 앞으로 일몰시간이 하오 5시가 되면 6시간 송전은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이의 타계를 위하여 본점과 절충하겠다고 梁(양) 소장은 언명하였다. 현재 남전이 송전하고 있는 전력은 4백kW을 약간 넘고 있으며 7백kW 발전기를 이용하고 있다.

送電延長方針
市民의 不便參酌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6. 12. 13.

달게 안 쓰이는 전기 엉크라 발전기 시설의 그 후
8대 중 넷은 잠자기 기업부문의 수요 微微(미미)

엉크라 원조로 시설된 8대의 디젤 발전기는 이를 이용하는 일반 전력 수용이 적은 위에 산업부문에서의 동력사용이 미지근하기 때문에 4대의 발전기가 하품하고 있다. 이는 동력을 활용할 만한 기업이 별로 없다는 본도 실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시설한 지 다섯 달을 넘기려는 昨今(작금)의 최대전력공급량은 제주시를 포함한 도내 4개 발전소에서 하루 730㎾로서 총출력 1,210㎾의 반을 약간 넘고 있을 따름이다.

현재의 전력공급량을 보면 250㎾의 3대 발전기「合(합) 750㎾」를 갖고 있는 제주발전소는 낮 송전하고 있는 100㎾의 동력공급을 포함한 500㎾뿐이다. 산업부문에 공급되고 있는 전력은 하루 70㎾의 동력을 받아 드리고 있는 주정공장과 2개 搗精(도정)공장, 베다니 기업, 그리고 24시간 공급을 받는 통신기관, 일부 특수선이 20㎾ 정도다.

그러나 일반의 전력 수용량은 증가하여 시설 이전의 하루 총공급량 250㎾「주공전원150㎾, 남전 100㎾」에 대비 갑절인 500㎾가 시내 일원에 송전되고 있으며 受用(수용) 灯數(등수)도 5,000여灯(등)에 불과한 종전보다도 약 2할이 증가하여 현재 7,500여灯(등) 헤이고 있다.

한림, 모슬포는 아직도 需要(수요) 意慾(의욕)이 적어 160㎾「100㎾ 1대, 60㎾ 1대」의 발전기를 갖고 있는 한림의 발전량의 20%를 下廻(하회) 하는 30㎾가 공급되고 있으며 200㎾「100㎾ 2대」의 모슬포는 10%에 불과한 80㎾가 공급되고 있다. 그리고 170㎾의 수력과 100㎾의 새 발전기를 갖고 있는 서귀는 종래 수용지역인 모슬포線(선)에 송전을 않기 때문에 그 수용능력도 자연 줄어들어 170㎾의 수력 발전기 1대만 움직여 그 공급량은 120㎾다. 따라서 일반 수용 灯數(등수)도 제주시보다 훨씬 떨어져 지방 3개 발전소의 총수용 灯數(등수)가 4,000여灯(등)에 불과하고 산업부문 등에는 전연 공급량이 없다.

이와 같이 1,200㎾에 해당하는 제주, 한림, 모슬포, 서귀 4개 발전소에 시설한 8대의 디젤 발전기는 도내 총 공급량 730㎾에 해당하는 4대의 새 발전기「제주 = 200㎾ 2대, 한림 = 60㎾ 1대, 모슬포 = 100㎾ 1대, 서귀는 수력」가 움직이고 있을 뿐 나머지 4대「제주 = 200㎾ 1대, 한림 = 100㎾ 1대, 모슬포 = 100㎾ 1대, 서귀 = 100㎾ 1대」는 발전소 안에서 하품하고 있다.

현재 서귀 수력을 제외한 제주, 한림, 모슬포의 발전량에 소모되는 연료량「경유, 모비루」은 한달 360드람이 소요되며 이 유류는 정부가 지정한 유류업자들로부터 남전출장소가 직접 받아드리고 있다. 이 유류값만도 한달에 280여만圜(환)「드람당 경유 7,300圜(환)」이 소요되고 이 중 제주가 하루 10드람, 한림 모슬포가 한달 60드람이 각각 발전기에 쓰여지고 있다. 아무튼 본도 개발에 크게 기대되는 엉크라 원조에 의한 이 발전사업의 활발한 운영은 동력수용가의 증가에서만 기대할 수 있으나 좀처럼 이러한 기대는 어려울 것 같다고 남전 측은 말하고 있다. 그 첫째 이유는 생산기업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동력공급이 불가하다는 것 둘째 그나마 동력을 이용할 만한 기업체도 旣成(기성) 動力(동력)「발동기」시설을 팡가치고 전력을 이용함으로써 수지가 안 맞는다는 데서 이의 사용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발전기 시설 당시 남전이 받아드린 동력사용 신청량은 750㎾로 1,210㎾의 전량공급이 가능하리라고 보왔던 것이라고 한다.

제주신문
1956. 12. 13.

八台中 넷은 잠자기

企業部門의 需要微々

後의 設施機電發라크잉

달게 안씀이는 力電는

나라나지 않은 顚菌

道醫와 病試所서檢査

刷新돼

△해당 기사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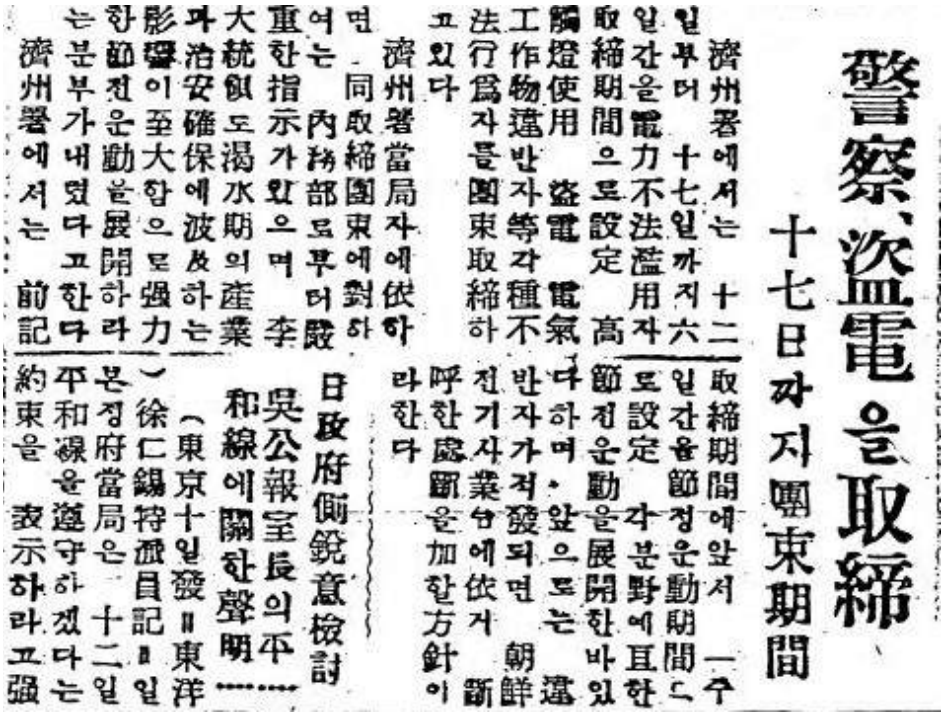
제주신문
1956. 12. 14

경찰, 盜電(도전)을 取締(취체), 70일까지 단속기간

제주서에서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을 전력불법남용자 取締(취체)기간으로 설정 高燭燈(고촉등) 사용, 盜電(도전), 전기공작물위반자 등 각종 불법행위자를 團束(단속) 取締(취체)하고 있다.

제주서 당국자에 의하면 同(동) 取締(취체) 團束(단속)에 대하여는 내무부로부터 엄중한 지시가 있으며 李(이) 대통령도 渴水期(갈수기)의 산업과 치안확보에 파급하는 영향이 至大(지대)함으로 강력한 절전운동을 전개하라는 분부가 내렸다고 한다.

제주서에서는 前記(전기) 取締(취체)기간에 앞서 1주일간의 절전운동기간으로 설정 각 분야에 亘(긍)한 절전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하며 앞으로는 위반자가 적발되면 朝鮮(조선) 電氣事業令(전기사업령)에 의거 단호한 처벌을 가할 방침이라 한다.



警察、盜電을取締
十七日까지團束期間
濟州署에서는 十二일부터 十七일까지 六일간을 電力不法濫用자 取締期間으로 設定 高節정운動을 展開한 바 있는데 各분野에 亘한 觸燈使用 盜電 電氣工作物違반자等 각種不法行爲자를 團束取締하여는 同取締團束에 對하여 內務部로부터 嚴重한 指示가 있으며 李大統領도 渴水期의 産業과 治安確保에 波及하는 影響이 至大함으로 强力한 節전운動을 展開하라는 분부가 내렸다고 한다
濟州署에서는 前記 取締期間에 앞서 一주일간을 節정운動期間으로 設定 각 분野에 亘한 電氣事業令에 依거 斷전기사業令에 依거 斷전적發되면 朝鮮 法行爲자를 團束取締하여 呼한處罰을 加할 方針이라 한다
濟州署當局자에 依하면 同取締團束에 對하여는 內務部로부터 嚴重한 指示가 있으며 李大統領도 渴水期의 産業과 治安確保에 波及하는 影響이 至大함으로 强力한 節전운動을 展開하라는 분부가 내렸다고 한다 前記
日政府側銳意檢討
吳公報室長의 平和線에關한 聲明……
(東京十일發=東洋) 徐仁錫特派員記=일본정府當局은 十二일 平和線을 遵守하겠다는 約束을 表示하라고 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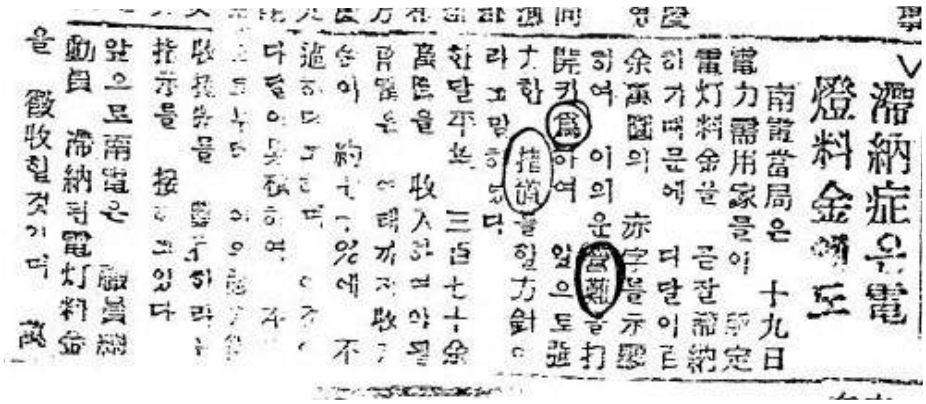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7. 3. 21.

체납병은 전등요금에도

남전당국은 19일 전력수용가들이 所定(소정) 電灯(전등)요금을 곧잘 체납하기 때문에 다달이 100여만圜(환)의 적자를 시현하여 이의 운영난을 타개키 위하여 앞으로도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말하였다.

한달 평균 370여만圜(환)을 수입하여야 될 남전은 여태까지 수입금이 약 70%에 불과하다고 하며 이것이 다달이 누적하여 본사로부터 이의 강력징수 조치를 단행하라는 지시를 접하고 있다. 앞으로 남전은 직원 총동원 체납된 전등요금을 징수할 것이며 만약 매달 25일 이내 납부치 않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송전을 중지할 방침이라고 경고하였다. 이들 체납자 중에는 유식층이 절반을 차지하였다고 당사자는 말하였다.


滯納症의 電燈料金에도

南電當局은 十九日

電力需用家들이 所定

電灯料金을 곧잘 滯納

하기 때문에 다달이 巨

額의 赤字를 시현

하여 이의 운영난을 打

開키爲하여 앞으로도 強

力한 措置를 할 方針이

라고 밝히다.

한달平均 三百七十餘

萬圜을 收入하여야 될

南電은 總收入의 半

以上이 滯納되어 不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7. 6. 27.

수돗물 또다시 중단
시와 남전, 전력사용에 승강이

제주시의 상수도 급수는 남전 측의 양수전력을 못 받아 25일부터 중단되었다. 남전은 시당국이 동력요금을 체불하였다는 이유로 양수 폼프에 이어진 동력선을 절단, 전력공급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시 당국은 이 동력선을 절단하는 데 대하여 남전 측으로부터 어떠한 사전 통고도 받은 바 없다고 언명,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데 서로 최대한의 편익을 돌보아 주어야 할 것이라고 유감의 意(의)를 표하였다.

시 당국자는 지난해 남전 발전기 설치 후보지를 50여만圜(환)으로 매수하고 고스란히 남전 측에 기증하였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더군다나 무료로 급수하는 시기에 동력선을 절단하여 버린 것은 극히 섭섭한 일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시 당국자는 6만여圜(환)의 동력세를 물었으나 아직도 63,670圜(환)의 동력요금을 체불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는 무료로 급수하고 있으니만치 그 동력요금 재원을 조성치 못한데 연유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시 당국자는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먼저 동력요금을 지불하려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사는 수차 남전 측에 전한 바 있다고 말하였다. 한편 남전 측은 상기 체불액을 청산치 않는 한 전력공급을 거절할 태도를 명백히 하고 있는바 상수도 급수는 당분간 중단될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梁(양) 남전소장은 동력요금, 시험료, 검수료 등에 대한 쌍방의 정식계약 없는 한 전력을 공급할 수 없는 것이 남전의 방침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공공시설에 속하는 상수도 문제인 만큼 이러한 면을 고려하여 客年(객년) 11월 이래 수차에 걸쳐 정식계약이 없어도 시의 요청대로 양수시험용 동력을 공급하여 왔다고 말하였다.

동력료를 포함한 시험료, 검수료를 납부해야만 전력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상식이 아니냐고 반문한 梁(양) 소장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社(사)방침에 의거 상기 동력 사용을 위한 정식 계약 등 전력공급에 앞선 사무적인 절차를 밟아달라고 시당국에 요청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敷衍(부연)하면서 정식계약만 하면 何時(하시)든지 시의 요청대로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부언하였다.

제주신문
1957. 6. 27.

水道물 또다시 中斷
市와 南電 電力使用 에 승강이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7. 6. 29.

계약체결을 절충, 揚水(양수)전력 미리 공급시

남전은 시 당국과의 전력사용에 대한 정식계약 체결에 앞서 揚水(양수)전력을 공급해 달라는 시의 요청을 받아드릴 것으로 믿어진다.

27일 시 당국을 방문한 남전 ○係(계)직원은 7월 1일 현재 시와 체결될 동력 사용계약에 대한 사전 타합을 행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동 계약에 앞서 양수전력을 공급해 달라는 시의 요청을 거절하지 안했다.

이러한 양측의 합의는 당분간 중단될 것으로 우려되던 상수도 급수를 不日(불일)내에 재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시 당국은 남전이 28일까지는 양수전력을 공급해 줄 것으로 보아 이날로 공용 급수전에 대한 급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재개되는 급수에는 남문선에도 딴 선과 함께 급수케 될 것이다. 교통대 옆에서 끊어지던 남문선은 며칠 앞서 중앙건설에 의해 이어지었다.

契約締結을 折衝

揚水電力、미리供給說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7. 6. 30.

식어버린 조명등 가설돼 석달, 아직 감감

산지 부두 북측 제방에 가설되고 있는 조명등은 가설된 지 거의 3개월이 되었으나 메타 장치의 불비로 여태껏 한번도 켜져본 일이 없다.

當地(당지) 해군 경비부가 현품을 기증하고 해운업자가 가설료와 전기료를 일체 부담키로 하고 前記(전기) 장소에 세워진 동 조명등은 해운업자들의 태만으로 방임되고 있는 까닭에 야간 왕래 선박을 위하여 한번이나 쓰여진 일이 없다는 것이다.

28일 남전 측에 의하면 메타 장치를 하거나 그러하지 않으면 정식계약을 체결하면 곧 송전할 수 있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다는 것이며 메타는 10,000여환 정도면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식어버린「照明燈」

架設돼석달、아직감감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7. 7. 4

독자의 소리
남전의 양식을 바람, 당월 전기료 안 낸다고 전선절단

비단 이 경우만이 아니고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리라 생각되어 여기에 붓을 들고 남전 제주영업소의 처사에 대하여 한마디 않을 수 없습니다. 6월 27일 오전 제가 살고 있는 80 고령의 노파집에서 6월분 전등요금(2燈分(등분)) (저녁이나 내일이면 자진납부하겠다고 하였음) 인입선(10m)를 절취하여 요금납부 즉시 延線(연선)시켜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익일(28일) 자진납부 했는데도 5일 경과한 오늘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이다. 전력을 공급하여 그 요금으로 운영되는 남전이기는 하지마는 그러나 국가에 대신해서 전력사업으로서 산업발전하고 있는 남전인 만큼 이에 비추어 제주영업소의 이러한 처사는 이해키 곤란하며 상업행위의 관념상으로 보드래도 소비자에 대하여 그러하게 불친절할 수 없을 것이라는 감이 든다.

특히나 요즈음처럼 경제력이 고갈되고 춘궁의 고비를 겨우 넘은 하류시민에게는 하루뿐만 아니고 며칠을 두고 집안에 돈 10환도 없을 적이 많을 것인데, 물론 1, 2차 수금하러 방문했었겠지마는 달도 넘기 전에 그달 분 전기세를 안 내었다고 해서 전선을 절단하여 수요자에게 불편과 마음에 충격을 주고 전기료를 납부한 후에도 전력공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 (인쇄상태불량으로 확인불가)

양심으로서 절단한 전선을 이어 조속히 전기를 보내주기 바라며 앞으로 수금원은 공익회사된 남전의 社是(사시) 정도나마 깨달은 이를 내어보내시는 것이 사회와 시민의 명랑을 위하여 좋을 듯합니다.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7. 7. 26.

해결 본 양수전력
시 상수도 급수재개

달포 동안 중단되었던 제주시 상수도 급수는 남전 측에서 양수전력을 공급하므로서 23일부터 재개되었다. 급수를 개시한 지 24시간이 경과한 24일 하오 현재까지 15,000미터에 걸친 배수관에서 누수되고 있는 곳은 도립의원 앞 止水管(지수관)의 한 군데뿐이다. 시 당국은 불일 수도사용료을 받아드리기 시작할 것이며 이를 고비로 상수도 급수는 정상화되는 셈이다. 상기 누수 개소는 局部的(국부적)으로 수리하면서 전반적인 급수는 그대로 계속할 예정이다.

解決본揚水電力
市上水道給水再開

달포동안中斷되었던
濟州市상수道給水는南
電側에서 揚水전力을
供給하므로서 二十三
일부터再開되었다 給
水를開始한지二十四時
間이經過한二十四일下
午現在까지 萬五千余
미터에걸친 配水管
般的인 給水는그대로
에서漏水되고있는곳은

道立醫院앞止水管의한
군데뿐이다 市當局은
不일水道使用料를받아
드리기始作할것이며이
고비로 상수道給
水는正常化되는셈이다
상記漏水個所는 局部
的으로修理하면서 全
繼續할豫定이다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7. 8. 22.

곧잘 정전사태 (시내전기)
남전담 "배전선 불안전때문"

남전은 비바람치는 19일 한밤 동안 일반선과 특수선에의 전력공급을 중단하였다. 갑작스런 정전조치로 말미암아 市街(시가)는 終夜(종야) 암흑이 되었으며 정전이 곧 될 때는 마치 夕飯(석반) 직후쯤 되는 9시경이어서 일반수요가정에서는 저녁 뒤치다꺼리 등에 때아닌 곤란를 받았다. 바람만 거세게 불면 곧잘 정전되는 시내 전기사정은 아직도 이의 타개책이 고려되고 있지 않은 듯하다.

19일 밤의 정전조치에 대하여 남전은 시내 남문통 배전선로 32호선이 갑자기 단선됨으로써 불가피 정전하였다고 말하고 이날 밤과 같이 거센 비바람에는 배전선의 합선 등에서 오는 위험을 막기 위해서 불가피한 정전이라고 말하였다.

특히 그들은 현재 가설된 배전선은 미국식 시설이 가해져 있기 때문에 즉 선과 선 사이가 아주 비좁아 자칫하면 합선을 일으키기 쉽다고 석명하였으나 이의 타개책에 대하여는 언급하기를 꺼렸다.

곧잘停電沙汰
市內電氣
南電說 "配電線不安全때문"
保健用粉乳
姙産婦等에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7. 11. 14.

송전시간 단축 (연료결핍)
일반선은 하오 10시로

남전은 13일 저녁부터 발전용 연료 미입하 때문에 특수 일반선의 배전 시간을 단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남전 당국자는 종래 순조롭게 입하되던 발전용 연료(경유)가 갑자기 공급이 중단되어 이의 입하가 가능할 때까지 당분간 송전시간을 단축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였다.

이어 그는 이와 같은 유류난은 전국적인 것으로 현재 외국으로부터 유류를 실은 모선이 불원 입항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을 뿐이기 때문에 얼마동안이나 송전시간을 단축할 것인지는 확답 못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번 단축된 송전시간은 종래 24시간 송전하던 특수선은 하오 1시부터 익일 상오 6시까지 일몰시간부터 하오 11시 30분까지 송전하던 일반선은 1시간 반을 단축하여 동 하오 10시까지 각각 송전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梁(양) 남전소장은 유류 수송난의 부득한 조치이기 때문에 일반수용가의 이해를 바란다고 요망하였다.

送電時間短縮
一般線은下午十時로
燃料缺乏
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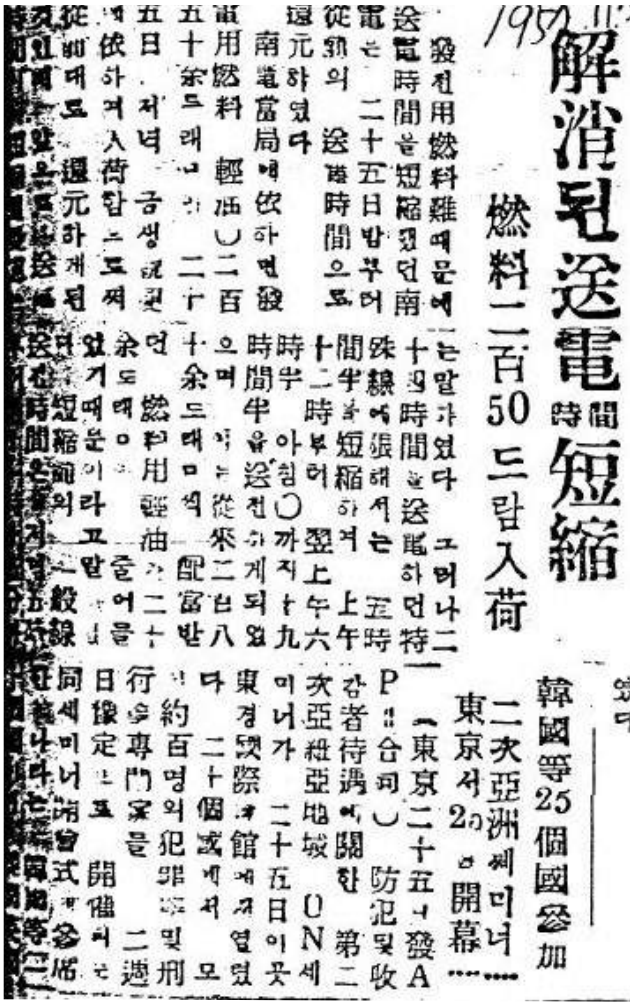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7. 11. 27.

해소된 송전시간 단축
연료 250드람 입하

발전용 연료난 때문에 송전시간을 조정했던 남전은 25일 밤부터 종전의 송전시간으로 환원하였다.

남전당국에 의하면 발전용 연료(경유) 250여드람이 25일 저녁 금생호 편에 의하여 입하함으로써 종전대로 환원하게 된 것인데 앞으로 송전시간이 단축될 우려는 말하였다. 그러나 24시간을 송전하던 특수선에 한해서는 5시간 반을 단축하여 상오 12시부터 익 상오 6시 반, 아침 ○까지 19시간 반을 송전하게 되었으며 이는 종래 280여 드램씩 배당받던 연료용 경유가 20여 드럼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단축전의 일반선 송전시간은 저녁 5시부터 11시 15분까지다.



解消된 送電時間 短縮

燃料二百50드람入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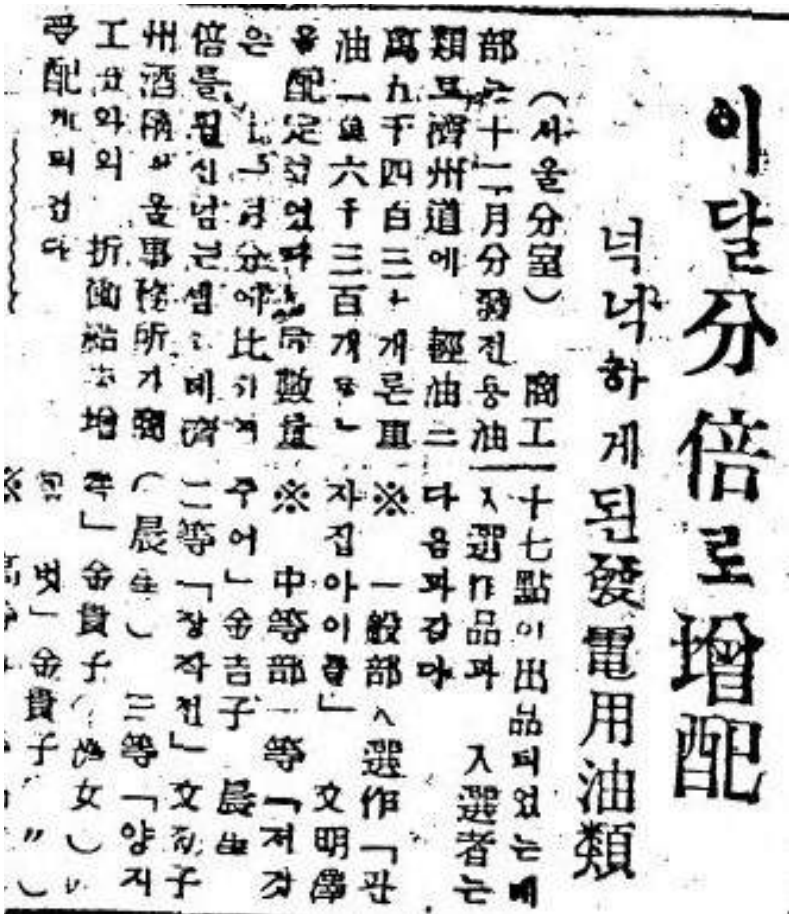
韓國等25個國參加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7. 12. 3.

이달분 배로 증배
넉넉하게 된 발전용 유류

(서울분실) 상공부는 12월분 발전용 유류로 제주도에 경유 25,430개론, 중유 16,300개론을 배정하였다. 동 수량은 전월분에 비하여 배를 훨씬 넘는 셈인데 제주주정 서울사업소가 상공부와의 절충 수배케 되었다.



이달分倍로增配

넉넉하게된發電用油類

(서울分室) 商工部는十一月分發電용油類로濟州道에輕油二千九百四十개론重油一千六百三十개론을配定하였다 이數量은 前月分에比하여 배를훨씬넘는셈인데 濟州酒精㈜ 工場과의 折衝結果 增配케된것이다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7. 12. 19.

今夜(금야)부터 全線(전선) 단전
발전용 유류 입하 지연

발전용 연료(경유) 결핍 때문에 오늘(19일) 저녁부터 당분간 시내특수 일반선은 정전상태에 들어갈 것이라 한다.

18일 남전 측에 의하면 유류재고가 전무 상태인 바 풍랑관계로 유류 입하가 지연되는 한 하등의 대책이 없다고 한다.

今夜부터全線斷電
發電用油類入荷遲延
水道물도中斷
回數減縮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7. 12. 21.

임시 유류를 求得(구득)
남전, 全線(전선) 단전을 모면

既報(기보)= 발전용 유류(경유) 고갈로 인하여 19일부터 정전하려던 남전은 잠정적이나마 유류를 구득하므로서 계속 송전케 되었다. 梁(양) 남전소장은 20일 모슬포 방면에서 유류를 구하였으므로 정전은 모면케 되었다고 말하면서 유류 입하 시까지는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유류를 확보하여 단전하지 않을 작정이라고 부언하였다. 또한 그는 유류 수송관계는 어떠한가의 질문에 아직 통지는 받은바 없으나 불일 입하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하였다.

臨時油類를求得
南電、全線斷電을冒免
1957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7. 12. 24.

각종 유류 500드람 입하
버스, 전기사정 충분 완화

풍랑관계로 인한 수송지연으로 한때 여객 운송업자들에 위협을 주던 유류사정은 22일 510드람의 입하로 다소 완화되었다 . 前記(전기)량은 휘발유가 150드람, 경유가 360드람인데 휘발유는 11월분에서의 미수배분 95드람과 12월 배정분의 일부인 바 휘발유는 여객 운수업자를, 경유는 남전을 우선적으로 배급할 것이라고 도 당국자는 말하였다. 한편 12월분의 유류도 2, 3일 내 계속 입하될 것이라 한다.

各種油類五百三랑入荷
叢 電氣事情 充分緩和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8. 3. 15.

발전용 油(유) 또 부족
3월분 배전량 시정요청

14일 도산업당국은 본도에 배정된 3월분 유류 중 경유 배정량의 시정을 중앙에 요청하였다.

前記(전기) 요청은 전기용으로 350드람, 海務用(해무용) 150드람, 산업용 100드람의 기준으로 도합 매월 550 내지 650드람식 배정되는 경유가 지난 1월분부터는 할당량은 동일하나 용도내용에 있어 발전용 350드람에서 150드람으로 200드람이 감량되고 이에 반해 해무용이 150드람에서 500드람으로 350드람이 증가되고 있음을 지적 이와 같은 배정 착오로 말미아마 극도로 악화된 본도 전기사정을 반영하면서 유류수급의 조정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당국에서는 동 시정요청에 있어 시내 3개 석유업자를 통한 종전 해무용의 수급실적 조사표를 첨부하였다.

內示
計劃推進
發電用油또不足
三月分配定量是正要請
데구리密漁盛行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8. 4. 15.

수력발전을 건의
도 당국서, 최대 840㎾ 출력 가능

다년간 논의되어 오던 본도의 개발문제가 얼마 앞의 국무회의에서 개발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각광을 받게 되어 앞으로의 진전에 도민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거니와 도 당국은 기보한 바와 같은 건의사항과 더불어 산업발전의 직접적인 원천이 될 수력발전 시설을 동 개발위원회에 요망하고 있어 개발대상으로서의 채택 여부가 주목된다. 도 당국은 제주시 서남방에 있는 어승생악에서 흘러내리는 천연 폭포수를 이용하는 수력발전소의 시공을 건의하고 있는 것인 바, 동 수력을 이용하게 되면 최대 849㎾부터 평균 436㎾를 출력하게 될 것으로 현재 도내 4개소 화력발전시설에 의한 최대 발전량 831㎾(평균 255㎾)보다 훨씬 상회하는 출력으로서 연료소비 없이 전도의 수요 전력을 충족케 할 것이다. 그런데 前記(전기) 수력발전 시설은 4274년(1941년) 남선합동전기 주식회사에 의하여 착공계획이 되었다가 8·15 해방으로 공사 착수 초에 계획이 와해된 바 있다.

水力發電을 建議
最大八百40K出力可能
元檢事長言明
自由零圍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8. 5. 23.

電線(전선) 斷切(단절)도 단행
남전, 강력한 도전 取締(취체)

남전은 작금 불어나고 있는 도전행위를 막기 위하여 강력한 취체반을 편성, 이의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지난 1주일 동안 남전당국의 취체반에 걸려들은 도전 및 燭數(촉수) 위반 건수는 시내에서 근 40건을 헤아렸고 한림, 모슬포 등지에서도 수십 건을 적발하였다 한다.

이와 같은 도전행위로 말미암아 소정 발전량에도 지장을 초래하여 발전 메-타가 날로 상승하고 이로 인한 연료소모도 부쩍 늘어가고 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남전은 앞으로 위반자에 대하여 취체 규칙에 의거 과중한 위반요금을 가할 것이며 만약 이것마저 이행 않을 때에는 해당 수용가의 배전선을 단절하겠다고 경고하였다. 이보다 앞서 남전은 몇 일 전 시내 몇몇 수용가에 대하여 배전선의 단절을 강행했음을 밝혔으며 이의 강력 취체에는 현재 滯道(체도) 중인 목포 남전지점 취체원들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다.

電線斷切도斷行
南電、强力的監電取締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8. 5. 31.

漸熟(점숙)하는 「수력발전」 현안
開發委(개발위)의 關心(관심) 至大(지대), 연내에 시공 가망도

본도 산업개발의 관건이 될 현안의 어승생 수력발전 시설계획은 정부의 본도 개발위에 의하여 급진전될 것을 보인다. 앞서 상공부에서 李(이)전정, 崔(최)건설 兩(양)과장이 내도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하고 귀임한 바 있거니와 소식통에 의하면 개발위로서는 이에 크게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 이로 미루어 보아 동 수력발전소 시공은 연내로 실시 가능성이 농후하다.

漸熟하는「水力發電」懸案
開發委의 關心至大 年內에 施工可望도

本道所要開發의關鍵이될 懸案의御來生水力發電施設計劃은 政府의本道開發委에依하여 急進展될것으로보인다 앞서 商工部에서 李전정 崔建設兩課長이來道하여 現地實態를調査하고歸任한바있거니와 消息通에依하면 開發委도 이에크게關心을갖고있다고傳하고있는데 이로미루어보아 同水力發電所施工은 年內로實施可望性이 濃厚하다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8. 7. 1.

終日(종일)송전을 진정
시내 16개 기업체서

동력을 수용하고 있는 시내 16개 기업체들은 30일 하루 20시간 송전하고 있는 특수 전력선을 24시간으로 연장 송전해달라는 요지의 진정서를 남전에 제출하였다. 시내 목재제재업체 대영상회 외 15개 회사 공동명의로 제출된 동 진정서는 남전에서 검토 중에 있는데 前記(전기) 기업주들은 동 진정서를 통하여 낮 열두시부터 전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오전 중은 각 공장이 휴업을 면치 못하여 생산부문의 원활한 운영을 기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지방발전을 도모하는 견지에서 일출시부터 계속 송전을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남전당국에 의하면 현재 특수 전력선은 낮 12시부터 송전을 개시하여 익일 아침 7시 반까지 20시간을 공급하고 있다.

終日送電을陳情
市內十六個企業体서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8. 12. 25.

도전 등 40건 적발
지역별 단전 앞서 합동 취체

요즈음 시내에서 강행되고 있는 전기부정사용 합동취체에 40여건이 걸려들었다. 지난 22일부터 남전과 경찰통신당국 합동으로 행해지고 있는 전기부정사용 취체 대상은 盜電(도전), 전기공작물 燭數(촉수)위반, 불량개소 등 광범한 것이며 이러한 합동 취체는 발전소 메타에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橫流(횡류)전력이 자취를 감출 때까지 계속될 경향이다.

현재 남전이 시내 수요자와 계약한 전력용량은 매일 총 420키로인데 소모량은 520키로로서 1일 100키로가 초과하여 한 달이면 19,500키로라는 놀라운 도전계수가 나타나고 있다. 전력부정 사용 근절에 누차 협력을 요청하여 온 남전 영업소 측은 이런 용량 초과의 최종적 시정방책으로서 구역별로 단전시켜 제한 송전할 방침을 세우고 시내를 7개 구역으로 나누어 그 구역만 단전시킬 수 있는 "스윗치"를 장치하였다. 동 영업소 측은 이런 최악의 경우를 피하는 길은 그 구역민이 남에게 迷惑(미혹)을 안 끼치겠다는 생각에서 서로 협력해서 도전이나 초과 사용을 없애면 된다고 말하면서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 주도록 요망하였다.

1. 동력사용시간 엄수(하오 4시 50분까지)
2. 전기공작물을 임의 가공말 것
3. 高燭球(고촉구), 전기 아이롱, 전기곤로를 사용치 말 것
4. 회사 측에서 발부한 불안정 개소의 개수 의뢰서를 받은 수용가는 그를 단시일 내에 이행할 것
5. 공방 취침 시 등 불필요한 때는 소등하여 전력을 절약할 것

盜電等40件摘發
도전 64頭

△해당 기사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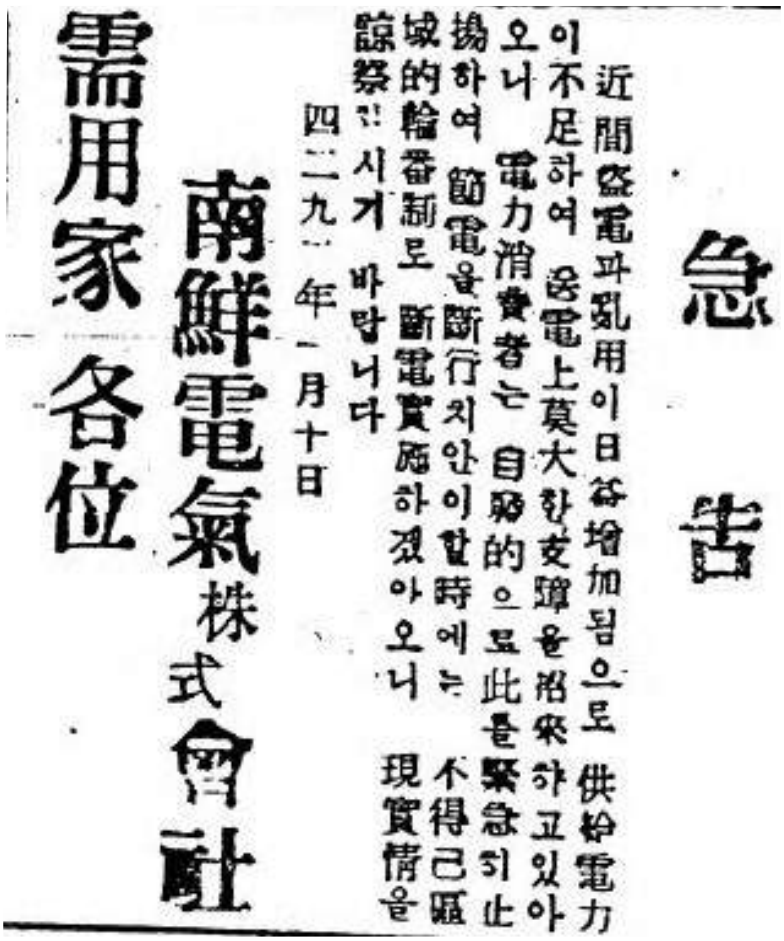
제주신문
1959. 1. 17.

〈광고〉 急(급) 告(고)

근간 盜電(도전)과 亂用(난용)이 日益(일익) 증가됨으로 공급전력이 부족하여 송전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사오니 전력소비자는 자발적으로 此(차)를 緊急(긴급)히 지양하여 절전을 단행치 않이할 시에는 부득이 구역별 윤번제로 단전 실시하겠아오니 현 실정을 諒察(양찰)하시기 바랍니다.

1959. 1. 10. 남전전기 주식회사

수용가 各位(각위)


急告
近間盜電과亂用이日益增加됨으로 供給電力이不足하여 送電上莫大한支障을招來하고있아오니 電力消費者는 自發的으로此를緊急히止揚하여 節電을斷行치안이할時에는 不得已區域的輪番制로 斷電實施하겠아오니 現實情을諒察하시기 바랍니다
四二九一年一月十日
南鮮電氣株式會社
需用家各位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9. 1. 17.

독자의 소리
단전사태는 왠 일, 남전의 무성의에 항의함

요즈음 연거푸 일어나는 단전사태에 대하여 전기 需要家(수요가)의 한 사람으로서 남전에 엄중 항의코저 한다. 단 1분의 단전이라 할지라도 그가 需要家(수요가)에 미치는 迷惑(미혹)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단전사태가 일어날 것인가? 연초부터 깜박거리던 전기는 2주 동안 다섯 번이 단전되었고 더군다나 일반선은 닷새 밤을 고스란히 단전되었다. 특선이 단전된 채 한 밤을 넘기는 일이 없는데 일반선은 왜 그 밤 사이에 수리 안 되는가? 여기 그대들의 馬脚(마각)을 드러내었다고 비난할지언정 무엇이라 변명할 것인가? 며칠 전 초저녁 단전되었음을 알리고 수리를 의뢰하였던 바 "바쁘다"는 간단한 이유로 거절당하고 말았다.

여러 선이 단선되었기 까닭에 "바쁘다"고 말하였는지는 모르나 바쁘지 않게 周旋(주선)을 잘하여 놓던지 그렇지 않으면 바쁘다 할지라도 밤을 새면서라도 수리할 의무가 남전에 있는 것이 아니냐? 남전은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단전되었다고 한다. 그동안 단전이 될 때 풍속이 얼마이라는 것쯤은 아는가? 10미터 내외의 바람으로 단전이 되는 것이라면 본도 같은 風多(풍다)의 섬에서는 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날이 며칠이 될 것인가?

사실이 바람 때문의 단전이라면 바람에 견디어 낼 수 있는 시설을 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일이로되 남전으로서는 어떤 노력을 하여 보았는가? 당치 않은 이유를 들고 구구히 변명함이 없이 전기需要者(수요자)를 위해 단전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전기를 濫用(남용) 말라" "盜電(도전)을 말라"고 탕탕 큰소리 친 그대들 집에는 燭光違反(촉광위반)뿐 아니라 電氣溫突(전기온돌)까지 시설하지는 안 했는지 알고 싶다. 일개 영업회사인 남전이 지나치게 횡포를 부린다는 여론을 그대들도 듣고 있을 것이다. 단전이 되었어도 춥다고 하여 수리하러 나아가지 않은 그대들의 무성의에서 오는 말이라 함을 깊이 명심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하루 밤에 기껏 여섯 시간 안팎만을 송전하는 일반선의 송전시간제한에 대하여 아울러 항의하는 바이다.

(一 需要家(일수요가))

제주신문
1959. 1. 17.

斷電沙汰는 왜ㄴ일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9. 1. 17.

『어승생악 水力發電(수력발전)의 꿈』 와해
개발사업 종목에서 제외, 정부 본도 개발위원회서 결정

본도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될 현안의 어승생악 수력발전시설 계획은 정부의 본도 개발위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짐으로써 개발대상으로서의 채택 여부가 주목되어 왔거니와 중앙출장에서 돌아온 도상공당국자에 의하면 동 개발위에서는 이 수력발전시설 관계를 본도 개발사업에 넣지 않기로 결정함에 이르러 이 계획은 와해되고 말았다.

도는 다년간 논의되어오던 어승생악 수력발전 시설문제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정부 본도개발위에 건의한 바 있으며 또한 2명의 상공부 관계관이 작년 5월 내도하여 현지답사까지 한 바 있어 실시될 가망성이 농후하였었는데 이달 초에 열린 개발위에서 이 문제는 본도 개발사업연차계획에서 제외되고 만 것이다.

당초 도의 시설계획을 보면 이 현안의 수력 발전소는 어승생악에서 흘러내리는 천연 폭포수를 이용하면 최대 850㎾로부터 평균 436㎾를 출력하게 될 것으로 현재 본도 4개소 화력발전시설에 의한 최대발전량 831㎾(평균 250㎾)보다 훨씬 상회하는 전력을 낼 수 있는 것으로 연료 소비 없이 전도의 수요전력을 충족케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시설비는 약 2억4천만圜(환)이 소요된다는 것이며 이 문제가 사실상 좌절된 이유는 자금책정이 여의치 못한 것이 아닌가 당국자들은 추측하고 있다.

『御衆生岳 水力發電』의 꿈 瓦解

開發事業種目에서 除外

政府 本道開發委員會서 決定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9. 2. 26.

말 많은 『區域(구역) 斷電(단전)』 남전, "도전 때문에 출력초과로"

최근 시내 일반선을 구역별로 단전하는 데 대하여 수용가의 불평이 차츰 높아가고 있다.

남전은 지난 14일부터 구역별로 4일 내지 5일 만에 한 번씩 밤 2시간 가량을 단전시키고 있는데 단전되는 시간이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전기가 가장 긴요한 때인 데다가 윤번제를 지키지 않고 불시에 전기가 안 오기 때문에 단전인지 고장으로 인한 정전인가 분간치 못해 남전에 문의하는 등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래서 단전의 원인이 도전성행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 수용가측에서도 "도전 取締(취체)의무도 남전 자체에 있는데 왜 수용가 전체에 迷惑(미혹)을 끼치는 것인가"라는 불평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남전영업소의 梁(양) 소장은 25일 도전당하는 대가로 일반가정 전체에 불편을 끼치려는 것이 아니라 발전기 2대의 출력 합 500㎾보다 현재 소모되는 전력이 520㎾이어서 전력초과로 인하여 발전기 운전이 마비될 위기에 봉착하게 되어 부득이 초과된 2~30㎾만 절약하여 현상을 유지하는 방법에서 구역별 제한송전을 행하고 있다고 해명하였다. 그는 전기사용을 희망하는 신규신청 접수도 중지하고 있는 사실을 일례로 들어 "왜 수지(收支)의 길을 스스로 막겠는가"고 반문하면서 발전기 능력이 과도로 구사되어 위험성이 극도에 달했음을 주장하고 경찰에 합동 취체를 요청 중이므로 곧 도전취체를 전개하여 초과분을 원상에 돌려 제한송전 해제에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현재 남전과 수용가 사이에 계약되어 있는 전력은 일반선 220㎾(5,500등), 특선 200㎾ 합 420㎾인데 소모량은 520㎾로서 100㎾가 계약량보다 초과되고 있는데 이 중 전선에서 유실되는 자연소모전력 11% 45㎾를 제하면 55㎾라는 도전계수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신문
1959. 2. 26.

말많은「區域斷電」

電"盜電때문出力超過로

船長等두名拘束

密輸品百20萬圓에 揷登

販路問題로難處

特산物中新西蘭과芭蕉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9. 8. 12.

盜電(도전) 때문 100㎾나 오-바
시내 전력수급에 난색

시내 일반가정 전력 수요량은 날로 증가하여 요즈음에는 최고 발전한도량 500㎾에 바싹 다가선 450~460㎾를 평균적으로 출력하고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470~480㎾에 달하여 앞으로 자연증설로 불어나는 전력을 如何(여하)히 공급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즉 남전에서는 현재 250㎾ 발전기 3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1대는 고장 등에 대비하여 비치되고 있어 500㎾가 출력한도인데 위와 같이 이 최대발전량에 다가서고 있으며 시내 실정으로 각 기관 건물은 물론 일반주택 건축이 날로 증가하여 전력수요량은 더욱 불어나기 마련이다. 동 수요량 증가는 얼마 전에 조사한 바 있는 시내 연간 건축동수(600동)만으로도 능히 입증되고 있다.

그런데 남전 측에 의하면 그렇다고 갑자기 발전기를 증설할 가망성이 열려질 것이나 그렇지 않은 한 격일제 송전도 불가피하다고 한다. 한편 이와 같이 일반 가정등 수요량이 불고 있음에 반하여 주간동력용은 오히려 사용량을 불려야 할 처지에 놓이고 있다. 동력용에는 250㎾ 1대를 운용하고 있으나 겨우 150㎾밖에 쓰여지지 않고 있다.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9. 12. 2.

새로운 전력대책 필요
힘 부쳐하는 市(시) 發電機(발전기) (3대)

산업용커녕 부는 일반수요도 충족 불능
정상기능 지나 이미 分解(분해) 掃除(소제) 단계에

4년 전 엉크라 원조에 의하여 시내 산지(남전)에 시설된 발전기는 벌써 일부 발전기의 노후 또는 전력수요량의 격증현상으로 일반의 수요신청에 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고 있는 바 전원에 의존할 각종 산업개발과 인구의 자연증가에 따르는 앞으로의 전력수요량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어두운 전망을 보이고 있다.

1956년 6월 제주시와 한림, 모슬포 서귀포 네 군데에 총 발전량 1,200㎾의 발전기가 시설된 그 후 제주시는 수요량이 급증하여 현재 정상적인 발전가능량보다도 20㎾를 오-바하고 있어 해마다 증축하는 공공건물과 인구의 증가로 인한 수요량은 물론이지만 우선 계절적으로 불게 되는 동절기의 일반수요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현상에 놓이고 있어 발전일로에 있는 제주시의 장래를 위하여 새로운 검토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촉구되고 있다.

남전 측에 의하면 시 발전소는 250㎾ 발전기가 3대이며 한림 160㎾, 모슬포 200㎾, 서귀 100㎾(별도 수력발전 130㎾ 보유)이나 한림은 현 수급량이 30㎾, 모슬포 60㎾, 서귀 90㎾에 불과한데 시는 420㎾에 도달하고 있으며 現今(현금)이라 할지라도 신청량을 전량 받아들인다면 500을 초과할 것이라 한다. 그런데 시 발전소의 최대 발전가능량이 750임에도 불구하고 400여 ㎾로서 그 이상량의 발전을 할 수 없다는 것은 250㎾ 3대 중 1대는 비상용으로 비치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한 대를 제하면 시내 발전소의 최대 발전가능량은 500㎾인데 이도 평소 500㎾ 전량의 수급은 도저히 불가능하며 정상량이 8할인 400㎾인데 현재 실 발전량이 420㎾로서 실상 20㎾는 초과상태에 있다. 비상용으로 비치해야 될 1대의 발전기도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14개월이 경과됐기 때문에 보링을 하지 않은 한 사용 불능이라 하며 그 수리마저 현지에서는 할 수가 없음으로 부산 등지로 옮겨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어쨌든 전기는 각종 산업발전에는 다시 말할 필요도 없겠거니와 가정생활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의 대상인 만치 증가일로에 있는 수요량의 공급을 위하여 시급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남전 측에서는 시를 제외한 지방발전소의 극히 적은 수요량 등으로 현재 월평균 수백만圜(환)의 결손을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니 그의 자체적인 해결은 어려울 것 같으며 관계당국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전에서는 우선 겨울철의 당면한 대책으로 수리를 요하는 시발전기(250㎾)의 수리를 위한 본점에의 상신과 전 직원을 망라한 도전과 전력남용의 방지에 당하고 있을 정도이다.

엉크라 원조발전기 시설전의 시내 총 전력수요량은 300㎾ 전후에 불과했었다.

제주신문
1959. 12. 2.

새로운 電力對策必要

힘부쳐하는 市發電機(三台)

產業用커녕 부논一般需要도充足不能

이미分解掃除段階에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59. 12. 2.

일반선에 단전제
구역별 4일 만에 3시간씩

시내 일반선 송전은 수요량의 격증현상으로 4일 만에 3시간씩 지역별 단전을 실시하게 되었다. 남전 측에 의하면 동 단전제는 정상적인 수요량 증가보다 동절기에 접어들어 전열기의 불법사용과 도전의 증가로 최대발전량을 초과함으로써 부득이 前記(전기)한 일시 단전제를 시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즉 제주시 발전소의 현 최대 발전가능량은 500㎾인데 정상공급량은 8할인 420㎾로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래도 430~440㎾를 유지 20㎾ 정도가 초과상태에 있었는데 날씨가 돌연 추워지면서부터는 40~50㎾나 초과상태를 이루고 있으며 더구나 그와 같은 현상은 발전개시 시간인 하오 5시부터 8시까지 3시간 사이로서 어찌할 수 없이 동시간의 초과량을 메우는 방편으로 송전을 지속하기 위하여 前記(전기)한 4일 만에 세 시간씩 단전하게 된 것이라 한다.

남전에서는 앞으로 도전 등 불법 전력사용자의 체취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되는 대로 의법 조치할 것을 경고하였으며 그에 앞서 수요가의 자진적인 협조를 촉구하였다. 그런데 앞으로도 수요가의 비협조로 전력소모량이 불어갈 경우는 부득이 현행 이상의 장시간 단전도 불가피할 것이라 한다.

一般線에 斷電制
區域別四日만에三時間씩
敎育委員制條例改正案返戻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60. 1. 7.

시설을(전기) 동력화
西歸邑(서귀읍) 難民(난민) 농기구 공장

남제주군 서귀읍에 설치된 難民(난민) 歸農(귀농) 定着(정착) 家內手工業場(가내수공업장)에 전기 시설 자재가 중앙에서 입하되어 도당국은 6일 현지에 수송 인도하였다. 동 자재는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끌어올 전선과 공업장 내에 시설할 도란스, 변압기, 밧데리 등 電氣機材(전기기재)로서 17箱子(상자)가 입하되었다. 서귀읍 가내수공업장은 保社部(보사부)의 난민 귀농 정착 사업계획에 의해 중앙보조로 작년도에 건물시설을 이루고 이번에 동력시설을 갖추게 되었는데 남군 내의 난민 귀농 정착장 주민들이 사용할 농기구와 가마스 및 새끼 꼬는 기계류를 제작하여 원가로 공급키로 되어 있다.

施設을(電氣) 動力化
西歸邑難民農機具工場

南濟州郡西歸邑에設
된 難民歸農定着家
內手工業場에 電氣施
設資材가 中央에서入
荷되어 道當局은六日
現地에輸送引渡하였다
同資材는 發電所로부
터 電力을끌어올電線
과 도란스 변壓器 밧데
리等電氣機材로서 十
七箱子가 入荷되었다

西歸邑家內手工業場은
保社部의 難民歸農定
着事業計劃에依하여中
央補助로 昨年度에建
物施設을 이루고 이번
에動力施設을갖추게되
었는데 南部內의難民
歸農定着 農住民들이使
用할 農機具와 가마
를製作하여 새끼꼬는機械類
給키로되었다 原價로供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60. 1. 20.

남전 내사 진행 중
피해복구비 不正嫌疑(부정혐의)

地檢(지검) 수사과에서는 南電(남전) 當地(당지) 영업소에 대하여 某種(모종) 부정혐의를 밝히기 위하여 내사를 추진 중에 있다. 前記(전기) 영업소는 작년의 사라호 태풍복구비를 둘러싸고 그중 일부를 부정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바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南電 內査進行中

被害復舊費不正嫌疑

地檢捜査課에서는南
電當地營業所에對하여
某種不正嫌疑를밝히기
위하여內査를進行中
에있다 前記營業所는
昨年의 사라號颱風被
害復舊費를더써오고그中
一部를 不正處分한嫌
疑를받고있는바 捜査
結果가 注目된다

里甫牛峴洞에서는十
三日밤 "素人劇"전
선에전夫 "을 公演하
여 鄕民을慰安하였다

市郡敎育委員은
市邑面에서選出
敎育法改正案骨子

(서울發=東洋) 自
由黨의 張錫潤議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60. 2. 11.

梁富昌(양부창) 씨 재임
남전 영업소장에

남전 제주영업소장이 지난 27일부로 경질 발령되었다. 동 인사발령 통지에 의하면 현 소장 吳在淵(오재연) 씨는 광주지점으로 전출되었으며 후임에는 광주지점 梁富昌(양부창) 씨인데 梁(양) 소장은 제주영업소장으로 있다가 광주로 전출했던 것이다.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60. 2. 17.

不問(불문)에 부치기로 地檢(지검), 南電(남전) 不正(부정) 수사결과

남전 當地(당지) 영업소에 대한 사라호 태풍피해 복구비 부정처분 협의를 究明(구명)하여 오던 지검은 수사결과를 검토한 끝에 범죄혐의가 희박하여 불문에 부치기로 落着(낙착)하였다. 얼마 앞서의 지검의 수사결과로는 복구비의 약 1할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정처분한 것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지검의 고위간부가 愼重(신중) 검토결과 經理上(경리상)의 矛盾(모순)이 회사 자체 내에서 회사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문에 부친 것이다.

不問에 부치기로
地檢、南電不正搜査結果

南電當地營業所에對한 사라號颱風被害復舊費不正處分嫌疑를究明하여오던 地檢은 搜査結果를 檢討한끝에 犯罪嫌疑가 稀薄하여 不問에부치기로 落着으로計劃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는데 道財政으로서는 이를補助할만한豫算도 없거니와 當該市邑面으로서도 負担키難한 財政實情인것이라한다 全국的一億余圓의豫算으로 오農漁村設置事業은三年계에들어설만한 事業인데 道財政으로서 報償當局의 無計劃的 施策으로 實現性이

種苗受配
椎茸接

今年度道內椎茸栽培事業은 栽培業者들이 負担하기로되어있는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60. 3. 14.

安德(안덕)에도 전등불
모슬포발전소부터 가설공사에 착수

오랜 세월 동안 석유등불로 살아온 安德面民(안덕면민)들은 앞으로 환한 전등불을 보게 됨으로써 명랑한 農村(농촌) 面貌(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安德地方民(안덕지방민)의 오랜 숙원인 전등시설 사업은 얼마 전 남전 목포지점장의 支認(지인)을 얻어 지난 3월 2일부터 그 가설사업에 착수함으로써 그 실현을 보게 된 것이다.

이 가설공사는 이웃 南電(남전) 모슬포출장소의 전원을 사용키 위한 안덕면까지의 케-블 시설과 전등가설공사인데 우선 제1차로 면사무소, 중학교, 국민학교. 우체국, 면민관 등의 공공시설과 여관, 병원, 교회, 일반 민가 등 100여개 소에 전등이 달아지게 될 것이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약 5백만圜(환)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거 서귀포 발전소가 중문면과 안덕면을 거쳐 모슬포 일대에 전력을 공급할 때 中文面(중문면)에는 가설되고 安德面(안덕면)만은 전력수용 능력이 없다는 이유에서 전등가설허가를 받지 못하여 버림을 받았던 것이다.

安德에도 電燈불
架設工事에着手
浴湯短簡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60. 3. 24.

전기해결책 건의
道會(도회) 과반수 의원이 발의

도의회 高柄孝(고병효) 의원 외 7명은 23일 악화일로에 있는 제주시 전력사정 급속 해결을 관계요로에 건의할 것을 발의하였다. 동 발의내용에 의하면 제주시 발전시설은 5년 전 "언크라" 원조에 의해 250㎾ 발전기 3대를 시설하고 있으나 출력량은 450㎾에 불과하며 반면 수요량은 激增一路(격증일로)이어서 부득이 지역별 정전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정인데 발전기 3대 중 1대는 예비 台(대)로 平常(평상) 사용을 안 하고 있고 사용 중인 2대는 수명이 다 되고 있어 이대로 간다면 머지않아 암흑세계를 면치 못할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해결대책으로 우선 예비 台(대)를 운행하여 停電制(정전제)를 철폐하고 한편 運休(운휴) 중인 제주주정회사 발전기를 남전으로 하여 인수사용토록 관계기관에서 이의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요청하는 것이다. 또한 이와 동시에 항구적인 전력사정 해결을 위해서 御乘生(어승생)의 天然(천연)수력을 활용하는 수력발전시설을 추진하여 줄 것도 요청하고 있다.

電力解決竅建議

道會過半數議員의發議

12個發議案

本會서報告

새달 21日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60. 3. 26.

道會(도회) 전력대책을 건의
酒工(주공) 것 운전, 수력발전

도 의회는 輪番制(윤번제) 송전 등 악화일로에 있는 제주시의 전력사정을 급속히 해결해 달라는 건의문을 상공부장관과 남전 본사, 제주출신 3民(민)의원 등 관계요로에 건의키로 결의하였다.

동 전력사정을 호소하는 건의는 24일의 4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는데 건의내용에 의하면 제주시는 현재 250kW의 발전기 3대를 보유하여 그중 1대는 예비용으로 비치하여야 함으로 두 대를 돌리고 있으나 인구의 자연증가와 산업면에의 수요량 증가로 100kW나 부족한 사정이며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4일에 한번씩 지역별 정전을 단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 需要家(수요가)의 요청에는 도저히 응하지 못하고 있는 터로 현재 제주주정회사에서 놀리고 있는 1,300kW 출력 발전기를 남전이 인수하여 수요에 應(응)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 산업개발 등 원대한 제주발전을 위하여 한라산 어승생을 수원으로 한 수력발전시설을 이룩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도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력발전기는 모두 1,200kW로서 86년 6월에 엉크라 원조로 시내에 200kW 3대, 한림 160kW 1대, 모슬포 100kW 1대, 서귀 100kW 1대(서귀는 화력 외에 수력발전 130kW 1대 보유)를 시설했었다. 그런데 남전 측에 의하면 지방만은 아직 수요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시는 위와 같이 急迫(급박)한 현실에 놓여있다 하며 더구나 발전기는 3대를 교체하면서 運營(운영)하고 있으나 발전기가 노후상태에 이르러 기능 일부가 매우 저하되고 있다.

電力對策을 建議
酒工及運轉·水力發電
本道境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60. 5. 29.

激增(격증)하는 수요, 모자란 전력
남전, 발전기 3대를 총 동원

當地(당지) 남전에서 알려지고 있는 바에 의하면 近間(근간) 적지 않은 盜電(도전)과 高燭(고촉)사용으로 인하여 전력사정에 새로운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한다. 근래 도시적인 면모를 갖추어 가는 제주시는 그에 상당한 문화수준의 급격한 상승으로 필연적으로 전력 이용도가 높아감으로 인한 전력사정 해결에 當地(당지) 남전에서는 그 수요에 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바, 前記(전기)한 難關(난관)도 이런 데서 결과한 것으로 當地(당지) 발전소의 시설용량은 250㎾ 엔징 3대, 총 출력량은 750㎾인데 중앙에서의 출력허용량은 시설용량의 반에 해당하는 375㎾라 하며 이제까지 평균출력량은 300㎾이었던 것을 수요실정에 비추어 주간에 200㎾, 야간에 600㎾란 사내의 出血(출혈)을 내면서 각각 출력하여 왔던 것이다. 근간에는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수요량의 증가로 인하여 250㎾ 엔징 2대를 가지고 상시 운전하여 평균 400㎾ 출력량을 공급하여야 될 것이나 부득이 동 발전소 시설 全(전) 臺數(대수)인 3대를 今月(금월) 26일부터 무리 운전하여 시설용량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라 한다. 발전소측의 말에 의하면 출력 全量(전량)의 절반은 허용출력량으로 정하는 이유는 만일의 경우 기계 고장 등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규정에 의해서 시행해 온 것이라는 바 앞으로 수요가 다시 격증하여 3대의 전 출력량으로도 감당 못할 경우나 有故時(유고시)는 全(전) 시민의 불편을 각오해야 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당지 梁(양) 남전소장은 盜電(도전)과 高燭電熱(고촉전열) 사용에 있어 규칙을 지켜줄 것을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激增하는需要, 모자란電力
南電, 發電三台를總動員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60. 5. 29.

남전, 창고 턴 진범 逮捕(체포)

濟州署(제주서) 형사대는 27일 南電(남전)창고 도난사건의 진범 黃○○(황○○, 當(당) 21년, 전남에 본적을 두고 주거 불명자)과 李○○(이○○, 당 18년, 본적은 황해도 주거는 건입동) 兩(양) 君(군)을 체포 구속하였다.

黃(황), 李(이) 양군은 金○○(김○○, 당 18년, 미체포)과 梁○○(양○○, 당 19년) 등과 공모하여 西埠頭(서부두)에 있는 남전 부속창고에 두 차례나 침입하여 그 창고에 진열되고 있는 발전기 부속품, 온도계 등 시가 100여만圜(환) 상당의 것을 절도한 것이다.

지난 3월 말일경 상오 7시에는 철사로 열쇠를 만들어 창고문을 解錠(해정) 침입해서 다미나루 155개 = 시가 15,000여圜(환) 상당의 것을, 지난 4월 20일 하오 10시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온도계 100점 등 시가 120여만환 상당품을 竊取(절취)한 것이라 한다.

그런데 공범자 2명의 체포도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南電倉庫 털 眞犯逮捕
東萊園藝高 修學旅行團
一中卓球部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60. 8. 24.

시 수도 오늘 아침부터 급수

남전의 단전으로 인해 22, 23 양일간에 걸쳐 급수가 중단되었던 시내 수돗물은 오늘 아침 5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 어제 시 건설당국에 의하면 전력이 단절되면 수원지로부터 저수지까지의 양수가 불능한 까닭으로 부득이 급수를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市水道 오늘 아침부터給水
南電의 斷電으로因해
二十二 二十三兩日에걸쳐 給水가中斷되었던市內水道물은 오늘아침五時부터 나오기始作한다
어제市建設局에依하면 電力이斷絶되면貯水池로부터 水源地까지의揚水가 不能한까닭으로 不得已給水하지 못하게되는것이라고 말하였다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60. 8. 24.

全道(전도)가 단전상태
市(시), 어제 하오 6시 반부터 송전

22일 본도에 上陸(상륙)강타한 태풍「칼맨호」로 인하여 22일 하오 1시 40분부터 단전 22일 밤은 市(시)를 비롯하여 全道(전도)가 암흑세계가 되었다.

제주시를 비롯하여 서귀포, 모슬포, 한림 등 4個地(개지)에 발전소를 保有管轄(보유관할)하고 있는 當地(당지) 남전출장소에서는 今般(금반) 태풍이 前記(전기) 4개 지구의 송전시설을 파괴하여 송전을 불능케 하고 있다 하면서 현재 全(전)직원이 총동원되어 이의 早速(조속) 보수공사에 착수하고 있다하며 제주시는 일부지구의 송전시설이 복구되는 대로 23일 하오 6시 반부터 송전될 것이다.

그런데 태풍「칼맨」호로 인한 남전 자체의 被害額(피해액)은 현재 조사를 하고 있다 한다.

1960. 8
全道가 斷電狀態
市、어제下午六時半부터送電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60. 8. 24.

한림 송전은 1주일 후에나

「한림」22일 오후 1시경부터 한림읍 일대를 휩쓴 태풍으로 인한 가옥 피해 상황은 다음과 같다.

△ 한림지서 청사 지붕 4평 파손 및 유리창 4개 파괴

△ 서부수리조합 양수장 가옥 1동 전파

△ 農銀(농은) 한림출장소 창고도단 7매 파손

한편 남전 한림 출장소에 의하면 전기송전은 가설수리 관계로 약 1주일간 중단될 것이며 한림 우체국에서는 전화국에서 전선수리가 되는 대로 불통되고 있는 전화는 개통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60. 8. 25.

南電(남전)피해 350만?
전주도괴 등 더 드러날 듯

어제 남전 측에서 대략 집계한 것을 보면 제주시를 비롯하여 서귀포, 모슬포 한림 4개 등지를 통털어 피해복구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약 350萬圜(만환)으로 추산되고 동 공사에 소요될 시일은 10여일을 要(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市(시) 관내는 23일 이른 아침부터 직원이 송전시설의 복구공사에 착수코 건입동과 一徒洞(일도동)의 송전은 23일 하오 6시부터 시작되었고 이외의 지구는 昨(작) 24일 저녁부터 전부 송전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今般(금반)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것은 전주인데 全道(전도) 일원의 24일 상오 현재 피해집계는 전주 29본, 소전주 40본, 고압애자 50개, 저압애자 150개 등 외에 상당량을 나타내고 있다.

南電被害 350 万圜
電柱倒壞等 더드러날듯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60. 9. 6.

10일간 격일 송전
발전기 고장수리로

當地(당지) 남전 영업소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발전소의 발전기 고장으로 인하여 발전기가 수리될 때까지 昨日(작일) 하오 8시부터 14일까지 10일간 구역제한 송전케 되었다 한다.

제한송전 방법은 시내 일원을 2구역으로 나누어 南門線(남문선)(南門通(남문통) 일대)은 昨日(작일) 송전을 續行(속행)하고 금일은 西門線(서문선)을 續電(속전)할 것이라는 바 14일까지는 격일제로 송전하게 되며 特線(특선)은 今般(금반)의 제한송전에서 제외된다.

10日間隔日送電
發電機故障修理로
1960 9 6
當地南電營業所에서 알려진바에依하면 發電所의發電機故障으로 因하여 發電機가修理 될때까지 昨日下午八時부터 十四日까지 十日間 區域制限코送 電케되었다한다 制限送電方法은 市 內一圓을 二區域으로 나누어 南門線(南門通一帶)은 ××日 送 電을續行하고 今日은 西門線을 續電할것이 라는바 十四日까지는 隔日制로送電하게되며 特線은今般의制限送電 에서除外된다
李前警察局長 四日急히 離道
三日字로 治安局勤務、無補職)發令을받은 前警察局長李榮根氏는 四日 KNA便으로 急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60. 9. 15.

전기사정 大危機(대위기)에, 越冬(월동)에 過用(과용) 必至(필지) 곧 터지고 말 750㎾ 全稼動力(전 가동력)

格증될 越冬(월동) 전력의 걱정에 當地(당지) 남전에서는 그 대책에 부심하고 있고 출력한도를 넘는 수요에 被綻(피탄)까지도 우려하고 있거니와 이것이 UNKRA 원조로 750㎾ 발전기를 시설한 지 만 4년이 불과했는데 일어난 문제인 만큼 本道(본도) 전력개발의 근본적인 검토와 행정당국 및 出身(출신) 국회의원들의 合力(합력)이 경주되어야 할 중대한 국면에 처했다 할 것이다.

문제의 중대성은 제1차 산업인 원료생산업에서 제2차 산업인 제조가공업에의 발전에 필수인 동력원의 확보는 곧 본도 산업의 차원을 제고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인 바 1956년(단기 4289년) 6월 UNKRA 원조로 250㎾ 출력발전기 3대를 시설 완료한 후 현재까지의 전력수급상을 보면 당시 220㎾ 정도를 市內(시내) 배전하던 것이 1년 후에는 400㎾로 배증 57년(단기 90년)에는 500㎾ 현재 600㎾를 공급치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인가된 상시 출력한도 375㎾를 훨씬 넘는 것이다. 당시 220㎾를 배전하던 남전에서는 이 상시 출력을 배전케 되기까지는 5개년 소요되리라고 보았는데 그만큼 잠재 수요전력이 많았던 점에 놀라고 있거니와 현재 수용신청을 극도로 억제하고 있으나 동절기에 필연코 있을 전열사용을 위한 도전 등 과용현상으로 쉬히 800㎾ 돌파할 터인데 그리되면 750의 전 가동력은 터지고 마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당지 남전발전 담당자는 현재까지도 750㎾의 상시출력 400㎾를 넘는 무리한 운전 위에 일정한 보수 기간을 놓아야 하는 것을 그 부속품은 미국에서만 얻어오는 것이며 그것을 벌써 2년 전에 주문했는데 연내에 들어온다고 하는 정도의 불편 때문에 그 기간을 놓쳐 요전에는 1대 운전 중지를 부득이하는 말하자면 겨우 겨우 돌리고 있는 형편인데 「앞으로 월동할 것을 생각하니 막연할 따름」이라고 말하고 있어 생활화한 전력소모는 억제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인 만큼 이 위기를 타계하는 데 행정당국이나 남전 자체에 어떤 획기적인 시책이 있지 않는 한 시민의 겨우살이는 암흑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신문
1960. 9. 15.

電力事情大危機에!

越冬에 過用必至

곧허지고말750KW全稼動力

死亡八로막아낸腦

濟大趙敎授被評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60. 9. 16.

전력안정의 모색
御乘生(어승생) 수력 현안 재연, 당면책으론 주공시설 활용

겨울철을 앞두고 過電(과전)한 발전수요가 必至(필지)이고 그 荷重(하중)을 감당치 못할 위기(昨報(작보))는 시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하는 것이고 그만큼 본도의 제반분야의 발전을 저해하고 퇴보를 면치 못하게 하는 것인 바 이에 대한 검토가 전문측에서 가해지고 있고 그에 의하면 본도의 發電(발전)의 역사상 잊혀져 오던 주정공장의 1,400㎾ 발전시설 그리고 일제와 6·25 이전에 검토된 바 있는 어승생수력발전 계획이 검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주정공장이 月(월)내로 조업을 시작하리라고 전해짐과 때를 같이하여 일어난 想起(상기)된 그 1,400㎾ 발전시설은 해방 후 70㎾의 當地(당지) 남전 화력발전시설로 수용을 채우지 못한 뒤 4289년(1956년) 5월 말까지도 동 공장소요분 150㎾ 정도 외에 여유있는 전력 150㎾ 정도를 송전받아 남전은 시내 배전을 해 온 것인 바 UNKRA서 당지에 750㎾를 시설되자 전력을 안 사게 되고 이어 주정공장 자체가 가동 불능상태가 된 채 현재에 이르른 것인데 그간의 전력에 대한 값을 남전은 K당 75원 정도로 남전 자체발전의 K당 30원보다 훨씬 비싼 「코오스트」를 치루지 않으면 안 되어 이 때문에 당시 상공부에서 검사관이 와서 K당 단가사정을 했어야 했던 만큼 주정발전단가는 비싼 것이어서 남전 측과 분규가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비싸게 단가가 먹히는 이유를 주정공장의 「보일러」시설(200㎾ 출력보일러 3대)이 극히 연료효율이 낮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석탄을 연료로 하는 관계도 있고 해서 현재 그것으로 발전한다면 K당 50원 정도 먹히기 마련이라는 바 현재 남전의 발전코스트 K당 31원 정도에 비하면 훨씬 비싼 값으로서 그것으로 배전하는 때의 차손은 막대한 것이 된다는 것이다.

결국 UNKRA 원조의 현 발전시설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不遠(불원) 조업개시로 주정의 발전력을 배전하고 싶으나 코스트 문제로 적자는 부득이한 것이고 그렇다고 법령에 의해(전력사업법령) 남전 외에 배전사업은 못하게 되었고 所定(소정)요금 이상을 징수치 못하게 돼 있는 二律背反(이율배반)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서 착안된 것이 4276년(1943년 일제 시)에 남전이 全南知事(전남지사)에게 허가신청한 바 있고 또 유해진 知事(지사) 당시 도 당국에 의해 계획 추진한 바 있는 어승생 수리사용 발전계획의 재추진인 것인바 1952년 본도 부흥5개년계획 제2차년도의 사업으로 계획되었고 1958년에 정부의 본도개발계획으로 채택되어 동년 5월에는 상공부 전기국관계관이 내도 현지 답사까지 해간 채 현재까지 미루워진 것인데 去般(거반) 梁(양) 지사는 신정부에 요망사항으로서 추천한 바 있거니와 남전 측에서도 4개월 전에 當地(당지) 출장소에 동 건을 조사보고토록 한 것으로 보아 전국적인 전력 발전의 일환으로 着目(착목)된 것임을 짐작하고 있으나 중앙지의 보도에 의하면 USOM(Unite States Operations Mission, 미국대외 원조단)은 수력발전에 대해 남북통일 되는 때의 압록강 수력의 방대한 전력으로 그 소용이 없어질 문제라 하여 난색을 보이고 있다는 바, 섬인 본도는 그와는 상관이 없고 수단 방법은 姑捨(고사)하고 發展(발전)의 기초인 동력확보는 영원불변의 과제이므로 이의 달성에 도민의 전 관심이 모여지는 바라 할 것이다.

일제 시의 계획에 의하면 市(시) 海安洞(해안동) 소재 어승생岳(악)의 南谷(남곡)의 都近川(도근천)

제주신문
1960. 9. 16.

水系(수계) 上流(상류) 瀑布(폭포)(속칭 어리목)를 막아 수로로 끌어서 578米余(미여)의 철관으로 導水(도수)코 당시 200米(미)의 낙차를 마련코 최대 600㎾ 평균 300㎾ 당시 150㎾의 발전을 꾀하게 되는 것인 바 그 전공사비는 약 4억余(여)로 계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250㎾ 3대의 제주발전소의 시설소요경비인 弗貨(불화) 511,000弗(불)(1000 : 1)과 한화 2억4천4백만원 卽(즉) 한화 환산 7억5천5백만원 상당액과 그 4년간의 연료비 經油(경유) 日當(일당) 5시간 운전 계산의 월소요량 2백余(여) DIM의 대금 1억1백6십여만원만을 합쳐 8억5천6백여만원이 되는 것인바 수력의 연료 무상인 점과 勘考(감고)할 때 반개년이면 완성될 동 수력이용은 반드시 언젠가는 착수되어야 할 사업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다.

當地(당지) 남전기술 측에 의하면 동 발전소의 무리한 운전에 대해 심한 憂色(우색)을 보이고 있는데 우선 조속한 시일 내의 전력문제의 당면 해결책은 주공의 1,400㎾의 기능인 상시출력 1,000㎾를 今冬(금동)의 시내 소요인 800㎾와 주공 자체소요인 150㎾로 합 950㎾의 공급에 동원될 것이 바래지는 것으로 주공의 가동개시가 목전에 있고 그 코스트의 소용은 주공이 맡거나 남전이 맡거나 동일한 바에는 남전에서 비효율적인 동 보일러를 디이젤이나 더 큰 보일러로 바꿀 복안이 있는 만큼 주공의 자가발전시설과 그 부지가 남전에 이양되면 남전은 코스트 저하책의 공사를 가하고 주공 수용분을 배전해 주면 여력을 시내 배전에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라 한다.

어떻든 전력문제는 비단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도 당국이나 민의를 반영하는 뜻에서 시급히 전 도민이 관심되어져야 할 일이라 할 것이다.

제주신문
1960. 9. 16.

御乘生 水力懸案再燃

當面策으론 酒工施設活用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60. 9. 28.

허탕친 55억 要望(요망), 어승생 수력발전도 遼遠(요원)
明年(명년)도 예산에 하나도 편입 안 돼

도 당국은 신정부 수립 후 처음 편성되는 명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55억원 예산의 39개 항목에 관한 요망사항을 정부 각 부처에 제출한 바 있으나 예산편성에는 1개 항목도 계상이 안 되고 다만 관광사업부문과 어승생 발전소 시설면에 대해서 행정상 參酌(참작) 또는 기회 있는대로 추진하겠다는 정도의 回示(회시)를 상공, 교통 兩部(양부) 장관으로부터 접수하고 있을 뿐이다.

1백 페이지에 달하는 책자로 된 동 요망사항은 지난 8월 29일 梁(양) 지사가 직접 정부 6개 각 부처에 進達(진달)한 것인데 前記(전기)와 같은 回示(회시)로 보아 명년에는 1개 항목의 실현도 가망이 없는 형편이며 당국은 여러 가지 부문의 사업을 나열하고 있으나 回示(회시)가 있는 항목에 대하여서만이라도 그 달성에 誠意(성의) 있는 절충이 바래지고 있는 것이다.

回示(회시)가 있는 요망사항 내용은 상공부문사업으로 제주시 西南方(서남방)에 위치한 海安岳(해안악) 天然瀑布水(천연폭포수)를 이용한 수력발전시설과 교통부문사업으로 시 관내에 건평 1백평의 관광호텔 신축 경비 예산 6천만원의 국고보조 依賴(의뢰)이다.

1960. 9. 28
허탕친「55億要望」
御乘生水力發電도遼遠
明年度豫算에 하나도編入안돼
投身自殺未遂
칼든二人覆面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60. 11. 28.

張(장)총리 來道(내도) 促求(촉구)
제주-목포 해저전선 등 추진 洪(홍) 의원 상경 談(담)

민주당 收拾(수습) 改編(개편)차 귀성 중이던 洪文中(홍문중) 의원은 어제 상경에 앞서 張(장)총리 來道(내도)를 촉구하겠다고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한번도 본도를 방문한 적이 없는 장 총리를 來道(내도)하도록 촉구하여 이곳을 직접 보아서 실적을 알리고 국정에 반영해 달라는 한결같은 도민의 뜻을 관철해 볼 생각이다. 또한 장총리의 來道(내도) 與否(여부)은 도민을 위안하고 격려하는 데에 큰 도움이 있으리라고 믿어 간곡히 上申(상신)해 볼 생각이며 본도 개발에도 寄與(기여)해 주도록 極力(극력) 간청하고 노력하겠다.」

이 밖에 홍 의원은 오천만원 예산의 제주우편국 신축 및 제주-목포간 해저 전선가설문제를 비롯해서 郵便遞送機(우편체송기) 往來(왕래) 等(등)을 명년 예산에 책정되도록 정부에 반영하겠다고 말하였다.

張總理來道促求
海底電線等推進
部次長選定
翰林邑廳舍
竣築完工
月刊誠會報
學生들의 눈과 귀
聞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60. 12. 8.

송전 大幅(대폭) 制限(제한)

일반선 - 하오 5시 ~ 동 8시
특선 - 하오 5시 ~ 상오 8시
급수는 상오 7시로 11시까지

남전은 輕油(경유)가 떨어져 어제(7일) 밤부터 시내 전역에 걸쳐 일반선과 특수선의 송전시간을 대폭 축소 배전하고 있다.

남전의 이러한 사정은 日氣不順(일기불순)으로 인하여 육지에서 유류를 적재한 수송선이 입항치 못하고 있는 데 기인하고 있는 바 날씨가 풀어지는 대로 유류가 입하할 것으로 보아 배정유가 도착되는 즉시 배전은 종전대로 환원될 것이다.

그런데 남전은 어제 석유저장소의 경유 재고량인 33드람을 긴급 借入(차입)하여 축소된 송전시간에 따라 12일까지의 6시간 이에 충당하고 있는데 만일 12일 이후까지 일기가 계속 악화될 경우 시내전역은 완전히 단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축소된 시내의 송전시간은 다음과 같다.

특수선 - 하오 5시부터 익일 상오 8시까지(주간은 단전)

일반선 - 하오 5시부터 동 8시까지(종전은 11시까지)

한편 시당국에 의하면 송전제한에 따라 수도 급수시간도 오늘부터 전기사정 복구시까지 상오 7시 ~ 동 11시 네 시간으로 제한된다 한다.

送電大幅制限
…一般線…下午五時ㅣ同八時
…特線…下午五時ㅣ上午八時
…給水는 上午七時로十一時까지
浮浪
주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60. 12. 9.

송전제한 완화될 듯
경유 우선 60드람 입하

12월분 배정량 경유가 입하 지연됨에 따라 남전에서는 송전을 제한함으로써 시민의 적지 않은 불편을 자아내고 있거니와 도 당국은 이의 해소책을 강구키 위해 유류의 조속 입하와 남전과의 절충이 서둘러지고 있어 금명간 전기사정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어제 도당국에 의하면 동 경유를 적재한 선박이 日氣不順(일기불순)으로 航海(항해) 도중 慾知島(욕지도) 부근에서 고장을 일으켜 부산에 돌아가게 되어 현품입하가 지연된 것인데 남전의 경유재고량을 參酌(참작)코 수송측인 석유회사와의 긴밀한 연락 하에 어제 입항한 平澤號(평택호)편으로 우선 60드람의 현품이 입하되었다 하며 나머지 290드람의 전량도 2, 3일 내로 입하가 가능한 만큼 송전제한은 쉬이 해소될 것이라 한다.

그리고 來月(내월) 초부터 현품 입하시기인 10일까지의 부족 경유에 대해서는 增配要請(증배요청)을 절충키 위해 주무직원이 금명간 상경 예정이라 한다.

한편 시건설 당국자는 수도 급수량이 정상화 될 때까지 시내의 각 수도 사용자는 하루의 음료수 수요량을 상오 7시부터 9시까지 공급받도록 요망하면서 수돗물의 절약을 촉구하고 있다.

그런데 시의 수도 揚水(양수)는 밤 11시부터 익일 상오 7시까지 8시간에 한해 조업케 되어 양수량은 1일 1,500톤의 수요량에 대해 약 800톤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同(동) 당국자는 부언하였다.

送電制限緩和될듯
輕油于先60드람入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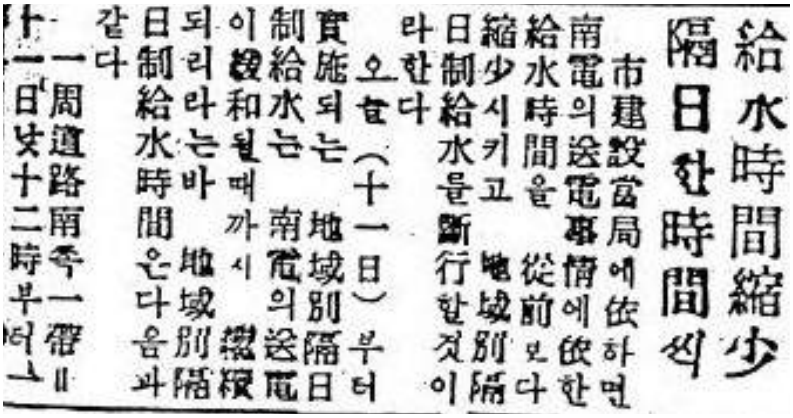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60. 12. 11.

급수시간 축소, 격일 한 시간씩

시 건설당국에 의하면 남전의 송전사정에 의한 급수시간을 종전보다 축소시키고 지역별 격일제 급수를 단행할 것이라 한다. 오늘(11일)부터 실시되는 지역별 격일제급수는 남전의 송전이 완화될 때까지 계속되리라는 바 지역별 격일제 급수시간은 다음과 같다.

일주도로 남쪽 일대= 11일 낮 11시부터 1시


給水時間縮少
隔日한時間씩
市建設當局에依하면
南電의送電事情에依한
給水時間을從前보다
縮少시키고地域別隔
日制給水를斷行한것이
라한다
오늘(十一日)부터
實施되는地域別隔日
制給水는南電의送電
이緩和될때까지繼續
되리라는바地域別隔
日制給水時間은다음과
같다
一周道路南쪽一帶 ‖
十一日낮十二時부터一

△해당 기사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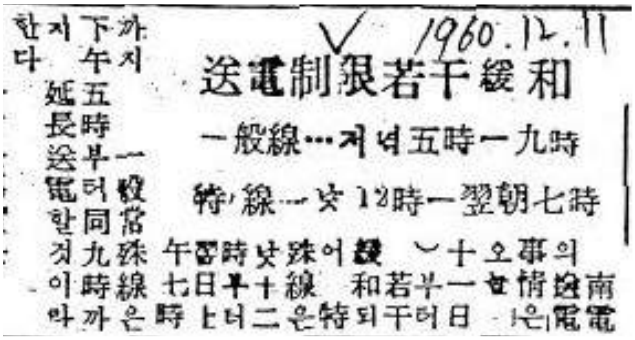
제주신문
1960. 12. 11.

송전제한 약간 완화

일반선 - 저녁 5시 - 9시
특수선 - 낮 12시 - 翌朝(익조) 7시

남전의 송전사정은 오늘(11일)부터 약간 완화되어 특수선은 낮 12시부터 익일 상오 7시까지 一般常殊線(일반상수선)은 하오 5시부터 동 9시까지 연장 송전할 것이라 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어제 남전에 의하여 밝혀진 것인데 12월 배정경유 350드람이 입하지연으로 지난 7일부터 대폭 제한되고 있던 송전은 漸次(점차) 日氣(일기)가 回復(회복)됨에 따라 유류수송이 순조로와지는 데서 취해진 송전조치라 한다.


1960. 12. 11
和緩干若限制送電
一般線…저녁五時一九時
特線一낮12時一翌朝七時
南電은 오늘부터 一般常殊線은 하오五時부터 동九時까지 연장 송전할 것이라 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어제 남전에 의하여 밝혀진 것인데 12월 배정경유 350드람이 입하지연으로 지난 7일부터 대폭 제한되고 있던 송전은 漸次 日氣가 回復됨에 따라 유류수송이 순조로와지는 데서 취해진 송전조치라 한다.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60. 12. 11.

전기사정 不日(불일) 호전
경유 增配(증배), 15일頃(경) 입하

남전은 경유 배정량 부족으로 인하여 제한송전을 실시하고 있는데 1월분 경유 배정이 충족케 할당됨으로써 악화된 전기사정은 不遠(불원) 소멸될 것이다.

어제 도 산업당국에 의하면 남전은 매월 450드람의 경유로써 수요량의 송전을 담당하고 있는 바 지난달(12월분)에는 도에 할당된 전량이 342드람에 불과하여 제한송전은 부득이한 것이었으나 어제 할당된 1월 配分定量(배분정량)이 524드람으로 增配(증배)됨으로써 송전용으로 충당하고도 74드람이 남아돌아가게 되어 이를 기타 산업부문에 할당할 것이라 하며 현품은 오는 15일부터 20일 於間(어간)에 입하될 것이라 한다.

그런데 1월분 유류 배정량은 다음과 같다. (괄호 내는 전월 배정량)

△ 휘발유 - 986드람(828드람)
△ 등유 - 555드람(555드람)
△ 경유 - 524드람(342드람)
△ 중유 - 237드람(238드람)

電氣事情不日好轉
輕油增配、15日頃入荷
凍死者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61. 1. 13.

전기사정 내일부터 정상화
오늘밤까지 경유 입하

경유 배정량 부족으로 제한송전을 실시하고 있는 전기사정은 금명간 정상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어제 도 산업당국에 의하면 1월분○ 道(도) 定量現品(정량현품)이 미국 본국에서 수송 지연되어 왔으나 울산저장소에서 타도의 보관유를 400드람 차용하고 지난 9일 인수작업을 완료 풍파로 인하여 부산항에서 출발 못하고 있는바 일기가 호전됨에 따라 13일 밤까지는 입하가 가능하므로 14일부터는 전기사정이 정상화 될 것이라 한다.

電氣事情 내일부터 正常化
오늘밤까지 輕油入荷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61. 1. 15.

제한송전 대폭 완화

특선은 12 ~ 翌朝(익조) 7시 일반선은 10시까지
급수는 每朝(매조) 7시부터 한 시간

1월분 경유 배정량이 속속 입하됨으로써 전기사정은 거의 원상회복케 되었다.

도 산업당국에 의하면 경유 524드람의 현품 인수작업을 14일 완료하고 금명간 입하케 되고 있다 하며 어제 입항한 평택호편으로 50드람이 우선 수송되어 옴으로써 남전은 이날 밤부터 특선을 익일 아침 7시까지 송전하고 일반선은 10시까지 송전케 되었다 한다.

그런데 오늘부터 특선은 낮 12부터 翌朝(익조) 7시까지 송전된다.

한편 시 당국에서는 송전사정으로 단수되었던 급수를 오늘(15일) 아침부터 매일 7시~8시 한 시간 실시한다.

制限送電大幅緩和
特線은12時 一般線은10時까지
給水는 每朝七時부터한時間
李君屍体引受
高大隊身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61. 3. 18.

전력 근본대책 추진
道(도) 재정 緊縮(긴축)은 부작용 없을 정도로, 康(강) 지사 회견 談(담)

16일 상오 康(강) 지사는 본 도민에게 큰 衝擊(충격)과 물의를 이르켜 놓은 浮浪兒(부랑아) 本道集團收容說(본도집단수용설)에 대해 如斯(여사)한 계획도 확인되고 있지 않으나 그게 事實(사실)이라면 대단히 위험하고 무모한 처사가 될 것이며 절대 반대해야 된다고 소신을 밝혔다.

출입기자와의 회견석상에서 이와 같이 말한 강 지사는 來道(내도) 중인 朴(박) 보사부(保社部) 정무차관도 현지실정을 파악하고 난 다음 보사부서 한때 구상한 바 있는 집단수용지로서 부적당하다는 데에 자기와 똑같은 의견을 표명했음을 지적하고 동 계획은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康(강) 지사는 17일 후생시설 부식대 지불이 사무처리의 태만으로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하여 卽刻(즉각) 수배 해당자에게 지급토록 하라는 엄명을 내렸음을 밝혔다.

도의 긴축재정 집행의 여파는 심지어는 사무용지 한 장의 구입마저 여의치 않게 하고 있으며 직원의 출장마저 제한받는 형편에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전혀 듣기가 처음이라고 말하고 난 다음 복지사업면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반사무비 예산을 삭감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은 사실이나 행정면에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을 정도로 악영향이 미치고 있지 않다고 말하였다.

또한 康(강) 지사는 3.15 당시 獎學士(장학사)에 대한 인사조치는 고려해 본 바 없다고 짤라 말하였으며 악화된 전력사정의 임시 해결조치로서 제주주정측의 잉여전력을 남전 측과의 협의를 주선하여 일반시민의 송전제한으로 인한 불편을 제거할 것을 고려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남전 측의 발전기의 도입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만 말하여 별로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다.

電力根本對策推進
道財政緊縮은 副作用 없을 程度
海女引率權다툼판가름注目
道頭二洞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61. 3. 21.

1,200㎾ 발전기 도입 추진
전력 대책 간담회서 합의

극도로 악화된 제주시의 전력대책을 모색키 위해 20일 제주시가 주관한 관계기관장 간담회서는 방금 정부에서 도입계획인 1,200㎾ 발전기를 배정받도록 추진할 것에 합의하였다.

20일 하오 1시부터 시장실에서 열린 同(동) 회의에는 도, 시, 남전, 주정공장 그리고 언론기관 등 대표 10여명이 모인 가운데 당면한 전력난을 해소키 위한 隔意(격의)없는 의견교환이 있었는데 同(동) 會合(회합)서는 현재 收支面(수지면)으로 운영난인 남전실정에 비추어 발전회사인 朝鮮電業(조선전업) 진출과 주정공장의 剩餘(잉여)전력 공급 그리고 1,200㎾ 발전기 도입을 위해 도, 시, 남전 당국자의 공동추진단을 중앙에 파견키로 합의하고 하오 3시 散會(산회)하였다.

1200 KW 發電機導入推進
電力對策懇談會서合意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61. 3. 21.

기자석

「사람은 한국인과 외국인 간에 宮合(궁합)이 맞일 수 있는데 기계부속만은 안 맞아 곤란이거든…」
이 말은 어제 시에서 열린 전력난 완화 간담회 석상에서 시장 金次鳳君(김차봉군)이 뇌까린 句節(구절)인데 현재 남전은 3대의 발전기가 노후되어 부속품이 뜻대로 도입 안 되어 3대 중 2대만이 교대로 가동하고 있다는 남전실정이 밝혀지자 金君(김군)은 이에 대한 비유를 낭만적으로 표현한 模樣(모양)인 듯…
그런데 인간은 기계와 달라 영혼을 지녔기에 부속품 組方(조방)하듯이 함부로 맞지 않겠지…

記者席

附屬品만은안맞아困難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61. 3. 31.

새발전기 配當(배당) 難望(난망)
1,200㎾짜리 부산에 확정돼 버려

날로 악화되어가는 제주시의 전력문제는 새로 도입되는 화력발전기(1,200㎾)가 본도 배정이 안 됨으로써 노후된 현 발전기를 보수 발전케 할 궁지에 놓여있다 한다.

지난 23일 발전기 도입 추진차 金(김) 도산업국장, 남전 高(고) 발전주임과 같이 상경코 30일 귀임한 金(김) 부시장에 의하면 새로 도입되는 발전기 5대는 전력부하량이 가장 많은 부산에 전력을 증강키 위해 부산 甘川(감천)발전소에 배정되어 본 도까지는 발전력이 미치지 못한 실정이라 한다.

그러나 김부시장은 앞으로 2년 후에 십만㎾의 발전시설이 甘川(감천)에 설치되면 1,200㎾의 발전기는 제주시로 이설키로 정부 전력당국자와 합의를 보았다 한다.

한편 상공부 당국은 현재 3대 발전기의 항시 가동을 촉구하고 있다 하며 노후된 부속품 등이 곧 도입되어 수리되면 어느 정도 전력사정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새發電機 配當難望
1,200㎾의 釜山에 確定돼 버려
本道不正 選舉關係 첫公判開延
30日下午特裁大法廷서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61. 4. 2.

현재 발전기를 수리
사전 조사차 중앙서 두 기술자 입도, 金(김)산업국장 歸任(귀임)

1,200㎾의 발전기 유치문제는 그 가망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거니와 전기문제를 절충하기 위하여 상경했다가 어제 귀임한 김산업국장도 위의 사실을 확인하였다.

김 국장에 의하면 노후된 현 시설을 수리하여 성능을 고조시키는 외에 악화될 전기사정을 완화시킬 방도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하였다.

한편 제주시의 전기사정을 현지조사하기 위해서 상공부 전기국 건설과의 孫基浩(손기호) 기사와 남전측 기술관이 1일 항공편 입도하여 기술검토를 가하고 있는데 동 조사가 끝나는 대로 현 시설의 수리는 곧 착수될 것이라 한다.

現存發電機를修理

事前調査次中央서두技術者入道

金産業局長歸任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61. 4. 5.

발전기 보수는 가능
전력대책 좌담회서 우선 절전하자고

극도로 악화된 제주시 전력사정의 완화책을 모색키 위해 3일 하오 5시부터 시에서 열린 좌담회서는 전력절약, 도전방지, 현 발전기의 조속한 보수를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상공부 전기국 孫喜虎(손희호) 씨, 남전 朴棟植(박동식) 씨의 來道(내도)를 계기로 열린 시의 전기문제를 해소키 위한 동 좌담회에는 도와 시, 남전 등 관계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는데 먼저 상공부 당국자로부터 市(시) 소재 발전기를 수리키 위해 외화 12만弗(불)로 부속품을 도입 중에 있으며 전력 수요량 600kW 중 부족한 200kW는 절전과 도전 방지에서 해결하자고 제의하고 전력대책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망하였다.

이어 남전 당국자는 電力(전력)의 근본적 해결은 화력발전 또는 「디젤」발전기의 도입에 있다고 강조하고 남전은 막대한 결손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을 밝혔다.

그런데 이날 모색된 전력완화책은 우선 절전과 아울러 도전을 방지하고 촉광은 30W로 줄이도록 하는데 합의를 보고 1,200kW 발전기 도입은 계속 추진키로 하였다.

發電機補修는可能
電力對策座談會서
于先節電하자고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61. 4. 5.

秒速(초속) 18米(미) 전도 휩쓰는 폭풍
낙뢰로 초가 타고(강정) 정전, 전화불통도 속출(시내)

3일 밤부터 휘모라 친 풍속 18미터의 풍으로 말미아마 4개 시내 특선송전이 중단되고 전신줄이 끊어져 10여개소의 전화가 불통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데 4일 15시 현재 밝혀진 피해 상황을 보면 이날 애월면 수산리와 납읍리에서 화재가 발생 초가 3, 4間(간)과 가구, 의류 등 시가 100여만원 상당이 燒失(소실)하였고 남군 중문면 강정리 고봉만씨(70) 家屋上(가옥상)에 벼락이 떨어져 옥상 일부가 소실 시가 약 3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이외에도 선박, 농작물, 방파제, 가옥 등에도 많은 피해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아직 밝혀지고 있지 않다.

경찰에서는 중요시설의 예방을 위해 완전 경비상태를 갖추고 있으며 소방대에서도 화재 발생시 긴급출동을 위해 전원 대기상태에 있다.

제주측우소에 의하면 3일 21시를 기해 전도에 걸쳐 폭풍경보와 화재경보가 발해지고 있으며 4일 5시 현재의 풍속은 18미터로부터 19미터까지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런 상태는 5일 상오까지 지속되고 하오부터는 점차적으로 가라앉을 것이라고 예보하고 있다.

한편 남전에서는 시내의 송전에 있어서 바람이 개이는 즉시 보내겠다고 말할 뿐 송전시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다.

秒速18米 全道휩쓰는暴風
落雷로草家타고
(市內停電、電話不通도續出)
江汀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61. 4. 16.

사흘에 221건 적발
전력 합동 取締(취체) 전개 중

軍(군), 警(경), 官(관), 南電(남전)의 합동 전력단속반에서는 제1차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各(각) 전력수용가를 조사한 바 221건의 촉광위반 등을 적발하고 계약촉광대로 사용토록 촉구하였다 한다.

同(동) 전력단속반의 활동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전력사정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市 전력대책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취해진 것이라 하며 同(동) 조사에서는 전기의 무단가설 즉 도전행위도 함께 취체하였다 한다.

그리고 同(동) 단속반은 오는 17, 18 양일간에도 지속 취체할 것이라 하며 남전 당국은 이 기회에 계약촉광인 30W 기준으로 일절 촉광을 줄여 절전운동에 협조해 달라고 요망하였다.

사흘에二百21件摘發
電力合同取締展開中
街路燈電燈
30W로 交替
南部證光地區
覽코 即日離道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61. 5. 14.

줄여진 정전시간
오늘밤부터 일반선은 한 시간씩만 단전, 절전으로 전력사정 호전

악화일로를 걷고 있던 제주시의 전력사정은 시 전력대책위에서 추진 중에 있는 절전운동과 지난 11일부터 활동 중인 군경, 남전의 합동 전력단속반에 의해 촉광위반, 도전 등을 적발함으로서 일부 완화되어 23일부터 일반선과 상시선의 송전제한이 대폭 완화케 되었다 한다. 22일 남전에 의하면 격일 송전되는 일반선은 매일 밤 11시까지 송전하되 1시간씩만 단전하고 상시선은 4일간에 5시간(3일은 1시간씩 1일은 2시간)제한 송전키로 되었다 한다.

남전 梁(양) 영업소장은 이번의 송전제한 완화는 절전운동에서 약 40㎾의 부하량이 줄어져서 당분간 시험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시민들이 앞으로 더욱 절전에 협조한다면 전기사정은 삽시에 호전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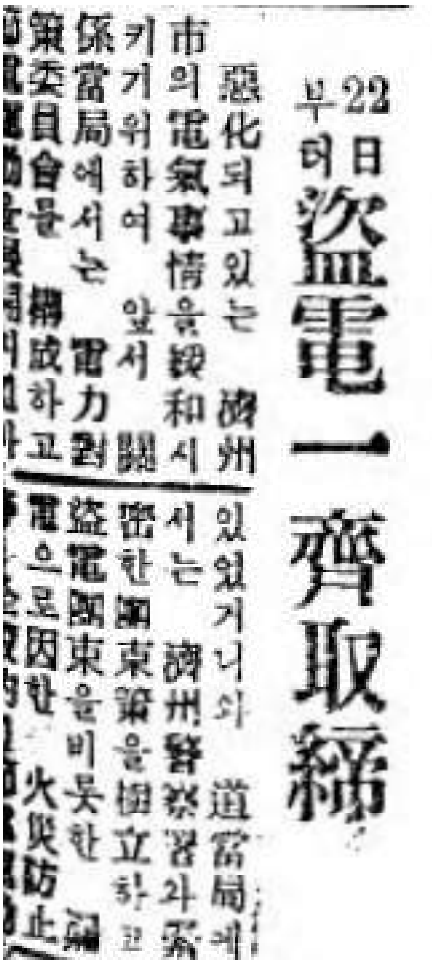
줄여진停電時間
오늘밤부터一般線은한時間씩단斷電
節電으로電力事情好轉
續開道
千四百石申請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61. 5. 23.

22일부터 도전 일제단속

악화되고 있는 제주시의 전기사정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앞서 관계당국에서는 전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절전운동을 전개시킨 바 있었거니와 도 당국에서는 제주경찰서와 긴밀한 단속책을 수립하고 도전 단속을 비롯한 누전으로 인한 화재방지 등 전반적인 절전운동을 전개한다고 한다.


부22日터 次盜電一齊取締

惡化되고있는 濟州市의電氣事情을緩和시키기위하여 앞서 關係當局에서는 電力對策委員會를 構成하고 있었거니와 道當局에서는 濟州警察署와 緊密한 連絡을 取하고 盜電團束을 비롯한 電으로因한 火災防止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61. 9. 21.

전기회사 숙직실도 털어
라디오와 금고

추석을 앞두고 각종 범죄 단속에 주력하고 있는 수사진을 비웃는 듯 시내 각 처에 좀도둑이 거의 매일같이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을 불안케 하는 한편 수사진을 신경질적으로 긴장시키고 있는데 이번은 세 사람이나 숙직하는 전기회사 숙직실에 침입한 도둑이 금고와 라디오를 훔쳐간 사건이 발생하였다.

20일 새벽 2시경 시내 일도 1동 소재 한국전력회사 제주영업소의 숙직실(申(신)○○ 씨 외 2명의 사원이 숙직 중)에 침입한 도둑은 현금은 들지 않았으나 서류가 들어 있는 소형금고 1대와 라디오 1대(시가 7만圜(환) 상당)를 절취해 갔다고 한다.

신고에 접한 경찰에서는 즉시 형사를 동원하여 범인을 嚴探(엄탐) 중에 있는데 평소 이 일대에 좀도둑이 자주 출몰하는 것으로 미루어 동일한 범인의 소행으로 보아 범인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秋夕앞뒤날 뛰는좀도둑
電氣會社宿直室도털어
每日曜日은 淸掃日로
公務員冬服착용은이렇게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61. 11. 22.

절전, 저축을 熟議(숙의)
생활합리화 실무자회의

재건국민운동 도 지부 주최로 생활합리화 실무자회의를 21일 상오 10시 同(동) 지부 회의실에서 개최, 월동전력의 절전문제와 저축장려운동 문제 등에 대한 진지한 토의를 행하였다. 두 번째로 열린 이날의 실무자 회의석상에는 도청 각 과의 실무자, 농사원장, 시내은행 지점장, 중소기업 지점장, 當地(당지) 전력출장소장, 우체국장, 시 촉진회 상임간사, 그리고 제주신보사 편집국장 등이 참석하였다.

金東圭(김동규) 道(도) 지부차장의 인사에 뒤이어 열린 이날의 협의 안건으로서는 절전문제 토의에 들어가서 當地(당지) 전력영업소 측에서 월동 전력의 자체 계획을 피력, 94년(서기 61년) 12월 1일부터 95년(서기 62년) 3월 말까지 도전 단속 기간을 설정 도전자 취체의 강화를 기함으로서 수요자의 불편을 제거하기 진력하기로 하였으며 전력남용을 삼가하도록 계몽을 전개하는 한편 정액요금 전등수용가에서는 30W 이상을 사용치 않도록 하고 앞으로도 30W 이상의 사용요금만 징수하겠다는 방침을 말하였다.

그리고 계량기가 가설되어 있는 수요자 측에서는 사용요금을 내면 족하다 생각하고 있으나 계약 기본등수를 초과하면 위반이 된다고 지적하는 한편, 1호당 3등 이상 사용하는 수요자에게는 계량기 가설을 권장토록 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저축장려운동의 전개에 대해서는 본 도에 할당된 목표액이 2억8천6백만圜(환)이라고 도 지부 측에서 설명되었으며 그 종목별에 대한 직장단체별과 저축액수가 알려졌으며 저축장려에 박차를 가하도록 당부되었다.

節電·貯蓄을 熟議
生活合理化實務者會議
不正林産物 徹底化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61. 12. 21.

『切干(절간)』 16년 만에 찾은 연고
『酒工(주공)』 도내 경제힘 의지

60미터 굴뚝에서 솟는 연기, 총 量(량) 180만貫(관) 여섯 달간 조업

주정공장에서는 18일 주정공장에 필요한 粕取機(박취기)를 도입 시설함으로서 본도산 절간 고구마를 원료로 하는 조업을 16년 만에 착수, 60미터 높이의 굴뚝에서 석탄 연기를 뿜기 시작했다.

월 평균 3천석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주정공장에서는 그동안 외국산 당밀로써 주정을 제조해 왔던 것인데 외화를 절약하고 국민소득을 높여 국가경제 재건을 위한 혁명정부의 적극적인 시책으로 금년도부터 절간고구마로 대체케 된 것이다. 그런데 본도 산업면에서 볼 때 수년來(내) 과잉생산되는 고구마는 판로가 트이지 않았던 것이며 전분 원료로써 공여하는데도 생산비 이하의 염가로 판매되어 농촌경제에 결정적인 타격이 가해졌던 것이다.

본도에서 굴지의 기업체인 주공은 전력만도 1,400㎾를 출력할 수 있으며 일일소요량은 약 3백㎾가 될 것이라 한다.

그리고 하루 평균 1만貫(관) 이상의 절간을 소화할 수 있는 가동능력은 본도 절간 총 생산예정량 180만貫(관)으로서는 6개월 조업분량도 채 못 되는 것이라고 酒工(주공) 측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부족량에 대한 원료 확보문제는 추후 국가방침으로써 결정될 것이다.

주 신 보 61. 12. 21(二十一)
切干 16年만에 찾은 緣故 酒工
濟民經濟 향상
60미터 굴뚝에서 솟는 煙氣
總量百80萬貫 여섯달間操業
目標의 半量超過
助長
虛飾등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61. 12. 22.

自力(자력) 개발 톱 뉴스 외도서 물방아 발전 성공
어둡던 마을 오랜 염원, 켜진 전기불 100등
극히 간단한 발전기 2.5㎾돌려

시내에서 5㎞ 떨어진 외도동에서는 동민들이 자체적 노력으로 마을의 중허리를 뚫고 흐르는 하천수를 이용하여 전등불을 키는 데 성공함으로써 암흑촌의 서름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同(동) 水源(수원)이면 앞으로 20㎾의 발전기 시설이 가능하여 인접 부락 2, 3개리에도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자립생활』 제일의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외도동은 시 중심지와는 근거리에 위치하면서도 전력사정이 여의치 못함으로 해서 송전이 未及(미급)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서름에 잠긴 동민들은 前記(전기)한 외도천의 이용가치면에 착안 오래 전부터 백방으로 서둘러 왔으나 기술부족 등으로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 차, 얼마 전 동 외도지서 주임으로 착임한 李(이)행봉氏(씨)가 전기기술자를 초빙 현지답사의 주선을 하기에 이른 데서 성공의 길이 트이였다.

발전기 시설은 이미 同(동)洞(동) 중심을 흐르는 외도천 하류 『所謂(소위) 월대 부근』에 시설되어 있는 물방아를 『타빙』으로 활용한 극히 간단한 2.5㎾의 발전기 시설로 100등을 켜기에 이르렀는데 지난 17일 준공과 함께 이 동리에는 개벽 이후 첫 번으로 전등불의 혜택을 입기에 이르렀으며 年來(연래)의 소망을 이룩한 동민들은 단순히 기쁘다기보다는 자기 집안에서 시초로 전구를 매만져보는 神奇(신기)감에 잠기고 있다. 발전기와 그 시설공사는 시내 문화 라디오상회 高斗千(고두천) 씨가 출자하여 완성시켰는데 고씨에 의하면 외도천 수력의 낙차도는 현재 1.78미터에 불과하여 2키로 5백와트의 발전기를 시설했는데 앞으로 3미터 이상의 落度(낙도) 조성이 가능하며 그렇게 되면 20㎾의 발전기 시설이 가능하여 동 발전량이면 700 내지 1,000등 송전은 무난하다. 그런데 21일 현지에 찾아간 기자에게 한 동민은 뜨거운 악수를 청하며 전기불이라곤 켜보지 못하고 죽는 줄만 알았는데 꿈만 같은 일입니다고 몹시 감격하고 있었다. 한편 외도동에서는 우선 전 부락민이 킬 수 있는 발전량 10㎾의 발전기 가설을 위한 운동을 서둘고 있다는데 화력과는 달리 이 발전은 가설비 4, 50만圜(환)이 있으면 족하다는 것이다.

제주신문
1961. 12. 22.

61.12.22

自力開發의 一環

外都서 불밝이 發電成功

켜진電氣불百燈

極히簡單한發電機돌려

어둠만다을 오렌金圓…

마땅히整理돼

金知事 措置方針을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62. 1. 16.

無電燈(무전등) 지대(7개 읍면)를 일소
표선, 성산에 발전소 市(시)를 보강코 한경까지 연장 송전 한국전력 출장소서 成案(성안) 도내 전기 분포 현황과 증설 계획도

도내 미점화 지구 7개 읍면을 낀 방대한 자체 발전계획이 한국전력 제주출장소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있다. 제주시내의 중요간선 도로의 확장계획과 도로포장 그리고 한라산 횡단도로의 연내 포장 그 밖의 고층건물의 증가 등 발전상은 나날에 더욱 촉망을 걸고 있는데 개발분야 가운데 전력개발 계획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전력 제주출장소에서는 전혀 전기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애월, 남원, 구좌, 표선, 성산, 조천, 한경 등 7개 면에 2개소의 발전소 시설과 일부발전 시설 지구의 개편으로 도내 전 지역에 송전하려는 계획을 수립 작년 년말 한국전력 본사에 추달하고 있음이 한국전력 제주출장소장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동 계획에 의하면 현 미점화지구 翰京(한경)을 제외한 조천, 구좌, 표선, 성산, 남원면지구의 중심지 표선면 세화리와 성산면 성산리에 각각 100㎾ 출력 발전기 1대씩을 가설하고 한편으로는 한림에 있는 발전기를 제주시로 이설 제주시 발전력을 증가함으로써 서부 미송전구역인 한경면까지도 배전로선을 연장하여 미점화지역의 일소를 이룩하려는 데 있다. 15일 梁(양) 한국전력 출장소장은 정부의 5개년 경제개발계획과 함께 전원개발 문제가 높이 평가되고 있으니 만치 도민이 욕구하는 본도 전원증가 문제도 조만간 극히 희망적인 전망을 말하였다.

그런데 도내 현 발전상황은 제주시 750㎾(250㎾ 3대), 한림 165㎾(100㎾ 1대, 65㎾ 1대), 모슬포 100㎾(1대), 서귀 265㎾(화력 100㎾ 1대, 수력 165㎾)

제주신문
1962. 1. 16.

開發懸案또한가지

無電燈地帶七個面을一掃

表善·城山에發電所

韓國電力出張所서成案

市를補強코漢京까지延長送電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62. 1. 17.

아주 좋아진 전력사정
절전 · 도전 일소로 신등 가설도 쾌조

한때 전원부족으로 극도로 악화되었던 시내 전력사정은 요즈음 눈에 뜨이리 만치 호전되어 신규전등 가설 등 시민의 수요에 응하면서 앞으로도 7~8백등의 증설이 가능한 실정이다.

京城(경성), 朝鮮(조선), 南電(남전) 삼사의 통합의 단행과 5·16 이후의 운영의 건실성 그리고 수요층의 절전과 도전 일소에 힘입고 있는데 한국전력 본도 영업소 측에 의하면 현재 시내 송전등수는 17,000, 이는 5·16 前(전)의 15,700에 비하면 1,300등이나 분 것이다.

현재 제주발전소에서는 종래 250㎾ 2대만이 가동했었지만 이제 보수비 영달의 원활로 3대를 모두 발전하고 있으며 작년 10월부터는 현지 수배해 온 유류를 상공부에서 직배 받음으로서 월 수요량 400드럼에 무려 200여만圜(환)의 절약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 한다. 국책에 수반한 형광등 보급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계량기 사용보급으로 절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데 지난 년말까지에 신규 보급한 형광등을 포함하면 7,300등을 넘겨 전체 수요등의 절반선에 이르고 있는바 앞으로 전량을 대체할 계획이라 한다. 특히 산업개발에 공헌을 위하여 중소기업체의 동력운영에 최대의 편의를 제공할 방침임으로 당장에도 200마력 내지 300마력 공급이 가능하다 한다.

아주좋아진電力事情

節電•盜電一掃로新燈架設도快調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62. 1. 17.

형광등으로 대체
포장된 노선의 가로등

시 당국에서는 이달 내로 東埠頭(동부두)-漢川橋(한천교) 간 약 2,300m와 남문통 입구로부터 제주농고 정문 간 약 1,000m의 가로에 형광등으로 가로등을 바꿀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金(김) 시장은 16일 포장된 시내 중요 간선도로에 가로등 시설의 완비는 급선무라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前記(전기) 도로변의 가로등을 형광등으로 대체케 됨에 따라 철거되는 동 가로등 시설은 가로등이 설치 안 되고 있는 딴 곳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므로 殆半(태반)의 시내 도로변에는 가로등이 설치되는 셈이라고 당국자는 말하고 있다. 그런데 16일 현재 형광등에 의한 가로등 설치에 소요되는 공사비의 규모는 밝혀져 있지 않으나 금명간에 공사계획이 들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螢光燈으로代替
鋪裝된路線의街路燈

市當局에서는 이달내에 街路燈施設의完備는
로 東埠頭-漢川橋間 約 急先務라고 무速한 時
二千三百米와 南門通入 日內에 施工하겠다는뜻
口로부터 西州農高正門 을 밝혔다
間 約一千米의 街路에 前記道路邊의 街路燈
형光燈으로 街路燈을 바 을 형光燈으로代체케함
꿀계획을 推進中에있다 에따라 撤去되는同街路
金市長은 十六日 로 燈施設은 街路燈이設置
장된 市內重要幹線道路 안되고있는 바 그것으로
情 움겨지게될것이므로殆半
短架設도快調 의 市內道路邊에는 街
國策에順件한 형光燈보 路燈이設置되는세미이라
급運動을大大的으로展開 고 當局者는말하고있다
하는 한便計量기使用보 그런데 十六日現在해
급으로 節電에큰 도움 光燈에依한 街路燈設置
을주고있다는데 지난年 에所要되는 工事費의規
末까지에新規보及한 模는 밝혀져있지않으나
今明間에工事計획이들어
날것으로보여지고있다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62. 1. 19.

발전기 4월에 도착
단수 괴롬 없앨 상수도 자가발전

전력제공 측의 예고 없는 단전사고와 매월마다 제1, 제3 일요일에 송전이 중단됨에 따라 시내 상수도의 단수 소동이 야기되는 사례가 발생되는 바람에 수요자 측인 시민들에게 큰 불만이 되어 왔거니와 그동안 시 당국서 추진 중이던 자가발전시설 디젤엔진(150마력)이 늦어도 오는 4월경에는 도입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고 있어 동 시설이 완비되는 날에는 양수 관계로 해서 상수도의 단수 사고는 없어지게 마련이다.

수 일전 來道(내도)하고 현지 시찰 중에 있는『유솜』의 수도과장에 의하여 위와 같은 소식이 전하여 졌거니와 4월경에 입하될 同(동) 엔진의 시설에 약 2개월이 소요됨으로 늦어도 오는 5월 말 내로는 자가발전시설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 기대되고 있다.

시 당국의 62 新年度(신년도) 예산에는 그 시설비에 500만圜(환)이 계상되고 있다.

發電機 四月에 到着
斷水괴롬없앨上水道自家發電
策定
張地域
末內撤去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62. 1. 24.

가로등 다 고친다
鋪裝路(포장노)선 형광등 대체와 함께

시 당국은 포장된 시내 간선도로의 가로등을 일제히 형광등으로 대체시킬 계획을 수립한 바 있었거니와 그와 동시에 시내 56개소의 일반전등의 가로등 보수공사도 함께 시공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존 가로등 시설은 자재의 품질이 나빠서 자주 고장이 나는 한편 수명이 짧았다고 지적한 시 당국자는 이번의 보수공사의 결과는 가로등 시설의 충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시 당국은 재정형편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로등이 필요한 곳에는 점차적으로 완비시켜 나갈 방침도 같이 밝혔다.

街路燈다 고친다
鋪裝路線을 形光燈과 함께

62.1.24

降雪은 二回

抱主에 제출
沒十月末刑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62. 3. 26.

제주의 자원 (電源開發(전원개발))

화력에 의존 불가피, 「御乘生(어승생)」 수력 이용은 숙제 그대로, 산업진흥에 병행 필요

모든 산업진흥에 원동력이 되고 있는 전원개발은 본도의 경우 어느 분야보다도 중요시되고 있는 자원개발의 하나다.

근대산업의 기계화로 인한 발달은 전력이 그 원동력이 되어 있는 사실은 물론이겠지만 현대인의 문화적 생활이 전력에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은 오늘의 전업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공헌하고 있는 가를 짐작케 하는 것이다.

본도의 전력사정을 살펴보면 650㎾ 출력의 제주발전소를 위주로 서귀, 모슬포, 한림 등 4개 발전소의 출력을 다 합해서 1,300㎾ 정도이며 65㎾의 서귀 수력발전을 제외하고는 모두 화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빈약한 전력사정은 실수요의 80%가 등화용으로 충당되고 그 나머지가 산업용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그것도 발전소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 이외의 농촌은 전연 전기의 혜택을 못 입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전력 제주출장소 당국자는 각종 공장 등의 현 산업설비만도 1,000㎾가 더 소요된다는 것이고 등화용만 하더라도 평균 1인당 10W를 소요한다 해도 도민 28만이면 2,800㎾의 발전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나 지리적인 특수성과 가장 중요한 전원이 되는 수력을 본도로서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화력에 의한 要路(요로) 당국의 발전소 설치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인데 본도 실정에 맞는 특수산업 등을 개발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傾向(경향)을 떠나 분산개발이 긴요한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전력에 대한 안정책은 이렇듯 시민 생활과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절전운동을 통해서 골고루 혜택을 입도록 관계 당국은 부심한 바 있는데 5·16혁명 이후 南鮮(남선), 朝鮮(조선), 京城(경성)의 3개 전업이 『한국전력』의 하나의 간판으로 통합되고부터는 일반 수요자들도 절전책에 협조하게 되므로서 당국의 골치꺼리었던 도전 경향이 많이 감소되었으며 따라서 과거 윤번제로 송전 제한하던 것을 시정하기에 이르렀고 화력발전의 원료인 경유를 전에는 민수에 의존하던 것을 시정하여 관수(상공부)로 전환함에 따라 오늘의 전기사정은 많이 나아진 것은 사실이겠으나 前記(전기)한 바 본도 수요량을 충족시키기에는 요원한 실정이고 화력발전소 1개소 설치에 약 10억원이 소요된다는 전문가의 견해에 비추어 그 증설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관측된다.

본도의 전원개발을 위한 현안은 오래전 일제 때부터 시도해온 것으로서 수력발전을 전제로 하는 水源(수원) 발견을 위한 전문가들의 노력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1943년에 남전이 전남지사에게 허가 신청 바 있고 또 해방 후 柳海辰(유해진) 지사 당시 도 당국에 의해 계획 추진된 바 있는 어승생 수력 사용 발전계획이 그것인데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계의 전문가들이 그 가능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현지를 답사한 바 있으나 수력의 부족해서 실현을 못 보아 온 것이다.

어승생이란 市(시) 海安洞(해안동) 소재 어승생岳(악)의 南谷(남곡) 都近川(도근천) 水系(수계) 상류폭포(속칭 어리목)을 막아 水路(수로)를 끌고 570여m의 철관으로 導水(도수)한 다음 상시 200m의 낙차를 마련하여 최대 600㎾, 평균 300㎾, 상시 50㎾의 발전을 꾀한다는 것이 일제 때의 계획이었다. 그

제주신문
1962. 3. 26.

러나 61년도에 동 현안을 검토하기 위해 현지를 탐사한 바 있는 관계 전문가에 의해서 제주도는 지질관계로 水源(수원)이 분산될 뿐더러 수량보존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본도에서의 수력 전원 개발은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만일 그러한 지질관계만 없었던들 어승생의 수력 전원개발은 언젠가는 실현화되어 市(시) 發展(발전)에 적지 않은 공헌을 했을 것이라는 공론이고 보니 수력에 의존한 본도의 전원개발은 하나의 숙제로서 남게 마련이다.

濟州의 門戶

火力에 依存不可避

【御乘生】水力利用은 實現그대로

産業振興에 併行必要

△해당 기사 사진

제주신문
1962. 5. 14.

부산배에서 체포
한전 창고 턴 일당 중 세 명

12일 하오 제주서 형사대는 지난 8일로부터 11일 於間(어간)에 서부두의 한전 영업소 창고내 부속품 절도범 일당 4명 중 3명을 濟釜(제부)간 정기선 평택호 선상에서 검거하는 한편 부산으로 밀반출하려던 盜藏物(도장물) 포 金(금) 24개와 銅線(동선) 60貫(관) 등(시가 90여만圜(환)어치)를 몰수하고 미검거 공범 1명을 지명 수배 중에 있다.

13일 濟州署(제주서) 에서는 前記(전기) 절도 사건의 범인 김○○(가명 34, 건입동)을 비롯하여 건입동에서 고물상을 경영하는 박○○(가명 28), 동 권○○(가명 40) 등 3명에 대하여 절도 및 장물취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미검거 중인 공범 김某(모)(21)를 지명수배하고 있다.

釜山배에서逮捕
韓電倉庫털一味中세名

△해당 기사 사진